

발 간 사

군사편찬연구소장 **하 재 평**

지금도 세계는 70개국 이상의 많은 국가들이 분쟁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사회·종교·인종상의 다원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이며 새로운 문제들이 불안정한 정치의 연속선상에서 심화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국가간에 빚어지는 갈등과 이해의 대립은 현대전의 양상을 첨예한 경쟁 속으로 유인하면서 첨단무기체계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군사력의 강화를 국가의 필수적인 지배요소로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클라우제비치가 말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전쟁은 절체절명의 극한적인 상황으로써 살아남기 위한 혹은 승리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최대한 발휘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영웅의 출현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6·25전쟁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발한 전쟁이었고, 수많은 전쟁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불의의 기습에도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적의 기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상황판단으로 호기를 포착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긴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진에 침투하여 적의 공격방향을 전환시키고, 백병전을 진두지휘한 중대장도 있었으며, 특공대에 자원하여 폭탄을 안고 적 전차에 뛰어드는가 하면 이중삼중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전우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생

명을 초개와 같이 던져 적의 공격을 막아낸 이름 없는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민한 상륙작전과 기습침투를 통해 적의 주력을 분산시킨 병사가 있는가 하면, 공중작전에서 목표물을 폭격하던 중 기체가 피탄되자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장렬하게 산화한 진정한 영웅도 있었습니다.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의 발간은 전쟁의 참상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교훈과 진실을 일깨워줌으로써 장차 국가주역으로서의 안보의식을 보다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당시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거나 혹은 전 장병의 귀감이 되는 희생적인 행위를 수행하였으며 그리고 전술·전략적으로 전사에 기릴만한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국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드높인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60인의 활약상을 담았습니다.

3년여에 걸친 전쟁기간 동안 이들 외에도 적지 않은 용사들이 조국을 위해 숨져갔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태극무공훈장에 버금가는 뛰어난 전공을 세운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60인이 6·25전쟁 영웅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들의 영웅적인 행위를 구명하는 것 또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역사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전쟁영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발간했습니다만, 이들 외에도 다른 수훈자들의 전공과 업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편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발간이 6·25전쟁 연구, 특히 전례나 전쟁인물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지휘통솔의 전쟁구심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필독서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쟁영웅들의 희생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소명인 전쟁억제 노력으로 되살려져 영원히 살아 숨쉬길 기대합니다.

일러두기

1.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의 발간은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쟁 당시 국난극복에 앞장 선 호국용사들의 활약상을 선양하여 국민의 상무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2.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의 수록대상은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한 국군 중 부대의 승패에 좌우하는 결정적인 무훈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선양할만한 전공(戰功)을 세움으로써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이다. 단, 이들 중 이적(利敵) 및 반민족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지탄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였다.
3. 수록대상자 선정은 유관기관의 선행연구(편찬)에 대한 사례분석과 ‘군사자문단’이 제기한 제반 요인을 고려하였다.
 - 가. 선행연구(편찬)의 분석은 국방부 정훈국,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전쟁기념사업회, 민간연구자의 유관 연구 및 편찬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실전 수행 등 경험적 요인은 각 군 원로 및 전문 연구자로 구성된 당 연구소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나. 사례분석 및 자문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려요인은 대상자의 생몰여부, 무공수훈자의 위상 및 가치, 고위 지휘관의 전투수

행 여부 및 전공의 중요도, 군 및 계급간의 균형유지 등이었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선정기준의 근거가 되었다.

4. 기술내용 및 방법

가. 수록순서는 전쟁의 경과와 시기에 따른 여섯 단계, 즉 북한군의 기습남침, 국군의 지연전 및 낙동강 방어작전, 반격 및 북진작전, 중공군 개입 및 재반격, 휴전회담과 제한전, 전선의 교착과 고지쟁탈전으로 구분한 후 전투일자 순서로 나열하였으며, 군별로는 육군, 해군 및 해병, 그리고 공군의 순서로 하였다.

나. 대상자를 대표하는 전투 또는 작전명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게 된 유공 전투의 선정에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공 전투가 단일 전투가 아닌 경우에는 전술·전략적으로 의미가 중대하거나 또는 탁월한 전투역량을 발휘한 전투 및 작전을 선정하였다.

예) 김만술 육군대위 → 연천 베티고지 전투

백선엽 육군대장 → 다부동 전투

다. 목차에 기술된 계급은 수훈 시점의 계급이 아닌 전역 시점의 최종계급을 사용하였으며, 전사자의 경우도 추서된 계급을 적용하였다. 단, 이명수 이등상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라. 본문에 기술된 계급은 당시의 계급을 그대로 기술하고, 현재의 계급을 ()안에 명기하였다. 예를 들면, 정일권 정위(대

위), 임부택 참위(소위) 등이다. 그러나 1946년 12월 1일(계급 호칭에 대한 조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행 계급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출신의 표기에 있어 육군사관학교는 1948년 9월 5일(교명 개칭) 이전의 상황에서는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나 조선경비사관학교 또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명기하였다.

마. 수록내용과 방법은 각 대상자의 활동을 6·25전쟁기간을 중심으로 한 전전(戰前)과 전후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활동을 기술하였다. 전전의 기간에서는 대상자의 성장 및 입대배경, 건군 초기의 주요 활동내용을, 전쟁기간은 주요 전투활동과 전공(戰功)내용을, 그리고 전후기간은 휴전 이후 주요 군 경력 및 사회적 역할, 대상자의 간략한 인물평을 기술하였다.

바. 대상자의 이력이나 공적관련 부분은 각 대상자의 공적조사서, 장교자력표 또는 병적기록표, 전투상보 등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성장배경 및 인물 단평과 같은 이면의 내용은 ‘참고 및 인용문헌’에 명기된 회고록이나 자서전, 언론 보도내용, 관련자 증언 등을 활용하였다.

사. 수록된 용어 중 “6·25전쟁”이나 “북한군” 등과 같이 사용상의 혼동이나 이견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국방부의 표기방식 또는 기술상의 관례를 따랐다. 단, “중국군”은 전쟁사의 맥락에 맞추기 위해 “중공군”으로 기술하였다.

6.25전쟁 영웅

목 차

□ 발 간 사 / 1

□ 일러두기 / 3

1

북한군의 기습납침 : 1950. 6. 25~1950. 7. 4

춘천·홍천지구전투 육군소장 임부택 / 13

춘천지구전투 육군소령 심 일 / 22

강릉지구전투 육군소장 이성가 / 30

창동지구방어전투 육군준장 함준호 / 38

미아리지구방어전투 육군중장 이응준 / 44

한강지구방어전투 육군중장 김홍일 / 50

대한해협전투 해군중장 손원일 / 59

대한해협전투 해병소장 최용남 / 65

수도권방어작전 공군준장 이근석 / 72

2

지연전 및 낙동강 방어작전 : 1950. 7. 5~1950. 9. 14

음성 동락리전투	육군준장	김용배	/ 83
문경 이화령전투	육군중장	함병선	/ 92
영덕지구전투	육군중장	이준식	/ 99
영덕지구전투	육군일등상사	이명수	/ 106
안동지구전투	육군대위	허봉익	/ 114
기계 비학산전투	육군일등병	홍재근	/ 118
기계 비학산전투	육군일등병	김용식	/ 124
안강·포항지구전투	육군중장	김백일	/ 130
다부동전투	육군대장	백선엽	/ 138
영천지구전투	육군중장	유재홍	/ 148
영천지구전투	육군대장	김용배	/ 161
안강·기계지구전투	육군대장	임충식	/ 168
통영만상륙작전	해병중장	김성은	/ 176
후방차단작전	공군중장	장덕창	/ 183

3

반격 및 북진작전 : 1950. 9. 15~1950. 11. 24

평양탈환작전	육군준장	조재미	/ 191
개천 비호산전투	육군일등병	김옥상	/ 198
태천지구전투	육군중장	김동빈	/ 203
경인지구전투	해병중장	신현준	/ 212

4

중공군 개입 및 재반격 : 1950. 11. 25~1951. 7. 9

가평·춘천지구전투	육군대장	민기식	/ 223
가평지구전투	육군준장	권동찬	/ 231
일월산지구전투	육군준장	박노규	/ 236
신백제지구전투	육군중장	강문봉	/ 242
임진지구전투	육군소장	김점곤	/ 251
용문산지구전투	육군중장	장도영	/ 261
대관령방어전투	육군대장	한 신	/ 270
고대산지구전투	육군중장	최 석	/ 279

5

휴전회담과 제한전 : 1951. 7. 10~1952. 12. 31

281고지전투	육군중장	박병권	/ 289
금성 A, B고지전투	육군중장	백인엽	/ 295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전투	육군소장	이용문	/ 302
351고지전투	육군대장	이형근	/ 312
백마고지전투	육군대장	김종오	/ 319
백마고지전투	육군중령	김경진	/ 329
저격능선전투	육군대장	정일권	/ 336
351고지전투	육군중장	김종갑	/ 347
지리산공비토벌작전	공군중장	김정렬	/ 354
근접항공지원작전	공군중장	최용덕	/ 360

6

전선의 교착과 고지쟁탈전 : 1953. 1. 1~1953. 7. 27

금성 셋별고지전투	육군이등상사	백재덕	/ 371
M1고지전투	육군소장	송석하	/ 376
북진능선전투	육군중장	이한림	/ 382
금성 동남지구전투	육군중장	송요찬	/ 390
529고지전투	육군소장	임선하	/ 399
양구 비석고지전투	육군이등상사	최득수	/ 406
281고지전투	육군소장	김웅수	/ 412
금성 서남지구전투	육군중장	최창언	/ 418
김화 407고지전투	육군일등중사	안낙규	/ 425
교암산 '가'고지전투	육군대위	김교수	/ 432
연천 배티고지전투	육군대위	김만술	/ 439
351고지전투	육군중장	최영희	/ 446
화천 425고지전투	육군대위	김한준	/ 455
서남해안봉쇄작전	해군중장	박옥규	/ 462
연천 사천강전투	해병중장	김석범	/ 466

□ 참고 및 인용문헌 / 473

□ 찾아보기 / 478

1

북한군의 기습남침

1950. 6. 25~1950. 7. 4





林 富 澤 육군소장



- /// 1919. 9 전남 나주 출생
- /// 1946. 6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8. 8 육군본부 작전국 작전과장
- /// 1949. 6 제7연대 부연대장
- /// 1949. 12 제6사단 7연대장
- /// 1951. 4 제6사단 부사단장
- /// 1951. 7 육군보병학교 부교장
- /// 1951. 11 제5사단 부사단장
- /// 1952. 8 제11사단장 및 육군준장
- /// 1954. 5 육군소장
- /// 1954. 10 국방부 제1국장
- /// 1955. 11 육군본부 병참감
- /// 1956. 6 연합참모본부 국장
- /// 1957. 8 제1군사령부 참모장
- /// 1959. 7 제2관구사령관
- /// 1960. 10 제1군단장
- /// 1962. 3 전역
- /// 2001. 11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6·25전쟁 초기 최일선 전방을 담당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 7연대는 춘천에서의 성공적인 방어전을 수행한 후 음성 동락리전투에서 적 1개 연대를 섬멸하는 대 전과를 거두어 계속된 패전과 후퇴로 심신이 지쳐있던 국군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전공으로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제11사단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54년 6월 28일에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82호)을 수여받았다.



제11사단장 임부택 준장의 은성태극무공훈장 공적심의의결서
(원본소장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19년 9월 24일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생한 임부택 장군은 1938년 2월 2일 칙령 제95호로 공포되고 4월 3일자로 시행된 ‘육군지원병령’에 따라 일본군에 지원입대, 태릉의 지원병훈련소에서 교관으로 군사교육을 담당하였다. 조국의 광복과 함께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가 개설되자 그는 채병덕 장군의 추천으로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고, 제1연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하사관 요원으로 선발되어 110001이라는 사병군번 1번을 받고 제1연대 제1중대 선임하사관으로 연대편성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1946년 5월 국방경비사관학교의 창설과 함께 제1기생으로 입교하여 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6월 15일 군번 10117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 제1연대 1중대 소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1948년 5월 제주지구전투사령부의 제1대대장으로 토벌에 참가한 그는 다음해 5월 제7연대가 ‘강태무·표무원 월북사건’에 따른 제8연대의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춘천으로 이동할 무렵 제7연대의 부연대장으로 보임되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1950년 1월 연대장으로 승진하여 38도선 경계임무에 진력하던 중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춘천·홍천지구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 춘천·홍천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춘천·홍천지구전투는 중동부전선의 춘천과 홍천 북방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제6사단이 전차 1개 연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2사단과 제7사단의 공격을 받고 춘천·어론리·현리·말고개 일대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

개전 당시의 춘천 · 홍천지구 전투상황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과 말고개의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6일 동안의 방어전을 전개하여 북한군 2개 사단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군 제2군단은 춘천 · 홍천 축선으로의 진출이 지연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적인 불법남침을 도발했을 당시 임부택 중령은 국군 제6사단 7연대장으로서 춘천 정면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19일 제7연대장에 부임한 임부택 중령은 부대 교육훈련과 38선 방어진지 구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7연대는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에 대대전투훈련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장교들이 기피하던 풍조를 깨뜨리고 대부분

의 장교들을 보수교육인 고등군사반에 입교시켜 자질 향상에 주력하였다.

또한 춘천이 38도선에서 불과 13km 남쪽에 위치한 사실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38선 주요 접근로에 토치카 및 유개호를 구축하고 기성진지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48km의 광범위한 정면을 모두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춘천을 고수할 수 있는 주저항선의 진지가 없음을 착안한 임부택 중령은 춘천 주민과 학도호국단의 지원을 받아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에 춘천 분지를 감제하는 164고지 일대에 방어진지 구축작업을 시작, 개전 1개월 전인 5월 하순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1950년 6월 25일 04시경 38도선 전면에 걸쳐서 남침이 개시되어 북한군 제2사단과 제7사단은 국군 제6사단 7연대와 제2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춘천 북방과 인제 남방지역을 동시에 공격해왔다. 적 제2사단은 제7연대 지역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일부 병력을 북한강 계곡으로 침투시켜 제7연대의 퇴로를 차단해 이를 춘천 북방에서 섬멸시키려 하였다.

이에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북한강 계곡의 제3대대와 소양강 북방의 제2대대에 각각 현 진지를 고수토록 지시하고 포병은 춘천 북방 산발리와 수리봉에 저지사격을 지향토록 지시하였다. 이후 통신이 두절되자 자신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양강 건너 우두산에 연대관측소를 추진하였으며, 예비인 제1대대를 북한강 계곡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연대장의 효과적인 지휘로 제7연대는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면서 진지를 고수하였으며, 포병은 화력을 집중하여 남진하는 적에

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6월 25일 14시경 춘천 북방 옥산포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7연대 57mm 대전차포 제2소대장 심일(沈鎰) 소위는 57mm 대전차포로서는 적의 전차나 자주포를 파괴할 수 없음을 알고 특공조를 조직하여 화염병과 수류탄으로 SU-76 자주포 2대를 파괴함으로써 뒤따르던 8대를 북쪽으로 도주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제7연대 장병들의 피나는 저항으로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의 기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제7연대 장병의 용전분투로 적 제2사단의 춘천공격이 부진하자 적 제2군단장은 제7사단 주력을 인제 방면으로 전환하여 소양강 북안을 따라 춘천의 동측방 공격에 가담시키려 했으며, 적 제2사단의 진출이 지연될 경우 북한군 작전계획 전반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춘천 점령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한편 국군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6월 27일 원진나루터에서 제7연대 2대대가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양강 남안에서 제7연대가 주진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제6사단의 퇴로를 위협하는 홍천의 확보를 위해 예비대인 제19연대와 포병의 주력을 홍천으로 전환하였다.

6월 27일 적은 제7사단 병력으로 증강된 제2사단을 투입하여 춘천 탈취를 위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왔다. 제7연대는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선전분투했으나 더 이상 전선유지가 불가능하자 육본의 전선조정 명령에 따라 춘천 남쪽 원창고개에 제2대대를 배치하여 철수를 엄호토록 하고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원창고개는 종격실의 고지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다. 제7연대 2대대는 6월 28일 오후 적 2개 연대 병력의 침공을 격퇴하

였으나 6월 29일 결국 고개를 포기하고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는 6·25전쟁의 승패결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북한군 제2군단은 서울 공격의 조공부대로서, 6월 25일 당일에 춘천을 점령하고 즉각 수원 방면으로 돌진시켜 서울 방어를 위해 집중될 국군의 증원부대를 차단함과 동시에 한강 이북의 아군을 포위·섬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만일 적의 계획이 성공했다라면 유엔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부산을 점령당할 확률이 높았다. 제7연대의 성공적인 방어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국군 주력부대로 하여금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후 제7연대는 전선의 균형유지를 위해 축하 지연전에 들어가 음성 북방의 동락리에서 이천-장호원-충주 축선을 따라 남진중인



동락리전투 후 김일환 국방차관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고 있는 임부택 연대장

적 제15사단 48연대를 기습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격퇴함으로써 개전 이래 가장 통쾌한 국군의 승리를 가져왔으며, 부대원 전원이 일계급 특진하는 유례가 드문 대승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 전투는 전술적으로도 진천-음성-진천으로 이어지는 저지선을 형성, 아군의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음성 동락리전투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제7연대는 괴산·연풍·조령·옥녀봉 등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아울러 문경·점촌을 거쳐 함창에서 적에게 타격을 가한 후 신령에서 최후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저지하였다.

이후 9월 15일부터 반격에 나선 제7연대는 군위·의성·안동·점촌을 수복하고 문경·충주·원주를 탈환하며 북진을 계속하여 10월 4일에는 화천을 점령하였다. 이어 평강을 탈환한 연대는 험준한 낭림산맥을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섬멸하고 성천·순천·개천·회천을 점령하는 등 북진을 거듭하였다. 초산지구를 점령하라는 유엔군사령부의 명령을 하달받은 연대는 풍장과 고장을 거쳐 10월 26일 초산의 압록강변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합창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급변하여 사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은 제7연대는 10월 30일 압록강을 뒤로 하고 철수의 길에 올라 38도선 이남의 경기도 광주-여주선까지 후퇴하였다. 1951년 4월 제6사단 부사단장으로 명령을 받은 임부택 대령은 사창리전투에서 중공군 2개 사단의 인해전술로 인해 용문산까지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제2차 춘계공세를 통해 가평을 점령한 중공군 제63군 예하의 3개 사단은 제3차 춘계공세를 개시하여 제6사단을 공격해왔다. 전 화력을 총동원한 협조된 탄막과 항공지원, 역습 등으로 적을 격멸하고 반격

을 개시한 제6사단은 3,500여 명의 포로와 2만 명 이상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고 사창리전투에서의 실추된 명예를 되살렸다.

1951년 11월 제5사단 부사단장에 보임된 그는 공방전이 치열했던 동부전선의 351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마침내 1952년 8월 육군준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제11사단장에 임명되었다. 중부전선으로 이동한 제11사단은 1953년 7월 일명 ‘휴전전투’라 일컫는 삼현지구전투에 임하여 맹렬한 적의 7월 대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휴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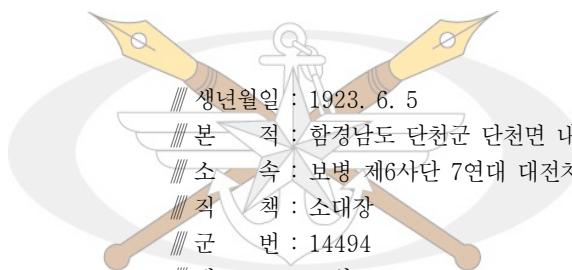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국방부 인사국장, 육군본부 병참감, 제1군단장 등을 역임한 임부택 장군은 6·25전쟁 3년 동안의 기간 중 육군보병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3개월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을 연대장, 부사단장, 사단장으로서 전장을 누빈 몇 안 되는 장군이었다. 또한 장군은 중공군 총사령관 팡덕회(彭德懷)가 수십만의 중공군을 지원군으로 투입하면서 “임부택을 사로잡거나 제7연대를 없애버려라”고 특별지시를 내릴 정도로 탁월한 지휘력과 용맹성을 발휘, 두 차례의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6·25전쟁의 명장이었다.

1962년 3월 육군소장으로 전역한 장군은 국영기업의 경영자로 국가에 공헌하는 한편 ‘한국전쟁참전군인연맹’ 회장에 피선되어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권익을 신장하는데 노력하였다. 2001년 11월 13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타계한 장군의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144에 안장되어 있다.



沈 鎰 육군소령



// 생년월일 : 1923. 6. 5
 // 본 적 :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면 내문리 40번지
 // 소 속 : 보병 제6사단 7연대 대전차포대 2소대
 // 직 책 : 소대장
 // 군 번 : 14494
 // 계 급 : 소위
 // 주요전투 : 춘천지구 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1. 7. 26)

□ 춘천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6월 25일 당시 제6사단 7연대 대전차포대 2소대장으로 춘천지구에서 책무를 다하고 있던 심일 소위는 남하하는 북한군의 SU-76 자주포가 아군의 대전차포를 맞고도 포탄을 쏘아대며 계속 전진해오자 5명의 특공대를 편성,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적의 포

탑 위로 돌진하는 육탄공격을 감행한 끝에 북한군 자주포 3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전공 사실은 순식간에 전군에 전파되어 북한군의 전차 및 자주포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전선에서 육탄공격으로 적의 전차를 파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심 소위의 영웅적인 행동은 개전 초기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켜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전공으로 심일 소위에게는 1951년 7월 2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9호)이 수여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제1군단의 주력을 연천·운천-의정부-서울 축선에, 개성-문산-서울 축선에 조공을 투입하는 한편 제2군단 주력을 춘천-가평-서울 및 춘천-홍천-수원 방향에 투입하여 수도 서울을 양익에서 포위점령한다는 목표아래 남침을 개시하였다.

중부전선을 담당한 제6사단은 춘천에 제7연대를, 홍천 북동쪽에 제2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9연대는 사단예비로서 적목리로부터 진흥동에 이르는 84km의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은 방어진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7연대는 소양강 북안에, 제2연대는 소양강 남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사단 정면에 배치된 적은 북한군의 조공으로 중·동부지역 공격을 담당한 북한군 제2군단으로서 공격 당일 춘천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제2사단을 주공으로 화천-춘천 축선에 투입하는 한편 독립전차연대로 증강된 제12사단은 인제-홍천 축선에 배치하였다. 북한군은 조기에 춘천과 홍천을 점령하고 이천-수원으로 우회 기동하여 서울을 포위한다는 의도였다.

6월 25일 새벽 중동부전선의 전역에서도 예외없이 적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적의 공격준비사격은 주접근로이자 전술적 요지인 화천-춘천 도로상의 모진교 남쪽 일대에 집중적으로 가해졌다. 약 30분간의 포격 끝에 적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포격상황을 판단, 적의 주공이 화천-신포-춘천 축선에 지향되었음을 직감하고 연대에비인 제1대대를 소양교 북쪽의 준비된 방어진지인 164고지에 배치하였다. 적은 모진교 남쪽 강변 일대의 감제고지를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할 의도로 고탄리(古呑里) 부근에 배치된 제3대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면서 전술행군중대를 유지한 채 진전으로 육박하였다.

모진교 정면에서는 다리를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38도선 남쪽 300m 지점에 위치한 길이 250m, 폭 4m의 크기인 모진교는 화천-춘천 축선의 관문이면서 이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기계화부대가 북한강을 도하하여 춘천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량이었다. 그러나 제7연대는 이 교량이 적의 감제하에 있어 폭약장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폭파할 수 없었다.

결국 제7연대는 모진교를 폭파하지 못해 47km에 달하는 연대 방어정면이 일시에 와해되었으며, 더욱이 고탄리와 인람리(仁嵐里)의 38도선 진지로부터 춘천시 외곽까지 아군의 병력이 없는 무주공산의 상태가 되었다. 일사천리로 진격을 개시했던 적은 25일 09시경 춘천이 바라보이는 역골, 지내리까지 진출한 후 일단 진격을 멈추었다.

모진교에서 적의 주공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제7연대의 전방부대는 계획된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여 신속하고 질서있는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연대 57mm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 심일 소위는 옥

산포(玉山浦) 도로변 소나무 숲에서 적의 SU-76 자주포 2문을 대전차포와 육탄공격을 병행하여 파괴하였다. 적 전차가 파괴된 직후 164고지 일대와 춘천 시내에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38도선을 별 어려움 없이 돌파한 적은 아군의 전투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역골-소양교간 6km에 달하는 개활지를 밀집대형으로 단숨에 접근해왔다.

이때 소양교 북쪽 옥산포 남쪽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6야전포병대대는 직접 조준사격으로 적과 맞서 필사적으로 포격을 집중하였고, 이어 57mm 대전차포 3문이 가세하였다. 적은 선두 돌격제대가 격멸되면 다시 후속제대를 투입하는 등 정면공격으로 인한 막대한 출혈에도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다. 적은 공격 당일 춘천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격해왔다.

다음날 북한군 제2사단 6연대는 14시경 164고지-우두산(牛頭山)에 배치된 국군 2개 대대를 견제하면서 옥산포-마전리로 진출, 소양강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살상지대에 걸려 전멸되었다. 이에 따라 제6사단은 방어 정면을 축소하기로 하고 소양강 북쪽에 배치된 모든 부대를 남안의 최후저지선으로 조정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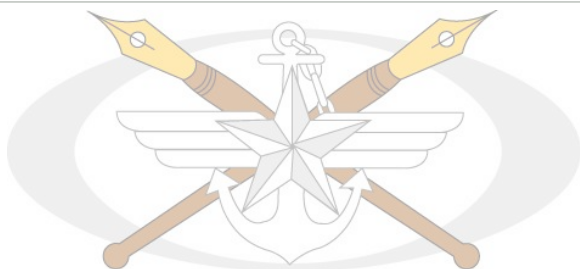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제6사단 7연대 대전차포중대 2소대장인 심일 소위는 38선 남쪽 4km 지점인 소양강 저수지에서 북한강을 따라 춘천에 이르는 길목인 곰나루터에 57mm 대전차포 2문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춘천 정면의 주저항선인 소양강 진지를 방어하고 적의 서울 방향 진출을 저지하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07시경 500m 전방에서 적 전차가 출현하자 소대장인 심일 소위는 57mm 대전차포 2문을 사격하여 선두 전차에 모두 명중시켰으나 적 전차는 끄덕도 없이 남진을 계속하였다. 심 소위는 부득이 포를 거

두어 춘천 북쪽 4km 지점인 옥산포로 철수하였다. 14시경 적 전차는 옥산포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즉시 포 위치로 돌아가 사격준비를 명령하고 사거리를 측정한 심 소위는 전차가 100m 전방까지 접근하자 사격개시를 명하였다. 불꽃과 함께 선두 전차에 2발이 명중하였다. 그러나 포탄에 맞은 적의 전차는 계속해서 전진해오고 있었다.

대전차포 소대장으로서 적 전차를 격파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심일 소위는 적 전차의 측면에서 육탄공격을 감행하는 것만이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그는 사격지휘를 소대선임하

개전 당시의 춘천지구 전투상황



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특공조 5명과 같이 화염병과 폭약을 가지고 적 전차가 다가오는 길목에 매복하였다.

마침내 적 전차가 나타나자 심 소위는 1번 전차를 통과시키고 2번 전차의 포탑 위로 올라가 수류탄과 화염병을 투척한 후 다시 1번 전차로 달려가 같은 방법으로 습격하였다. 2대의 전차가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이자 당황한 전차병들은 전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으나 매복해 있던 특공조에게 모두 사살되었다. 또한 뒤따르던 8대의 전차도 선두 전차가 화염에 휩싸이자 방향을 바꿔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심일 소위의 용감한 특공작전으로 전차를 앞세워 춘천을 공격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기도는 그 기세가 꺾여 아군 제6사단이 춘천을 2일간이나 방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전과는 북한군의 남침 이래 최초의 전과로서 당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대장과 참모들은 한참동안 말문이 막혀 숙연했다고 한다. 당시 연대장이었던 임부택 중령은 “심 소위가 육탄공격으로 전차 2대를 파괴한 사실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몇 시간이 안되지만 이것이 처음일 것이며, 우리 장병들은 그때부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심일 소위의 영웅적인 행동은 개전 초기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함으로써 6·25전쟁의 흐름을 바뀌게 하는 쾌거였다. 이는 춘천을 점령한 후, 홍천-이천을 경유하여 수원에서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서울을 포위하려던 적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하는 한편 아군이 한강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투는 병력의 분할배치, 즉 제7연대 3대대는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화천에서 춘천에 이르는 5번 도로를 포함하여 동쪽은 제3대대 9중대를 그리고 서쪽은 제10중대를 각각 분할 배치함으로써 병력의 집중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허점을 노출하였다. 이미 사단 및 연대에서는 적의 주력이 춘천으로 지향할 것이며 특히 접근이 용이한 5번 도로를 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도로에 연하여 용산리-옥산포간에 모두 5개소에 이르는 중심진지를 구축하였고 또한 제16포병대대를 이 지구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 같이 중요한 지역을 담당하는 제3대대를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분하여 배치함으로써 초기에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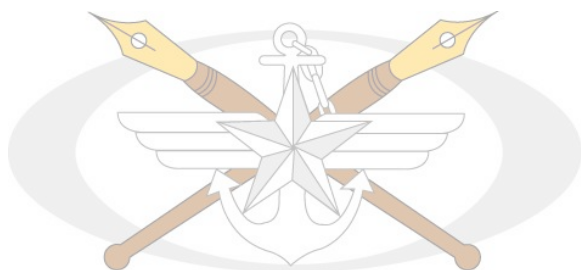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23년 6월 5일 함경남도 단천에서 출생한 심일 소위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년을 수료하고 육군사관학교 제5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육군소위(군번 14494)로 임관되었다. 춘천지구전투에서 지대한 전공을 수립한 이후에도 심일 소위는 충북 음성지역전투, 경북 영천 304고지전투 등에 참전하여 탁월한 전투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제7사단 수색중대장으로 있던 1951년 1월 26일 강원도 영월지역전투에서 정찰 도중 적의 총격을 받아 28세의 나이로 산화하였다. 정부는 심일 소위의 공적을 기려 1951년 9월 17일 위관급 장교로서는 최초로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소령으로 특진을 추서하였다.

심일 소위는 군 입대를 앞두고 부친과 가졌던 대화에서 “남자는

의롭게 살아야 할텐데, 38도선이 있고 공산당이 북한에 있는 한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학업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투철했던 장교였다.





李 成 佳 육군소장

- 
- /// 1922. 10 만주 통화 출생
 - /// 1946. 6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부위(중위) 임관
 - /// 1948. 11 제20연대장
 - /// 1949. 10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
 - /// 1950. 6 제8사단장
 - /// 1950. 8 육군준장
 - /// 1951. 3 제9사단장
 - /// 1951. 9 제7사단장
 - /// 1952. 8 육군소장
 - /// 1955. 11 제5관구사령관
 - /// 1956. 9 제3군단장
 - /// 1957. 7 제5군단장
 - /// 1960. 6 육본 정보참모부장
 - /// 1960. 10 육군대학총장
 - /// 1962. 3 예편
 - /// 1975. 3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이성가 육군소장은 1950년 6월 25일 제8사단장으로서 북한군의 남침을 강릉·주문진지구에서 저지 지연시키는가 하면, 9월 10일 영천전투에서는 적 제15사단의 주력을 궤멸하고 이어진 반격작전에서 파죽지세로 의성·영천을 탈환하였으며, 예천·풍기에서 퇴각하는 적을 섬멸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1년 1월에는 제7사단장으로 전임하여 양구지구산악전투에서 901고지와 883고지 등을 완전 점령, 아군의 진격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1953년 5월 20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12호)을 수여받았다.

1922년 10월 9일 만주 통화에서 출생해 신흥무관학교 칠도구분교장(七道溝分校長)으로 독립군 양성에 크게 공헌하고 72세를 일기로 백두산 밀림 속에서 운명한 부친 이관석 장군의 유언에 따라 남경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 왕정위군에 편입되었다. 그 후 소령으로 진급하여 제12군사령부 인사참모를 지냈고, 해방 당시에는 중국 남의사의 북경책임자 진영륜 소장의 권유로 그의 밑에서 정보기관원으로 활동하였다.

조국해방을 기해 고국으로 돌아와 1946년 6월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군번 10037의 육군부위(중위)로 임관된 그는 제1연대 창설 등 창군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10월 제4연대장으로서 여·순 10·19사건을 진압한 그는 1949년 10월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태백산지구의 공비를 토벌하는데 큰 전공을 세웠다.

□ 강릉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2개 연대로 편성된 이성이 대령이 지휘하는 제8사단은 동해안 지역 방어를 위해 제10연대는 38도선에 그리고 제21연대를 예비로 삼척에 배치하였다. 사단의 방어지역은 진흥동~기사문리의 26km로서 적이 남침하면 강릉 고수를 위해 제21연대를 좌일선에 투입하여 2개 연대로 38선에서 저지·격멸하며, 이를 위해 38도선 남쪽의 고지군에 경계진지를 편성하고 광원리-오대산-연곡천에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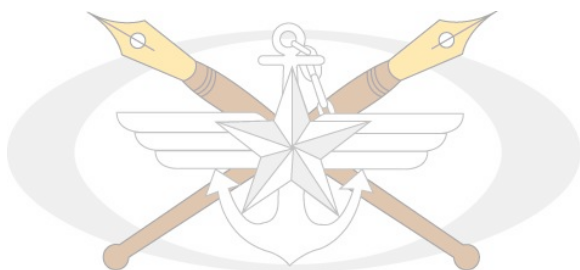
그러나 6월 중순에 사단은 공비토벌을 위해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2개 대대를 오대산과 계방산 일대에 투입함으로써 적의 남침시 실제 가용병력은 4개 대대 규모에 불과하였다.

반면 북한군 제5사단은 양양-강릉의 해안도로 축선에 주력을 투입하여 북쪽에서 제10연대를 정면공격하고 제766부대와 제549육전대를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제21연대의 증원을 차단함으로써 2개 연대를 각개 격파하고 강릉을 남북으로 협공하려 하였다.

이러한 계획하에 적 제5사단이 6월 25일 04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주문진으로 진격하자, 38도선을 경계하던 제10연대의 전방부대들은 적의 포병화력에 압도되어 분계선 남쪽의 저지진지로 철수하였으나 저지진지도 점령하지 못하고 제2대대는 주문진으로 그리고 제1대대는 광원리 부근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리 등명동에 상륙한 1개 연대 규모의 적의 육전대는 삼척-강릉간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밤재를 점령한 후 1개 대대는 강릉을 향해 북상하고, 또 다른 1개 대대는 옥계 방향으로 남하하였다. 또한 07시경에는 임원진에 제766유격부대가 상륙하여 1

개전 당시 강릉지구 전투상황



개 부대는 태백산맥으로 침투하고 1개 부대는 삼척 방향으로 북상하였다.

강릉비행장에 본부를 둔 제8사단 이성가 대령은 상황보고를 접하고 제10연대로 하여금 적을 최대한 저지하게 하고, 삼척의 제21연대를 강릉으로 이동시켜 주저항선인 연곡천-사천선에서 적을 격퇴하기로 하였다.

육군본부에 대한 증원요청이 좌절되자 이성가 사단장은 전쟁의 장기전을 예견하고 6월 25일 10시를 기해 작전지역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수품의 소산과 군경 가족의 피난, 공공기관의 소개 등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민간 차량의 징발을 통해 기동력을 확보하였다.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적의 후방상륙에 대처하기 위해 57mm 대전차포중대와 제4중대를 강릉 남쪽의 안목-안인진 일대로 급파, 안인진 해변에 접안을 시도하던 적의 선단을 격퇴하였으며, 제4중대는 안인진 서쪽 대포동의 방어진지에서 북상중이던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멸함으로써 위급한 국면을 타개하였다. 그러나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남쪽에서 협공하는 적에 대비하기 위해 강릉 남쪽 군선강에 방어진지의 급편을 결정하고 제10연대장에게 그 임무를 지시하였다.

한편 삼척의 제21연대장은 북평의 제1대대 수색대와 제1중대가 옥계 부근에서 남하하는 적 1개 중대를 기습공격하여 궤멸적 피해를 가함으로써 적의 상륙과 또한 적의 주력이 밤재를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으로 이동명령을 받은 제21연대장은 이로 인해 북평-백봉령-삽당령-구산리로 우회 이동, 주력은 26일 10시 30분경 군선강 방어진지를 인수하였고 제3대대는 강릉으로 행군

본대와 합류하였다.

전투편성을 완료하고 제10연대에 배속되어 연곡천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한 사단 공병대대는 전방대대인 제10연대 2대대의 철수를 효과적으로 엄호할 수 있었고, 제21연대의 군선강 배치완료 후 연곡천 방어배치 조정과 반격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제10연대 2대대가 6월 26일 밤 주저항선 전방의 감제고지인 천마봉을 공격 탈취하여 주문진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자 사단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적이 27일 4시경 제8사단의 주문진 공격보다 1시간 앞서 공격준비사격을 천마봉에 집중하자 제2대대는 천마봉을 포기하고 분산철수 하였으며, 상황보고를 받지 못한 아군은 측방으로 접근하는 적을 아군으로 오인함으로써 주저항선이 돌파되고 말았다.

이때 증원된 제21연대 3대대가 사천선에 투입되어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적을 저지함으로써 최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제18야전포병대대는 포 단위 사격을 계속하여 주저항선을 돌파한 적의 진출을 결정적으로 지연시켰으며, 이로 인해 철수병력이 사천선에 저지진지를 편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한편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전 전선의 전황을 알 수가 없자 일단 대관령으로 물러나 상황 추이에 따라 반격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27일 14시를 기해 사단은 철수를 개시하여 대관령을 넘었고, 사단사령부와 제10연대는 유천리에 그리고 제21연대는 횡계리에 집결하였다. 이리하여 적은 21시 50분경 강릉에 진입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2개 연대의 재편성 상태를 점검한 후 강릉탈환을 결심하고 공격명령을 하달, 28일 아침 제21연대가 공격을 개시하고 제10연대 1대대도 구산리 동측 칠봉산에서 공격제대를 측방 엄호

하였으며, 포병은 대관령 동편 보광리 입구에서 화력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6사단사령부로부터 “원주로 철수하라”는 육본의 명령을 받은 제8사단은 공격을 중지하고 대관령으로 철수, 29일 원주로 향했으나 황성 피탈 사실을 피난민으로부터 확인한 사단장은 목표를 제천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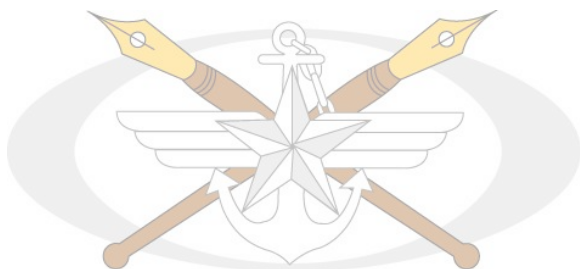
제8사단장은 강릉에서 철수한 후 남한강 남안에 2개 연대를 배치하여 북한군 제8사단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아군은 적 사단의 전방 지휘소는 물론이고 도하를 시도하는 적에게 공격을 가해 막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적으로부터 배후의 위협을 받고 죽령으로 철수하여 저지진지를 점령한 채 방어에 돌입하였다.

제8사단은 이 지역에서 6일 동안이나 방어선을 유지함으로써 충주 방면의 북한군 제12사단이 단양 점령을 위해 전환투입되게 하여 전력운용의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고, 반면에 아군은 서부전선에서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획득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1년 9월 제7사단장에 부임한 이성가 장군은 중공군과 혈전을 벌인 끝에 전술적 요충지인 백석산과 크리스마스고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휴전을 맞았다. 휴전 이후 장군은 제3군단장과 제5군단장, 육본 정보참모부장을 거쳐 육군대학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62년 3월에 육군소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으며, 예편 후에는 멕시코, 터키, 오스트리아 주재대사로서 외교 일선에서 활동하였다.

6·25전쟁 기간에는 호국의 선봉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군문을 떠나서는 외교 발전에 헌신했던 이성가 육군소장은 1975년 3월 15일 향년 53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생전에 국가의 위난극복과 국가발전의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을 수여받았다.





咸俊鎬 육군준장

- 
- /// 1921. 11 서울 출생
 - /// 1946. 2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8. 8 제3연대장
 - /// 1948. 11 육군중령
 - /// 1949. 6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 /// 1950. 1 제5사단 부사단장
 - /// 1950. 4 제7사단 1연대장
 - /// 1950. 6 전사
 - /// 1950. 6 육군준장(추서)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1950년 6월 27일 창동저지선에서 수도 서울방어를 위해 밀려오는 적 전차에 대항하다 적탄에 의해 전사함으로써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예를 몸소 실천한 제7사단 1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1921년 11월

17일 서울 종로에서 출생하여 경기도립상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재학중에는 일본인 학생들을 모두 제치고 학생대대장까지 지내고 오늘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인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대동아공영’을 외치며 침략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던 일본은 병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의 강제징용을 실시하였고, 급기야 전시동원령을 공포하여 조선학생들에 대한 징집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함준호 장군도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944년 학병으로 징집되어 일본군 육군소위로 조국의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귀국 후 자신이 취득한 경험을 토대로 국군창설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로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한 그는 1946년 2월 18일 졸업과 동시에 국방경비대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면서 10050의 군번을 부여받았다.

1948년 8월 함준호 소령은 5월 1일부로 제5여단에 예속된 제3연대장에 보직되었으며, 10월에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부연대장인 송석하 소령의 남원대대를 진압작전에 출동시켜 여수와 순천을 탈환하는데 공을 세웠다. 12월 30일 일단 작전을 종료하고 제15연대와 교대하여 원대로 복귀한 연대는 반란군의 주력을 섬멸하기 위해 다음해 1월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동하여 연대장 함준호 중령의 지휘하에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전개, 제14연대의 반란 주모자인 김지회(金智會)와 홍순석(洪淳錫) 중위 등 수뇌 일당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처럼 제3연대장에 임명된 후에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고, 전쟁발발 직전인 1950년 4월 30일에는 제5사단 부사단장을 거쳐 제7사단 1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6월 25일



반란군 진압작전에서 김지희와 홍순석을 사살하고 표창을 받고 있는 제3연대장 함준호 중령

마침내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도발이 개시되자 동두천·의정부지구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그는 수도 서울의 사수를 결의하고 전투에 임하였다.

□ 창동지구방어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은 그들의 1단계 목표인 수도 서울의 조기점령을 위해 개성과 고랑포 방면에는 제1사단과 제6사단을, 동두천과 의정부 방면에는 제3사단과 제4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38도선에서 수도 서울에 이르는 단거리 접근로는 철원-동두천-의정부 축선으로 불과 50km에 불과하였다. 이 축선

은 철원-연천-의정부에 이르는 경원가도와 김화-의정부에 이르는 한 개의 도로가 의정부에서 합류되어 서울에 이르는 단일로였으며, 별다른 하천 장애물도 없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북한군은 이 접근로를 택하였고, 아군도 이 축선을 적의 접근로로 판단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주공 좌일선은 제3사단이 제109전차연대의 지원하에 포천가도로, 우일선은 제4사단이 제107전차연대의 지원을 받으며 동두천가도로 진출하여 의정부를 양쪽 방면에서 공격해왔다. 이에 맞서 국군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예하 제1연대를 동두천 방면에, 제9연대를 포천 방면에 각각 배치하고 적의 침공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전차를 앞세우고 아군 진지를 계속 격파하며 침공해 온 반면 아군은 57mm 대전차포와 로켓포를 집중 배치하고 대응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분산·후퇴하게 되었다. 포천과 동두천, 그리고 마침내 의정부마저 적에 의해 점령됨으로써 수도 서울의 운명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6월 27일을 기해 의정부를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창동선에서 후퇴하여 오는 병력을 수습하였으나, 그 병력은 1개 연대병력에 불과하였다.

한편 동두천전선에서 분전하다가 창동저지선까지 후퇴하여 온 제7사단 1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불과 1개 대대 정도의 예하 장병들을 창동 북방 62고지 후방에 집결·배치시켰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작전을 구상하는 도중 적의 전차가 우이동 골짜기로 접근해 오는 것을 목격한 그는 적 전차를 격파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인식하고, 작전장교와 연락병을 대동하고 접근로로 다가가 2대의 적 전차에 맞섰다. 전차를 폭파하기 위해 수류탄을 뱉아 든 순간 적의 선두 전차는 그의 일행을 향해 전차포와 기관포 사격을 가해왔다. 전신에 파

편상을 입은 그가 투척하려던 수류탄을 손에 쥔 채 쓰러지자 작전장교가 달려들어 후송에 나섰으나 도중에 전사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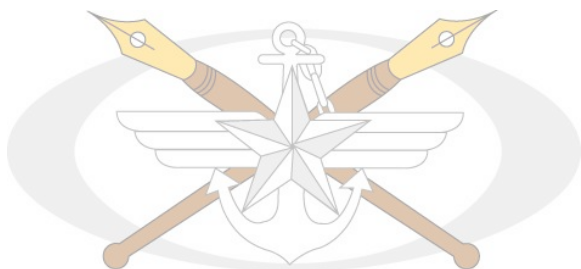
개전 이래 연대장으로서 최초의 전사자가 된 함준호 장군은 전쟁 초기 모든 불리함을 딛고 수도 서울을 사수하고자 결사의 각오로 싸운 지휘관이었으며, 그의 임전무퇴의 감투정신은 모든 지휘관의 귀감이 되었다.

한편 장군은 서도에 능하여 경기도립상업학교 재학 시절에는 전국학생서화전람회에서 최우수작품으로 입상될 정도였으며, 특히 중국 서도의 삼성인 구양순의 필치를 능가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서도에 의해 형성된 결과인지 그의 성품은 온화하고 인자하며 관대하여 예하 장병들은 장군의 말이 없어도 충직하게 장군을 따르게 되었다.

인자하고 관대한 장군의 성품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서 공비들을 자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함 장군은 국군에 의해 통비(通匪) 혐의를 받던 자가 스스로 찾아와 “이들만 석방해주면 국군이 탈취당한 무기를 찾아오겠다”하자 그를 풀어주었다. 이틀 후 그는 탈취한 무기와 함께 통비분자 16명을 연대 CP로 데려왔다. 이유를 묻자 그는 “함 장군의 말씀과 어진 성품에 감복하여 자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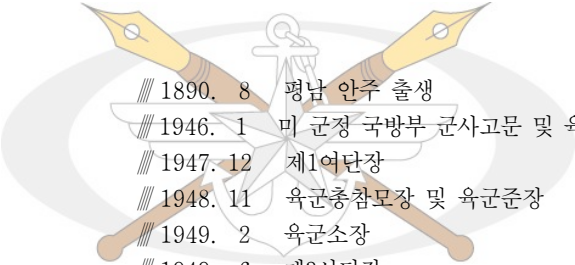
이처럼 함준호 장군은 부하와 심지어는 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덕장이자 전투에 임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용장이었다.

정부는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51년 7월 26일 군인 최고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는 한편 육군준장으로 추서하였다. 현재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7에 안장되어 있다.





李 應 俊 육군중장

- 
- /// 1890. 8 평남 안주 출생
 - /// 1946. 1 미 군정 국방부 군사고문 및 육군대령 임관
 - /// 1947. 12 제1여단장
 - /// 1948. 11 육군총참모장 및 육군준장
 - /// 1949. 2 육군소장
 - /// 1949. 6 제3사단장
 - /// 1950. 4 제5사단장
 - /// 1950. 6 수원지구방위사령관, 전남편성관구사령관
 - /// 1950. 7 서남지구전투사령관
 - /// 1950. 11 예편
 - /// 1952. 4 현역 복귀, 육군대학 총장
 - /// 1952. 11 육군중장
 - /// 1953. 6 제1훈련소장
 - /// 1954. 6 육군참모차장
 - /// 1955. 9 예편
 - /// 1985. 7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육군 제1훈련소장 이웅준 육군중장은 1954년 5월 12일 군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70호)을 수여받았다. 국군 창설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6·25전쟁 초기의 국난극복에 헌신한 점, 1952년 6월 26일부터 1953년 6월 5일에 이르기까지 지덕을 겸비한 통솔력으로 군기엄정, 책임완수, 교육훈련 철저, 체육철저 등 4개 조항의 실천목표 달성에 주력함으로써 국토방위의 대 역군을 자임하는 등 현저한 공헌을 한 데 따른 결과였다.

1890년 8월 12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한 이웅준 장군은 일본 군 대좌(일본육사 26기)로 원산항 수송업무를 담당하다가 조국의 광복을 맞게 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 국방사령부 군사고문에 임명되어 광복군 출신인 유동열(柳東悅) 장군을 통위부장으로 추천하는 등 국방경비대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 또한 대령으로 임관되어 교육총감에 취임하였다.

다음해 제1여단장에 이어 1948년 11월 육군준장으로 진급, 초대 육군총참모장에 올랐다. 60세가 되던 1949년 2월 소장으로 진급하였으나, 그해 5월 ‘강태무·표무원 월북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사후조치를 완료한 후 7개월만에 총참모장직을 사임하고 6월 30일 제3사단장으로 발령되어 경상남·북도지역, 특히 향로봉지역의 공비토벌에 주력하였다. 제5사단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사단을 인솔하여 27일 미아리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나섰다.

□ 미아리지구방어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6월 27일 10시경 미아리-회기동선에서는 전날 육군본부로부터 “미아리에서 수도 서울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아리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된 제5사단장 이웅준 소장이 방어진지 편성과 철수병력의 수습을 지휘하고 있었다. 정릉(171고지)-미아리-청량리(106고지)를 잇는 미아리방어선의 서측을 담당한 이웅준 소장은 제20연대 1대대를 171고지 동쪽, 대대 규모인 제1연대를 길음교 북쪽 공동묘지, 제15연대 2대대를 미아리고개 132고지에 배치하였다.

27일 오후까지 미아리-회기동선에는 약 3,000여 명의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총참모장을 비롯한 이웅준 소장, 유재홍 준장, 육본 요원, 재경 각 부대 및 군사학교 간부들이 서울 사수의 비장한 각오로 미군의 참전 소식도 전하면서 미아리선에서 혼성병력의 사기를 고양하고 있었다.

한편 창동저지선을 돌파한 북한군 제4사단은 2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17시경 미아리선에 육박했으나, 제20연대 제1대대의 일제사격과 미아리저지선 전 병력의 집중사격으로 적은 전차 1대를 유기한 채 도주하였다.

그러나 적은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미리 잠입한 유격대의 호응을 받아 24시경을 전후하여 미아리를 급습하였다. 적은 정찰병의 유도과 함께 삼거리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음교로 접근하였다. 접근하는 적의 전차를 향해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 기관총 등이 일제히 사격을 가해 전차에 명중되었으나 적 전차는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며 유유히 서울로 진입하였다. 이때가 28일 01시였다. 이리하여 서울의 최후보루인 미아리저지선이 허무하게 무너

지게 되었고 장병들은 각개 분산되어 후퇴하기 시작했다.

6월 25일 08시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고 상경하여 미아리저지선에 진출한 이응준 소장은 그곳에서 의정부 정면으로부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는 한편 171고지 등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초기 공격을 격퇴·지연시켰다. 이응준 장군의 제5사단 20연대는 서전을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후퇴만을 계속해 온 장병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불어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전선이 무너지자 한강을 도하하여 수원으로 남하, 28일 수원지구방위사령관, 전남편성관구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7월 하순 마산에 도착하여 서남지구전투사령관, 마산지구계엄사령관, 제주지구계엄사령관, 전남병사구사령관, 전남계엄민사부장 등을 역임하



제1훈련소장 시절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 대장과 담소하고 있는 이응준 중장

고 11월 13일 군문을 떠나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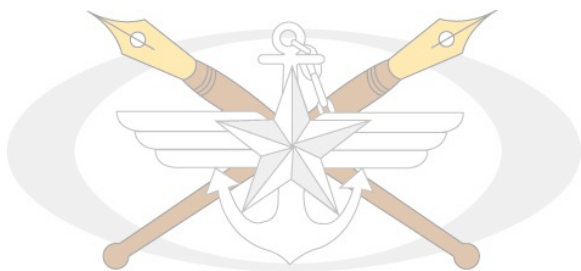
1952년 4월 63세의 나이로 현역에 복귀한 그는 군의 고급 중견장교에게 고등전술과 전략을 교수함은 물론 장교다운 능력과 정신교육을 통해 국군의 우수한 중견 간부를 육성하는 육군대학의 총장에 취임하였다. 11월에 육군중장으로 진급한 뒤, 이듬해 6월에는 제주도에서 설립된 제1훈련소장에 부임하여 사병의 급식문제 해결에 전력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1954년 6월 육군참모차장에 오른 그는 1955년 9월 15일 66세의 나이로 예비역에 편입되었으며, 그 직후 체신부장관에 발탁되어 약 3년을 국가에 봉사하였다. 재향군인회 고문, 성우회장, 반공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장군은 1985년 7월 8일 향년 9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2-8에 안장되었다.

한편 장군이 일생을 견지해온 국가관·민족관·군인상은 제1여단장 시절 장병들의 전의 양양을 위해 제정한 사병훈(士兵訓)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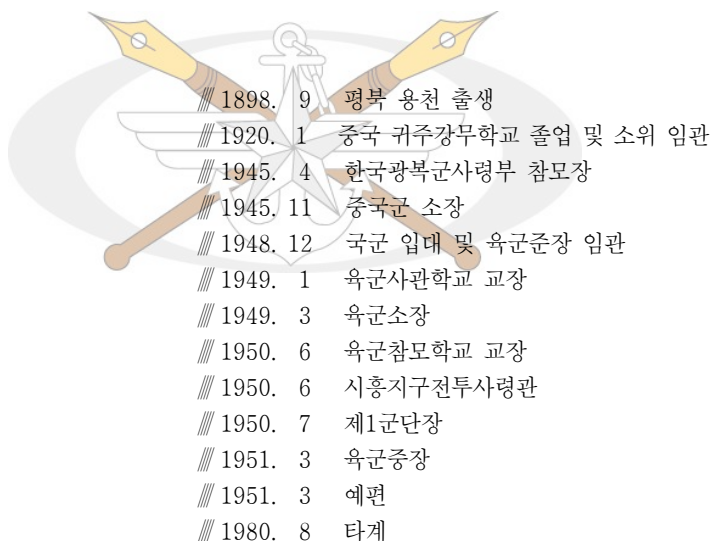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인이 되자. 진정한 군인이란 군기가 엄정하여 상관의 명령에 충심으로 복종할 것이며, 상관을 존경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화목 단결할 것이며, 각자 맡은 책임에 성심성의 사력을 다하여 이것을 완수할 것이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며, 공전(公戰)에 용감하고 사투(私鬪)에 겁

내며 특히 음주 폭행을 엄금할 것이며, 정직 결백하여 부정행위가
절무(絶無)할 것이며, 극렬 파괴분자를 단호 배격하며 그들의 모략
선동에 엄연 동(動)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군인이라야 비로소 대한
민국의 간성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동포의 옹호자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金 弘 壹 육군중장

- 
- /// 1898. 9 평북 용천 출생
 - /// 1920. 1 중국 귀주강무학교 졸업 및 소위 임관
 - /// 1945. 4 한국광복군사령부 참모장
 - /// 1945. 11 중국군 소장
 - /// 1948. 12 국군 입대 및 육군준장 임관
 - /// 1949. 1 육군사관학교 교장
 - /// 1949. 3 육군소장
 - /// 1950. 6 육군참모학교 교장
 - /// 1950. 6 시흥지구전투사령관
 - /// 1950. 7 제1군단장
 - /// 1951. 3 육군중장
 - /// 1951. 3 예편
 - /// 1980. 8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김홍일 육군중장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기간동안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서 분산·남하하는 아군 병력을 규합하여 혼성수도사단과 혼성제7사단을 편성하고 악전분투를 통해 우군의 후퇴를 엄호하였으며, 7월 5일 제1군단장에 취임해서는 화령장 일대에서 적의 정예 제15사단을 격파하여 청사에 빛날 대전과를 거듭으로써 1951년 7월 2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6호)을 수여받았다.

1898년 9월 23일 평북 용천에서 출생한 김홍일 장군은 구한말 일제의 탄압 속에서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의 독립투쟁을 위한 용지를 품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는 한국의 의용군 사령관, 중국군 사단장, 한국광복군 참모장 등을 지내면서 항일전투의 선봉장으로 일본군을 소탕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독립군으로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방 후에는 실전경험에 바탕을 둔 탁월한 지휘력을 인정받아 1948년 12월 육군준장(군번 12329)으로 임관되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자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노량진, 영등포와 한강 남안을 연하는 선에서 북한군 제1군단과 6일간 전투를 전개하여 한강방어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국군이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한강지구방어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6월 28일 새벽 미아리방어선이 무너지자 국군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철수를 시작, 28일과 29일 사이 한강 남안에서 철수병력의 집결을 완료할 수 있었다. 서울을 상실한 국군에게 한강은 방어에 가장 양호한 지형이었으며, 이제 한강선은 국군이 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결정될 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서울이 실패되기 직전 채병덕 총참모장은 한강을 연한 방어선에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기로 결심하고 육군참모학교장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 한강선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시흥에 사령부를 설치한 김홍일 소장은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을 혼성제7사단장,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을 혼성수도사단장, 제2사단장 임선하 대령을 혼성제2사단장에 임명하고 안양천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한강 남안 24km 정면의 방어편성에 임하였다.

6월 29일 오후 혼성제7사단은 7개 대대 병력으로 노량진-영등포간 강변지역과 동작동-노량진간 고지대 확보에 주력하였고, 혼성수도사단도 3개 대대 병력과 1개 장갑대대, 57mm 대전차포 2개 소대로 김포 방면과 영등포 방면에 각각 배치하였다. 또한 혼성제2사단은 신사리-말죽거리 일대의 방어준비에 주력하였고, 김포 방면에는 혼성병력 2,000여 명으로 구성된 김포지구전투사령부가 배치되었으며, 혼성제3사단과 제5사단은 수원에서 낙오병을 수습하였다. 한강방어선 부대에 대한 모든 지휘책임을 갖고 있던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통신망의 미비로 주로 혼성제7사단과 혼성수도사단만을 지휘하여 노량진-영등포의 방어에만 치중하였다.

29일 밤부터 북한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은 전차포와 화포의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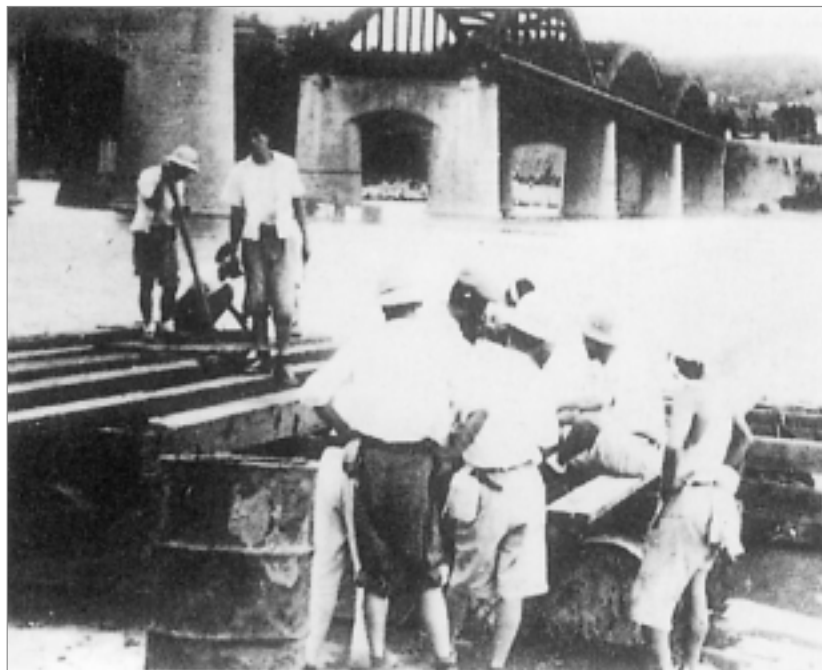
적인 지원하에 여의도와 흑석동, 신사리 일대에서 탐색전을 전개하고, 밤섬 등에 도하 발판을 마련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30일 미명부터 여의도비행장으로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혼성수도사단의 끈질긴 저항에 직면하여 무산되었다. 또한 적 제3사단도 흑석동 일대와 신사리 방면으로 본격적인 도하를 개시하였으나 혼성제7사단 제9연대의 결사적인 저지와 미 공군의 지원으로 도하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가 방어하고 있던 신사리는 포병의 지원을 받는 적 제3사단의 일부 병력에 의해 돌파됨으로써 지원부대인 제3연대마저 위태롭게 되자 혼성제2사단장은 재편중인 제5연대와 제16연대를 제3연대와 함께 남태령-우면산-95고지를 잇는 방어선에 배치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이렇듯 도하 첫날 북한군의 작전기도는 노량진 부근의 고지군을 장악하면 그 엄호아래 경인 상행선 철교를 이용, 전차를 도하시켜 한강선을 돌파하려 하였으나 국군의 저지작전에 의해 좌절되었다.

도하 이틀째인 7월 1일 미명 영등포 대안의 적 제4사단은 경부선 철교를 확보할 목적으로 편대 1개 소대를 노량진 방면으로 침투시켜 아군을 교란하면서 제5연대를 필두로 대규모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8연대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소화기와 수류탄으로 적의 돌파를 분쇄하였다. 여의도 정면으로의 도하작전이 여의치 않자 적은 전차의 지원없이는 도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부선 철교복구작업을 은밀히 실시하였다.

한편 말죽거리 일대에서는 혼성제2사단 주력이 95고지 및 남태령 일대의 진지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고 제25연대는 판교 방향으로 침투한 적의 저지에 나섰다. 그리고 적의 주공을 방어하고 있는 혼성수도사단 및 혼성제7사단의 후퇴에 필요한 말죽거리-수원선 확보



강제 동원된 서울 시민들이 파괴된 한강교를 복구하고 있는 모습

를 위해 혼성제3사단 22연대가 판교 남쪽 금곡리 일대에서 제2저지 진지를 편성하였다.

7월 2일 노량진 대안의 적 제3사단은 대체로 소강상태에 있었으며, 여의도 대안의 적 제4사단은 여의도비행장을 점령하고 혼성수도사단 제8연대 진지의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여의도 방면의 전황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말죽거리 정면의 상황은 신사리로 도하한 적 제3사단 8연대가 제5연대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95고지까지 진출함으로써 위기에 처했으나 미 공군기의 폭격으로 적의 진출은 정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성제2사단이 주력 병력이 철수할 1번 국도의 엄호임무를 부여받아 말죽거리지역에서 철수하자 판교 금곡리에 배치된 혼성제3사단이 말죽거리-판교 축선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7월 3일 적 제4사단은 복구된 경부철교를 통해 4대의 전차를 도하시킨 데 이어 후속병력을 영등포 방면으로 우회하는 등 노량진과 영등포 일대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적 제3사단은 노량진 방면으로 도하하여 일부 병력이 영등포의 배후를 위협하고, 적 제6사단 14연대 일부 병력은 오류동을 돌파하여 영등포로 진출하였으며, 여의도 정면의 적 제4사단도 도하에 성공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이렇듯 영등포 실험이 눈앞에 다가오자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계획된 철수명령을 하달하면서 국군 주력을 부대별로 안양과 과천으로 후퇴시켰다.

한편 한강방어선전투는 전쟁초기의 전국(戰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비록 적의 전차부대에 밀려 철수는 하였지만,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혼성부대로 1주일간이나 한강방어선을 지탱함으로써 수원 이북에서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려던 북한군의 작전계획에 일대 차질을 주었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를 획득함으로써 미 지상군의 전개를 보장함은 물론 국군과 미군이 연합전선을 펼쳐 지연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등 아군의 차후작전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도 혼성병력의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는데, 당시의 상황하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었지만 부대의 건제와 병과를 무시한 혼성병력으로서의 효율적인 전투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전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후 국군과 유엔군은 금강과 소백산맥 일대에 새로운 저지선을 시도하였다. 육군본부 개편계획에 의거 7월 5일 제1군단장에 오른 김홍일 장군은 예하의 제2사단 16연대 및 제25연대와 독립 제17연대를 지휘하여 진천 남쪽 봉화산-문안산 일대에서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2사단의 남침을 5일 동안 방어·저지하였으나, 전투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제1군단은 배후에서 위협을 받고 청주지역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대전지역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사단은 당초의 계획이 5일이나 지연됨으로써 작전상의 차질을 초래하였고, 국군은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50년 7월 15일 제1군단 예하 독립 제17연대는 북한군 제15사단이 속리산으로 남하하여 상주 정면으로 침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화령장 북쪽 금곡리와 동비령 일대에서 매복, 적의 선두부대인 제48연대를 기습하여 궤멸시켰다.

이후 제17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제1사단은 화령장 북쪽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3일간 저지한 후 함창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문경지역에서 후퇴하고 있던 제2군단은 안전한 철수로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국군이 낙동강전선으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제1군단 예하의 제8사단은 안동 북쪽의 천등산과 연곡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침공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북한군 제8사단 소속 연대규모 병력이 서측방 풍산지역으로 침공하자 수도사단 제1연대를 지원받아 이들의 침공을 저지하였으나, 동측방에서 북한군 유격대가 배후로 침투하자 특수임무부대를 급파하여

저지하는 등 융통성 있는 대처로 4일 동안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로 북한군은 안동지역 진출이 지연되었고, 동해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766부대를 안동지역으로 전용함으로써 작전의 차질을 초래하였다.

의성으로 철수한 수도사단 제11연대와 제8사단은 북한군 제8사단과 제12사단의 침공을 1950년 8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에 걸쳐 저지하였다. 제8사단은 의성 북쪽 향로봉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북한군 제8사단의 침공을 저지하던 중 향로봉 진지가 돌파되자 수도사단 제18연대의 증원을 받아 탈환전을 전개하였으나 북한군 제12사단의 배후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보현산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로 북한군은 동부전선으로의 진출이 지연되었고, 왜관 북쪽에 있던 제15사단을 이동시켜 전투력을 보강함으로써 국군이 보현산과 기계지역 정면에 새로운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게 하였다.

낙동강전선으로 철수, 방어에 돌입한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기계-안강-영덕-포항 일대에서 766유격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5사단과 제12사단의 침공을 받았다. 제1군단은 북한군 제12사단이 청송-죽장-기계-안강 축선으로 침공하여 포항을 점령하자 동해안의 기지와 월포에 위치한 제3사단을 해상으로 철수시키는 한편 수도사단과 독립 제17연대 및 미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를 투입, 역습포위 작전을 전개한 끝에 적을 비학산 방면으로 격퇴하였다.

이 전투로 북한군 2개 사단은 낙동강전선의 동부지역 돌파작전에 실패하였고, 제1군단은 기계와 포항지역 북방으로 후퇴한 북한군을 추격하여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 전후 활동 및 인물 단평

이와 같이 국군 제1군단장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김홍일 장군은 육군종합학교 총장에 취임, 전시에 급격히 소요가 증대되는 육군 간부 양성에 전념하다가 1951년 3월 육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정부는 장군의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1951년 7월 26일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예편 후 장군은 중화민국 대사로 임명되어 반공외교 강화에 전력하였으며, ‘5·16 군사정변’ 후에는 외무장관, 재향군인회장,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고문을 거쳐 국회의원,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고 광복회 회장, 국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1980년 8월 8일 83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격동기에 태어나 조국광복 투쟁과 6·25전쟁을 통해 민족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의 일선에서 민족사에 찬연히 빛날 공적을 남긴 장군은 현재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부하를 사랑하라. 평소에 고락을 함께 하지 않은 부하는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 할 수 없다. 청렴결백하라. 재물을 탐하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을 것이다.” 김홍일 장군이 사관생도에게 항상 강조하던 군인의 자세에 관한 일언이다.



孫 元 一 해군중장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해군중장은 해군육성과 확장에 전심전력을 경주하였으며, 6·25전쟁 기간중인 1950년 9월 15일 수도탈환작전인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자 이의 계획과 작전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공헌하였다. 또한 유엔해군과의 합동작전에 있어서 완전한 전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의 제도와 운영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통감하고 해군의 조직 운영방침을 수립·강화하여 예하 장병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제독은 우방 각국 해군과의 강력한 제휴와 긴밀한 협동 하에 전투함정의 증대 등 해군의 확장·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3군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하는 등 군무수행에 뛰어난 재질을 발휘함으로써 1953년 4월 5일 금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805호)을 수여받았다.

손원일 제독은 일제 초기인 1909년 5월 5일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오흥리에서 종교인이자 항일 독립투사였던 손정도 목사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부친의 항일운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던 손 제독은 1930년 상해 국립중앙대 농학원 항해과를 졸업한 후 15,000톤급의 독일 상선 람세스호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제감각을 익히는 한편 외국어 습득에 주력하여 영어, 독일어 등 5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1930년 부친이 사망하자 귀국길에 오른 손 제독은 곧바로 일본 경찰에 독립운동자로 체포되어 고향인 강서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1년 출감하였다. 1945년 조국광복과 더불어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키겠다”는 신념과 포부를 갖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한 뒤 해군창설에 투신하였다. 식량과 물자의 부족 등 초창기 여러 가지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1945년 11월 11일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을 창설하였다.

이후 미 군정하에서 해군의 기틀을 다지던 중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해방병단을 해안경비대로 개편하였다. 개편

에 따라 총사령부를 진해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주요 항구에 기지를 신설하는 한편 기구를 확장하고 정비하면서 해양지식을 익히고 기술향상에 노력한 결과, 1946년 7월 300톤급의 철선인 충무공정을 해군 기술진으로 건조하였다.

이후 소해정, 상륙정, 유조정 등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해상전력을 강화함으로써 1947년 8월에는 미 제7함대로부터 38도선 이남의 해안경비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손 제독은 이와 같이 초창기의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자주 해양수호의 의지로 피나는 교육훈련과 함정세력의 확보에 주력하면서 1948년 8월 15일 조국광복과 더불어 대한민국 해군이 정식 발족



1949년 8월 8일 진해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해군의 분열식 장면

됨에 따라 초대 해군총참모장으로 취임하였다.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 내 좌익분자의 선동으로 일어난 여·순 10·19사건에 해군이 임시정대를 편성,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해안봉쇄와 함포사격으로 다대한 전과를 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 작전은 실전을 통한 첫 경험으로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본 작전에서 육전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

초창기 해군 함정세력은 소해정이 대부분이었으며, 전투함을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장비의 빈약함을 절감한 손 제독은 전투함을 보유하기 위해 1949년 6월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함정건립기금거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가 장병들의 성금 6만 달러를 모아 이승만 대통령께 취지와 목적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정부보조금 6만 달러를 하사함으로써 전투함 보유에 대한 염원은 서서히 현실화되었다. 미국으로 건너간 손 제독은 1949년 10월 6백톤 급의 백두산호를 비롯한 4척의 PC함을 구입하여 실전배치, 대한민국 해군도 염원하던 전투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 대한해협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첫날부터 북한 공산군의 해상침투를 거부하고 유엔해군과 더불어 동·서·남해에서 제해권을 확보한 손 제독은 예하 전 부대에 비상경계 돌입과 전투준비에 임할 것을 명령하고 동·서·남해의 해상경비를 강화하여 상륙을 기도하는 적의 선박을 발견하는 즉시 격침하라는 비상조치를 취하는 등 해군총참

모장으로서 6·25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전초기의 옥계해전과 PC 701함의 해전 승리는 서전의 승리라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제해권 확보라는 전략적 의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당시의 옥계해전을 살펴보면, 동해안 경비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YMS 509정이 묵호항에 정박하고 있던 중 동해안을 따라 남침한 북한군 제766유격부대는 옥계 등지의 해안을 공격목표로 하여 6월 25일 04시에 해안상륙을 시도하였다. 적의 상륙 사실을 보고받은 사령관은 해군본부로 타전하는 동시에 YMS 509정의 현지출동을 명령하였다. 이 무렵의 해안경비체계는 항구에 정박한 상태에서 출동을 대기하는 형태였으며, YMS 509정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묵호경비부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총참모장은 즉시 “긴급출동 지시, 북한수송선단 남침, 옥계 해안에 적군 상륙 중, 긴급출동하여 격침하라”는 전문을 YMS 509정에 하달하였다. 06시에 묵호를 출항해 북상한 509정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한 해상을 2시간 동안 항진한 끝에 한 척의 배를 발견하였다. 아군의 경비정으로 오인한 509정이 발광신호를 보내며 접근해가자 상대편 배는 509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적선임을 확인한 509정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37mm포와 중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면서 관찰한 결과 마스트에는 붉은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정조준하여 사격한 37mm포는 정확히 적함의 첩판에 명중되었다.

50분간 교전을 벌이던 적함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북으로 도주하였다. 509정은 피격된 선수를 수리하기 위해 묵호로 귀항하여 긴급수리를 마치고 교전을 벌였던 해역으로 다시 출동하였으나, 적은 이미 상륙한 후였다. 17시 30분 509정은 해안선에 있던 상륙정 1척

을 완전 격파하고 또 다른 발동선 1척을 노획하여 목호경비부에 인계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대한민국 해군은 동·서·남해 제해권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동·서해안 철수작전, 동·서·남해 해상봉쇄 및 소해작전 등 해상 주요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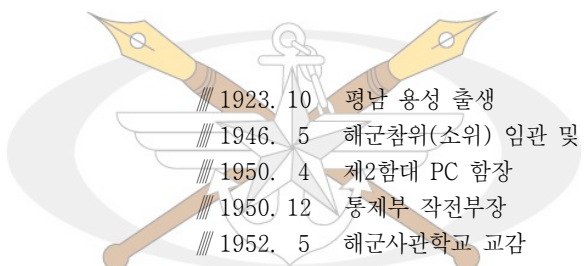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3년 6월 30일 해군참모장을 끝으로 예편한 제독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여 국방관계 법령, 제도 및 교육개선 등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였다. 1957년 7월에는 서독 주재 대한민국 초대대사로 부임하여 외교에도 큰 몫을 하면서 일생을 조국과 겨레를 위해 헌신하다가 1980년 2월 15일 향년 71세로 타계하였으며, 제독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2-5에 안장되었다.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훈련병들이 일본군가 곡조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음악을 전공한 자신의 부인에게 우리 해군의 기상과 의지를 살릴 수 있는 군가를 작곡하도록 하여 지금의 해사교가를 비롯한 여러 곡의 해군 군가를 만들 정도로 손 제독은 해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崔 龍 男 해병소장

- 
- /// 1923. 10 평남 용성 출생
 - /// 1946. 5 해군참위(소위) 임관 및 교육대 교관
 - /// 1950. 4 제2함대 PC 함장
 - /// 1950. 12 통제부 작전부장
 - /// 1952. 5 해군사관학교 교감
 - /// 1953. 2 해병 제1전투단 5대대장
 - /// 1953. 7 해병학교 교장
 - /// 1953. 9 해병대사령부 작전과장
 - /// 1954. 5 해병대사령부 참모부장 겸 군수부장
 - /// 1955. 5 해병 제1사단 참모장
 - /// 1955. 11 해병준장
 - /// 1958. 8 제1상륙사단 부사단장
 - /// 1959. 3 해병 제1여단장
 - /// 1960. 6 진해기지사령관
 - /// 1962. 7 해병대 부사령관
 - /// 1963. 1 해병소장
 - /// 1964. 1 제1상륙사단 사단장
 - /// 1965. 5 예편
 - /// 1998. 11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 PC 701함의 함장인 최용남 해군중령은 1950년 6월 26일 00시 30분경 대한해협 근해에서 600여 명의 게릴라를 싣고 남하하는 적의 대형 수송선박을 격침함으로써, 게릴라부대를 동해안 후방에 상륙·침투시키려던 적의 게릴라운용 전략에 일대 타격을 가하는 한편 아군의 작전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전공으로 그는 1951년 10월 30일 군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8호)을 수여받았다.

1923년 10월 15일 평안남도 용성군 사기면 심산동에서 출생한 최용남 해병소장은 1942년 3월 평안도 서북지역 명문중학 중의 하나인 신의주동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2년을 수료하였다. 1944년 1월 20일 일본군에 입대하여 야마구치(山口) 연대에서 1년 8개월을 근무한 뒤 조국의 광복을 맞아 1945년 9월 7일 육군소위로 제대하여 귀국하였다.

1946년 5월 1일 80048의 군번을 부여받고 해군참위(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진해기지교육대 교관에 보임된 후 함정부 부관과 신병교육대장 등을 역임하고 6·25전쟁을 불과 두 달 앞둔 1950년 4월에 제2함대 PC 함장으로 부임하였다.

□ 대한해협전투와 작전 활동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백두산함의 함장이었던 그는 대한해협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는 등 전쟁기

간동안 많은 활약을 하였다.

선명이 ‘백두산’인 PC 701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유일한 전투함이었다. 강한 화력과 최신 장비로 무장된 전투함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해군 전 장병과 국민은 함정 구입을 위한 성금모집에 착수, 거출된 성금으로 701함을 구입하게 되었다.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한 701함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국내의 주요 항구를 순방하고 6월 24일 진해항에 귀항하였다.

다음날 일요일을 맞아 진해항 제4부두에 정박해 있던 백두산함의 대원들은 오랜 해상생활에서 벗어나 절반 이상이 외출을 한 상태였다. 11시경 느닷없이 지프를 타고 달려 온 통제부사령관 김성삼(金省三) 대령은 당직사관 김종식 소위에게 “701함장은 통제부사령관으로부터 YMS 512정과 518정을 인수 지휘하여 즉시 동해안으로 출



6·25전쟁 개전 당시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인 PC 701함 백두산호

동, 제2정대사령관의 협조아래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동시에 적함을 포착하는 대로 격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701함장 최용남 중령은 비상소집과 함께 외출장병의 귀함 지시를 내리고 출동태세를 갖추었다. 외출중인 승조원들이 귀함하는 동안 비상물자를 실은 트럭이 달려오고 군의관과 위생부사관도 승조한 가운데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다. 통제부사령관에게 출항준비 완료보고를 마치고 YMS 512정과 518정을 지휘하여, 진해항을 출항한 시간은 15시였다.

미국에서 어업지도선인 지남호(指南號)를 인수하여 최초로 태평양을 향해했던 최용남 중령의 지휘아래 대원들은 거친 바다를 헤쳐나갔다. 19시 30분경 함교에 있던 대원의 시야에 무엇인가 희미한 물체가 들어왔다. 701함은 최대 속력으로 정체불명의 선박에 접근하며 뒤따르던 512정에도 급속으로 복진할 것을 명령하였다. 얼마 후 짙어 가는 노을 속에서도 그 물체는 수평선 위에 검은 점으로 뚜렷이 포착되었다. 상황은 당직사관을 통해 함장인 최 중령에게 보고되었고, 보고를 받은 최 중령은 전투배치를 명령하였다.

정체불명 선박과의 거리는 약 5마일 정도로 유지하였다. 백두산함은 정지신호를 연달아 보냈으나 반응이 없었다. 거리가 3마일 정도로 좁혀지자 피선박은 갑자기 동쪽으로 선수를 돌리더니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전 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최 중령은 적선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1,000톤 급으로 보이는 적선은 무엇을 실었는지 워터라인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끝없는 수평선만 펼쳐지는 해상에서 추격전은 2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백두산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적은 일반상선처럼 항해등을 켜고 항해하며 백두산함의 시선을 속이려 하였다. 백두산함은 서치라이트를 켜

선박을 살폈다. 선수와 선미에 57mm포가 백두산함을 향해 있었으며, 갑판에는 수병복을 착용한 정규해군과 육전대로 가득 차 있었다.

701함이 해군본부에 상황을 보고하자 적선을 나포하라는 회신이 곧장 하달되었다. 그러나 영해내로 적선을 유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해군본부는 적선을 격침하라는 두 번째 회신을 보내왔다. 26일 0시 30분 함장으로부터 드디어 전투지시를 받은 포술장 유용림 중위의 우렁찬 사격구령과 함께 주포는 불을 뿜었다. 포탄은 적함의 마스트를 통과해 적함의 좌현 해상에 떨어져 물기둥이 치솟았다.

급작스런 포격을 받은 적함은 급선회를 시도했고 701함은 거리를 더욱 좁혔다. YMS 518정도 701함의 좌현 후미에서 37mm포로 사격을 개시하자 적함은 57mm포와 중·경기관총 등으로 대항하여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거리 1,500, 발사.” 다시금 함체를 박차고 나간 포탄은 보기 좋게 적선의 메인 마스트에 명중하였다. 701함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때 적선은 한줄기 광선을 내비치며 701함을 찾기 시작하였다. 포술원들은 “호등을 겨눠라”는 최 중령의 지시에 맞춰 이번에는 적선의 신호등을 박살내버렸다.

적은 이제 도망가는 것을 단념했는지 화력을 백두산함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캄캄한 밤바다 위에 아군과 적이 쏘아대는 기관포와 주포의 붉은 예광이 수많은 줄을 긋고 또 그으며 사라져갔다. 마침내 적선의 속도가 줄어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이 기울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이때 무엇인가 번쩍이더니 701함도 심하게 흔들렸다. 적탄에 701함의 조타실 중앙하부가 명중되었다. 조타수 김창학 삼조는 파편상을 입고도 끝까지 키를 잡고 있었으며, 주포전화수 김춘배 삼

조도 마찬가지로였다. 치열한 포격전이 끝나자 수많은 상륙병을 실은 적함은 뿌연 증기를 내뿜으며 수장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701함은 이렇게 4시간 여의 전투 끝에 약간의 사상자를 낸 채 6·25전쟁의 첫 해전을 통쾌한 승리로 장식하고 진해로 귀항하였다. 함장인 최용남 중령은 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는데, 그 공적서는 “함장으로 제반 곤란을 극복하면서 현해탄해전에서 교묘한 작전으로 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한편 연합군과의 긴밀한 연락아래 동·서해안 봉쇄 작전에서 괄목할 활약으로 이를 성공시켰으며,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의 수행에도 기여하였다”고 6·25전쟁 당시의 작전수행 능력과 공헌도를 기술하고 있다.

그후 최용남 중령은 12월에는 해군통제부 작전부장으로 전보되어 완벽한 해상작전의 수립과 이행에 전력한 후 해군본부 인사국 기획과장, 해군사관학교 교감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52년 10월 육군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후 해병으로 전과, 1953년 2월 휴전을 눈앞에 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던 해병 제1전투단 5대대장에 보임되었다.

제1전투단은 1953년 5월 경기도 포천군 전곡면 상대전지구에서 휴식과 교육훈련에 정진하다 6월 27일 연천지구로 출동하여 7월 7일까지 정찰전을 전개하면서 적의 수중에 들어갔던 고지들을 탈환하는데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7월 8일에는 서부전선의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 연일 강력한 정찰대와 잠복대를 편성하여 정찰전을 전개하던 중 휴전에 임하게 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최용남 중령은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7월 7일 해병 대령으로 진급과 동시에 해병학교장으로 전보되어 해병의 주역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후에는 사령부 작전국장과 사령부 참모부장 겸 군수국장 등 정책참모로 활동하였다. 이후 해병 제1사단 참모장으로 재임하던 중 해병준장으로 진급한 그는 제1상륙사단 부사단장, 해병 제1여단장, 진해기지사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였고, 1964년 1월 제1상륙사단 사단장으로 보임됨으로써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펼칠 수 있었다. 그 결과 장군은 대한해협전투의 전공으로 인한 태극무공훈장 이외에도 금성충무무공훈장과 공비토벌기장, 방위포장, 미 은성훈장 등 수많은 훈·포장을 수여받게 되었다.

1965년 5월 해병소장으로 군문을 나선 장군은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다 1998년 11월 26일 향년 7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현재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89에 안장되어 있다.



李 根 哲 공군준장



/// 1917.	1	평남 평원 출생
/// 1948.	5	육군소위 임관
/// 1949.	2	육군항공기지사령부 비행단장
/// 1949.	7	육군대령
/// 1949.	1	공군사관학교 교장
/// 1950.	5	공군비행단장
/// 1950.	7	F-51 인수편대장
/// 1950.	7	F-51 초도 출격
/// 1950.	7	전사(안양상공)
/// 1951.	9	태극무공훈장 및 공군준장(추서)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대한민국 공군창설 당시부터 비행대장, 공군사관학교장, 비행단장 등을 역임하며 공군육성에 진력하던 이근석 공군준장은 6·25전쟁

이 발발하자 제1선에서 적의 집결병력을 격퇴하고 적의 전차를 격파하는 전공을 수립하는 한편 장렬한 자폭을 감행함으로써 1951년 9월 19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6호)을 수여받았다.

1917년 1월 17일 평안남도 평원군 청산면 구원리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끝없는 하늘에 대한 동경과 함께 비행사에 대한 꿈을 품어왔다. 16세가 되던 1933년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있는 가미다니(熊谷) 비행학교에 소년비행병 제2기생으로 입교한 이근석은 쾌활하고 과단성 있는 호남아로 명성을 떨쳤고 뿐만 아니라 진취성과 적극성을 겸비한 생도로서 평판이 높았다. 또한 민족적인 울분으로 일본인에게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그의 모든 처신에 잠복해 있었으며, 천재적이라 할만큼 뛰어난 조종사로서의 재능은 그를 가장 우수한 생도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의 조종술은 교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담당교관은 그를 ‘비행술의 천재’라 칭할 정도였다.

1934년 비행학교를 졸업한 그는 요시오카(吉岡) 전투비행부대로 배속되었는데, 당시 요시오카전투비행부대는 일본 육군항공부대 중에서도 뛰어난 조종사들로 구성된 최정예부대였다. 첫 출격부터 적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린 이근석의 조종술은 부대의 정평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을 위한 희생이 부질없는 짓임을 인식한 그는 희생을 거부하고 영국군에 투항하여 종전 무렵에는 포로로 있었다.

8·15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귀환한 그는 내 나라 내 겨레를 우리 비행기로 지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으나 현실은 그의 희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광복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공군의 창설은 요원하기만 하였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근대국가에서 항공력의 역할과 위력을 익히 알아 온 그는 스스로 공군을 창설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의 규합에 나섰다. 최용덕, 김정렬, 이영무, 장덕창, 박범집, 김영환 등과 함께 ‘공군창설의 7인간부’의 일원으로 이 과정



이근석 장군의 장교신분증명서

에 참여하여 마침내 1946년 4월 1일 최초의 항공부대가 조선경비대 내에 창설되었다.

1948년 수색의 조선경비대 보병학교를 거쳐 5월 14일 태능의 경비사관학교를 간부후보생 1기로 졸업, 육군소위로 임명된 그는 육군 항공 총감부와 육군항공기지사령부에서 비행단장으로 근무한 후 1949년 7월 육군대령으로 진급하였다. 1948년 10월 공군의 독립과 동시에 이근석 대령은 새로이 창설된 공군사관학교의 초대교장으로 임명되어 공군의 간성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었다.

□ 수도권방어와 작전 활동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이근석 대령은 공군사관학교 교장직을 떠나 여의도에 있는 비행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적은 소련제 야크전투기를 가지고 남침을 기도해왔으나, 우리 공군은 경비행기 몇 대로 공군의 명목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T-6, L-4 등 연습기에 불과하고 국산 수제폭탄이 유일한 대적장비였다.

09시경에는 적기가 여의도비행장에 나타나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근석 대령은 내습한 적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발을 굴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당시 비행단장이었던 그는 입술을 깨물며 “내게 전투기만 있다면”하고 안타까워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공군장병들도 전투기를 가져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남침하는 적기와 탱크를 쳐부수는 데는 전투기의 위력이 아니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계속 들어오는 전황은 절망적이었다. 피끓는 장병들이 전장 곳곳에서 육탄으로 적의 탱크를 파괴하고 장렬히 전사하고 있다는 처참한 전황을 전해들은 이근석 대령은 저녁 6시경 부하들과 함께 정찰을 마치고 비상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여의도 기지내에 공군 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보유하고 있던 모든 항공기 22대로 남하하는 적군을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경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적을 공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음날 의정부-동두천 방향으로 출격하면서 30파운드의 폭탄을 꺼안은 관측사(觀測士)를 뒷자리에 동승시켰다. 동두천-의정부 축선 상에는 약 700여대로 추산되는 적의 탱크와 차량이 들어차 있었다. 목표물의 상공에 다다른 그는 200피트의 초저고도(超底高度) 비행을 하면서 뒷좌석의 관측사로 하여금 신고 온 폭탄을 손으로 직접 투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신고 온 폭탄이 모두 투하되고 나면 다시 폭탄을 싣고 날아가 계속 투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은 마침내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근석 대령과 전 조종사들의 세계 항공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러한 원시적인 공중폭격으로 적의 서울침입을 24시간 지연시킬 수 있었다.

6월 28일, 거칠 것 없이 남진하는 적의 T-34 탱크를 대한민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행기로는 도저히 파괴할 수 없게 되자, 미국동공군사령부는 10대의 F-51 무스탕기를 대한민국 공군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수 편대장으로 선임된 이근석 대령은 다른 9명의 조종사를 인솔하여 일본 이다쓰게기지로 건너가 F-51 기종전환 훈련을 받은 후 10대의 F-51 전투기를 인수하였다.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신(金信) 장군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그 날이라도 F-51을 타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다음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부득이 5일간을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의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계



1950년 7월 2일 현해탄을 건너오고 있는 무스탕기 편대

적으로 이름난 고급 전투기를 단 한번도 연습하지 않고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큰 모험이었으나 당면한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감행, 성공하였습니다.”

7월 2일 이근석 대령은 양 날개에 태극마크가 선명한 F-51 무스탕기를 직접 지휘, 현해탄을 건너 대구 동촌비행장에 무사히 안착하였다. 안착 직후 이 대령은 김정렬 총참모장에게 “전쟁의 승리는 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군의 출격은 지상군의 사기를 고무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전환훈련은 생략하고 출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라고 보고, 출격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미 극동공군의 전투기 제공계획에 따른 1차분 10대가 한국에 도착했던 당시의 상황은 한강방어선을 돌파한 적이 수원을 점령하고 경부축선을 따라 남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4일 이근석 대령은 무스탕편대의 편대장이 되어 처녀출격에 나섰다. 지상에서는 편대의 장도를 기원하는 기지 장병들의 환성이 울려 퍼졌다. 편대와 더불어 기지 상공을 서서히 선회하여 장병들에게 답례한 그는 북으로 기수를 돌렸다.

편대가 평택 상공에 들어서자 도로를 따라 남진하고 있는 적의 무리가 시야에 들어왔다. 갑작스런 무스탕기의 출현에 적은 당황하고 있었다. 편대장 이근석 대령은 “공격을 개시하라”는 무전명령을 각 편대기에 하달하고, 편대에서 이탈하여 급상승한 후 이어 급반전 강하로 적의 머리 위로 내리닥치며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뒤따르던 편대기들도 편대장의 뒤를 이어 급반전 강하를 하며 적을 공격하였다.

홀어졌던 편대기들의 전열을 정비하면서 단숨에 수원을 지나 안양-시흥 가도에 이르렀을 때, 초저공비행으로 선두에서 적진을 탐색

하던 이근석 대령의 시야에 남하중인 4,000~5,000명의 적을 호위하고 있는 20여 대의 탱크가 발견되었다. “전방에 적 탱크 발견, 전 기로켓탄 공격개시”라는 지시와 함께 편대장은 기수를 급상승시켰다. 당황한 적은 계속하여 대공포화를 쏘아댔고, 갑작스런 공습에 적 탱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급강하를 시작한 그가 적 탱크를 향해 로켓탄을 발사하자 그 탱크는 번쩍이는 섬광에 이어 검붉은 연기에 휩싸여 폭발하고 말았다. 이어 2번기와 3번기의 공격이 계속되었고, 적의 탱크들은 화염에 휩싸인 채 오도가도 못하였다. 편대의 1차 공격을 끝내고 나머지 탱크에 재차 공격을 가하기 위해 이근석 대령은 급강하를 시작하며 로켓탄을 발사하였다.

적 탱크를 폭파하고 기수를 올리려는 순간 난사하는 적의 포탄 중 한 발이 그가 조종하는 전투기의 엔진에 명중되었다. 순식간에 기체는 붉은 화염으로 휩싸였고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이근석은 정신을 가다듬고 푸른 하늘로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는 지상의 적정을 살핀 후 뒤따르는 편대기에게 “3번기 도로 좌방 탄약차량 공격, 건투를 빈다”라고 강한 어조의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그의 불붙은 기체는 하늘에 반원을 그리며 적 탱크를 향해 돌진해갔다. 이어 지상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폭음이 진동하였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육체를 최후의 폭탄으로 삼아 적의 탱크를 파괴하고 장렬히 산화한 이근석 대령은 사후(死後)인 1951년 9월 19일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됨과 동시에 공군준장으로 진급하였으며, 전 국민의 추모를 받아 군신으로 추대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48년 5월 14일 사관후보생 1기로 임관되었던 이근석 장군은 작전임무를 수행 중 온 몸을 던져 조국의 하늘을 지킨 신념의 보라매이며 진정한 하늘의 수호신이었다. “조국을 위해 무명의 초석이 되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장군은 몸소 이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되었다.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강병육성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산화한 이근석 장군은 1951년 9월 19일 태극무공훈장과 함께 공군준장으로 추서되었으며, 1957년 4월 28일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2에 안장되었다.



2

지연전 및 낙동강 방어작전

1950. 7. 5~1950. 9. 14





金 龍 培 육군준장



- /// 1921. 4 경북 문경 출생
- /// 1948. 4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제8연대 작전장교
- /// 1949. 8 제6사단 7연대 1대대장
- /// 1950. 7 육군중령
- /// 1951. 제6사단 19연대 부연대장
- /// 1951. 제6사단 7연대 부연대장
- /// 1951. 제7사단 5연대장
- /// 1951. 7 전사(양구지구)
- /// 1951. 7 육군준장(추서)

□ 입대 및 전군초기 활동

김용배 육군준장은 1950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6사단 7연대 1대대장으로 음성전투에 참가하여 발군의 전공을 수립하였다. 동락

리전투로 불려지는 이 전투는 한강방어선의 붕괴로 서부전선의 국군 부대들이 평택과 안성으로 집결하고 있을 때, 원주에서 충주로 남하한 제6사단 7연대가 이천-장호원-충주로 이어지는 3번 도로 축선을 따라 남진중인 북한군 제1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장호원 방면으로 진출하던 중 음성 북방의 동락리에서 적의 선두부대인 제48연대를 기습, 격퇴하고 남침을 지연시킨 공세적 방어전투이다. 제1대대는 이 전투에서 보현산을 야간에 점령한 후 배후공격을 가하여 패주하는 적 270명을 사살하고 6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45mm 대전차포 등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1951년 7월 12일 제7사단 5연대장으로 양구 토평리지구에서 중공군 제5군단 예하의 1개 연대와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면서 작전을 지시하던 중 지근거리에서 작렬한 적의 포탄에 의해 전사, 타의 귀감이 됨으로써 1951년 9월 10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5호)을 수여받았다.

1921년 4월 17일 경북 문경군 호서면 남면리에서 출생한 김용배 장군은 15세가 되던 1935년 고향의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구치 현립(山口縣立) 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보잘 것 없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비를 조달하지 못한 그는 1년만에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938년 12월 일본의 지원병으로 강제징집되어 나남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16연대에서 3년 6개월을 보내고 귀향한 그는 패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1945년 6월 일본군에 재차 징집되어 관동군에 편입되었다.

일본군 육군조장으로 있던 중 해방을 맞이한 그는 해방 조국의 간성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국방경비사관학교 제5기생으로 입교, 6개

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1948년 4월 육군참위(소위, 군번 10828)로 임관되었다. 그는 보병 제8연대에 배속되어 작전장교로서 산악전 연구에 몰두하던 1949년 8월 15일 소령 진급과 함께 제6사단 7연대 1대대장으로 부임하였다.

□ 음성 동락리전투와 작전 활동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적으로 남침을 강행하자 국군은 차령산맥을 연한 선에서 이들을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 1950년 7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제6사단 7연대와 제1사단이 북한군 제15사단과 일전을 벌인 음성지구는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도계를 이루는 차령산맥이 중앙부에 형성된 분지로서 지리적으로나 교통상의 요충이었던 까닭에 피아간에 이곳의 선점(先占)이 곧 중부지역 제압의 관건으로 보고 쟁탈의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음성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이 도착하기에 앞서 음성 전방에서는 김종오 대령이 지휘하는 제6사단 7연대가 엄호부대로서 북한군 제15사단과 접촉 중이었다.

7월 4일 충주, 장호원 방면으로 남진중인 적 제15사단을 저지하고 장호원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은 제7연대는 이날 밤 제2대대를 선발대로 출발시켰다. 제2대대로부터 동락리 부근의 조우 상황을 보고 받은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적이 이미 무극리 및 생곡에 진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날 아침 1개 대대를 급히 진천으로 투입하여 이천 방면에서 철수하고 있는 제19연대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연대장은 제2대대를 진천으로 전환토록 하고 제1대대로 무극리를

그리고 제3대대로 생극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반면에 북한군 제15사단은 개전 초 제2군단 예비대로 있다가 3일 장호원으로 투입되어 무극리에 제49연대, 생극에 제48연대를 전개하고 제50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음성 돌파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15사단은 10,000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20여 대 등 많은 병력과 각종 장비에도 불구하고 훈련 정도가 낮고 전투경험이 없는 부대였다.

7월 5일 쌍방은 기름고개와 동락리에서 조우하였다. “무극리로 진출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라”는 임부택 연대장의 명령을 받은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06시에 부대를 집결지에서 출발시켰다.

제3중대 3소대장 이상우 중위가 지휘하는 정찰대가 음성 서북쪽 3km에 위치한 소여리를 지나 일명 기름고개라 불리는 유현(油峴)으로 접어들 때, 고개를 넘는 일단의 무리를 발견하였다. 정찰대장 이 중위는 정지신호와 함께 차량을 우측 숲속에 은폐시키고 대원들을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언덕 위로 배치하여 접근하고 있는 무리의 동태를 살피게 하였다. 무리의 선두에는 자전거를 탄 군인과 사복차림을 한 몇 명의 사람이 앞장서고 1개 중대 병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정찰대가 피아 확인을 위해 망설이는 동안 무리는 100m 거리로 접근하였고,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쓴 모습으로 보아 북한군이 틀림없었다. 500m 후방에 있는 제3중대 본대에 보고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 중위가 사격명령을 내리자 대원들의 사격이 적에게 집중되었다. 기습을 당한 적은 퇴각을 시도하였으나 제3중대가 발사한 60mm 박격포탄으로 인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어 본대가 가세할 즈음에 적은 40여 구의 시체만을 남기고 도주

하였다.

이후 약 3시간이 경과하여 제1대대의 주력이 기름고개의 정상 부근에 이르자 패주한 적의 본대로 보이는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기름고개 서쪽의 507고지인 보현산 동쪽의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포격을 가하면서 제1대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로 인해 제1대대는 연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기름고개 동쪽의 385고지 일대에 포진하여 그들과 대치하였다. 18시경에는 음성 북쪽 4km 지점에 위치한 용산리로 전진한 제2대대와 연계하여 적의 야간 침투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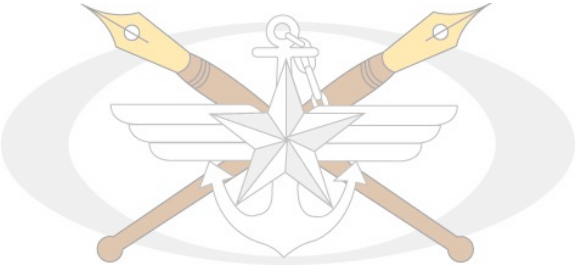
7월 6일 날이 밝아오자 교착된 기름고개의 동과 서에서 총격이 한층 가열되었다. 연대장은 04시를 기해 제1대대와 제2대대의 공격을 재개시키고 무극리의 확보를 명하였다. 각 대대는 지난 밤 사이 적이 알지 못하도록 간헐적인 사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1대대가 보현산 북단부의 376고지를, 제2대대는 385고지를 각각 확보하고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04시 약정된 신호에 따라 제1대대와 제2대대 그리고 제2포병중대는 각종 화기의 화력을 보현산으로 집중하였다. 이에 적도 385고지를 향해 각종 화기를 집중하였지만, 아군의 배후사격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기회를 잡은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81mm와 60mm 박격포로 계속 제압토록 하고 관측장교로 하여금 105mm의 포격을 346고지 북향으로 연신시킨 다음 제1중대를 우일선에, 제2중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보현산을 목표로 반격토록 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 고지를 포기하고 346고지 방향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제1대대는 공격을 개시한지 1시간도 못되어 보현산을 점령하고 제2대대와 제2포병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음성지구 전투상황



12시경 무극리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적 연대 규모의 반격을 받고 무극리 남동쪽에 위치한 백야리의 351고지에 진지를 급편하고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 제1대대는 이 전투에서 적 270명을 사살하고 6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45mm 대전차포 등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제3대대도 조우전에서 적의 압력이 강해지자 철수하여 다음날 가엽산 남쪽 290고지를 점령하였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중앙지역의 방어력 강화를 위해 예비대인 제2대대를 동락리 남쪽 부용산 일대에 투입하고, 제1대대에는 제19연대 2대대를 지원·배치하여 백야리에서 적을 저지토록 하였다.

한편 동락리에 진입한 적 제48연대는 제3대대가 철수한 것으로 판단, 6일 밤부터 이동대형을 취하지 않고 경계대책을 소홀히 하였다. 경찰대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제3대대장은 부대를 즉각 310고지, 용원리 부근으로 이동시켜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날이 밝을 무렵 경찰활동에 나섰던 제3대대 9중대가 용원리 부근에서 적의 선두를 공격하자 적은 소규모의 국군이 저항하는 것으로 판단, 첨병 중대만을 공격에 투입하고 주력은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기회를 잡은 제3대대 주력은 적을 측방에서 공격하였다.

이 무렵 동락리 일대에서도 제2대대가 적을 기습공격하고 있었다. 부용산 일대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제2대대는 동락리 앞 도로에 병력을 수송하고 있는 적 차량을 관측하고, 일제 약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방심하고 있던 적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차량과 장비를 유기한 채 분산·도주하였고, 그들 중 상당수가 아군의 추격을 받고 사살되거나 생포되었다.

동락리전투에서 제7연대는 적 제48연대를 기습공격하여 군수참모

를 비롯한 적 132명을 포획하고 각종 포 54문과 차량 75대 등 수많은 장비를 노획하였을 뿐 아니라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도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7연대의 전승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과는 표창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사의 귀감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전승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제6사단 7연대가 전개한 동락리전투는 개전 이래 패배감에 젖어있던 국군에게 자신감을 안겨 준 가장 통쾌한 전투였으며, 북한군의 음성 진출을 1주일이나 지연시킴으로써 국군이 진천-음성-충주로 이어지는 저지선을 형성,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다 준 의미 있는 전투였다. 제7연대는 이 공로로 대통령 부대표창과 연대 전 장병 1계급 특진의 기록을 세웠으며, 김용배 소령도 중령으로 진급하였다.

그 후 제6사단 7연대 1대대는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음성 부근에서 적의 남하를 10일간 저지하였고, 용기동과 군위-의흥, 신령지구 등에서 적의 공세를 막아냄으로써 총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후 조림산지역에서 적을 격퇴하고 단양-충주선을 따라 진격에 나섰다.

10월 6일 38선을 돌파한 제1대대장 김용배 중령은 화천-김화 축선으로 진격, 원산을 점령하고 계속하여 성천-순천-개천-희천으로 북진하였다. 제1대대는 초산 남쪽 6km 지점에서 저항하던 연대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초산에 돌입하여 10월 25일 압록강변에 태극기를 꽂았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수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대부분의 장비를 유기한 채 극적으로 탈출, 개천에서 사단 주력과 합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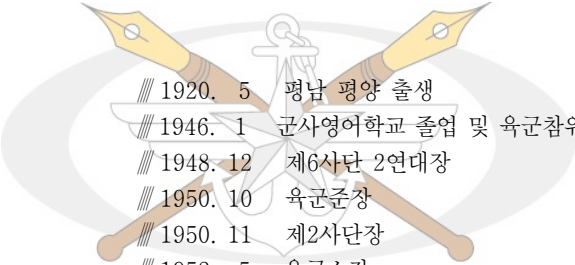
1951년 6월 제7사단 5연대장에 임명된 김용배 대령은 1951년 7월 2일 양구 북면 토평리지구에서 중공군 제5군단 예하의 1개 연대와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앞두고 최전선 예하부대를 방문하여 현장지도 중 지근거리에서 작렬한 적의 포탄에 의해 전사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용감하고 침착하면서 대범한 지휘관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김용배 장군은 6·25전쟁 기간 내내 최전선에서 뛰어난 지휘 통솔력으로 부대를 지휘하여 적을 섬멸하였으며, 정부는 그의 살신보국 정신과 불굴의 투혼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과 함께 1951년 9월 10일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장군의 유해는 현재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52에 안장되어 있다.



咸 炳 善 육군중장

- 
- /// 1920. 5 평남 평양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8. 12 제6사단 2연대장
 - /// 1950. 10 육군준장
 - /// 1950. 11 제2사단장
 - /// 1952. 5 육군소장
 - /// 1952. 7 교육총감 겸 전남지구위수사령관
 - /// 1954. 7 제2훈련소장
 - /// 1955. 1 육군중장
 - /// 1955. 5 제2군단장
 - /// 1959. 1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 /// 1960. 8 국방연구원장
 - /// 1961. 7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6·25전쟁 기간동안 제2사단장과 제1군단장으로 여러 전투에 참여한 함병선 육군중장은 주도면밀한 계획과 침착하고 과감한 전투능력을 발휘하여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특히 1950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경 이화령에서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제6사단 2연대를 지휘하여 북한군 제1사단의 침공을 저지한 후 기습적인 반격으로 적을 격퇴함으로써 1953년 6월 5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10호)을 수여받았다.

1920년 5월 30일 평양에서 출생한 함병선 장군은 평양 송덕중학을 졸업한 후 특별지원병 제1기로 일본군에 입대하였으나, 일본패망에 따라 일군 준위로 제대하였다. 이후 미 군정청이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 A중대를 태능에 창설하고 중대요원을 모집하자 임부택, 유홍수 등과 함께 응시하여 2월 1일부터 선발되었다.

이후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한 그는 1946년 2월 졸업과 동시에 군번 10038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어 제1연대의 대대구매관 겸 식사관(食事官)에 보임되었다. 이어 제1연대 C중대장으로 발령되어 인천항만지구의 미군창고와 김포비행장 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47년 5월에 제2연대로 전출되었고 12월에 육군소령으로 진급하였다. 1948년 12월 7일 보병 제6사단 2연대장에 임명된 그는 연대장으로 재임하면서 중령과 대령으로 진급하는 한편, 여수의 제14연대가 일으킨 여·순 10·19사건의 진압작전에 참여하였다.

1948년 12월 29일 대전의 주둔지에서 제주도로 이동한 제2연대는 6개월에 걸쳐 사태를 진압하였다. 이 작전에서 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일본군에 복무할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용맹을

발휘한 실전경험을 기반으로 전투경험이 전무한 부하들의 전투에서 지휘하여 초기 토벌작전에 모범을 보였다. 사실상 연대장이 작전부대에 더욱이 토벌작전의 전투에 나서는 것은 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여 예하 지휘관들에게 지휘도의 단면을 보여주며 작전에 박차를 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작전을 마치고 제주도에서 복귀한 제2연대는 인천으로 이동, 1949년 8월 웅진반도에서 38선전투를 전개하다 11월 15일 작전임무를 제17연대에 인계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으며, 1950년 6월 20일 홍천지구로 이동하여 제6사단 8연대의 38선 진지를 인수한 지 3일만에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 문경 이화령전투와 작전 활동

개전초기 춘천·홍천지역방어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후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실시하며 철수하던 제6사단 2연대는 1950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화령에서 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전투 지휘로 침입해 온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수안보에서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다 철수한 제6사단은 금강-소백산맥선 방어계획에 따라 소백산맥의 요충인 이화령과 조령을 포함한 문경 정면을 전담하였다. 사단장은 험준한 지세를 이용한 거점방어태세를 취하기로 하고 제2연대를 이화령에, 제19연대를 조령에 배치하였다. 이에 반해 수안보에 집결한 북한군 제1사단은 문경-함창-상주 축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군 제13사단도 이화령 서측방으로 침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7월 14일 북한군 제1사단 2연대는 이른 새벽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아군 제2연대의 진지를 공격해왔다. 적의 우세한 병력과 화력으로 백병전을 거듭하는 동안 제2연대의 방어선 일부가 돌파되어 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전방의 제2대대가 축차적인 진지를 점령하면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포 지원을 요청하며 제1대대와 제3대대로 하여 반격을 가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진두에서 부대를 지휘함으로써 전황을 반전시켰다. 연대장의 진두지휘로 사기가 오른 모든 연대병력은 반격을 개시하여 퇴로가 차단된 적을 격퇴함은 물론 적진까지 탈환하고 다수의 화기 및 장비를 노획하였다. 이날의 전과는 8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였으며, 장갑차 3대와 트럭 10대, 포 3문을 노획하는 대전과였다.

이 전투의 승리는 소수의 병력이 압도적인 적의 공격을 받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명확한 판단과 진두지휘 및 전장병의 혼연일체가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또한 이후의 전투에서도 엄두에 두어야 할 교훈적인 작전지휘였다.

당시 이 전투의 숨은 주역이었던 함병선 장군은 전쟁이 끝난 뒤, 전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수안보에서 이화령으로 철수할 때에는 계속되는 교전과 기동으로 피아가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연대는 대부분이 충남 출신으로, 평소에는 묵묵히 말이 없지만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용감히 잘 싸웠다. 이 철수과정에서도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야간에 도보행군으로 전진하였지만 낙오병도 없이 진지를 점령하였다. 특히 이운산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엄호부대로 남았다가 마지막으로 빠져 나오면서 삼풍리 부근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대대장의 민완한 수

습으로 큰 손실 없이 합류할 수 있었다.

이운산 소령은 연령도 많고 신중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아깝게도 조림산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서도 연풍으로 반격할 때 많은 전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남호리로 집결할 때에도 끝까지 기름봉에 버티고 서서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화기 중대장 김용하 대위가 이 전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전사하였는데, 그 또한 상하간에 신임이 두터운 장교로서 소속 대대장인 박노규 중령이 시체를 안고 내려온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비록 병력은 적지만 혼연일체가 되어 끝까지 이화령진지를 고수하였으나 전반적인 전황이 기울어 부득이 임의 철수하게 되었다. 조봉으로 내려올 때까지 병력보충이 안되어 힘겨운 전투를 벌였고 이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결사대’라는 각오로 싸우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문경 이화령전투에서 적의 침공을 지연한 후 점촌-군위-조림산으로 철수한 제2연대는 신령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1950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 제8사단의 9월 공세를 저지하여 이들의 영천 지역 진출을 저지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이후 아군의 총반격에 동승하여 의흥-충주-원주-춘천으로 진격한 제2연대는 10월 6일 38도선상의 모진교를 돌파하여 화천-원산에 입성하고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순천에서 미 제187공수연대와 합류하였다. 10월 20일 육군준장으로 진급한 함병선 제2연대장은 계속하여 10월 26일 한·만국경상의 초산을 점령하여 종전을 눈앞에 두었으나 돌연한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수작전에 임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으로 후퇴할 무렵인 1950년 11월 11일, 제

17연대와 제31연대, 제32연대를 기간으로 서울에서 재창설된 제2사단장에 임명된 함병선 준장은 포천-평강지구에서 후방지역의 잔적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12월 15일부로 제3군단에 편입되었다.

중공군의 신정공세가 시작된 1951년 1월 3일 미 제10군단으로 배속변경된 제2사단은 여주에서 제천을 거쳐 예천으로 이동한 뒤 제8사단 제21연대의 2개 대대와 제5, 제6, 제7 경비대대, 국민방위군 독립 제3연대 등을 적시에 배속받아 4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일월산, 보현산, 오미산 등 경북 산악지대에서 준동하는 공비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공비소탕임무를 종료하고 제천에서 부대를 집결한 제2사단은 미 제9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경기 양평으로 이동하였으며, 여기에서 미 제24사단 예하 제21연대의 작전지역인 노네임방어선을 인수, 전선으로 복귀하였다. 5월 사창리진격전을 시작으로 대성산-삼청봉 진격전, 734고지전투를 전개한 후 10월에는 492고지를 공격하여 많은 전공을 수립하였다. 함병선 사단장을 비롯한 제2사단은 1952년 3월 작전지역을 미 제40사단에 인계하고 사창리로 이동하여 2개월에 걸친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한 뒤 미 제40사단의 작전지역을 다시 인수하여 전선에 복귀하였다.

1952년 7월 수많은 전투를 통해 탁월한 전공을 세운 함병선 소장은 교육총감 및 전남지구위수사령관으로 전보되어 강병육성 임무 및 후방지역의 민심안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휴전을 맞게 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교육총감으로 재임 중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함병선 소장은 1953년 8월 3일 미 육군참모학교에 파견되어 약 10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다음해 6월 원대복귀하였다. 육본에 복귀한 장군은 7월 6일 제2훈련소장에 부임하여 강병육성에 전력하고 1955년 1월 육군중장으로 진급한 후 5월 27일 제2군단장에 임명되었다.

1957년 7월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으로 전보된 그는 당시 참모차장이던 장도영 중장이 참모총장을 대리하여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참모차장직을 대리하게 되었다. 이어 1959년 1월에는 작전참모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제대 CPX를 실시하는 등 작전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 국방부로 진출명령을 받은 장군은 연합참모본부장에 보임되었으며, 이어 장군의 군생활 중 마지막 직무가 되었던 국방연구원장에 부임하여 1961년 7월 14일 육군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복무하였다.

장군은 그의 타고난 성품과 재능을 잘 알고 있던 유재홍 장군이 자신의 회고록에 “그는 직선적인 성품을 지녔지만, 전술에 관한 식견이 높아 부하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전술적인 안목과 이해가 뛰어났던 명장이었다. 예편 이후 외교관으로 다시 한번 국가에 봉사한 뒤 2001년 2월 5일 81세를 일기로 타계한 함병선 장군의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8에 안장되어 있다.



李 俊 植 육군중장



/// 1901.	2	평남 순천 출생
/// 1949.	1	육군대령 임관
/// 1949.	5	수도사단장
/// 1949.	5	육군준장
/// 1949.	6	제7사단장
/// 1950.	6	육군사관학교장
/// 1950.	7	제3사단장
/// 1950.	10	제1군단 부군단장
/// 1951.	4	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
/// 1951.	6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 1952.	5	육군소장
/// 1952.	9	국방부 제1국장
/// 1954.	4	교육총감
/// 1954.	7	제1훈련소장
/// 1956.	2	제5관구사령관
/// 1959.	5	육군중장
/// 1959.	5	예편
/// 1966.	4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1950년 7월 16일부터 동해안 영덕지역에서 포항으로의 진출을 기도하던 북한군 제5사단의 침공을 2주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저지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전공을 세워 1954년 7월 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87호)을 수여받았다.

광복군 대좌로 항일투쟁에 전념하다 조국의 광복과 함께 귀국, 육군사관학교 제8기 특별반에 입교하여 일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1949년 1월 1일 군번 12445의 육군대령으로 임관된 이준식 장군은 서울 용산에서 제1연대와 제9연대 그리고 제17연대와 제19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창설된 제7여단의 초대 여단장으로 부임, 석주암 중령을 참모장으로 하여 부대를 편성하였다. 이후 1949년 2월 1일 총사령부 명령에 의해 제7여단이 수도여단으로 개칭됨에 따라 수도여단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동년 5월 12일에는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자 수도사단장에 보임되는 한편 육군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이어 육군본부 잠정 포병사령부를 포병연대로 개칭하여 사단에 예속시킨 다음 1949년 6월 20일 육본명령에 의해 수도사단이 제7사단으로 개칭됨에 따라 초대 사단장에 취임하였다.

제17연대를 예속 해제하여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을 변경시킨 그는 1949년 9월 4일 제9연대와 제19연대로부터 각각 1개 대대씩을 차출하여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공비토벌임무를 완수한 제7사단장은 육본명령에 의거 예하 제1연대를 동두천 북방에, 제9연대를 포천 북방에, 제19연대를 예비로 사단사령부인 의정부에 위치시켜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장군은 6·25전쟁 발발 보름전인 1950년 6월 10일 육일명 제 47호에 의거 유재홍 준장에게 사단지휘권을 넘겨준 다음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되었다. 그가 육군사관학교장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또한 국군장병에게 ‘광복군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 장교육성기관인 육군사관학교장에 광복군 출신을 기용하기로 한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장군은 최덕신, 김홍일 장군에 이어 제8대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개전 초기에는 혼성제3사단장과 경인지구계엄사령관, 제1군단 부사령관 등으로 전장을 누볐고 전선이 교착된 후에는 육본 전방지휘소장,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 국방부 제1국장 등 정책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 영덕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6·25전쟁이 발발, 국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상황에서 7월 1일 혼성제3사단장에 임명된 그는 제22연대와 제25연대, 육사 생도대대를 이끌고 금곡리-수원 축선상에 저지선을 형성하고 북한군 제3사단 8연대의 진격을 저지·지연함으로써 적이 전략적으로 차질을 빚는데 공헌하였다.

이후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중부전선의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이준식 준장이 지휘하는 제3사단은 동해안의 영덕지역에서 이주일간의 치열한 혈전 끝에 북한군 제5사단의 침공을 저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포항-경주선을 신속히 점령하여 적 제2군단의 기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부산으로 진출하려

던 적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1950년 7월 10일 제3사단장에 임명된 이준식 준장은 육본으로부터 제23연대와 독립 제1대대로 영해-영덕간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시 제23연대는 평해에서 철수하여 영해에서 재편중에 있었고, 사단은 적을 축차 지연한다는 작전 방침을 세우고 12일까지 영해 남방의 목골재-가마실재에서 진지 편성에 주력하였다.

반면 적 제5사단은 유엔 해·공군의 폭격과 병참선의 신장으로 기동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어 뒤늦게 영해에 진입한 후 영덕을 목표로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해안도로로, 제10연대를 진보-청송 방향으로 우회시켜 영해 남쪽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또한 태백산으로 진입한 적 제766부대는 이미 청송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제23연대와 독립 제1대대는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인하여 방어진지가 돌파되기 시작하자 명령에 따라 축차진지로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계속된 적의 공격을 받아 16일 자정 무렵에는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날 오전 사단장은 현 전선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제23연대를 영덕 남쪽 181고지와 207고지에, 독립 제1대대를 208고지로 철수시키면서 적의 주력이 영덕으로 진입하면 즉시 해·공군의 화력지원을 받아 영덕을 탈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6일 저녁 적이 영덕으로 진입하자 다음날 미명부터 사단장의 요청으로 출동한 전투비행대대와 유엔 함대가 영덕 시가지 및 주변 일대를 강타함에 따라 많은 손실을 입은 적이 영덕 북방으로 퇴각함으로써 영덕을 탈환하였으나, 다음날 적의 공격으로 다시 상실하였다.

영덕의 상실로 동해안 방면에 위기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사단장은 해·공군의 화력지원을 요청하고 21일부터 영덕탈환을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유엔 해·공군 및 포병의 지원화력이 집중됨에 따라 적은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23일 저녁부터 영덕 이남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3연대는 적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혈전을 거듭하였고, 특히 중요 요충인 181고지에 대한 공방은 치열하였다. 181고지를 둘러싸고 주간에는 국군이 유엔 해·공군의 지원을 받아 공격하면 야간에는 북한군이 공격하는 근접전이 수일간 계속되었으며, 하루에도 수 차례씩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24일 대구에서 재편을 마친 제22연대와 포항경비부의 육전대가 강구에 도착하여 제3사단의 작전을 지원, 사단의 전투력은 크게 증강되었다. 사단장은 제22연대를 영덕탈환전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181고지와 207고지가 적에 포탈되어 이를 탈환하는데 투입하기로 작전 방침을 수정하였다.

25일 저녁, 유엔 해·공군의 화력지원을 요청하고 제22연대에 탈환명령을 하달하였다. 자정부터 1시간에 걸친 함포사격이 시작되자 적의 주력은 퇴각하였고, 제22연대 3대대는 181고지를, 제2대대는 207고지를 탈환하는 한편 이어진 적의 반격을 격퇴하였다.

목표고지를 확보한 사단장은 이어서 영덕탈환을 결심하고 유엔 해·공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27일 미 제7함대와 비행대대 및 제159야포대대 1개 중대가 영덕 주변을 집중 강타함과 동시에 제23연대가 제22연대를 초월,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이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었다. 유엔 공군기의 폭격과 유엔 순양함의 함포사격, 구축함의 후방차단사격 등 국군 제3사단의 영덕탈환을 위한 3면 합동작전이 수 일간 계속되자 적은

영덕 북방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로써 제3사단은 8월 2일 18시 영덕을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국군과 유엔군이 영덕지구 전투에 초미에 관심을 경주한 것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포항항구와 영일비행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적시에 가해진 유엔 해·공군의 화력지원, 예하부대의 철수와 투입시기에 대한 예리한 판단 등 사단장의 탁월한 지휘력이 돋보였던 이 전투로 북한군은 포항 진출이 2주일 이상 지연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 형성이 용이하게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반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국군 및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인천 및 서울지역이 수복되자 9월 25일부로 경인지구계엄사령관에 부임한 이준식 준장은 수복지구의 패잔병 소탕과 치안 확보에 전력하고 10월 16일 제1군단 부군단장으로 전보되었다.

1951년 3월,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인하여 원주 이남까지 후퇴했던 제1군단은 현리-양양을 연하는 카이로선으로의 진격작전을 전개하였다. 부군단장으로 이 작전에 참여한 장군은 3월 26일 제9사단 전선을 시찰하고 군단지휘소로 복귀하던 군단장 김백일 소장이 항공기사고로 전사하자 임시로 군단을 지휘,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인 양양을 확보하였다.

양양진격작전이 종료되고 1951년 4월 27일 육군본부로 진출명령을 받은 장군은 전방지휘소장, 참모차장 대리,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1952년 5월 19일 육군소장으로 진급하였으며, 국방부 제1국장으로 재임하던 중 휴전을 맞게 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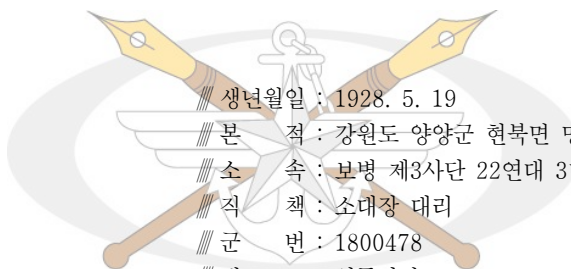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육본 행정참모부장, 교육총감, 제1훈련소장, 제5관구사령관 등을 역임한 이준식 소장은 1959년 5월 14일 육군중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편입되었으며, 1966년 4월 5일 67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정부는 전쟁기간 중에 장군이 수립한 탁월한 전공을 길이 빛내기 위해 1954년 7월 6일 군인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현재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4에 안장되어 있다.

조국이 해방될 무렵 20년간의 중국군 생활을 통해 소장(少將)의 계급에까지 올랐던 이준식 장군은 1901년 2월 18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한 후 서울의 휘문중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운남 군관학교(강무당)를 졸업하였다. 1922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창설을 선언할 때 총사령 이청천 장군 휘하의 참모로 참여하였으며, 또한 임시정부 산하 군무부 제1지대장 겸 제1정보분처 주임으로 임명되어 산서성 대동을 근거지로 산서성과 하남성 일대에서 광복군 모병활동에 주력하였던 애국지사이기도 하였다.

국가의 주권을 상실한 시기에는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광복군으로, 국가의 주권이 위협을 받는 난국에서는 적의 도발을 격퇴하기 위한 간성으로 우뚝 섰던 장군은 진정한 애국자이자 전쟁영웅이었다.



李明守 육군일등상사



/// 생년월일 : 1928. 5. 19
 /// 본 적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 소 속 : 보병 제3사단 22연대 3대대 12중대
 /// 직 책 : 소대장 대리
 /// 군 번 : 1800478
 /// 계 급 : 일등상사
 /// 주요전투 : 영덕지구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1. 7. 26)

□ 영덕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북한군 제2군단은 낙동강전선을 동측방에서 공격하여 대구와 부산의 길목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속히 포항을 점령하려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제3사단의 분전은 국군과 유엔군의 최후 보루인 낙동강 방어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었다. 따

라서 포항 북쪽의 영덕과 강구는 아군이 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강구 확보를 위해서는 영덕과 강구 중간지점에 위치한 181고지의 점령이 최우선 과제로서 쌍방간의 고지쟁탈을 위한 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3사단은 빼앗긴 181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공대를 편성하여 아군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적 전차를 격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의 중심에 이명수 일등상사가 자리하였고, 그는 12명의 특공대원을 이끌고 적진에 침투하여 3대의 적 전차를 파괴함으로써 저하된 제3사단 장병의 사기와 전의를 한껏 고무시켰다.

이명수 일등상사는 1951년 7월 26일 군인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0호)을 사병으로서는 건군 이래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여받았으며,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겠다는 구국일념과 생사를 초월한 희생정신의 표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영덕전투는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중부전선의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제3사단이 동해안 영덕지역에서 북한군 제5사단의 침공을 맞아 2일 동안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1950년 7월 하순 제2군단은 수도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제8사단 등 3개 사단으로 의성에서 영덕간을 점령하여 북한군 제2군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우익인 제3사단은 북한군 제5사단, 제766부대, 제549부대의 압력을 받으면서 7월 14일부터 영덕과 강구를 연하는 선에서 공방전을 계속하였다.

적은 낙동강전선을 동측방에서 공격하여 대구와 부산의 길목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속히 포항을 점령하려 하였다. 따라서 제3사단의 임무수행 여부는 국군과 유엔군의 최후 보루인 낙동강 방어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었고, 포항 북쪽의 영덕과 강구는 아

군이 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다.

1950년 7월 10일 평해로부터 철수하여 영해에서 재편하고 있던 제3사단 23연대와 독립 제1대대로 하여금 영해-영덕간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육군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사단은 축차지연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영해 남방 목골재-가마실재에서 진지편성에 들어갔다.

한편 적 제5사단은 계획보다 늦게 영해에 진입한 후 영덕을 목표로 제11연대와 제12연대는 해안도로로, 제10연대는 진보-청송 방향으로 우회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태백산으로 잠입한 제766부대는 이미 청송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 일대는 영덕-강구간의 해안도로가 강구를 정점으로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져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영덕에서 포항까지 45km의 거리는 병력의 열세를 해·공군의 지원으로 만회하여 지연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적 제5사단이 14일부터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이용하여 영해 남쪽진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자 제23연대와 독립 제1대대는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방어진지가 돌파되었다. 명령에 따라 축차진지로 철수하였던 아군은 영해-영덕간 교량과 터널 및 도로를 파괴하는 등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16일 자정 무렵 계속적인 적의 추격과 공격으로 인해 저지선에서 진지를 강화할 틈도 없던 아군의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직면하자 다음날 오전 사단장은 영덕에 적이 진입하면 해·공군의 화력으로 영덕을 탈환하기로 결정하고 연대를 영덕 이남으로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제23연대는 영덕 남쪽 181고지와 207고지에, 독립대대는 208고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날 저녁 적 제5사단이 영덕으로 진입하자 포항의 전투비행대대와 유엔함대는 18일 미명을 기해 영덕 시

가지 및 주변 일대를 강타, 이들을 영덕 북방으로 퇴각시켰으나 다음날 적의 공격으로 영덕을 다시 상실하였다.

23일 저녁 적은 영덕 이남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의 초점은 제23연대의 주력이 배치되어 있던 181고지에 집중되었다. 181고지는 서북쪽 2.5km의 영덕과 남쪽 4.5km의 강구에 달한 지구를 제압하는 중요지역으로서 제3사단이 이 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덕-강구간의 주보급로가 차단되어 전선조정의 기회를 잃을 수 있었다. 썩방은 고지를 둘러싸고 주간에는 국군이 공격하고, 야간에는 북한군이 공격하는 근접전이 수 일간 전개되었다. 24일 대구에서 재편을 마친 제22연대가 강구에 도착하자 사단장은 이들을 181고지와 207고지탈환에 투입하였다.

25일 저녁 제22연대는 고지탈환전에 투입되었다. 다음날 12시부터 1시간 동안 유엔 해·공군의 강력한 함포사격에 힘입어 제22연대는 큰 저항없이 제3대대가 181고지를, 제2대대가 207고지를 재탈환하였다. 연대는 야간에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모두 격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3대대 12중대 2소대장 이명수 상사는 특공대와 함께 적진에 침투하여 적의 자주포를 파괴하고 1개 소대 병력을 섬멸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영덕탈환에 나선 제3사단이 27일부터 유엔 해·공군의 지원을 받아 삼면합동작전을 수 일간 계속 전개하자 전 화력을 동원하여 완강히 저항하던 적 제5사단은 영덕 북방으로 후퇴를 시작하였다. 마침내 제3사단은 8월 2일 18시에 영덕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영덕 북방 2km 지점까지 진출하면서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회복한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적 전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적은 대전차 화기를 보유하지 못한 아군의 약점을 이용, 전차를 앞세워

강력한 아군의 진지를 돌파할 계획이었다.

제22연대 3대대장은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의 전차를 파괴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명수 상사에게 지시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이명수 상사는 소대원 12명으로 특공대를 편성하고, “우리 특공대의 임무는 적의 전차를 격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임무를 완수하면 현 진지를 계속 방어할 수 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포항까지 후퇴하거나 동해안의 물귀신이 되어야 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대원들을 격려한 후 각자에게 5개 썸의 수류탄을 분배하였다.

7월 28일 21시 10분 이명수 상사는 3개조로 나눈 특공대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출발하였다. 적의 활동상황과 적 전차의 위치탐색을 위해 야음을 이용하여 적진을 침투하던 특공대가 3km 정도 진입하였을 때 어느 계곡에서 1개 소대 정도의 병력으로 추정되는 적을 발견하였다. 적들은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수통에 물을 담고 있는 중이었다. 3면에서 포위하여 수류탄 공격으로 적을 궤멸시키기로 한 그는 각 조별로 최근거리까지 접근하게 한 후 수류탄을 투척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윽고 수류탄과 소총사격으로 제압된 적은 대항할 겨를도 없이 대부분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고 10여 명은 포로가 되었다.

포로심문을 통해 적 제5사단 10연대 본부 및 적 전차 3대의 위치, 당일 암호호를 확인한 이 상사는 적군 복장을 착용하고 협조적인 3명의 포로를 앞세우고 적 전차를 향해 전진하였다. 적 경계병과 수차례의 암호를 교환하는 등 적 경계병을 기만하며 침투하던 특공대는 은폐되어 있는 3대의 전차를 발견하였다. “제1조는 1번 전차, 제2조는 2번 전차 그리고 제3조는 3번 전차를 격파하라”고 폭파임무를

분담시킨 이 상사는 다른 조와 함께 목표 전차로 접근해갔다. 3명의 포로로 하여금 각 전차장을 밖으로 유인하게 한 그는 각 전차장이 헤치를 열고 나오는 순간 3~4발의 수류탄을 포탑 내부에 투척하였다. 밤하늘을 찢는 굉음이 연달아 세 번 울림과 함께 아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적의 전차가 폭파되는 순간이었다.

특공대원들은 폭음을 듣고 달려온 적과 30분간의 교전을 전개하며 후퇴를 계속하여 183고지 동쪽 기슭에 도달하였으나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된 적의 경계부대와 조우하여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대원들은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아군 제11중대 진지로 무사히 귀환하였으나 일부 대원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

날이 밝자 이명수 상사는 183고지 재탈환을 위한 특공대 편성에 자원하여 다시 특공대장이 되었다. 29일 07시에 공격을 개시한 특공대는 적의 집중사격을 뚫고 183고지 정상 30m 전방까지 접근하였다. 수류탄으로 적의 화력을 제압하면서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 정상에 오른 이 상사와 대원들은 참호 속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적을 모두 사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생포되었던 2명의 특공대원과 다른 아군 포로 6명을 무사히 구출하고 포로 8명, 소화기 66점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삼계동과 대탄동선에서 제3사단 22연대를 비롯한 아군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북한군 제5사단은 8월 4일까지 진출이 좌절되어 7월 26일까지 포항을 점령하려던 계획은 완전 수포로 돌아갔으며, 포항 진출이 2주일 이상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 형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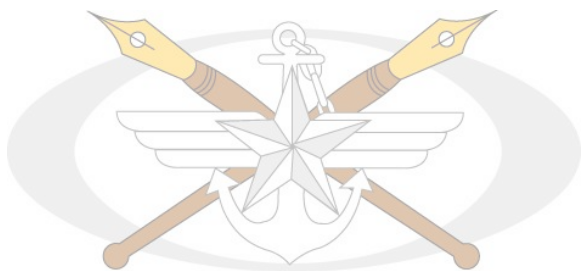
1950년 7월 28일 영덕지구전투에서 특공대를 지휘, 적 전차를 파괴하고 아군 포로를 구출하는 등 영웅적 행위로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는데 진력한 이명수 일등상사는 1927년 6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출생하였다. 일제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었으나 학업에 대한 열의는 엄청났다. 고향마을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대신 독학으로 이를 극복하는 집념과 인내력을 보여주었다.

중학과정을 독학으로 마친 무렵인 1946년의 정국은 좌·우익간의 이념대립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혼란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특히 좌익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군에 입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1946년 10월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였다. 사병으로 입대한 그는 강릉에 주둔하고 있던 송요찬 대령 휘하의 제8연대 3대대 9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6·25전쟁 발발 불과 몇 달 전 제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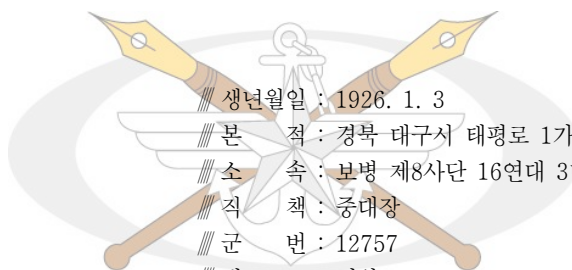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국가의 재소집에 응해 일등상사로 임용되었으며, 투지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군인으로 제3사단 22연대 3대대 12중대 2소대장 대리로 근무하였다.

“한 발짝도 후퇴하면 안된다. 적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사단장 김석원 장군의 말이 전투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그는 김석원 장군의 지휘방식과 철학을 자신의 지휘방식에 그대로 적용, 백마고지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1954년 장교를 지원해 육군소위로 임관된 그는 제6군단 수송중대장 등을 역임하고 1963년 전상의 후유증으로 육군중위로 전역한 뒤 현재는 경기도 일산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독실한 삶을 살고 있다.



許 鳳 益 육군대위



/// 생년월일 : 1926. 1. 3
 /// 본 적 : 경북 대구시 태평로 1가 5번지
 /// 소 속 : 보병 제8사단 16연대 3대대 3중대
 /// 직 책 : 중대장
 /// 군 번 : 12757
 /// 계 급 : 대위
 /// 주요전투 : 안동지구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4. 6. 25)

□ 안동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허봉익 육군대위는 제8사단 16연대 3대대 3중대장으로서 1950년 8월 1일부터 다음날까지 안동지구에서 낙동강전선을 돌파하려는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그는 2개 소대를 이끌고 2개 대대의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여 1개 중대의 적

을 격멸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이러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54년 6월 25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75호)을 수여하였다.

안동지구전투는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한 후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제1연대가 안동지역에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8사단 소속 일부 병력의 침공을 4일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제18포병대대와 제50포병대대의 지원아래 안동 북쪽의 천등산과 연곡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침공을 저지하고 있던 중 북한군 제8사단 소속 연대 규모의 병력이 서측방의 풍산지역으로 침공하자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를 증원받아 풍산지역을 방어하도록 대비하면서 이들의 침공을 계속 저지하였으며, 다시 동측방에서 북한군 유격대가 배후로 침투하자 특수임무부대를 급파하여 이를 저지하는 등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4일간의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로 북한군은 안동지역 진출이 지연됨에 따라 동해안 전선의 766부대를 안동지역으로 전용하게 되었으며, 국군 제8사단은 8월 1일 철수명령을 받고 안동교를 폭파한 후 의성지역으로 철수하여 낙동강방어선에 참여하였다.

1950년 7월 30일 미명 북한군 제12사단은 주력을 중앙 일선인 제21연대 정면으로, 조공을 좌우의 제10연대와 제16연대로 지향하여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8사단은 수 시간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우일선 제16연대가 많은 손실을 입으면서 진지가 돌파되었고, 더 이상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안동방어의 최후방어선인 오산동 일대로 축차적인 철수를 감행하였다.

7월 31일 새벽 적 제12사단은 전차를 선두로 주공을 중앙의 제21연대 정면에, 조공을 좌우의 제10연대와 제16연대에 지향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 무렵 육군본부는 낙동강방어선 형성계획에 따라 7월 31일 24시를 기해 안동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군단은 작전회의를 통해 제8사단이 먼저 수도사단의 엄호하에 철수한다는 내용을 하달하였다.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접적이 경미한 제10연대와 제21연대순으로 철수하도록 하고, 제16연대는 수도사단 제1연대의 엄호하에 후위로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철수과정에서 제16연대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제16연대는 적 1개 연대와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고 있어 06시 무렵에야 철수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 제16연대는 제1연대 진지의 돌파로 적에게 포위되어 각개로 철수하였고, 포위망 돌파와 도하과정에서 연대병력 중 장교 21명과 사병 814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제3대대 3중대장 허봉익 대위는 임전무퇴의 전투정신을 발휘하여 2개 소대 병력을 인솔하고 안동 점령을 기도하는 적 2개 대대 병력과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1개 중대를 격멸하고 압축된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맹렬한 적의 포격과 중과부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전사함으로써 호국의 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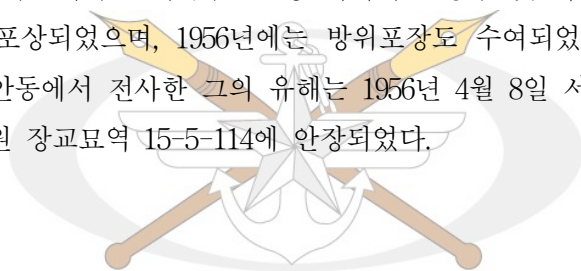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23년 1월 3일 경북 대구에서 출생한 허봉익 육군대위는 19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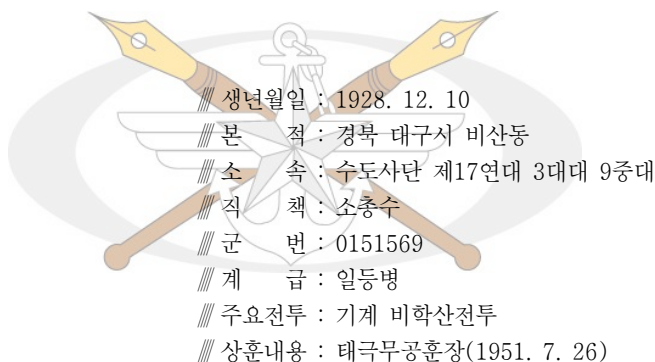
12월 21일 육사 7기 후반과정을 마치고 군번 12757의 육군소위로 임관되었다. 이후 제5여단과 제15연대 등을 거쳐 제2사단 16연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그후 주둔지인 청주에서 의정부 금호동지역으로 진출하여 저지선을 구축하고 38도선으로부터 철수하는 제7사단을 엄호한 후 창동을 경유하여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병력이 분산된 제2사단은 7월 24일 해체되고 제16연대는 제8사단으로 예속이 변경됨에 따라 안동지구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허봉익 육군대위는 태극무공훈장 이외에도 충무 및 화랑무공훈장이 사후 포상되었으며, 1956년에는 방위포장도 수여되었다. 1950년 8월 2일 안동에서 전사한 그의 유해는 1956년 4월 8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장교묘역 15-5-114에 안장되었다.



洪 在 根 육군일등병



□ 기계 비학산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8월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2사단은 청송과 도평리를 거쳐 입암리에 집결해 있었고, 동해안에 상륙했던 북한군 제766유격부대는 향로봉과 비학산을 거쳐 안강-기계 일대의 전선에 출몰하고 있었다. 안강-기계지역의 방어를 위해 배치된 수도사단은 북한군 중

정예부대인 제12사단과 제766유격부대가 위치하고 있던 비학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제17연대 3대대가 비학산 점령을 위해 특공대를 선발하였을 때 신병훈련을 마치고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홍재근 이등병과 김용식 이등병이 이에 자원하였다. 홍재근 이등병은 김 이등병과 함께 적 제766유격부대 은거지를 기습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가 하면 비학산 공격에서는 돌격작전의 선봉에 서서 적 진지를 측면 기습, 진지 내 적 군관 1명을 포함한 15명의 포로를 생포하는 전공을 세워 군인 정신의 표상이 되는 한편 1951년 7월 2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1호)을 수여받았다.

낙동강방어선 형성에 있어 길안 일대에 방어편성을 하고 있던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추목동, 제18연대를 그 우측고지 일대에 배치하고 배속된 기갑연대를 진보 남쪽 비봉산 일대에 독립기갑연대와 강원경찰대대에 배치하였다. 8월 5일부터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기 시작한 수도사단은 순식간에 방어선이 와해됨에 따라 의성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청송-기계 축선은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었고, 적 제12사단은 기계를 거쳐 포항에 이르기까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게 되었다.

8월 9일 무방비 상태로 있던 기계가 적 제12사단에 의해 피탈되었다. 기계는 동부지역에서 포항이나 안강으로 이르는 도로상의 요지로서 기계를 상실한 국군이 동부전선에서 일대 위기를 맞게 되자 제1군단은 의성에 집결한 수도사단을 안강으로 이동시켰다. 군단명령에 따라 13일부터 수도사단의 작전이 전개되었다. 제17연대는 육전대와 함께 안강 북쪽고지를 공격하였고, 제26연대와 제1연대도 제17연대의 좌우측 고지로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7연대가 기계 남쪽고지를 탈환한 후 기계를 향해 전진하는 한편 제1연대 3대대는 우측의 포항터널 부근까지 진출하였고, 제18연대 제1대대는 용기동 일대의 고지를 점령한 후 기계 측방을 위협하였다. 부분적인 역습을 시도하던 적은 퇴로가 차단될 위협을 느끼자 비학산 일대로 퇴각을 시작하였다.

기계탈환을 위한 총공격이 18일 미명에 개시되었다. 북쪽에서 제18연대가 기계로 진입함과 동시에 제17연대 1대대는 남쪽에서 시내로 진입하자 적 제12사단은 많은 전사자를 남겨둔 채 일부 패잔병만이 비학산 일대로 철수하였다. 제17연대는 22일부터 비학산 일대의 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지형을 이용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오히려 적의 역습을 받은 제18연대가 인비동선으로 물러나게 되어 제17연대도 전선 균형을 위해 기계 북쪽 외곽고지로 철수하였다.

8월 26일 야간부터 기계 정면의 적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왔다. 미처 진지를 점령하기 전에 적의 공격을 받은 제17연대는 새벽녘에 기계를 빼앗겼다가 27일 반격을 통해 재탈환하였으나 적의 역습으로 남쪽고지 일대에서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29일 새벽 잭슨부대 전차와 포병의 근접지원을 받은 제17연대는 반격을 감행, 기계를 재탈환하였으나 적의 역습으로 다음날 다시 기계를 적에게 넘겨주고 남쪽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1950년 8월말 기계-포항전선은 소규모의 정찰전이 벌어질 정도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8월 15일까지 부산 점령을 목표로 하였던 북한군은 8월 한 달간 총공세를 펼쳤으나 낙동강 도하 시도 등 교두보 돌파에 실패함으로써 당초 목표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기계탈환을 위한 수도사단의 총공격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

은 북한군 제12사단은 전사자를 남겨둔 채 일부 패잔병을 수습하여 비학산으로 철수하였다. 적은 이곳에서 2,000여 명의 병력을 보충 받아 제12사단 및 제766부대를 재편성하고 공격준비에 돌입하였다.

제18연대는 비학산 탈취를 위해 수 차례에 걸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적의 야간기습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제17연대에게 작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후 북한군 제12사단과 수도사단 제17연대는 비학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비학산 탈취를 위한 계속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이끌지 못한 데에는 북한군 제766유격부대가 있었다. 이 부대는 야간기습을 통해 아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작전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제17연대는 이들 부대의 격멸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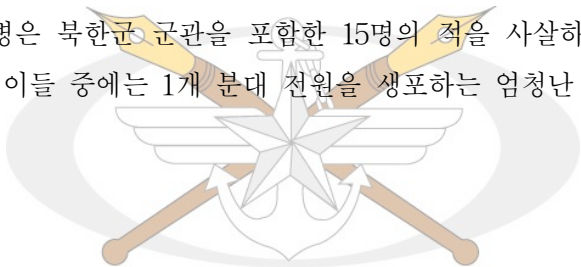
마침내 정찰병에 의해 유격부대의 근거지를 알게 된 제17연대장은 제3대대장에게 제766유격부대를 습격할 것을 하달하였고, 그 임무는 결국 제9중대장에게 부여되었다. 중대장은 제766부대 습격임무를 평소 전투력이 제일 막강하다고 판단했던 제3소대에게 맡겼다.

소대장은 임무를 수행할 특공대를 선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중 제일 먼저 지원한 2명의 병사 중 한 명이 홍재근 이등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김용식 이등병이었다. 그들은 제주도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수도사단 제17연대 3대대 9중대 3소대에 배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병들이었다. 더욱이 홍 이등병과 김 이등병은 전투경험이 많은 고참병들도 겁내는 돌격작전의 첨병을 자원하였다.

대열의 선봉에서 적진으로 돌진하던 홍재근 이등병과 김용식 이등병은 전방의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은밀히 접근해갔다. 적 경

계병에게 다가간 그들은 신속하게 처치하고 정상 부근의 적 은거지에 접근하였다. 기습적인 사격과 과감한 수류탄 투척으로 적의 은거지는 초토화되었으며, 다시는 아군을 기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에는 북한군 제12사단에 흡수되었다.

1950년 8월 24일 치열했던 비학산 쟁탈전에는 홍재근 이등병과 김용식 이등병이 공격대열의 선봉에 있었다. 우연히 적의 자동화기 진지 옆까지 포복으로 다가간 두 신병은 앞만 보고 열심히 사격하는 자동화기 사수와 지휘하는 군관을 대검으로 협공, 김용식 일등병은 군관을 덮치며 허벅지를 찌르고 홍재근 일등병은 경기관총 사수와 부사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수 명의 적을 무찔렀다. 이처럼 이들 두 신병은 북한군 군관을 포함한 15명의 적을 사살하거나 생포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1개 분대 전원을 생포하는 엄청난 전과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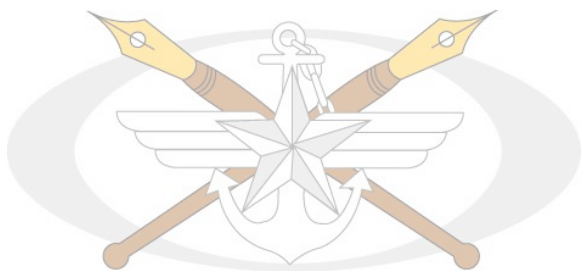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28년 12월 10일 경북 대구시 비산동에서 출생한 홍재근 일등병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5월 자원 입대하였다. 그는 당시의 급박한 전선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훈련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입대한 지 1개월만에 제주도 신병훈련소를 나와 이등병의 신분으로 수도사단 제17연대 3대대에 배속되어 제9중대 3소대의 소총수로 전장의 최일선에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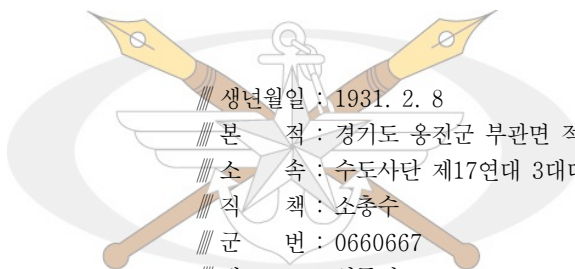
비학산전투 이후 홍재근 이등병은 자교리전투에서 북한군과 백병전을 전개하여 적 5명을 처치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적의 대검에

무수히 찢린 채 최후를 마감하였다. 정부는 홍재근 이등병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1951년 7월 26일 군인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과 일계급 특진을 추서하였다.





金 龍 植 육군일등병



/// 생년월일 : 1931. 2. 8
 /// 본 적 : 경기도 용진군 부관면 적석리
 /// 소 속 : 수도사단 제17연대 3대대
 /// 직 책 : 소총수
 /// 군 번 : 0660667
 /// 계 급 : 일등병
 /// 주요전투 : 기계 비학산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4. 7. 26)

□ 기계 비학산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8월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2사단은 청송과 도평리를 거쳐 입암리에 집결해 있었고, 동해안에 상륙하였던 북한군 제766유격부대는 향로봉과 비학산을 거쳐 안강-기계 일대의 전선에 출몰하고 있었다. 안강-기계지역의 방어를 위해 배치된 수도사단은 북한군 중

정예부대인 제12사단과 제766유격부대가 위치하고 있던 비학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제17연대 3대대가 비학산 점령을 위해 특공대를 선발하였을 때 신병훈련을 마치고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김용식 이등병은 홍재근 이등병과 함께 이에 자원하였다. 김용식 이등병은 홍 이등병과 함께 적 제766유격부대 은거지를 기습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가 하면 비학산 공격에서는 돌격작전의 선봉에 서서 적 진지를 측면기습, 진지내 적 군관 1명을 포함한 15명의 포로를 생포하는 전공을 세워 군인정신의 표상이 되는 한편 1951년 7월 2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2호)을 수여받았다.

낙동강방어선 형성에 있어 길안 일대에 방어편성을 하고 있던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추목동, 제18연대를 그 우측고지 일대에 배치하고 배속된 기갑연대를 진보 남쪽 비봉산 일대에 독립기갑연대와 강원경찰대대에 배치하였다. 8월 5일부터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기 시작한 수도사단은 순식간에 방어선이 와해됨에 따라 의성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청송-기계 축선은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었고, 적 제12사단은 기계를 거쳐 포항에 이르기까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게 되었다.

8월 9일 무방비 상태로 있던 기계가 적 제12사단에 의해 피탈되었다. 기계는 동부지역에서 포항이나 안강으로 이르는 도로상의 요지로서 기계를 상실한 국군이 동부전선에서 일대 위기를 맞게 되자 제1군단은 의성에 집결한 수도사단을 안강으로 이동시켰다. 군단명령에 따라 13일부터 수도사단의 작전이 전개되었다. 제17연대는 육전대와 함께 안강 북쪽고지를 공격하였고, 제26연대와 제1연대도 제17연대의 좌우측 고지로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7연대가 기계 남쪽고지를 탈환한 후 기계를 향해 전진하는 한편 제1연대 3대대는 우측의 포항터널 부근까지 진출하였고, 제18연대 1대대는 용기동 일대의 고지를 점령한 후 기계 측방을 위협하였다. 부분적인 역습을 시도하던 적은 퇴로가 차단될 위협을 느끼자 비학산 일대로 퇴각을 시작하였다.

기계탈환을 위한 총공격이 18일 미명에 개시되었다. 북쪽에서 제18연대가 기계로 진입함과 동시에 제17연대 1대대는 남쪽에서 시내로 진입하자 적 제12사단은 많은 전사자를 남겨둔 채 일부 패잔병만이 비학산 일대로 철수하였다. 제17연대는 22일부터 비학산 일대의 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지형을 이용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오히려 적의 역습을 받은 제18연대가 인비동선으로 물러나게 되어 제17연대도 전선 균형을 위해 기계 북쪽 외곽고지로 철수하였다.

8월 26일 야간부터 기계 정면의 적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왔다. 미처 진지를 점령하기 전에 적의 공격을 받은 제17연대는 새벽녘에 기계를 빼앗겼다가 27일 반격을 통해 재탈환하였으나 적의 역습으로 남쪽고지 일대에서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29일 새벽 잭슨부대 전차와 포병의 근접지원을 받은 제17연대는 반격을 감행, 기계를 재탈환하였으나 적의 역습으로 다음날 다시 기계를 적에게 넘겨주고 남쪽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1950년 8월말 기계-포항전선은 소규모의 정찰전이 벌어질 정도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8월 15일까지 부산 점령을 목표로 하였던 북한군은 8월 한 달간 총공세를 펼쳤으나 낙동강 도하 시도 등 교두보 돌파에 실패함으로써 당초 목표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기계탈환을 위한 수도사단의 총공격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

은 북한군 제12사단은 전사자를 남겨둔 채 일부 패잔병을 수습하여 비학산으로 철수하였다. 적은 이곳에서 2,000여 명의 병력을 보충 받아 제12사단 및 제76부대를 재편성하고 공격준비에 돌입하였다.

제18연대는 비학산 탈취를 위해 수 차례에 걸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적의 야간기습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제17연대에게 작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후 북한군 제12사단과 수도사단 제17연대는 비학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비학산 탈취를 위한 계속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이끌지 못한 데에는 북한군 제76유격부대가 있었다. 이 부대는 야간기습을 통해 아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작전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제17연대는 이들 부대의 격멸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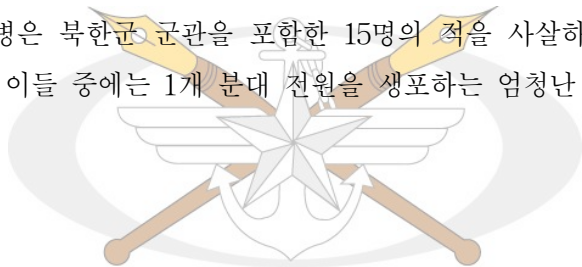
마침내 정찰병에 의해 유격부대의 근거지를 알게 된 제17연대장은 제3대대장에게 제76유격부대를 습격할 것을 하달하였고, 그 임무는 결국 제9중대장에게 부여되었다. 중대장은 제76부대 습격임무를 평소 전투력이 제일 막강하다고 판단했던 제3소대에게 맡겼다.

소대장은 임무를 수행할 특공대를 선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중 제일 먼저 지원한 2명의 병사 중 한 명이 김용식 이등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홍재근 이등병이었다. 그들은 제주도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수도사단 제17연대 3대대 9중대 3소대에 배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신병들이었다. 더욱이 김 이등병과 홍 이등병은 전투경험이 많은 고참병들도 겁내는 돌격작전의 첨병을 자원하였다.

대열의 선봉에서 적진으로 돌진하던 김용식 이등병과 홍재근 이등병은 전방의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은밀히 접근해갔다. 적 경

계병에게 다가간 그들은 신속하게 처치하고 정상 부근의 적 은거지에 접근하였다. 기습적인 사격과 과감한 수류탄 투척으로 적의 은거지는 초토화되었으며, 다시는 아군을 기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에는 북한군 제12사단에 흡수되었다.

1950년 8월 24일 치열했던 비학산 쟁탈전에는 김용식 이등병과 홍재근 이등병이 공격대열의 선봉에 있었다. 우연히 적의 자동화기 진지 옆까지 포복으로 다가간 두 신병은 앞만 보고 열심히 사격하는 자동화기 사수와 지휘하는 군관을 대검으로 협공, 김용식 이등병은 군관을 덮치며 허벅지를 찌르고 홍재근 이등병은 경기관총 사수와 부사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수 명의 적을 무찔렀다. 이처럼 이들 두 신병은 북한군 군관을 포함한 15명의 적을 사살하거나 생포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1개 분대 전원을 생포하는 엄청난 전과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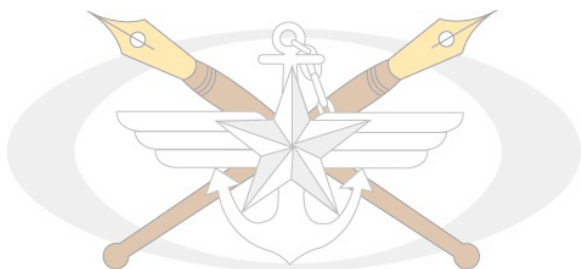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31년 2월 8일 경기도 용진군 부관면 적석리에서 출생한 김용식 이등병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5월 자원 입대하였다. 그는 당시의 급박한 전선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훈련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입대한 지 1개월만에 제주도 신병 훈련소를 나와 이등병의 신분으로 수도사단 제17연대 3대대에 배속되어 제9중대 3소대의 소총수로 전장의 최일선에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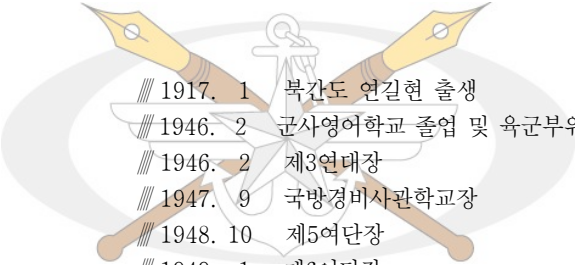
김용식 이등병은 비학산전투 이후 1950년 9월 19일 안강 시가지 전투에서 척후임무를 맡아 정찰을 실시하던 중 북한군의 만행을 목

격한 뒤 소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 6명과 붙어 이들을 모두 사살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는 김용식 이 등병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1951년 7월 26일 군인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며, 1954년 10월 15일에는 화랑무공훈장과 일계급 특진이 추서되었다.





金 白 一 육군중장

- 
- /// 1917. 1 북간도 연길현 출생
 - /// 1946. 2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부위(중위) 임관
 - /// 1946. 2 제3연대장
 - /// 1947. 9 국방경비사관학교장
 - /// 1948. 10 제5여단장
 - /// 1949. 1 제6여단장
 - /// 1949. 6 웅진지구전투사령관
 - /// 1949. 7 육군보병학교장
 - /// 1949. 8 웅진지구전투사령관
 - /// 1949. 9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 /// 1950. 1 제3사단장
 - /// 1950. 4 육군본부 행정참모부장
 - /// 1950. 7 육군준장
 - /// 1950. 9 제1군단장
 - /// 1950. 10 육군소장
 - /// 1951. 3 전사(대관령 인근)
 - /// 1951. 10 육군중장(추서)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이끌고 1950년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기간동안 기계·안장·영덕·포항 일대에서 제766유격대로 증강된 북한군 2개 사단의 침공을 격퇴함으로써 적의 낙동강전선 동부지역의 돌파를 좌절시키는 한편 아군이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무훈을 수립함으로써 1951년 7월 2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4호)을 수여받았다.

1917년 1월 30일 북간도 연길현 용정에서 출생한 김백일 장군은 길림고급중학교를 마치고 1937년 봉천군관학교에서 초급간부 양성과정을 졸업한 후 만주군 장교가 되었다. 간도한국인특별부대의 창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44년 대위로 진급하여 특별부대의 중대장으로 있던 중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하자 고향인 함경북도 명천군 서면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의 불의와 압제로 인해 12월 자유를 찾아 월남한 그는 1946년 2월 26일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육군부위(중위)로 임관됨과 동시에 10055의 군번을 부여받았다. 임관 직후 이리에서 연대장 요원으로 제3연대를 창설하고 제3연대장과 국방경비사관학교장, 특별부대사령관을 역임한 후 1948년 10월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제5여단장 대리로 임명되어 반란을 진압하고 순천과 여수를 탈환하였다.

한편 1949년 5월 21일 웅진지역에서는 국군의 전술과 사기를 시험하기 위한 북한군의 공격이 전개되어 두락산과 5개 리를 점령하였다. 6월 5일 육군본부는 피탈지역의 탈환을 위해 제6여단장인 김

백일 대령을 웅진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그는 6월 10일 두락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탈지역을 탈환하고 웅진지역전투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북한군이 8월 4일 웅진지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은파산을 점령하자 그는 웅진지구전투사령관에 재임명되었고, 예하의 제2연대로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하여 원진지를 회복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과 제3사단장을 거쳐 1950년 4월 육군본부 행정참모부장에 보직된 장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재중인 작전참모부장을 겸임하여 초기전투의 산파역을 담당하였고, 1950년 9월 1일 제1군단장에 취임해서는 부산교두보의 동측면 방어를 담당하여 안강·기계 및 포항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북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안강·포항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낙동강방어선에서 수도사단과 제3사단으로 구성된 제1군단은 1950년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계, 안강, 영덕, 포항 일대에서 766유격부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5사단과 제12사단의 침공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제12사단이 기계를 장악하고 제17기갑여단의 전차 일부를 지원받고 있었고, 흥해 일대에서는 제5사단이 전력증강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식량·화기 등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는 저조한 상태였다.

반면 국군은 수도사단이 기계 남쪽고지 일대에 제18연대와 제17

연대, 그리고 제1연대를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3사단은 포항 북쪽 학천동-천마산 일대에 제10연대, 제22연대, 제23연대로 진지를 편성하여 포항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황이 급변하자 육군본부는 9월 1일부로 지휘조치를 단행하여 김백일 준장을 제1군단장에, 송요찬 대령을 수도사단장에 그리고 제3사단장에는 이종찬 대령을 임명하였다.

9월 2일 03시를 기해 적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2사단은 수도사단의 방어진지 양측에 조공을 두고 기계·안강 도로를 따라 주공 병력을 투입하였다. 수도사단 제17연대는 로켓포와 항공기의 근접지원으로 적 전차를 모두 파괴하며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나, 야간에 들어 적 제49연대 일부가 제18연대 서측방을 우회하여 운주산을 거쳐 후방으로 진출하고, 좌일선의 제18연대 방어선이 돌파되어 일부 병력이 제17연대와와 부대 간격으로 침투를 시도, 안강 서북 어래산까지 진출함으로써 사단의 서측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군단은 제26연대를 수도사단에 배속시켜 옥산동에 투입, 안강 정면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국군 제3사단도 적 제5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제23연대는 천마산을 놓고 수 차례의 쟁탈전을 전개하였으나, 중앙의 제22연대가 돌파됨에 따라 포항 외곽의 효자동-두호동선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제3사단장이 주저항선 탈환을 명령하자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3연대 3대대는 정면공격과 동시에 특공대를 투입, 천마산을 탈환하였으나 다시 피탈되는 등 포항의 위기는 계속되었다.

좌측 방어선이 돌파된 수도사단은 제17연대를 안강 남쪽 갑산리에, 제1연대를 호명리로 철수시켰고, 이에 따라 안강은 실함되었다.

안강에 집결한 적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전차를 앞세우고 경주를 향해 남진하였으나, 제1연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제1군단장은 미 제24사단, 독립기갑연대 등 증원병력이 경주에 집결하자 무릉산·곤제봉을 중심으로 부대의 재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도사단장은 무릉산-곤제봉 간에 기갑연대와 제3연대를 추가 투입하여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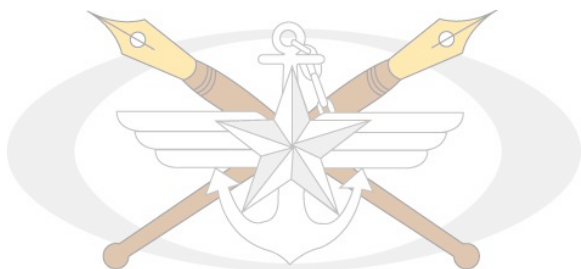
국군 제3사단도 5일 미명부터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 작전지역을 정찰한 제3사단장은 포항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산강 남쪽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적 제12사단은 경주 진출을 위해 6일 미명 무릉산-곤제봉 일대로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을 재개, 수 시간만에 수도사단의 진지를 돌파하였다. 이에 수도사단장은 기갑연대 제3대대로 역습을 전개, 진지를 회복하고 위기를 모면하였다. 쌍방은 곤제봉 확보 여부에 전체 작전의 성패를 걸고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였으며, 7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소모전이 계속되었다.

수도사단 진지가 돌파되고 있을 무렵 제3사단도 일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사단장은 제10연대를 제8사단으로 원대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일몰 후 예비인 제22연대와 교대하도록 하였으나 제10연대가 부대교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병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정면의 적 제5사단 병력이 도하하여 후방으로 침투하였다. 사단장은 적 후속병력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제22연대를 옥녀봉으로 진출시켜 적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이 무렵 적 제12사단은 수도사단 전면에 걸쳐 공격을 재개하여 곤제봉을 재장악하였고, 아군 사단간의 간격으로 침투한 적 제5사단은 옥녀봉과 운제산으로 중심 깊숙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강 · 포항지구 전투상황



보고받은 위커 중장은 미 제24사단에게 저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김백일 군단장과 협의하여 윤제산 탈환은 미 제24사단이, 퇴로차단 및 소탕작전은 국군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사단은 제22연대가 적의 역습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송정동-장동선에서 새로운 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10일 군단장은 제18연대를 투입하여 운제산 북쪽 197고지를 탈환하고 옥녀봉 서측으로 진출시켰으며, 제3사단 22연대도 옥녀봉을 탈환토록하여 운제산의 적을 고립시켰다. 다음날 제19연대는 데이비슨(Davison) 특수임무부대와 함께 이들을 공격하여 운제산을 탈환하였으며, 12일 오후 제18연대는 형산을 탈환하고 강변 방어진지 일부를 회복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은 11일 제17연대가 곤제봉 탈환에 나서 다음날 야간에 이를 탈환함으로써 안강 남쪽의 주저항선을 회복하였으며, 제1연대는 호명리에서 고립된 가운데에서도 낙산을 끝까지 지켜 적의 경주 진격을 저지하였다.

제3사단 23연대는 사단 우전방 강변 일대에 대치중인 적과 이틀간의 혈전을 전개하고 특공대의 배후기습이 성공하자 전후방에서 돌진하여 연일을 점령함으로써 형산강 일대의 주저항선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렇게 되자 적 제12사단과 제5사단은 공격력의 한계를 드러낸 듯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수세로 전환한 채 북으로 퇴각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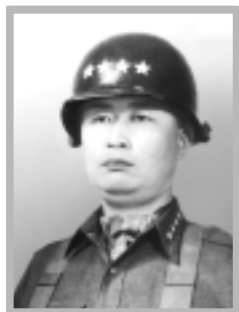
국군 제1군단은 이 전투를 통해 안강 남쪽 형산강 일대에서 적 2개 사단을 격멸하고 적의 경주 진격 등 낙동강전선의 동부지역 돌파를 저지하였으며, 기계와 포항 북방으로 후퇴한 적을 추격하여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총반격작전을 지휘하게 된 김백일 군단장은 1950년 10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명령을 받고 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동해안지구로 병진시켜 38선을 최초로 돌파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 날이 ‘국군의 날’로 제정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어서 원산-함흥-청진-혜산진을 점령하였다.

한편 중공군의 침략으로 인해 홍남에서 해상철수작전을 전개할 당시 공산 치하에서 신음하는 10만여 명의 자유민이 군 선박을 이용하여 자유의 땅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대의 협조를 제공하였다. 이후 중공군의 정월공세로 삼척까지 밀렸다가 1951년 3월 하순 반격작전으로 38선을 회복한 장군은 중공군의 4월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군단장회의에 참석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1951년 3월 28일에 타고 있던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하여 강원도 대관령 인근의 발왕산 중턱에 추락함으로써 전사하였다.

□ 전후 활동 및 인물 단평

1951년 7월 26일 정부는 전쟁기간 중 김백일 장군이 보여준 공로를 기리고 그가 남긴 진충위국 및 애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육군중장으로 특진을 추서하였다. 현재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19에 안장되어 있다.

육 척이 넘는 신장과 호방한 성격에 거칠 것 없는 사나이였던 그는 매사가 시원시원하고 남아다운 기백을 지니고 있어 동료나 고급장성 중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당시의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장군이 항공사고로 인한 김백일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애원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



白 善 燁 육군대장



- /// 1920. 11 평남 강서 출생
- /// 1946. 2 국방경비대 육군부위(중위) 임관
- /// 1947. 1 제5연대장
- /// 1948. 4 통위부 정보국장
- /// 1949. 7 제5사단장
- /// 1950. 4 제1사단장
- /// 1950. 7 육군준장
- /// 1951. 4 제1군단장 및 육군소장
- /// 1951. 7 휴전회담 한국대표
- /// 1951. 11 백 야전전투사령부사령관
- /// 1952. 1 육군중장
- /// 1952. 4 제2군단장
- /// 1952. 7 육군총참모장 겸 계엄사령관
- /// 1953. 1 육군대장
- /// 1954. 2 제1야전군 사령관
- /// 1957. 5 육군참모총장
- /// 1959. 2 연합참모본부 의장
- /// 1960. 5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6·25전쟁의 상징적 인물인 백선엽 육군대장은 제1사단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중 전쟁이 발발하자 38도선 서부 일대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여 그 진공을 저지하는 한편 다부동 및 영천지구에서는 수 개 사단의 적과 혈전을 거듭한 끝에 격멸하여 총반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반격작전에 돌입한 장군은 계속된 북진을 통해 적의 수도인 평양에 제1차로 입성하여 국군의 위용을 만방에 선양하는 등 전쟁 전반에 걸쳐 탁월한 전공을 수립함으로써 1953년 4월 5일 금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86호)의 영예를 안았다.

1920년 11월 23일 평남 강서 출신인 백 장군은 만주의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군 중위로 근무하던 중 조국의 해방을 맞아 귀향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월남을 결행, 당시 국방경비대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던 이응준의 추천으로 1946년 2월 27일 국방경비대 부위(중위, 군번 10054)로 임관하였다. 창군 초기의 장교들이 대부분 군사영어학교를 거쳐 임관되었던 것과는 달리 과거의 군사경험을 인정받아 입교 직후 곧바로 부산에서 창설중인 제5연대에 배속되었으며, 이후 소령으로 진급과 동시에 연대장에 임명되었다.

정부수립 직전인 1948년 4월 통위부 정보국장에 임명되어 예하 요원들과 미 제24군단 정보참모부의 지원아래 미군 교관으로부터 정보교육을 받은 후 대북 정보수집과 군내 좌익 불순세력의 파악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5사단장을 거쳐 1950년 4월 23일 제1사단장으로 발령을 받은 두 달 후 6·25전쟁을

겪게 되었다.

□ 다부동전투와 작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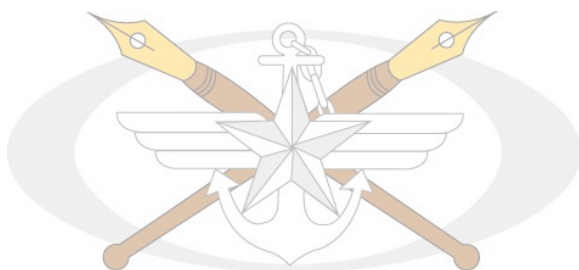
6·25전쟁 발발 당시 38도선 서부전선인 연백·개성·고랑포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제1사단은 북한군 제1사단과 제6사단 등 2개 사단의 기습공격을 받고 철수, 서울-시흥-화령장-함창을 거쳐 지연전을 실시하며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하였다.

제1사단은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필사의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전쟁기간 내내 수많은 전투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지휘력과 전술 능력을 과시한 전투는 국가 최고의 위기였던 북한군의 8월 공세를 저지한 다부동지구전투였다.

1950년 8월 초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고 대구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제2군단 예하의 3개 사단을 대구 축선에 집중하였다. 반면에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이 대구 북방에서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8월 11일 왜관-다부동-군위-포항선으로 이동하여 적을 저지하라는 육본의 방어선 축소·조정명령이 하달되자 제1사단은 12일 야간에 철수를 개시하여 다음날 다부동지역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해 제15연대는 328고지 일대, 제12연대는 수암산·유학산 일대, 그리고 제11연대는 신주막 일대의 계획된 진지로 진출하였다.

1950년 8월 다부동지구 전투상황



그러나 이날 북한군 제3사단 일부가 약목 일대를 도하하여 328고지를 공격하고, 제15사단은 국군 제1사단보다 한발 앞서 유학산에 진출하였으며, 제13사단은 일부 병력을 우회시켜 국군 제11연대가 미쳐 병력을 배치하지 못한 674고지를 선점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방어선 돌파와 다부동이 점령될 위기에 봉착하였다.

한편 대구 정면의 적은 8월 15일부터 총공격을 재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의 전황은 제15연대가 328고지를 놓고 생탈전을 전개중이었고, 제12연대는 유학산 탈환을 위해 공격을 반복하였다. 제11연대는 전차 7대를 앞세운 연대 규모의 적의 공격을 받고 북곡 일대로 물러나게 되었다.

적의 공세가 한창이던 8월 16일 유엔군사령관은 대구전선의 위기 극복을 위해 왜관 서북쪽 낙동강변 일대에 대대적인 폭격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적의 공세를 약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16일에는 가산으로 침투하려던 적이 741고지에서 다부동 서측 466고지를 공격, 국군 제1사단이 ‘돌파되느냐, 고수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자 방어선 유지를 위해 미 제8군은 다음날 미 제27연대를 다부동에 투입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미 제27연대와 보전협동으로 적진 돌파작전을 전개하여 이 위기를 타개하고 계획된 방어선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차를 새로 보충 받은 적이 전면적인 야간공격을 개시함으로써 피아간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제15연대는 328고지에서 수 차례의 수류탄 공방전을 전개하였고, 제12연대도 쌍방간에 많은 손실을 낸 채 19일 수암산을 피탈당하고 유학산 일대에서 공방전을 반복하며 적의 돌파확대를 저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황이 위급해지자 미 제8군과 육군본부는 각각 1개 연대씩을 다부동지역에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8월 20일 밤 적 진영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더 이상 다부동 전선을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적은 유학산 일대에 전개한 제15사단을 의성 방면으로 이동시킨 후 국군 제8사단 정면인 영천 방면을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제3사단 일부가 수암산 일대에, 제13사단이 유학산 우측면을 담당하게 돼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다부동 피탈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국군 제1사단에는 천만다행한 결과였다.

그러나 8월 21일 저녁 적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우고 제11연대와 미 제27연대에 대한 최후 발악적인 대규모 야간역습을 감행하여 왔다. 치열한 전차전이 5시간이나 계속되었고, 날이 밝은 후 다부동 계곡에서는 파괴된 적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1,300여 구의 적 시체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적 제13사단 포병연대장이 제11연대지역으로 귀순하여 은폐된 포 진지를 밝히고 유엔 전폭기편대가 이를 폭격함으로써 북한군 제13사단의 화력지원은 무력화되었다. 제12연대도 8차례의 공격 끝에 이날 밤 최초로 야간기습을 시도하여 유학산 탈환에 성공하였다.

마침내 국군 제1사단은 주저항선을 안정시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유학산과 다부동 일대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북한군 3개 사단과 25일 동안의 교전을 전개, 8월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후 미 제1기병사단에 진지를 인계하고 신녕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가 갖는 의미는 8월 총공세로 남한에 대한 적화의 욕을 마무리하려는 북한군으로 하여금 낙동강전선의 돌파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는 점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에 게 공세이전의 계기를 포착해 다른 유엔군 부대와 함께 반격작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있다.

전쟁의 대세를 가늠하는 일전이었던 다부동전투는 결국 아군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백선엽 장군이 지적한 대로 방어진역에 침투한 적을 역습으로 격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과구의 견부(肩部)를 확보하여 돌과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휘관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대를 각 제대별로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 교훈으로 제시된 전투였다.

한편 반격작전으로 전환,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며 평양을 향해 진격할 꿈에 부풀어 있던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평양공격작전에서 제1사단은 물론 국군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 미 제1군단장 밀번



평양공격작전 직후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과 작전을 협의중인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

(Frank W. Milburn) 소장을 만나 “평양공격에 국군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재고를 요청하는 한편 “기동력과 화력이 우세한 미군을 앞세워 신속히 진군하여 평양을 점령하려 한다”는 밀번 군단장을 “우리에게 차량은 많지 않으나 대신 주야로 행군할 투지가 있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도보부대가 평양에 먼저 도달할 수 있다. 그곳은 내 고향이며 지리를 잘 안다”고 설득하여 결국 평양공격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이후 제1사단은 일명 ‘폐튼전법’을 이용하여 고랑포에서 평양까지 하루 평균 25km의 빠른 속도로 진격하였다. 10월 13일 낮 전차를 앞세운 제12연대와 제15연대는 남침시 적의 후방보급기지였던 시변리를 탈환한 후 파죽지세로 평안남도에 진입하여 10월 17일 평양 외곽 30km 지점의 상원을 함락하였다. 제1사단의 주공인 제12연대는 10월 19일 오전 11시 선교리 로터리에 진출하였고, 제12연대는 동평양, 제11연대는 서평양으로 각각 진입하였다. 또한 제15연대는 주공이 선교리에 도착할 무렵 모란봉 김일성대학에 진출하여 본 평양에 선착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제1사단의 평양탈환작전은 10월 19일 밤 평양소탕작전이 일단락됨으로써 완료되었는데 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능숙한 작전지휘, 미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경쟁에 따른 결과로써 국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게 한 전투였다.

이후 1950년 10월 22일 한·만 국경의 수풍발전소를 향해 다시 북진, 영변·운산을 점령하고 계속 진격을 시도하던 제1사단은 서부전선으로 진입한 중공군 6개 군의 대규모 침공을 받고 38선 이남인 경기 안성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형성하였다.

1951년 1월 하순경 아군의 총반격 명령에 의거 서울탈환을 목표

로 진격을 개시한 제1사단은 서부전선에 배치된 중공군 제50군 148사단과 제149사단, 제150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수원을 점령한 후 사단 우측에서 북진해 오는 미 제3사단과 병행하여 한강 남안까지 진출하였다. 한강을 사이로 피아가 대치한 상황에서 백선엽 사단장은 강 북안의 적진을 향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적을 격퇴시킨 후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진입을 감행하였으며, 마포-서대문을 거쳐 주공은 중앙청-서울시청-서울역-용산 순으로 그리고 일부는 홍제동으로 진출함으로써 서울 전역을 완전 장악하였다.

그 후 백선엽 장군은 1951년 11월 16일부터 1952년 4월 4일까지 수도사단이 주축이 된 백 야전전투사령관으로서 지리산·덕유산 등지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를 토벌한 후 제1군단장과 제2군단장, 휴전회담 한국대표를 거쳐 창군 후 최초로 창설된 제1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하였다. 장군은 1952년 7월 23일에 전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총참모장에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대학 총장까지 겸직하면서 휴전에 임하게 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 직후인 1954년 2월 제1야전군사령관으로 약 3년을 재임하고 1957년 5월 육군참모총장에 재임명된 백선엽 육군대장은 국군의 현대화에 주력하여 신형전차 도입, 포병력의 증강, 공정부대 창설, 구축함 도입, 대공(對空) 방어능력 강화 등 군 현안을 실현하는데 노력하였다. 그 후 연합참모본부 의장을 끝으로 1960년 5월 31일 군문을 나선 장군은 주중 대사 등 우방국 주재 대사와 교통부 장관, 통

일원 고문, 성우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6·25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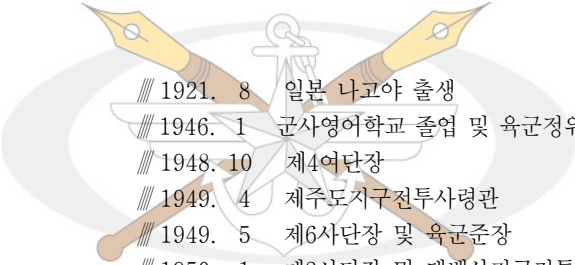
6·25전쟁을 통해 탁월한 통솔력과 지략을 발휘한 능력있는 지휘관 중의 한 분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전쟁영웅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 1952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환영대회장에 나온 이승만 대통령은 청중들에게 “미국에 아이젠하워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전쟁영웅이 있다. 바로 그가 백선엽 장군이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장군이다.

한 평생을 국가와 군만을 생각하고 살아 온 그는 여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치입문 유혹을 거부한 채 영원한 군인의 길만을 걸어왔다. 장군이 제1군사령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장군을 불러 내무장관직을 제의하였으나, 그는 “군인으로 일생을 마치고자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한 일화가 있는 진정한 군인이었다.

이러한 그의 성품에 걸맞게 그는 금성태극무공훈장을 위시한 태극무공훈장 2회 등 수 회에 걸쳐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과 미합중국의 각급 훈장 이외에도 태국, 필리핀, 중화민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우방국의 각종 훈장을 수여받았다.



劉 載 興 육군중장

- 
- /// 1921. 8 일본 나고야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정위(대위) 임관
 - /// 1948. 10 제4여단장
 - /// 1949. 4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
 - /// 1949. 5 제6사단장 및 육군준장
 - /// 1950. 1 제2사단장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
 - /// 1950. 6 제7사단장
 - /// 1950. 7 제2군단장
 - /// 1950. 9 육군소장
 - /// 1951. 1 육군참모차장 겸 제3군단장
 - /// 1952. 1 휴전회담 한국대표
 - /// 1952. 5 육군중장
 - /// 1952. 7 제2군단장
 - /// 1954. 7 교육총본부 총장
 - /// 1959. 2 제1군사령관
 - /// 1960. 7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1950년 7월 20일 제2군단장으로 부임한 유재홍 준장은 1950년 9월 2일부터 12일까지 낙동강전선에서 북한군의 9월 공세가 개시되어 보현산 방어선이 붕괴되고, 이어서 기룡산 저지선마저 돌파되어 북한군이 영천까지 침공하였을 때, 예하 제7사단과 제8사단을 지휘하여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영천을 탈환하였다.

전투 결과 북한군 제15사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전선에서 물러서게 되었으며, 국군 제2군단은 적 4,000여 명을 사살하고 300여 명을 생포하는 한편 전차 5대를 파괴하고 상당량의 각종 차량 및 화기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수립함으로써 반격작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군단장 유재홍 준장에게 정부는 1951년 7월 2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01호)을 수여하였다.

1921년 8월 3일 일본 나고야에서 출생한 유재홍 장군은 다섯 살이 되던 해 조국으로 돌아와 일본 육사에 입교할 때까지 서울 등 여러 지역을 돌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 후 일본 육사(55기)를 졸업하고 1941년 12월에 보병소위로 임관, 구마모토의 제206사단 중박격포연대 제2대대장으로 있던 중 일본이 패망하자 귀국하였다.

귀국 후 군사영어학교에 관계하고 있던 이응준의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 장교가 되고, 군의 간성이 되라”는 권고에 따라 유재홍 장군은 1946년 1월 15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정위(대위, 군번 10003)로 임명되어 국방경비대 보급관이 되었다. 이후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군수국장과 문산을 포함한 서부전선의 방위를 담당했던 제1여단 참모장을 거쳐 1948년 10월 청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4여단장으로

부임하였다.

다음해 1월 육군사관학교 부교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으로 발령을 받아 2개월간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1949년 5월 육사로 복귀하였으나, 5월 12일 제6여단이 제6사단으로 승격되면서 곧바로 사단장에 임명되었다. 사단장으로 부임한 그는 최우선적으로 진지구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8월 6일 적 1개 대대가 신남지역의 양 고지를 공격해 온 신남지역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1950년 1월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사단장으로 임명된 그는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을 겸하게 되었다. 그는 공비토벌작전에서 소부대 단위로 수색을 강화하여 일단 공비를 발견하면 그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추격전을 감행하여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는 1950년 6월 10일 38선에 배치된 사단장의 전원 교체 방침에 따라 제7사단장에 임명되어 의정부 전선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7사단은 적의 신예 전차부대가 철원쪽에 집결중이었다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면서도 대전차 방어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적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식한 유재홍 사단장은 사단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고 진지구축 강화와 57mm 대전차포 및 2.36인치 로켓포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 영천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유재홍 사단장은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한편 제1연대와 제9연대를 적 접근로 상의 주진지에 배치하여 적의 전진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강력하게 밀고 내려오는 적의 보·전 협동부대로 인해 덕정-의정부-창동으로 축차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6월 26일 저녁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 진영을 정비하고 후방으로부터 도착한 부대를 창동을 중심으로 배치한 뒤 현 전선의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전황이 여의치 못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제7사단은 한강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에 편입되어 노량진 방면의 적의 도하를 저지하였다.

한강방어선이 돌파되어 철수하던 7월 5일 육군본부는 수도사단과 제1사단 그리고 제2사단을 기간으로 하여 제1군단을 창설하고 군단장에 김홍일 소장을, 부군단장에 유재홍 대령을 육군준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였다. 이후 7월 20일 함창에서 제2군단이 창설되어 군단장에 오를 때까지 진천, 음성, 동락리 전투 등에 참여하였다.

제2군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최초의 군단급 작전을 함창에서 전개하였다. 7월 20일 김무정이 이끄는 적 제2군단은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이 낙동강을 넘기 전에 격파하는 동시에 함창-상주-김천 축선으로 진격하여 서부전선의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한 뒤 아군 진영을 동서로 양분시킬 의도에서 제6사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김종오 사단장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은 군단장은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적을 격퇴하는 한편 미 제25사단으로부터 전차와 포지원을 받아 적의 돌파구를 봉쇄하고 제1사단을 군단에 편입하여 2주 동안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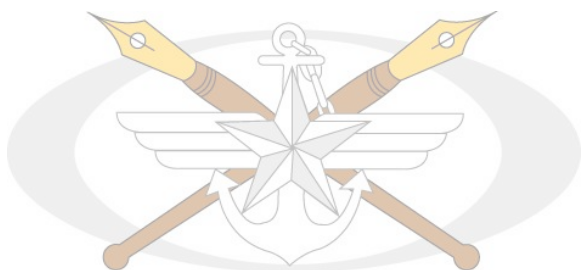
이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획득한 반면 적은 유엔군 증원부대가 도착함에 따라 결정적인 공격의 시기를 놓치고 이후의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50년 7월 31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으로부터 “전군은 8월 1일을 기해 현 선에서 낙동강으로 철수하여 방어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8월 2일 낙동강 도하를 완료한 군단은 좌일선에 제1사단을, 그리고 우일선에 제6사단을 배치하였다. 다음날 제105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3개 사단은 제1사단이 배치된 대구 북방의 왜관과 다부동 일대에 대대적인 공세를 취해왔다. 제1사단은 유학산과 다부동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적과 25일간의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여 적의 8월 공세를 저지함으로써 대구 북방의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제1사단은 진지를 미 제1기병사단에 인계하고 신녕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작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부동에서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한 북한군은 9월 2일 제2군단 예하의 제15사단으로 하여금 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영천 북방을 공격해왔다. 이른바 ‘영천대회전(永川大會戰)’으로 불리는 이 전투는 낙동강방어선이 돌파되느냐 사수하느냐를 결정지를 만큼 전쟁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전투였으며, 특히 9월 5일과 6일 대구와 경주가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영천이 돌파됨으로써 그 위기는 더욱 가중되었다. 북한군 제2군단은 5개 연대를 투입하여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제2군단장 유재홍 준장은 이곳에 신편된 제7사단의 3개 연대는 물론 제1사단과 제6사단의 1개 연대를 각각 투입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로 위기를 극복하고 낙동강방어선을 사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당시의 전황은 적 제15사단이 다부동 정면에서 의성을 거쳐 영천 동북방 입암리로 이동하여 부대정비와 아울러 병력 및 장비를 증강

영천지구 전투상황



하고 최후의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에 영천 북방의 국군 제8사단은 제21연대를 좌일선으로 노고재-보현산에, 그리고 제16연대를 우일선으로 입암 남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도로교차점이자 횡적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영천은 대구와 34km, 경주와 28km의 거리에 있는 철도의 분기점으로서 이곳이 돌파될 경우 대구와 경주 방면이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이 분리되고 또한 동서간의 보급로가 차단될 수 있는 낙

동강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8월말부터 전초전을 수행하고 있던 국군 제8사단은 9월 2일 야간에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을 받아 우일선의 제16연대 방어진지가 무너지자 영천 북방의 기룡산 일대로 철수하여 좌일선에 제21연대, 중앙일선에 제16연대와 제3연대 1대대, 우일선에 배속된 제7사단 5연대를 배치하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9월 4일 영천지구전투 지휘권 일원화 조치를 실시, 제2군단장 유재홍 준장으로 하여금 영천전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군단장은 제8사단 진지가 돌파되어 영천이 피탈될 위기에 처하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군단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예하의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씩을 차출하여 영천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제1사단과 제6사단도 적의 위협에 놓인 상황이었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군단장은 적이 영천 돌파에 주력하고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승전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군단장은 또한 전차부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 제1기병사단과 제8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전차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자정 무렵 북한군 제15사단은 각종 포의 지원하에 전차 5대를 선두로 입암-영천 도로를 따라 남진,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8사단은 중앙의 제16연대와 제3연대 1대대가 적의 주공을 맞아 분전하였으나 수 시간만에 돌파됨으로써 위기상황에 놓였다. 또한 좌우측의 제21연대와 제5연대도 영천 북방 선천동과 상리동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날 밤 계속된 전투에서 중앙의 제16연대가 적의 진출을 저지하지 못하고 영천 외곽으로 밀리자 사단장 이성이 준장은 대전차공격

대대와 제7사단 8연대에게 즉각적인 역습을 지시, 5시간만에 적을 조교동으로 격퇴시키고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였다.

9월 5일 야간에 적의 주력은 조교동 부근에서 병력을 증원받아 전차를 선두로 영천읍내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제16연대와 제8연대는 적의 기습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 영천 남쪽으로 철수하였고 영천을 점령한 적은 곧바로 경주 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성가 사단장은 오수동에서 철수부대의 재편을 명령하는 한편 군단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 때 양측방의 제21연대와 제5연대는 통신 두절로 영천의 전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오후들어 좌전방의 제21연대를 공격하던 북한군 제45연대는 임무를 다른 부대에 인계하고 영천 방면으로 남하하여 영천의 돌파구 확대를 기도하였다.

군단장이 요청한 미 전차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으며 영천 읍내로 돌입한 공병대대는 소수의 적을 물리치고 영천을 탈환하고 완산동으로 진출하였으나, 저녁 무렵 조교동에 위치한 적의 역습에 대비해 다시 물러났다.

이날 오후 제2군단의 증원부대가 도착함에 따라 제8사단은 영천 동북방에 제21연대와 제19연대를, 영천에 사단 공병대대와 제5연대 일부를, 영천 남쪽에는 제11연대를 배치하여 대구 방면으로의 돌파 저지선을 형성하였다. 이 무렵 적은 영천 북동에서 대돌파구를 형성하고 국군 전선을 절단하기 위해 임포동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한편 신녕지구에서는 제6사단 2연대가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유엔공군의 지원아래 케털시킴으로써 영천을 우회공격하려는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 9월 7일로 접어들어 영천 일대에서 제8사단의 승전보가 이어졌다. 제21연대가 적 제103연대의 계속된 공격을 격퇴

하는가 하면, 제19연대는 남하하는 적의 보급지원부대에 대한 기습에 성공하였으며, 공병대대도 영천 남동 8km 지점의 도로를 차단한 적을 공격하여 격퇴하였다.

다음날 제21연대는 북한군 제73독립연대의 공격을 강력한 화력을 집중하여 저지하였고, 제19연대는 14시경 영천을 재탈환한 후 야간에 조교동으로 남진하여 적 제15사단의 1개 연대를 역습으로 격퇴하였다. 또한 제3사단에 배속되었던 제10연대가 원복, 아화리에서 제8연대 및 제5연대와 협조하여 적의 남진을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적의 돌파구를 봉쇄하기 위한 방어선이 북쪽의 선천 제21연대로부터 남쪽의 아화 제5연대까지 “L”자형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적의 돌파구 저지는 물론 돌파구 침단의 후방을 차단하고 반격으로써 적을 포위섬멸하기에 적절한 것이었다.

9월 10일 마침내 국군 제2군단은 영천 북쪽에서 제21연대와 제19연대로 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영천 남쪽에서는 제5연대를 선봉으로 5개 연대가 총반격을 개시하였다. 제5연대는 임포동에서 적을 격퇴하였고, 나머지 연대는 유상동과 유하동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제16연대는 작산동으로 진출하여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각 공격부대는 9월 12일, 9월 공세 이전 제8사단의 주저항선을 회복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적 제15사단은 전투력을 완전 상실한 채 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전투로 제2군단은 반격작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950년 12월 초 만포에서 각급 지휘관 및 당 간부를 상대로 한 전쟁 성패에 대한 평가에서 김일성은 “영천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빼앗기면서 우리는 패배했다”고 자인할



영천전투 후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으로부터 미 무공훈장을 받고 있는 유재홍 제2군단장

정도로 영천전투의 승리는 6·25전쟁에 있어 일대 반전을 가져오는 쾌거였다.

제2군단장 유재홍 준장의 적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예하 사단으로부터 1개 연대씩을 차출하여 적의 주공 방면으로 전환한 과감한 결단력은 부대 운용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전투가 종료된 다음날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유재홍 군단장은 새로 배속이 변경된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지휘, 조림산에서 적 1개 연대를 섬멸한 후 육군본부의 무제한 공격명령에 따라 함창-안동-충주로 진격하였다. 10월 4일 군단은 38선을 돌파하여 폭파 직전의 화천 구만리발전소를 점령한 후 북진을 계속하여 평강에 도달하였다.

이후 평양탈환작전에 군단의 일부 병력을 참여시킨 군단장은 10월 19일 압록강을 향해 군단의 주력을 북진토록 하였다. 제6사단은 초산을 그리고 제8사단은 중강진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였다.

10월 24일 유재홍 소장은 육군참모부장(陸軍參謀副長)에 임명되어 육본으로 돌아왔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일권 참모총장에게 군단장으로 임명해주길 부탁하였다. 다시 제2군단장에 임명되어 개천의 군단사령부로 돌아온 유재홍 장군은 청천강에서 중공군과 두 차례의 전투를 전개한 후 38선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1951년 1월 4일 육군참모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월 9일 제3군단장에 임명되어 제9사단과 제7사단, 그리고 제3사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제3군단장은 북한군 제2군단과 길원팔 유격부대가 영월-춘양 사이의 남대리를 거쳐 영주-안동으로 진출하려는 기도를 봉쇄하기 위해 1월 14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같은 날 제3사단은 춘양에서 밀고 올라가는 군단포위작전을 전개하여 약 1,500명에 달하는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고, 23일에는 제7사단이 영월 사수를 위해 병력을 집결중인 적 제2군단 주력을 공격하여 1,00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는 등 적 제2군단을 궤멸시켰다.

이후 제3군단장 유재홍 소장은 5월 중순 중공군 제1군과 제27군, 북한군 제6사단, 제12사단, 제32사단 등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치열한 전투 끝에 하진부리로 철수했던 현리전투를 마치고 5월 26일 육군참모부장으로 복귀하였다.

휴전회담 한국측 대표로 발탁되어 활동하던 1952년 5월 19일 육군중장으로 진급한 그는 며칠 후 한국측 대표직을 이한림 준장에게 인계하고 제2군단장에 보임되었던 7월 23일까지 육군참모부장직을

수행하였다.

유재홍 중장이 제2군단장으로 부임할 당시의 전황은 휴전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쌍방간에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방전만을 전개하고 있었다. 금성천 북쪽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확보하고 있던 군단 예하 수도사단은 중공군 제12군의 공격을 받고 3개월 여에 걸쳐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수도사단은 중공군 제12군 산하 제34사단과 제35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미 제5포병단의 지원아래 격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차례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피탈당하였으나 결국 진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는 신태영 국방장관이 “수도고지 탈환전은 6·25 전쟁 중 최대의 격전이었다”고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치열했으며, 쌍방간의 수많은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전 이전의 원점에서 종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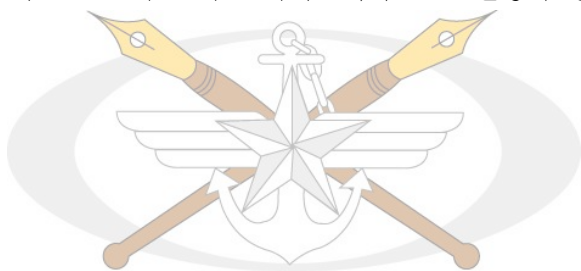
제2군단이 수도고지를 완전 점령한 이후 유재홍 중장은 수도고지의 동쪽에 위치한 527고지와 748고지전투를 지휘하였으며, 1953년 2월 3일 육군참모차장으로 전보되어 재직하던 중 휴전에 임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이 성립된 직후 미 육군참모학교에 파견되어 약 1년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유재홍 장군은 교육총본부 총장과 연합참모본부 총장 그리고 제1군사령관 등 주요직책을 역임하고 1960년 7월 27일 육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예편 직후 태국주재 대사를 시작으로 스웨덴, 이태리 등 서구 우방국의 대사로 활동한 장군은 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으로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후 마침내 1971년 8월 국방부장관으로 발탁되었으며, 장관 재임기간 동안 방위산업 육성, 한국군 병력조정문제 및 주월 한국군 문제 등 국익과 안보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전시에는 군인으로, 평시에는 외교 및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재홍 장군은 은성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한 각종 무공훈장 5회, 수교훈장 2회 등 수많은 훈·포장을 국내외로부터 수여받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지휘관이자 6·25전쟁의 영웅이었다.





金 容 培 육군대장

- 
- /// 1923. 4 서울 출생
 - /// 1946. 3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50. 6 제8사단 21연대장
 - /// 1950. 10 제3사단 부사단장
 - /// 1951. 1 제7사단 부사단장
 - /// 1951. 5 제7사단장
 - /// 1951. 6 육군준장
 - /// 1952. 3 육군보병학교 부교장
 - /// 1952. 5 육군본부 인사국장
 - /// 1953. 2 제7사단장
 - /// 1953. 5 육군소장
 - /// 1956. 9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
 - /// 1959. 7 제1군단장
 - /// 1960. 4 제5군단장
 - /// 1960. 10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
 - /// 1961. 1 육군중장
 - /// 1961. 5 육군사관학교장
 - /// 1965. 4 육군대장
 - /// 1965. 4 육군 참모총장
 - /// 1966. 9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휴전협정의 조인으로 6·25전쟁이 일단락된 1953년 8월 27일 제7사단장 김용배 육군소장은 제8사단 21연대장으로 재임 중 수행했던 영천지구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에서 탁월한 작전능력과 통솔력을 발휘함은 물론 뛰어난 전과를 수립함으로써 1953년 8월 27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21호)을 수여받았다.

1923년 4월 21일 서울에서 출생한 김용배 장군은 1942년 당시 전국의 수재들만 모였다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늘날 서울 법대의 전신인 서울법전에 입학,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944년 9월에 졸업하였다. 그러나 법전을 졸업한 직후 ‘반도학생동원령’에 의해 일군으로 징집된 그는 신병훈련을 마치고 간부후보생에 응시, 예비사관학교에서 장교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았다. 1944년 일본육군 보병소위로 임관하여 1년여의 기간을 복무한 후 일제의 패망과 함께 ‘무기한 귀향’ 명령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군사경력을 기초로 하여 조국의 국군창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의도로 군사영어학교에 입교, 1946년 3월 23일 졸업과 동시에 군번 10077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한 그는 제1연대 C중대의 편성소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제1연대 C중대는 3월 중순에 편성되어 이병주 참위(소위)가 3월 15일부로 부위(중위)로 진급하여 중대장 대리에 임명된 시점이었다.

이후 제7연대와 제13연대에 재임하며 중령까지 진급했던 그는 1950년 1월 육군참모학교의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마치고 6·25전쟁을 불과 보름 앞둔 1950년 6월 10일에 제8사단 21연대장으로 전보되었다.

□ 영천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동해안지역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제8사단은 전쟁발발 당시 2개 연대밖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38도선에 제10연대를 배치하고 제21연대는 예비로 삼척에 집결 보유중이었다. 제21연대장으로 발령을 받고 삼척으로 부임한 김용배 중령은 북한군 제5사단이 6월 25일 04시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38도선을 돌파하여 주문진으로 진격을 개시하자 연대 병력을 북평-백봉령-삼당령-구산리로 우회이동시켜 군선강 방어진지를 인수하는 한편 일부는 본대와 합류하여 강릉지구전투를 실시하였다.

6월 28일 육군본부의 철수명령을 받은 제8사단은 차량행군으로 평창을 거쳐 제천, 단양, 안동으로 철수하였다. 7월 6일 육본직할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된 제8사단은 7월 8일부터 단양전투를 전개, 북한군 제8사단의 진출을 일주일간 지연시킨 후 죽령에서 철수를 단행하고 풍기·영주지역에서도 적의 진출을 10일간 저지하였다.

이어 영주-웅천-안동으로 철수한 제8사단은 수도사단 제1연대와 함께 적 제12사단과 제8사단 소속 일부 병력의 침공을 4일간 방어하고 안동교를 폭파한 후 의성지역으로 철수하여 낙동강방어선에 참여하였다. 8월 3일부터 전개된 의성전투에서 제8사단은 앞서 안동전투시와 동일한 적 부대를 맞아 11일이나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국군이 보현산과 기계지역 정면에 새로운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의성지구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제8사단은 영천으로 철수하여 9월 5일부터 영천전투를 전개하였다. 당시 북한군 제15사단은 영천을 점령한 다음 대구로 진출하기 위해 8월 20일 다부동 정면에서

의성을 거쳐 영천 동북방 입암리로 이동하여 최후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용배 중령의 제8사단 21연대는 좌일선으로 노고재-보현산에, 제16연대는 우일선으로 입암 남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9월 2일 야간에 적 제15사단의 공격을 받은 제16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져 영천 북방 기룡산 일대로 철수, 4일 오후 좌일선에 제21연대, 중앙일선에 제16연대와 제3연대 1대대, 우일선에 제7사단 5연대가 배치되었다. 자정 무렵 각종 포 지원과 전차를 선두로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한 적 제15사단에 중앙의 제16연대와 제3연대 1대대가 돌파당하자 좌우측의 제21연대와 제5연대도 적의 공격을 저지하던 도중 부득이 영천 북방 선천동과 상리동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적의 주력이 9월 6일 미명,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영천을 점령하였을 때, 양측방의 제21연대와 제5연대는 통신두절로 영천의 전황을 알지 못한 채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제21연대를 공격하던 적은 영천의 돌파구확대를 기도하였다. 9월 7일 미명 김용배 대령이 지휘하는 제21연대는 적 제103연대의 수회에 걸친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적 제73독립연대의 공격을 강력한 화력을 집중하여 저지하였다.

9월 8일과 9일 적의 돌파구 봉쇄를 위한 방어선이 영천에 형성되자 제2군단은 10일부터 총반격에 돌입하였다. 10일 미명 제21연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영천-자천 도로를 따라 후퇴중인 적 전차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작전에 돌입한 제2대대 5중대 2소대는 자천동 남쪽에서 적 전차 1대를 파괴하고 포로 5명과 적 제15사단의 작전문서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영천전투는 낙동강방어선이 돌파되느냐 사수하느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제8사단 21연대장 김용배 대령은 승리를 가져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즉 연대 진지를 영천 북방에 계속 유지시켜 적 2개 연대를 견제, 이들 연대가 증원병력으로 차출될 수 없게 하여 주력의 전진을 지연시켰다. 이는 수세를 공세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9월 20일 영천전투를 계기로 반격에 들어간 제8사단은 의성-안동-영주를 거쳐 단양-양평-동두천으로 진격하여 10월 8일 마침내 38도선을 돌파하였다. 사단이 38도선을 돌파하여 연천-철원-곡산 등 북진을 계속하고 있던 10월 24일 제21연대장 김용배 대령은 제3사단 부사단장으로 전보되었다. 당시의 제3사단은 원산을 탈환한 후 원산과 함흥지구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3사단은 11월 17일 제22연대가 혜산진, 제23연대가 나남으로 각각 진출했으나 12월 1일 군단의 철수명령에 따라 백암 및 나남에서 길주, 성진을 거쳐 흥남으로 철수, 구룡포와 부산으로 각각 해상철수하였다. 12월 15일 제2군단으로 예속이 변경된 사단은 원주로 이동하여 흥천 북방 소양강 일대에서 북한군 제10사단과 제2사단의 유격대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1951년 1월 7일 김용배 대령은 중공군의 남진으로 원주 및 영월까지 후퇴해 있던 제7사단의 부사단장으로 보임되어 중공군의 2월 공세와 킬러작전, 중공군 제1차 춘계공세 등에서 사단장을 보좌한 후 4월 27일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요원으로 발령되었다.

한달 여의 육본 생활을 마치고 5월 28일 다시 제7사단장으로 복귀하여 육군준장으로 진급한 김용배 준장은 6월 8일 백석산 남방 벧저선에 위치한 917고지 진격전을 전개하였다. 8월로 접어들어 김

용배 사단장은 618고지, 901고지, 883고지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양갈래고지(732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후 서남지구전투사령관과 진주지구위수사령관, 육군보병학교 부교장, 육군본부 인사국장을 지낸 후 1953년 2월 미 제25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일선에 복귀한 제7사단의 사단장으로 되돌아왔다. 5월 4일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직후 백석산지역을 제20사단에 인계하고 양구로 이동,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던 중 중공군의 6월 대공세가 시작되었다.

제7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좌측방지역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6월 25일부터 선우고지(938고지) 전초진지쟁탈전을 펼친 끝에 전초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제7사단은 작전지역을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양구로 이동한 후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다시 화천으로 투입되었다.

그후 김용배 소장은 별우지구의 425고지 및 406고지 전초진지쟁탈전을 전개하던 중 휴전을 맞았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전쟁이 종료되고 부대정비 및 전후복구에 주력하던 김용배 소장은 미 지휘참모학교에 교육과견이 결정되어 1954년 6월 육군본부로 전속명령이 내려졌다. 6월 25일 미국으로 건너가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장군은 5월 육군본부 인사국장으로 부임하였고, 약 3개월의 재임기간을 거쳐 9월말에는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으로 전보되었다.

김용배 장군은 육군본부에 재임하는 동안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발탁되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는데, 1956년 1월에 발생한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의 조사위원, 장교진급심사위원, 외국교육기관 파견자선발 판정관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59년 7월 제1군단장에 임명된 데 이어 5개월만에 제5군단장으로 전보된 장군은 1960년 10월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1961년 1월 육군중장으로 진급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초급장교 육성에 전력을 다한 장군은 약 4년간의 재임기간을 마치고 1965년 4월 1일 육군대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제17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1966년 9월 1일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육군의 수장으로 육군 발전에 기여하였다.





任 忠 植 육군대장

- /// 1922. 4 전남 해남 출생
- /// 1946. 6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3 제12연대장
- /// 1950. 7 수도사단 제18연대장
- /// 1951. 6 제2사단 부사단장
- /// 1952. 9 육군준장
- /// 1952. 9 제7사단장
- /// 1953. 8 헌병사령관
- /// 1953. 12 육군본부 인사국장
- /// 1956. 11 제2사단장
- /// 1957. 5 제6군단장
- /// 1959. 1 육군소장
- /// 1960. 7 제2훈련소장
- /// 1960. 11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 /// 1962. 2 육군중장
- /// 1962. 3 제5군단장
- /// 1963. 12 국방부 인력차관보
- /// 1965. 4 육군참모차장
- /// 1967. 4 합참의장 및 육군대장
- /// 1968. 8 예편
- /// 1968. 9 국방부장관
- /// 1974. 1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수도사단 제18연대장 임충식 육군대령은 1950년 9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안강·기계지구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였으며, 원산·함흥·어랑천·청진지구의 공략전에 있어서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총 경주하여 최후 발악을 감행하는 적을 추격·섬멸, 대한민국 국군의 위신을 세계 만방에 선양함으로써 1953년 5월 20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13호)을 수여받았다.

이처럼 안강·기계지구전투와 원산탈환전투 등을 성공으로 이끈 임충식 연대장은 1922년 4월 23일 전남 해남에서 출생하였다. 1936년 만주의 연길중학을 졸업한 후 해방된 조국의 간성이 되고자 1946년 5월 1일 경비사관 1기로 입교하여 6월 15일 졸업과 동시에 군번 10121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었다. 제3연대에 배속되어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48년 2월 제3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8월 육군소령으로 진급하였다.

이어 제6연대 부연대장을 거쳐 1949년 3월 육군중령으로 제12연대장에 임명된 그는 6개월 후인 1949년 9월 태백산지구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참모장에 발탁되어 2개월간의 토벌작전을 마무리하고 11월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장에 보임되었다.

연대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다음해 4월 보병학교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 7일 수도사단 제18연대장으로 복귀하여 철수작전에 참여하고, 8월에는 육군대령으로 진급하였다.

1951년 1월 28일 수도사단 제18연대가 제3사단으로 예속 변경됨에 따라 2월 5일 제3사단 18연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4월에는

제7사단 부사단장으로 그리고 6월에는 제2사단 부사단장으로 여러 차례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후 1952년 9월 육군준장으로 진급, 휴전 협정이 체결될 시점에는 제7사단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 안강·기계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개전 초기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수도사단 제18연대로 원대복귀한 연대장 임충식 중령은 연대 병력을 이끌고 평택-진천-청주-보은-의성 방면으로 축차적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전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한 직후 수도사단 제18연대는 의성지역에서 제8사단과 함께 동부전선으로 진출을 기도하던 북한군 제8사단과 제12사단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전에 돌입하였다. 제18연대는 의성 북쪽 향로봉과 토곡동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적 제8사단의 침공을 저지하던 제8사단의 향로봉 진지가 돌파됨에 따라 이의 탈환에 나섰으나, 적 제12사단의 침공으로 부득이 보현산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낙동강방어선에서 적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던 제18연대는 낙동강전선의 동부지역을 돌파하려는 적 제12사단이 청송-죽장-기계-안강 축선으로 침공하여 포항을 점령하자 독립 제17연대 및 미 브래들릭 특수임무부대와 함께 이 지역에 투입되어 역포위작전을 전개한 끝에 적을 비학산 방면으로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수도사단 제18연대장 임충식 대령이 포병부대가 포함된 북한군 제12사단을 계속 맹공하자 북한군은 봄, 여름, 가을 각

고지 일대에서 후퇴하여 겨울고지 및 안강 후방고지 일대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뒤 아군이 진지를 구축하는 틈을 타서 때때로 침입해왔다. 연대장은 후퇴 중에도 보급 연락의 불편과 지형적인 악조건을 타개, 안강 및 기계를 점령할 결심으로 제2대대를 예비대로 연대전방지휘소에 대기시키고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03시 45분에 겨울고지를 완전 점령하였다.

또한 결전 단계에서 제7중대가 공격하는 전면의 적 화력이 심하여 중대장이 흉탄에 쓰러지고 일시적으로 혼란상태에 봉착하자 연대장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7중대 OP까지 진출하여 적이 포기한 장비로서 탄약을 보급시키는 등 진두지휘를 통한 장병들의 사기를 고양하여 목표고지를 점령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한편 1950년 9월 16일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총 반격의 대열에 나선 수도사단은 도평리-영양-춘양을 거쳐 영월-평창-속사리로 진격을 계속하였으며, 10월 1일 전군의 최선봉으로 제3사단과 함께 38도선을 돌파, 양양-간성-양구-화천-신고산-안변을 거쳐 10월 10일 원산점령을 위한 공략에 나섰다.

동해 진출의 관문이며 요새인 원산공략을 목전에 둔 제18연대장 임충식 대령은 야포 및 직사포 부대를 보유한 북한군 원산경비 제2여단 및 제246부대의 약 1개 대대 병력이 고원선에서 방어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았다.

적은 이미 계획했던 제2선의 견고한 진지를 이용하여 대기중에 있었으며 화력 배치가 견고하였다. 연대는 OP를 08시 30분에 출발하여 배화리를 경유 원산시 구마동으로 이동시킨 다음 적의 선제를 제압하고 강습적인 화력의 지원아래 원산 서북방 일부 시가에서 363명의 적을 사살하고 직사포 9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며 원산

을 점령하였다.

이후 제18연대는 북진을 계속하며 함흥 공략에 임하였다. 후퇴를 거듭하는 적은 주력을 후퇴시키기 위해 소수의 엄호병력으로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대 CP를 정평리(定平里)로부터 흥사리(興士里)로 이동하고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려는 40여명의 적을 물리치며 공격을 개시, 흥사리를 점령하고 계속 북진하여 10시에 함흥 시가에 돌입하였다.

때마침 시가전을 기도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적을 연대장은 제2대대 전위중대를 지휘하여 전투를 전개하는 한편 제1대대와 제2대대로 하여금 후퇴하는 적을 포착·섬멸토록 하였다.

연패하여 패주하던 적은 봉강 어랑천 북안 일대 고지의 유리한 자연진지에서 제507여단 재편부대, 포연대 및 포 20문을 보유한 청진의 제41사단, 회문에서 증원된 해병 1개 연대 등 약 2개 사단 25,000명의 병력을 규합, 일대 결전으로 전세를 만회하려했다. 한·만국경을 목표로 북진중에 있던 수도사단장은 국군의 최선봉에 나서 파죽지세로 적을 추격하고 있던 제18연대로 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도록 제1, 2차 공격개시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에서 적의 병력이 2개 사단 규모라고 판단한 사단장은 작전을 변경하였다. 적을 기존에 설치된 방어진지 밖으로 유도하여 격퇴하기로 결정하고 제18연대를 이동시켰다. 적은 제18연대가 제1, 2차 공격에서 피해를 입어 후퇴한 것으로 오인하고 2개 연대 병력으로 일대 반격전을 감행해왔다.

적은 아군의 의도대로 유도되었으나 오히려 한 때는 제18연대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력적이고 정확한 미 공군의 공중공격과 포지원, 제18연대 장병의 육탄공격으로 적을 섬멸한

후 방어전에서 공격전으로 전환하였다. 이 공격에서 사단은 후방 제1연대를 지원 조공으로 제18연대 좌측의 어랑천 좌측을 담당하게 하고, 후방 예비대로 기갑연대를 배치하는 등 완전 1개 사단 병력으로서 일거에 방어선을 돌파하여 적을 섬멸시키고 목표인 봉강을 점령하였다. 10여 일에 걸친 이 전투는 아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한 이래 처음으로 보는 적의 대규모 반격이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청진 탈환을 위해 진격하던 수도사단이 나남에 진입할 무렵 45mm 직사포 10문과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 제40사단 507연대 및 제570연대의 주력 2개 대대가 무산 가도로 후퇴하면서 일부 병력으로는 제18연대의 전진을 저지하고 동시에 그들의 후퇴를 엄호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18연대 1대대는 대대 약간공격을 실시하여 21시에 적의 강력한 방어진지인 303고지를 탈취하였다.

청진 서남부의 외곽 방어고지인 303고지가 무너지자 적은 청진 북쪽의 회령과 웅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11월 25일 제18연대는 여



청진 시가로 입성하는 수도사단 장병을 환영하는 청진시민들

명공격을 재개하여 청진 서북쪽 송정동까지 진출함으로써 청진을 점령하였다.

이후 부령 및 해산진까지 진출한 수도사단 제18연대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해산진에서 홍남으로 이동, 12월 17일 홍남항에서 묵호항으로 해상철수작전에 돌입하였다. 묵호항에 상륙한 수도사단은 양양으로 진출하여 제9사단의 양양-서림방어선을 인수한 뒤 방어에 임하였다.

1951년 1월 28일 제3사단으로 예속 변경된 수도사단 제18연대는 중공군 및 북한군의 2월 공세로 황성에서 철수, 체천을 거쳐 봉화산으로 이동하였다. 4월로 접어들어 인제로 진격한 제3사단은 한석산-경봉지구에서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방어한 후 5월에는 현리 전투를 전개하였다.

1951년 2월 제2사단 부사단장으로 임명된 임충식 대령은 8월에 전개된 제1, 2차 734고지 전투에 참여한 후 1952년 9월 육군준장으로 진급하여 제7사단장에 보임되었다. 그후 10월에 제7사단을 지휘하여 중동부전선의 크리스마스고지 쟁탈전과 다음해 6월 선우고지 전투를 전개한 장군은 작전지역을 미 제45사단에 인계하고 화천으로 이동, 별우지구 425고지 및 406고지 전초진지쟁탈전을 마지막으로 휴전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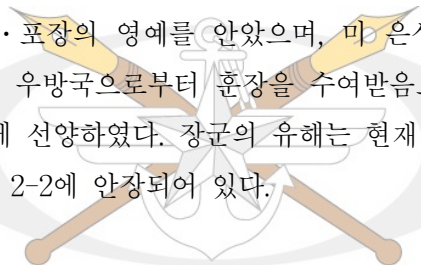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제7사단장으로 재임 중 휴전을 맞게 된 그는 곧바로 헌병사령관과 육군본부 인사국장을 거쳐 제1사단장에 보임되었고, 이어서 제6군단장, 제2훈련소장을 지내고 육본 인사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육군중장으로 진급하였다. 이후 전교사령관과 국방부 차관보, 육군 참모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그는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의장 등을 역임하고 1968년 8월 5일 육군대장으로 군 생활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전역 직후인 1968년 9월 국방부장관으로 발탁되어 다음해 3월까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는 등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1974년 1월 29일 53세를 일기로 타계함으로써 장군의 탁월한 지휘력과 성품을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동료 및 부하들의 아쉬움을 불러왔다.

장군은 전쟁수행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훈·포장의 영예를 안았으며, 미 은성 및 동성훈장과 월남최고훈장 등 우방국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음으로써 국군의 위신을 세계 만방에 선양하였다. 장군의 유해는 현재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2-2에 안장되어 있다.





金 聖 恩 해병중장



- /// 1924. 3 경남 창원 출생
- /// 1946. 4 해군참위(소위) 임관
- /// 1948. 6 진해통제부 교육부장
- /// 1949. 9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 /// 1950. 12 해병 제1연대장
- /// 1952. 10 해병 제1전투단장
- /// 1953. 9 해병준장
- /// 1953. 9 해병학교 교장
- /// 1956. 2 해병 제1사단장
- /// 1957. 6 해병소장
- /// 1959. 10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겸 참모장
- /// 1960. 5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
- /// 1960. 6 해병중장
- /// 1962. 7 전역
- /// 1963. 3 국방부장관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김성은 해병중장은 해병대 창설이래 참모장으로 해병대의 육성강화에 심혈을 경주하여 오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22일 예하 병력을 이끌고 여수에 상륙한 후, 남원, 함양, 진동, 산청, 진주, 통영 등 여러 지역의 작전에서 부대지휘관으로서 적의 공세를 분쇄하는 한편 인천상륙작전 등 전쟁 전 기간에 걸쳐 국난을 극복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1951년 10월 30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9호)을 수여받았다.

1924년 3월 14일 경남 창원군 상남면에서 출생한 김성은 장군은 19세의 나이에 만주 하얼빈 농대를 수료한 엘리트로서 1943년 11월 만주 제2방면군 하얼빈 제177부대에 학도병으로 입대한 후 장교시험에 합격하여 해방 직전인 1945년 5월에 만주군 육군소위로 임관되었다. 일본의 패망으로 귀국을 준비하던 그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얼빈 고려자경단 부단장으로 동포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주력하였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정일권 등과 함께 육군사관학교 창설에 뜻을 모으던 중 미 군정청에서 만난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권유로 해군에 입문하였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 1일 해군병학교를 특임으로 졸업하고 군번 80063의 해군참위(소위)에 임관되었으며 해병대사령부가 창설될 때까지 하사관교육대 교관, 부산과 목호기지사령부 부사령관, 진해통제부 교육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1949년 2월 1일 해병대사령부가 창설될 당시 중령으로 진급하였던 그는 참모장에 보임되었다. 당시 해병대는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발생했던 제14연대의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압작전을 전개한

결과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해병대의 창설이 시급하다는 해군 지휘부의 인식에 따라 창설되었다.

해병대가 창설되어 정병육성에 정진할 무렵 진주 부근의 도시와 촌락에는 제14연대 반란군 잔당들이 지리산을 근거지로 하여 각 곳에 출몰하면서 살인과 방화,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육군참모총장 이용준 장군으로부터 진주지역의 경비임무를 담당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은 1949년 8월 29일 해병 제1기생으로 구성된 제1중대 및 제5중대를 기간으로 1개 대대 규모의 김성은부대를 편성, 진주로 이동시켰다. 부대장 김성은 중령은 지리산을 거점으로 한 공비토벌 뿐만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는 선무공작활동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1948년 ‘제주 4·3사건’ 이래 지역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육군은 현지부대의 군용물자 보급과 수송문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병대가 제주지역의 경비를 맡으라는 명령에 따라 1949년 12월 28일 진주지역의 김성은부대를 포함한 해병대의 전 병력이 제주도로 이동,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6·25전쟁이 시작되었다.

□ 통영만상륙과 작전 활동

6·25전쟁이 발발하자 김성은 중령은 ‘김성은부대’의 병력을 지휘하여 1950년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남원·함양·진주지구에서 지연작전을 전개하였고, 이어 8월 1일부터는 2주에 걸쳐 진동지구 전투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8월 17일에는 통영지구에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호남지역으로 우회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제6사단은 호남방어를 위해 급편된 서해안지구사령부의 저항을 간단히 물리치고 7월 25일 하동 방면으로 선회하였다. 이날 적 제6사단장 방호산은 “우리에게 부여된 진주와 마산의 해방은 적의 숨통을 끊어 버리는 마지막 전투이다”라고 선언하였다.

29일 오전 하동-진주간 도로를 따라 정면공격을 개시한 적 제6사단은 아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31일에야 진주를 점령하고 진동리-마산 방면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낙동강교두보의 서측면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었다.

8월 1일 서부지구전투사령부로부터 진동리 서방에서 적을 저지·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성은부대는 다음날 2시 고사리 지서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적정파악을 위한 정찰을 실시하여 제2중대를 부현에, 제3중대를 고사리 남방 428.3고지 서측에 배치하였다. 8월 3일 04시경 적의 정찰대대가 전차를 선두로 진동리를 향해 다가오자 334.8고지의 제7중대와 428.3고지의 제3중대는 맹렬한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진동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성은부대는 미 제25사단 예하 제24연대에 배속되어 마산방어에 투입되었다. 부산 서방 50km에 위치한 마산은 부산 서측방의 관문으로 마산방어의 성패는 부산교두보 확보와 직결되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미 제8군은 적의 주공이 대구전선에 집중되자 이를 분산시켜 압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미 제25사단에 역습을 명령하였다.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한국 해병대는 “미 제24연대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예비대로서 서북산 일대를 공격하여 진동리-함안 도로를 확보

한다”는 기동계획에 의거 8월 5일 15시 30분 진동리에 도착하였다. 부여된 마산-진동리 가도의 타개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병 제7중대는 적이 진출해 있던 340.4고지를 공격하였다.

제7중대는 적진 최단거리에 접근하여 일제히 수류탄전을 거듭하면서 적진에 돌입하였다. 피아 분별이 어려운 진내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제7중대는 육박전을 감행하여 다음날 13시 10분에 전략상 요지인 340.4고지를 탈환하고 미군에 인계한 다음 진동리로 철수하였다.

이후 마산에서 미 제24사단에 배속된 김성은부대는 제2차 진동리 전투에 임하여 진동리 북방 4km 435고지와 서북산 각 고지를 점령, 마산으로 통하는 진동리를 완전 확보하였다.

진해로 돌아와 휴식과 부대정비에 착수한 김성은 중령은 통영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에 돌입하였다. 그 무렵 적은 제6사단의 마산 방면 공격에 대한 조공의 일부로 거제도를 점령, 마산과 진해, 부산 지구에 대한 측방위협을 가할 전략적인 의도로 제7사단이 고성과 통영으로 진출하여 통영을 점령하였다.

2척의 정대로 야간항해를 실시하여 8월 17일 03시경 통영반도 동북쪽에 위치한 지도(紙島)에 기착하자 부대장은 즉시 2개 정찰대를 통영반도와 거제도 해안에 상륙시켜 적정을 파악한 후 상부의 명령대로 거제도에 상륙하여 저지작전을 펼치기보다는 차라리 통영반도로 직접 상륙하여 적을 격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무전으로 작전변경을 건의하였다.

작전변경이 승인되자 부대장 김성은 중령은 걱정이 없는 장평리 해안에 18시를 기해 상륙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정대로 2척의 별동선에 의해 제2중대가 장평리의 교두보를 확보한 후 후속제대도 19시에 상륙을 완료하였다. 계획대로 제2중대는 삼봉산을 확보하였고,

제3중대는 동암리 고지를 점령하였다.

다음날 공격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김성은 부대장은 제2중대로 하여 원문고개의 요충을 확보토록 하고 제3중대와 제7중대에 시가지에 대한 공격명령을 하달, 8월 19일 08시에 통영시가지를 완전 탈환하였다.

기습적인 상륙작전으로 적의 수중에 있던 통영을 김성은부대가 탈환하자 외신기자들은 “정말 당신들은 귀신도 잡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해냈소”라고 찬사를 보내며, ‘귀신잡는 한국해병’, ‘신화를 남긴 한국해병’이란 제하로 전승사실을 각국에 타전하였다.

해병대 참모장으로 보임된 이후에는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수도서울탈환작전 등 경인지구작전에 참여하는 한편 제2연대장 시절인 1951년 1월과 2월에는 중공군의 대공세에 맞서 영덕·안동지구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어 영월·신전리, 봉산리 방면의 작전에 이어 홍천·가리천·화천지구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제1전투단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52년 10월 16일에는 서부전선에서 전투에 임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제1전투단장을 거쳐 해병교육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전협정 조인으로 전선이 안정되자 1953년 9월 16일 김성은 대령은 해병학교장에 임명되어 해병교육단장을 겸임하며 정예해병 육성에 주력하였고, 곧바로 해병준장으로 진급하였다. 그후 1957년 6월 해병소장으로 진급하여 해병 제1사단장에 부임, 해병대가 오늘의 해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1959년 6

월 해병대 부사령관에 이어 10월에는 참모장직에 임명되어 1962년 6월 30일 해병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해병대 부사령관과 참모장직을 겸임하였다.

군문을 나선 다음해 3월 국방부장관에 발탁된 장군은 재임기간 중 자주국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을 만큼 국가방위력 증강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최초로 구축함을 도입하고, 합동참모본부 설치하였다. 특히 그의 재임시 이루어진 베트남 파병은 군사적으로는 군 전력향상의 토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1970년대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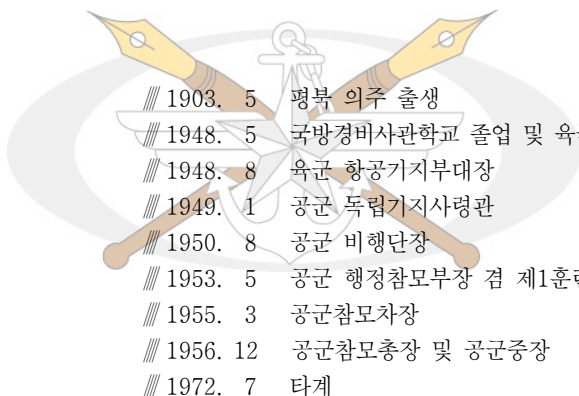
한편 1968년 1월에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습격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납사건은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의 변화를 불러왔다.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재임중이던 김성은 장군은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팬텀전투기 18대를 군사원조로 받아내는 외교적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의 전 기간동안 명장으로서 명성을 드높인 그는 부하에 대한 사랑도 특별하였다. 연일 계속된 전투로 기진맥진한 부하들의 참호를 일일이 찾아가 독려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부하들이 안도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여러 전투를 통해 보여준 혁혁한 전공으로 1951년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한 그는 27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백전의 명장과 같은 두둑한 배짱과 신념으로 전선을 종횡무진 누볐고, 해병대 신화의 주역답게 불리한 전황을 반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부대지휘와 전장 장악능력의 소유자였다.



張 德 昌 공군중장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장덕창 공군중장은 1950년 8월 28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공군비행단장 및 행정참모부장을 역임하면서 전략적 공군 지휘와 전투조종사 육성, 기지 확보 등에 진력하는 한편 6,261회의

출격을 통한 적의 병력, 도시, 차량, 보급품집적소에 대한 집중파괴로 적의 전투력을 감소케 하는 전공을 수립함으로써 1953년 10월 13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39호)을 수여받았다.

1903년 5월 9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출생한 장덕창 장군은 일곱 살 나던 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여 양정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하며 꿈 많은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양정고보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17년 봄, 장군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트 스미스’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곡예비행사가 여의도에서 곡예비행을 선보였다. 이를 지켜본 장군은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21년 지바(千葉)현에 있는 이토(伊藤) 비행연구소에 입소하였다. 1921년 이 연구소를 졸업한 그는 다음해 5월 일본 항공국에서 실시한 비행사 면허시험에 합격함으로써 10개월 앞서 한국 최초의 비행사가 되었던 안창남에 이어 두 번째 비행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비행학교 시절의 월등한 성적을 기반으로 일본 최초의 민간항공사이자 일본항공(JAL)의 전신인 일본항공수송연구소에 입사, 항공인으로 대성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입사 후 장군은 대도시들간의 우편물 수송을 주로 담당하였고, 선전빠라 살포와 홍보 선회 비행 등의 임무도 병행하였다. 해방 직전 그는 수석비행사로 승진되었고, 비행시간도 9,820시간에 이르는 명망 있는 비행사가 되었다.

일본의 패망으로 조국에 돌아온 장군은 해방된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해방된 조국의 하늘을 방어할 공군을 창설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조국광복과 더불어 공군창설의 필요성을 깊이 느낀 공군 간부 7인중의 한 사람으

로 김정렬, 박범집, 이근석 등과 공군창설을 정부관계 요로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당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육군에 항공대가 창설되어 거기에 몸을 담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8년 4월 1일 미 군정당국은 장덕창 등 7인의 항공계 지도자들에게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미국식 훈련을 이수하라고 통보, 장군은 그곳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았다. 이어 1948년 5월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군번 50004의 육군소위로 임관된 그는 육군 항공기지 부대장을 거쳐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하기까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동분서주하여 공군창설에 앞장 선 주역이었다.



□ 후방차단과 작전 활동

공군독립과 더불어 공군 독립기지사령관의 중책을 담당한 장군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지 2개월이 지난 8월 공군비행단장으로 임명되어 물밑 듯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적정정찰 및 출격작전 등에 솔선수범, 선두지휘에 전력을 다하였다. 특히 1950년 8월의 통영작전과 9월의 영천지원작전에서의 활동은 6·25전쟁의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전공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낙동강방어선 후방의 적 병력이동과 보급품집적소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8월 15일 공격에서 실패한 북한군은 제7사단의 일부 병력으로 통영반도를 점령한 다음 진해를 위협하고 부산에 압력을 가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진동리에서 철수한 해병대는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통영반도에 상륙, 적을 섬멸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8월 16일 통제부 사령관의 항공지원 요청을 받은 비행단에서는 다음날 T-6 4기 편대로 출격하여 통영반도로 침입하는 적 지상군을 발견, F-51 전폭기에 연락하여 공격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해병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남부 해안으로 수송되는 적 보급선 2척을 격파하고 진주 및 고성지역의 적 보급로를 공격함으로써 낙동강방어선 서남부 지역의 사수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는데, 그 중심에 공군 비행단장인 장덕창 장군이 있었다.

이후 1, 2차에 걸친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군은 1951년 10월 전투비행전대를 강릉기지로 전환시켜 단독작전을 수행토록 하는 등 창군 초기의 군 발전과 6·25전쟁 중 탁월한 전투비행지휘관 역할을 수행,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한 충무 및 을지훈장과 미 은성훈장 등 수회에 걸친 무공훈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비행단장으로서의 탁월한 영도력과 뛰어난 덕망은 연일 출격에 지친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친밀하게 결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3년 5월 1일 장군은 공군본부 행정참모부장과 제1훈련비행단장을 겸임하고 1955년 3월에는 공군참모차장에 보임되었다. 그해 12월 중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제4대 공군참모총장에 오른 장군은 공

군발전을 위해 전력을 경주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막강 공군으로 성장하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한편 장덕창 장군은 1953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0,000시간의 경이적인 비행시간을 돌파하면서 자신의 비행인다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1956년 12월 1일 우여곡절 끝에 제4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한 그는 “무인의 끓는 피를 가라앉히려면 부드러운 손길이 있어야 하고, 젊음을 불태우려면 우선 한 잔의 술이 있어야 한다”며 젊은 참모들과 함께 명동의 대포집을 자주 찾았던 일화를 남긴 멋을 아는 지휘관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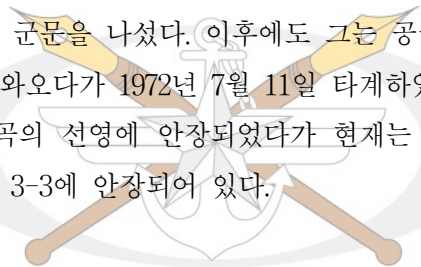
또한 그가 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T-6기를 직접 조종하고 서울에서 대구로 가던 도중 기관고장으로 인해 왜관에 불시착한 적이 있었다. 도착시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나타나지 않자 공군 전체가 발각 뒤집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기지의 지휘탑은 물론 지상부대에 비상이 걸렸으며 교신이 끊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에 돌입하였다. 공중수색대에 의해 왜관지역의 어느 냇가에 장군의 비행기가 발견되어 착륙해보니 비행기는 외형상 아무 이상이 없었고 조종석에는 모자만이 놓여 있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불시착한 후 장군은 비행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왜관 시내의 어느 주점에 가서 목을 축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장군은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훗날한 체구에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장군은 항공계의 중진다운 기품으로 손수 군용기를 조종하고 훌쩍 각 부대를 순시하는가 하면, 또 썰차를 운전하다가 경례를 받을라치면 물었던 파이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답례하는 진정한 멋쟁이였다.

한 번은 미 공군기지에서 의장대 사열 중 아예 군악 연주에 아랑

곳하지 않고 멋대로 걸어가는 통에 의장대장이 진땀을 뺐다는 후일담이 있을 정도로 장군은 격식이나 허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20대부터 40여 성상을 항공인으로 일관해 온 장군은 비행사의 제일 요건을 첫째는 기술이고, 다음은 정신통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기술이 좋아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으며, 정신통일이 되어 있어야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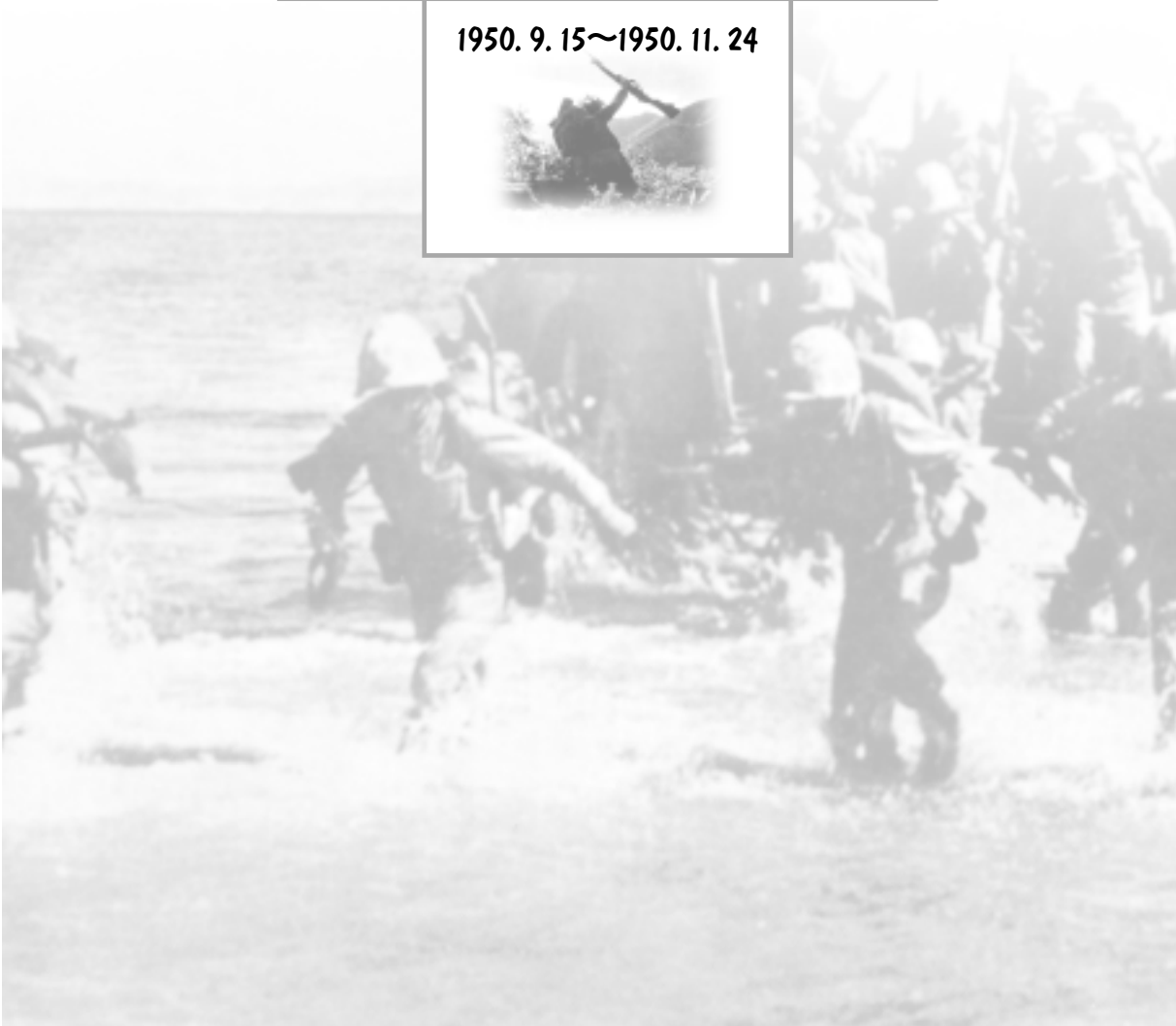
건군 초기에는 공군창설 7인 간부의 일원으로 공군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전쟁기간 중에는 비행단장으로 각종 항공작전을 진두지휘함은 물론 단독출격작전을 감행하는 등 공군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장군은 1958년 12월 1일 제4대 공군참모총장을 끝으로 군문을 나섰다. 이후에도 그는 공군에 관심을 두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오다가 1972년 7월 11일 타계하였으며, 장군의 유해는 경기도 금곡의 선영에 안장되었다가 현재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3-3에 안장되어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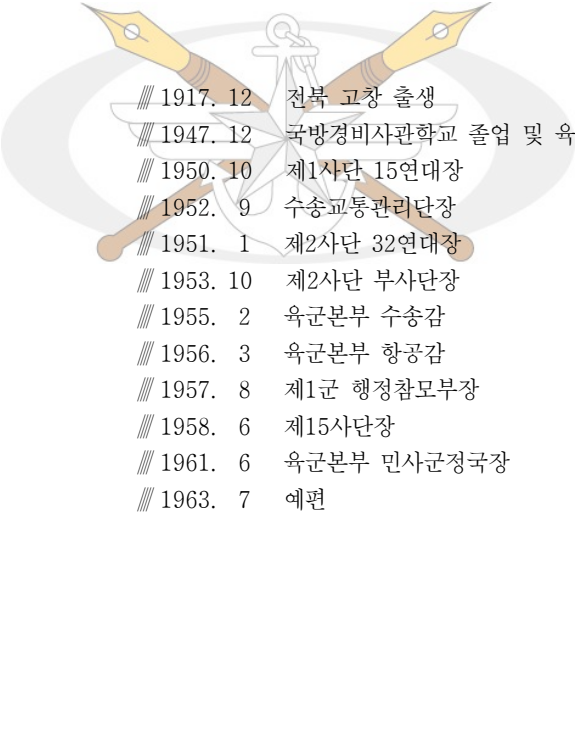
반격 및 북진작전

1950. 9. 15~1950. 11. 24





趙 在 美 육군준장

- 
- /// 1917. 12 전북 고창 출생
 - /// 1947. 12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소위 임관
 - /// 1950. 10 제1사단 15연대장
 - /// 1952. 9 수송교통관리단장
 - /// 1951. 1 제2사단 32연대장
 - /// 1953. 10 제2사단 부사단장
 - /// 1955. 2 육군본부 수송감
 - /// 1956. 3 육군본부 항공감
 - /// 1957. 8 제1군 행정참모부장
 - /// 1958. 6 제15사단장
 - /// 1961. 6 육군본부 민사군정국장
 - /// 1963. 7 예편

· 설악산 · 화악산 · 속리산 · 철의 삼각지 등에서 대첩을 거두고 김화 · 금성간의 보급선을 제압할 기도하에 373고지의 적을 육박하여 완전 격퇴하는 전공을 수립함으로써 1954년 7월 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95호)을 수여받았다.

조재미 장군은 1917년 12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여 1947년 8월 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교한 후 12월 14일 졸업과 동시에 10205의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소위로 임관되었다. 전쟁발발 이전 시기에 그는 제3연대의 일원으로 반란군 토벌에 참여하여 주모자인 김지회와 홍순석을 사살하는데 동참하는 등 연대의 명예를 과시하였으며, 전쟁발발 이후에도 공비토벌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될 당시 광주의 제5사단 15연대 부연대장이었던 그는 육군본부의 긴급출동명령에 따라 상경하여 연대장 최영희 대령과 함께 문산지구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던 제1사단에 합류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 평양탈환과 작전 활동

1950년 8월 북한군의 8월 공세를 다부동전투에서 방어한 후 인천 상륙작전의 개시와 함께 제1사단은 반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15연대 1대대장이었던 조재미 소령 또한 1950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산 · 팔공산전격전에 참여하였고, 제15연대장으로 승진한 10월 10일 이후에는 평양탈환작전에 나서 제1착으로 평양에 입성하는 무훈을 세우기도 하였다.

미 제1군단의 우익으로 고랑포 정면의 38도선을 돌파한 다음 군

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시변리-신계-평양 축선으로 진격하라는 군단 작명을 받은 제1사단은 10월 7일 이동을 개시하여 안성-서울을 거쳐 10월 10일에 임진강 북안의 고랑포로 진출하였다. 다음날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의 동측에서 평양을 목표로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에 나섰다.

뒤늦게 38도선을 돌파한 제1사단은 10월 12일 저녁 구화리 북서쪽 10km 지점의 북우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 제15연대 1대대는 시변리를 향해 우회기동을 실시한 끝에 07시 30분경 시변리 동쪽 일부를 점령하였고, 제2대대는 구성리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제3대대는 15시에 시변리에 진출하였다. 제1사단이 교통 요충지인 시변리를 확보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자 퇴로를 차단당한 북한군은 투항을 시작함으로써 사단은 하루만에 225명의 포로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후 진격을 계속하여 10월 17일 평양 동남쪽 26km 지점인 상원(祥原)-율리(栗里)선을 점령한 제1사단은 10월 18일 아침 평양탈환을 위한 마지막 공격을 재개하였다. 전날 밤 율리를 출발하여 삼등(三登)으로 우회기동한 제15연대는 아침부터 대동강 도하를 위해 서쪽으로 진격하여 22시경에는 대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쌍강포(雙江浦) 상류쪽 남안 일대를 완전 장악하고 도섭장소를 정찰하는 등 도하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윽고 10월 19일 대동강 도하에 돌입한 제15연대는 예하 제3대대가 마산리에서 05시에, 제2대대는 08시 30분 이천리에서 그리고 제1대대는 10시 30분에 삼산동에서 도하를 완료한 후 본평양 모란봉과 김일성대학을 목표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당시 모란봉 일대에는 1개 중대 규모의 적이 호와 천연동굴에 잠복하여 저항하였으나

제15연대는 맹렬한 공격으로 이를 격퇴하고 14시 50분경 모란봉을 점령하였다. 제15연대는 본평양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북한정권의 주요 행정기관을 점령하는 한편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패잔병 소탕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은 평양에서 후퇴하여 청천강 북쪽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제1사단은 적 사살 3,695명과 포로 2,048명을 획



1950년 10월 30일 이승만 대통령 평양입성 환영대회가 열리는 평양시청의 모습

득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군과 유엔군은 한·만 국경선을 향한 진격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평양탈환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제1사단은 전 사병이 1계급 특진하는 한편 제15연대를 이끌고 제1작으로 평양에 입성한 연대장 조재미 중령은 대령으로 진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군 및 유엔군이 한·만 국경에 도달한 순간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은 부득이 철수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제2사단 32연대는 1951년 1월 2일 경기도 가평지구 일대에서 중공군 대병력에 포

위되어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첩첩이 쌓인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막대한 희생을 입었으며, 병력은 뿔뿔이 흩어져 부대는 더욱 혼잡을 이루었다.

1951년 1월 13일 제2사단 32연대는 경북 문경군 산양면에서 재편성에 들어갔다. 제2대 연대장으로 취임한 조재미 대령은 부대 정비에 심혈을 경주하는 한편 완벽한 부대편성 및 재교육 훈련 등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1951년 3월 18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중 안동 지구공비섬멸작전을 전개하여 수많은 공비를 섬멸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조재미 대령은 제2차 총반격전이 개시되어 경기도 양평군 화야산 지구전투를 필두로 윤악산, 화악산 및 복주산, 천불산, 매봉, 철의 삼각지까지 10여 회의 격전을 거듭하였다. 조재미 대령은 1951년 6월 14일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 공방전의 최전선 전투지휘를 목적으로 연대 CP로부터 김화군 근남면 하문수동으로 정위치를 옮기고 불철주야 지휘에 여념이 없었다.

6월 28일 적은 김화-금성간을 연하는 보급로를 확보할 기도로 무명고지인 373고지에 대하여 결사적인 공격을 감행해왔다. 이에 수차에 걸친 피아간의 공방전이 제32연대 1대대 전면에서 반복되었으며, 아군은 불리한 지형으로 인해 약간의 진출도 없이 희생자만 속출하였다. 연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선두로 적의 진중에 돌입한 연대장은 뒤따르던 사병들과 함께 육탄으로 다가오는 적병을 격멸하면서 최후까지 분투하였다. 이로 인해 적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제1대대 용사들의 사기는 충천하여 각자 앞을 다투어 돌진, 마침내 373고지를 완전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적 사살 50명과 3명을 포로로 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LMG 3정, 파발총 2정, M1 1정, BAR 2정, 실탄 8,500발 및 수류탄 395발 등을 노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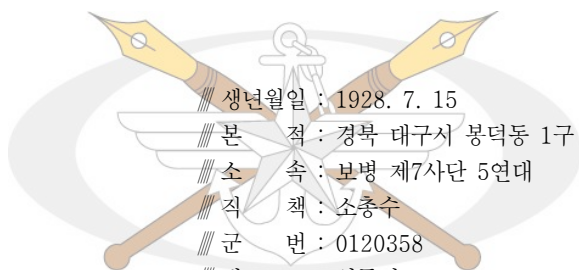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제2사단 32연대장으로 휴전체제에 돌입하게 된 장군은 10월에 부사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약 2년 여의 근무를 마친 후 육군본부로 전보되어 1955년 2월부터 1957년 8월까지 수송감과 항공감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이어서 제1군 행정참모부장을 거쳐 1958년 6월 제15사단장으로 임명된 장군은 일선 사단의 지휘관으로 활동하면서 사단의 전력증강에 성심을 다하였다.

1961년 6월 '5·16 군사정변'이 발발한 후 육군본부 민사군정국장을 지냈던 그는 1963년 7월 1일 육군준장을 마지막으로 군문(軍門)을 나서게 되었으며, 예비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국영기업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에 대한 헌신에 최선을 다하였다.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 최선봉으로 평양에 입성하고, 또한 안동지구공비섬멸작전 등 수많은 전공을 수립한 조재미 육군준장은 태극무공훈장 이외에도 을지와 충무무공훈장을 각각 2회씩 수상한 명장이었으며, 특히 전국 각지의 공비토벌작전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워 산악의 용장으로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金玉祥 육군일등병



/// 생년월일 : 1928. 7. 15
 /// 본 적 : 경북 대구시 봉덕동 1구 1019번지
 /// 소 속 : 보병 제7사단 5연대
 /// 직 책 : 소총수
 /// 군 번 : 0120358
 /// 계 급 : 일등병
 /// 주요전투 : 개천 비호산고지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4. 6. 25)

□ 개천 비호산전투와 작전 활동

1928년 7월 15일 경북 대구시 봉덕동에서 출생한 군번 0120358의 김옥상 육군일등병은 1950년 8월 24일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제 7사단 5연대 소속으로 1950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천-비호산(飛虎山) 부근 전투에 참전,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인 육

박전을 전개하여 다수의 적을 살상하고 자신은 장렬히 최후를 마치는 살신보국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1954년 6월 25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74호)을 수여받았다.

개천 비호산전투는 중공군이 한국에 침입하여 온정리와 운산에서 초전에 승리한 후 청천강 부근까지 침공하였을 때, 군우리로 집결한 제7사단이 군우리 동측방의 비호산에서 중공 제38군의 공격을 격퇴하여 중공군의 기세를 꺾어 놓은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제7사단은 미 제1군단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3일간의 격전을 치른 끝에 중공군 2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특히 진내전까지 벌이면서도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여 미 제8군의 동측방을 방호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제7사단은 유엔군이 청천강 북안에서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청천강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미 제8군의 공세 이진을 위한 다음 단계의 작전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 제1군단의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운산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제7사단은 군단예비로서 영변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 제2군단이 6개 연대 중 4개 연대 병력은 분산되고 남은 2개 연대 병력으로 겨우 군우리 정면을 유지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자 10월 29일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군우리로 이동하였다.

제2군단장은 제7사단에 구장동-덕천간의 저지진지를 점령하여 군 및 군단의 동측방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11월 1일 제7사단은 좌전방 제3연대는 북쪽의 백령천을, 중앙의 제8연대는 용문산(1190)을, 좌전방 제5연대는 덕천을 목표로 3개 연대 병진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중공군의 야간기습으로 영변과

원리로 철수하였다.

구장동-덕천지역을 점령하는데 실패하자 군단장은 군우리 북쪽의 비호산(622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적을 저지하도록 제7사단에 지시, 좌전방 제3연대는 비호산 일대에, 우전방 제5연대는 비호산 동쪽의 760고지에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사단이 방어진지를 구축한 표고 622m의 비호산은 청천강 하류지역에 형성된 평야지대에서 제일 높은 감제고지였다. 따라서 군우리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술적 요충인 군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히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고지이므로 미 제8군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중요성 외에도 실추된 군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필코 이 고지를 사수하고자 방어진지를 강화하였다.

11월 3일 03시경 중공군 제38군은 1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하여 좌전방의 제3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또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우전방의 제5연대를 공격하였다. 제5연대는 조공인 적을 30분만에 격퇴시켰으나 주공을 맞이한 제3연대는 연대 화력과 사단 포병 화력으로 적의 밀집지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적의 과상공격은 중단되지 않았다.

쌍방은 비호산 정상에서 3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처절한 근접전을 전개하였다. 세 번째로 고지를 피탈당한 제3연대는 새벽에 결사대를 조직하여 육탄공격을 전개, 적을 격퇴하고 고지를 탈환한 후 제8연대에 인계하였다.

11월 5일 03시 중공군 제38군은 작전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은 장기인 산악기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능선을 따라 제5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맞서 제5연대도 사력을

다해 격전을 펼쳤으나 중과부적으로 부득이 철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비호산의 제8연대도 새벽에 철수함으로써 비호산 정상이 다시 적에 넘어가게 되었다.

제7사단장 신상철(申尙澈) 준장은 즉시 제3연대를 비호산 남쪽의 운동(雲洞)-중참(中站)으로 진출시켜 제5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군우리 일대에 배치된 전 포병화력으로 비호산을 집중 포격한 후 역습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3연대의 공격이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돈좌되자 11월 6일 08시를 기해 제5연대는 비호산 서쪽에서, 제8연대는 남쪽에서 포위 공격을 개시, 3시간의 혈전 끝에 적을 격퇴하고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후 중공군 제38군은 전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제39군과 제40군도 비호산 공격을 중지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중공군과의 대결에서 첫 승리라는 의미 외에도 중공군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던 국군 및 유엔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술적으로도 청천강에서 미 제8군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11월 6일 사단은 적의 침공을 계속 저지하는 한편 일부 병력으로 공세로 이전하여 전날에 포기한 비호산을 다시 탈환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했던 개천지역을 방어하는데 공헌하였다.

박승일 대령이 지휘하는 제5연대는 사단 작전명령 제43호에 의해 08시에 포병의 지원을 받아 공격을 전개한 다음 저항하는 2개 중대 규모의 적을 물리치고 535고지에 이어 비호산의 우단을 다시 탈환하였다. 이때 제2대대는 우일선 대대로 동변리에서 공격하여 신성리 지역을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좌일선 대대로 중참에서 공격하여 535고지를 점령한 다음 계속 비호산 우단까지 진격하였으며, 제1대대는 예비대로 동변리지역을 점령하고 덕천-개천간의 주 작전로를

차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5연대 소속의 김옥상 일등병은 비호산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적의 전초진지에 접근하여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돌연 1개 소대의 적 병력이 출현하자 단신으로 결사적인 육박전을 전개, 다수의 적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리고 장렬히 최후를 마쳤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28년 7월 15일 대구시 봉덕동에서 출생한 김옥상 일등병은 북한군의 8월 공세가 한창이던 1950년 8월 24일 국군에 입대하여 0120358의 군번을 부여받고 제7사단 5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1950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개된 영천전투에 참가한 후 총반격에 나서 안동-청주-양평-포천-양문리로 이동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에 돌입하였다.

양문리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김화-평강-강동-평양-순천선을 따라 북진을 계속하여 10월 22일 구장동으로 진출하였으나 11월 1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개천으로 철수, 비호산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벌어진 비호산전투에 참전한 김옥상 일등병은 결사적인 육박전을 전개하여 다수의 적을 살상하고 자신은 장렬히 최후를 마치는 살신보국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1954년 6월 25일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그의 유해는 1960년 5월 22일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사병묘역 30-26326에 안장되었다.



金 東 斌 육군중장

- /// 1923. 3 함북 길주 출생
- /// 1946. 6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50. 7 혼성제2사단 참모장
- /// 1950. 7 제5연대장
- /// 1950. 7 제11연대장
- /// 1950. 12 제1사단 참모장
- /// 1951. 8 수도사단 부사단장
- /// 1952. 3 제9사단 부사단장
- /// 1953. 2 제7사단 포병단장
- /// 1953. 4 육군준장
- /// 1953. 5 제1사단장
- /// 1955. 1 육군소장
- /// 1955. 7 제2군사령부 참모장
- /// 1956. 2 육군본부 병기감
- /// 1959. 7 육군 보병학교장
- /// 1961. 5 육군 제2훈련소장
- /// 1962. 2 육군중장
- /// 1963. 2 제5군단장
- /// 1965. 3 국방부 군수차관보
- /// 1967. 7 전역
- /// 2002. 2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1953년 8월 27일 제1사단장 김동빈 육군준장에게는 군 최고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23호)이 수여되었다. 그 배경에는 대구방어작전과 적의 낙동강 도하를 저지한 해평리작전 및 다부동 지구전투, 처절한 육박전을 전개하여 최대의 승리를 획득한 영천 전투에서 두드러진 전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총반격전이 개시된 이후 평양탈환작전과 태천전투, 중공군의 공세에 대한 반격을 통해 임진강선까지 추격·섬멸하는 계기가 되었던 신백제지구 전투 등에서 수많은 전공을 수립한 결과였다.

김동빈 장군은 1923년 3월 22일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에서 출생하였다. 만주의 용정중학을 졸업하고 해방 후 국방경비사관학교 제1기로 군에 입문하였으며, 1946년 6월 15일 10114의 군번을 부여 받고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었다. 임관 직후에는 2월 15일 광주에서 창설된 제4연대에 이영규, 오규범 등과 함께 배속되어 소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8월에는 A중대장에 보임되었다.

다음해 육군사관학교로 전속되어 창군 초기에 필요로 하는 초급 장교의 육성에 헌신하던 중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7월 2일 혼성제2사단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한강방어전투에 참전하였지만 3일만에 제5연대장으로 전보되었고, 제5연대장에 부임한 지 한 달도 못돼 다시 제11연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 태천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6월 25일 적의 불법남침 이후 군의 전략에 따라 낙동강 선까지 후퇴한 제1사단이 대구방어와 동시에 남하하는 적을 낙동강 선에서 섬멸할 목적으로 포진하고 있을 당시 제11연대장 김동빈 대령은 적의 낙동강 도하의 관문이며 아군의 낙동강선 방어의 지형적 약점인 해평지구의 전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1950년 8월 3일 제11연대는 낙동강 연안의 613고지-석연동-수월동-180고지-송곡리-해평동-주평동 일대에 각 대대를 배치하여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연대수색대를 전방 깊숙이 선산동까지 침투시켜 적의 행동기도를 탐지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문경·상주 방면으로부터 아군의 후퇴로를 추격해 온 북한군 제13사단 및 제15사단의 일부 병력이 8월 4일 09시 낙동강 북안 3km 지점에 도착하여 다수의 직사포로 아군 진지에 사격을 가했다. 적 1개 연대 병력이 송정리-강창리 도하장으로 도하하려는 것을 알게 된 제11연대는 제1대대 및 배속된 제12연대 3대대를 이 지점에 급거 배치, 박격포 및 대전차포격을 가해 적 병력의 반수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자 북한군 잔여 병력은 북으로 퇴각하였다.

새롭게 증강된 적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야간을 이용, 도하하여 연일 강력히 침공해 왔으나 아군은 연대 또는 대대 병력으로 치열한 진내 육박전을 감행하여 이들을 격멸하고 진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8월 9일 18시경 수양과 점촌에 침입한 적은 낙동리-해평리로 남하하여 송천동에서 제7중대 배후를 우회 위협, 제2대대가 완전포위 상황에 빠졌으나 연대장 김동빈 대령의 진두지휘아래 수 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제2대대를 구출하였다.

병력을 해평동-신기동-161고지에 배치한 제11연대는 전차를 선두로 남하하는 적을 진전(陣前)에서 저지·격멸하고, 8월 12일 미 제8군의 전략변동에 의거 다부동선으로 진지를 이동할 때까지 화력·장비 및 병력의 열세로 인한 불리한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에서 도전해 오는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주어 사단의 차기작전 성공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1950년 8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개된 아군의 지연작전상 유례없이 치열했던 다부동지구전투에서 제11연대는 대구방어의 최후 아성인 다부동 207고지, 265고지 일대의 방어 정면을 담당하여 각 대대를 요지에 배치하고 있었다. 8월 14일 17시를 기해 전차를 선두로 한 약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임수동 201고지에 출현하였고, 22시에는 환계동에 1개 연대, 상림동-장동 일대에 1개 연대의 적이 출현하여 제2대대 진지에 맹포격을 가하면서 공격하였다.

제11연대는 4시간에 걸친 치열한 백병전을 감행하여 일단 격퇴시켰으나, 8월 15일 적은 야포와 직사포의 강력한 지원아래 전차를 선두로 신주막, 여남동, 유학산, 금곡사에 각각 1개 연대의 병력으로 공세를 취해 오는 것을 로켓포 특공대를 선두로 각 대대가 적과 일제히 육박 돌격전을 감행하였다. 신주막 일대는 적의 시신과 피로 산과 내를 이루었고,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군의 다부동지구 섬멸전 성공의 제1보를 개척한 이 전투에서 피아의 장비우열과 병력 과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연대장 김동빈 대령의 과감한 지휘와 최후 옥쇄의 각오로 선전한 결과였다.

다부동지구 전선으로 대구를 침입하려던 적은 국군 제1사단의 강력한 반격 앞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 주력을 동부로 이전하였다.

적은 제6사단 전면인 영천지구로 우회하여 대구침공을 시도함으로써 이 지역의 방어에 임하던 제6사단의 주저항선이 일부 붕괴되었으며, 따라서 대구 시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김동빈 대령은 이를 지원하고자 9월 6일 제11연대를 출동시켜 23시경 영천 동북방 죽방동·192고지·188고지에 각 대대를 배치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같은 날 어둠이 내린 후 야간을 이용하여 채신동-목재동선으로 침입한 적은 이미 영천 시내로 침입하여 그 후속병력을 증강시키고 전투태세 준비에 들어가 제11연대는 포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김 대령은 직할 1개 중대를 죽방동-도남동선에 배치하여 적의 측방 위협을 경계하고 남은 각 대대로 하여금 8월 7일 06시 미명에 안개와 우천을 이용해 총검과 수류탄에 의한 백병전을 벌임으로써 영천 시내의 적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때마침 전차 및 사단포를 선두로 대구를 향해 차량 이동중인 1개 대대 규모의 적을 협공, 치열한 격전 끝에 그들을 격퇴하였다.

도주하는 적을 계속 추격한 아군이 영천 시내에서 후속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적을 공격하자 적은 다수의 사상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였으며, 이들이 점령하고 있던 영천 시내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적의 대구점령에 시각을 다투던 위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군의 총반격작전 전개를 위한 전략적 이점을 획득하였고, 계속적인 후퇴로 인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던 장병에게 반격 및 섬멸의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 9월 23일 미 제8군의 제1차 총반격전이 전개됨에 따라 제11연대는 패주하는 적을 주야 구별 없이 급속히 추격하였다. 10월 17일 평남 상원에 도착하여 전면의 적정을 수색하던 연대는 적의 유선을 도청하여 용두 서남방 K지점에서 북한군 혼성제19사단 및

황주·중화 방면으로부터 후퇴한 약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아군의 북진을 저지하는 한편 북한군 제1사단 및 38선 이남에서 철수한 약 1개 사단의 병력과 북한군 수도방어사단 등 총 5개 사단 병력이 평양 시가에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고 수도 결전방어의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대장은 전면에서 저항하는 적을 물리치면서 제1대대를 신전우 일대의 능선에, 제2대대를 202고지에, 제3대대를 무명고지에 배치하고 전면의 적정수색을 활발히 하다가, 10월 19일 제1사단의 평양공략작전 개시와 동시에 사단 우익의 공격제대로서 적의 최후발악적인 포격을 무릅쓰고 김 대령의 선두지휘로 강우와 야음을 이용, 저항하는 적과 시가전을 감행하면서 대동강을 도하하였다. 적의 제1비행장을 10월 20일 05시에 점령한 연대는 사단 우익 제11연대 및 중앙의 제12연대와 호응, 협공하여 시내에 잠재한 적을 섬멸 소탕하여 아군의 평양탈환전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아군은 패주하는 적을 압록강 북안까지 추격하여 섬멸할 목표로 전 전선에 걸쳐 추격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연대는 정면의 적을 파죽지세로 추격하면서 전진을 계속하여 11월 25일 평북 태천 지구에 도달하였다. 평양지구로부터 급속히 후퇴한 북한군 제50사단의 병력이 이 지구에서 완전하게 전선을 정비하고 아군의 전진을 억지하자 연대장은 제1대대로 덕본리의 적 1개 연대를, 제2대대와 제3대대로 하여금 적 2개 연대를 공격하게 하여 26일 03시경 완전 격퇴하고 760고지와 367고지의 적을 추격하여 26일 09시에는 이를 완전 점령하였다.

11월 27일 23시 40분에 중공군 약 1개 사단의 병력 일부는 용산동을 경유하여 제2대대 정면에 압력을 가하고, 일부는 제2대대와 제

3대대의 중간선으로 침투하여 후방교란을 시도하였다. 연대는 우측 제15연대와의 밀접한 연락아래 이를 협력·공격하여 퇴각시켰으나 아군의 맹공에 기도를 달성하지 못한 적은 인해전술로써 11월 27일 23시에 용산동-태천 가도에 1개 사단, 28일 03시에는 용산동 서북방 강변을 이용하여 약 1개 사단 병력을 중황으로 침투시킴에 따라 연대가 과대한 적중에 고립되는 위험한 지경에 달하였다.

그러나 김동빈 대령은 확고부동한 부대지휘로써 우측 제15연대와의 협동으로 결사적인 진내전을 감행하여 적에게 막대한 인명살상의 피해를 주고 11월 29일 사단의 전투계획에 의한 차기작전선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지역을 계속 확보, 사단의 전면적인 작전운용에 유리함을 기하였다.

1951년 4월 22일 적의 춘계공세 시에는 제1사단 참모장으로서 임진강지구섬멸작전을 비롯한 수색 전면 ‘쿨원선’ 방어전, ‘링컨선’ 반격전 등 치열한 전투에서 소요되는 탄약의 수송보급과 신속한 철수작전에 수반되는 병력·장비·보급품 일체의 손실없는 후송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직할 각 특수지원부대의 기동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숙한 후방지휘로 사단의 작전 성공에 일익을 기하였다.

5월 7일 수색 전면의 섬멸작전으로 인해 적이 공세를 포기하고 후퇴하기 시작하자 사단은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여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적은 수색지구에서 분열된 병력을 일산과 신벽제에서 수합·재편하여 제2차 공세를 시도하였다. 일산지구의 적을 제11연대가 그리고 신벽제의 적을 제12연대가 5월 20일 어둠을 기해 강력한 포 지원아래 격파·섬멸하자 적은 분열된 일부 병력만으로 양지재를 경유 동거리를 향하여 고랑포 방면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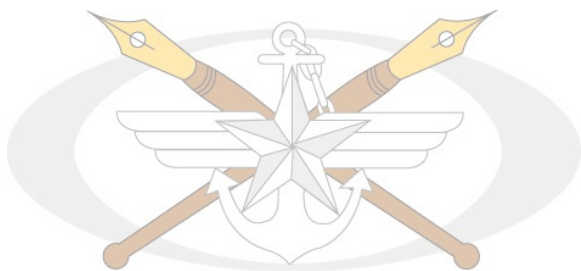
1사단의 예비대였던 제15연대는 적의 퇴로를 차단·섬멸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제15연대장인 김안일 대령의 급병으로 인해 부대지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단은 일시적 작전 추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사단이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김동빈 대령은 제15연대장 대리를 자원함은 물론 06시 20분 봉일천에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트럭에 승차시켜 동거리까지 급거 횡단,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양지재 남방에서 적을 추격하는 제12연대와 호응하여 중공군 제19병단 산하 제63군 188사단의 전 병력을 이 지점에서 완전 포착·섬멸함으로써 사단이 임진강선까지 적을 추격·소탕하는데 큰 공적을 남겼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1년 8월초 수도사단 부사단장으로 부임한 김 대령은 11월말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 입교하여 교육을 마치고 다음해 3월초 제9사단 부사단장으로 전보되었다. 제9사단 부사단장으로 육군포병학교 특별고군반에서 교육을 마친 후 보병과에서 포병과로 전과한 그는 1953년 2월 중순 제7사단 포병단장으로 부임하였다.

육군준장으로 진급한 직후 제1사단장에 임명되어 박고지와 쿤고지에서 전초전이 전개되기 직전에 육군본부로 진출, 미 지휘참모학교에 파견되었으며, 다음해 7월 원복하여 제2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육군본부 병기감을 거쳐 교육총감부 보병학교장으로 있던 1959년 10월 정규 계급에 의한 육군소장으로 진급하였고,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창설요원으로 사령부 창설에 주력하였다.

1960년 5월에 부임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이어 육군본부 기획통제실장, 제2훈련소장,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내고 1963년 2월 제5군단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국방부 군수차관보를 끝으로 1967년 7월 31일 예비역 육군중장으로 편입된 김동빈 장군은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2년 2월 1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현재 장군의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12에 안장되어 있다.





申 鉉 俊 해병중장

- 
- /// 1916. 8 경북 금릉 출생
 - /// 1946. 6 조선해안경비대 입대(견습사관)
 - /// 1946. 11 인천기지사령관
 - /// 1946. 12 해군중위
 - /// 1947. 9 부산기지사령관
 - /// 1948. 5 진해특설기지 참모장
 - /// 1949. 2 해병대사령관(초대)
 - /// 1950. 9 해병준장
 - /// 1952. 1 해병소장
 - /// 1953. 10 해병 제1여단장
 - /// 1955. 10 연합참모본부 제3부장
 - /// 1956. 10 연합참모본부 제2부장
 - /// 1957. 6 해병중장
 - /// 1959. 1 해병 진해교육기지사령관
 - /// 1960. 7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
 - /// 1961. 4 국방차관보
 - /// 1961. 7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초대 해병대사령관으로서 해병대 육성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여 오던 신현준 해병중장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파죽지세로 남한을 석권하려는 북한군을 군산, 남원, 함양, 진주 등지에서 예하부대로 하여금 포착·섬멸케 하는 한편 주력부대를 직접 지휘하여 인천상륙작전, 경인 및 원산·함흥지구작전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또한 1951년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개된 도솔산전투와 8월 31일부터 3일간 펼쳐진 김일성고지공격전에서 경이적인 대전과를 획득하여 대한민국 해병의 용맹성을 만방에 떨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신현준 장군은 1952년 10월 26일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73호)을 수여받는 등 대한민국 군인 중 유일하게 은성태극무공훈장을 두 차례나 수여받게 되었다.

일제 치하인 1915년 10월 23일 경북 금릉의 가난한 농가에서 외아들로 출생한 신현준 장군은 3·1운동 발생직전인 1919년 2월 부모를 따라 만주로 이주, 삼가자(三家子) 등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농사를 지었다. 1928년 하얼빈보통학교에서 소학교 과정을 마친 후 곧장 고등과에 진학하였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였다.

그는 하얼빈시 남강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부대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일본군에 종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빈곤한 집안살림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배려였다. 만주파견군 제14사단 사령부에 배치되어 사단참모의 전속 통역으로 복무하고, 1936년 4월 제5기 군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정일권, 김석범, 송석하 등 18명의 한

국민과 함께 봉천군관학교에 입교하였다.

1937년 9월 봉천군관학교(5기)를 졸업하고 견습사관으로 실무를 익힌 그는 그 해 12월 만주국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꿈에 그리던 장교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이 패망할 무렵에는 보병 제8단(團) 제6연장(連長)의 대위로 진급한 상태였다.

일본의 패망으로 전역한 이후 그는 귀국을 위해 박정희, 이주일 등 만군출신 장교들과 함께 북경에 도착하여 해방후의 광복군 활동을 전개, 제3지대 대대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그는 부대 해산식을 가진 후 1946년 4월 귀국길에 올라 5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1946년 6월 22일 진해에 있는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부에 입대한 그는 견습사관의 신분으로 기관 제2분대에 소속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이자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는 7개월 전인 1945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창설되어 손원일 소령이 총사령관이었다. 7월초 '준·하사관 교육대'의 교육주임을 맡아 7월 11일부터 매기 약 40명 정도의 피교육생에게 3주간의 교육을 실시, 모두 6차례에 걸쳐 250명을 배출하였다.

8·15 해방 1주년기념 경축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자 그는 총사령관 손원일 소령에 의해 행사에 참가할 제병지휘관으로 발탁되어 임시 중위계급을 부여받았다. 이후 12월 80088의 군번을 부여받고 해군중위로 정식 임관되어 조선해안경비대 인천기지사령관에 전보된 데 이어 1947년 9월 1일 소령으로 진급과 동시에 부산기지사령관이 되었다. 다음해 5월 진해특설기지 참모장에 임명되어 중령으로 진급한 그는 10월 1일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육군 제14연대의 반란사건이 발생하자 해군작전지휘관으로 진압임무를 부여받고 출동

하였다.

해군함정 4척을 이끌고 출동하여 여수항 주변 일대를 점령한 후 해상으로부터 반란군을 진압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작전이 종료된 뒤 해군지휘부는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해병대 창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49년 2월 1일부로 해병대사령관에 신현준 중령을 임명, 부대창설의 제반업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부대창설 업무에 착수한 그는 해군통제부 교육부장이던 김성은 중령을 합류시키고, 이어 김동하 소령과 고길훈 대위를 규합하였다. 아울러 신병교육 요원을 위한 하사관 모집은 해군 각 부서에서 2~3명씩을 강제 차출하는 방법을 통해 3월말까지 부대편성에 필요한 병력 380명을 선발·완료한 뒤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해병대사령관으로 봉직하고 있던 1949년 8월, 그는 해병대 창설 이후 최초의 지역경비임무를 하달하였다. 당시 진주지역은 제14연대 반란군 잔당들이 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여 살인과 방화, 약탈을 자행하고 있어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1개 대대를 이동시켜 경비임무에 임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부대는 제주도로 이동 배치될 때까지 4개월 동안 공비토벌 뿐만 아니라 민심수습과 선무공작 등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49년 12월 28일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은 진해와 진주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전 병력을 제주도 각 요지에 분산배치를 완료하고 제주도 전역에 대한 경비임무에 임하던 중 6·25전쟁을 맞았다.

□ 경인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전쟁발발과 동시에 제주지역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신현준 대령이 모병활동을 전개하자 6월말까지 제주 각지에서 3,000여 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해병대 동원명령이 하달되어 7월 13일 고길훈 소령이 지휘하는 1개 대대를 군산지역으로, 8월 1일에는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1개 대대를 진주 인근의 진동으로 출전시켰다. 그리고 제주의 해병대사령부 및 잔여부대는 9월 1일 진해로 이동하였다.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9월 8일까지 해병대를 부산으로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완수한 신현준 사령관은 9월 12일 부산항의 미 해군 함내에서 열린 작전회의에 참석,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세부지시를 하달받았다. 1950년 9월 15일 17시경 3,000명의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 해병 제1사단과 합동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다.

아군의 강력한 함포사격에 이어 한국 해병대는 상륙 목표지점인 ‘청색해안(Blue Beach)’에 상륙하고, 16일부터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서울 외곽인 104고지와 연희고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과 접전을 벌인 후 9월 26일 17시경 마침내 수도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선두로 진격하던 제1대대 6중대의 박정모 소위가 지휘하는 소대원들은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9월 28일 오전 10시 중앙청 광장에서 수도 탈환식을 마친 해병대는 오후부터 서울 동북방으로 진출하여 북한강 일대의 적 잔당에 대한 소탕임무에 돌입하였다.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함에 따라 한국 해병대는 원산으로 진출하여 함흥까지 진격한 후 함흥과 평양간의 통로 주변을 수비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1950년 9월 27일 06시 수도 서울을 탈환한 해병 제2대대원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에 따라 포항으로 철수한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 제1사단에 배속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때 태백산맥을 통해 남하중인 적은 영월지역을 수비하고 있던 국군 제3사단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적을 섬멸하고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야간행군을 감행, 2월 21일 새벽 5시를 기해 적 주력부대의 숙영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후 해병대는 피아가 서로 대치중인 전선에 배치되어 김일성고지, 도솔산지구전투 등 치열한 전투를 수행한 후 휴전에 임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조인으로 전쟁이 일단락되자 그는 10월 1일부로 해병대사령관직을 부사령관인 김석범 대령에게 인계하였다. 전쟁을 겪으면서 전방 제일선에 있는 전투부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그는 해병여단 편성작업에 착수하여 1953년 10월 15일 해병대 유일의 전투부대인 해병 제1여단을 금촌에서 창설하였다. 이날 창설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은 해병 제1여단장에 임명된 신현준 소장에게 은성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하고 친필 휘호도 함께 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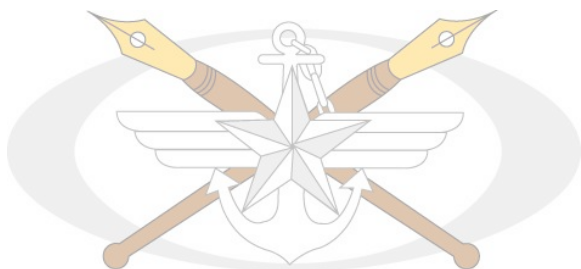
1년여의 해병 제1여단장직을 후임 김대식 장군에게 인계하고 육군대학에 입교한 신현준 소장은 제3부장과 제2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합동참모본부에 발령되었던 1955년 9월 1일까지 학업에 열중하였다. 합참 근무를 마친 그는 1958년 9월부터 4개월간 미국 캔사스주의 미 육군참모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뒤, 1959년 1월 해병 진해교육기지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정예해병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주력하였다.

1960년 6월 해군중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이종찬 국방장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발탁되어 활동하던 중 1961년 4월 1일 국방차관보로 임명되어 군 생활 중의 마지막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지 약 2개월 뒤인 1961년 7월 4일 신현준 해병중장은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군 생활을 마감하고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1963년 1월 초대 주 모로코왕국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어 외교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만 7년간의 재임기간을 별다

른 대과없이 수행한 후 1974년 2월 초대 주 바티칸 대사로 임명되어 1980년 12월 10일까지 외교활동에 전념하였다.

독실한 천주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만큼이나 국가·민족 그리고 군에 대한 애정이 강렬했던 장군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던 용기있는 군인 중의 한 분이었다. 또한 건국 초기 척박했던 국방환경 속에서 무적 해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개척자 정신이 충만했던 명장이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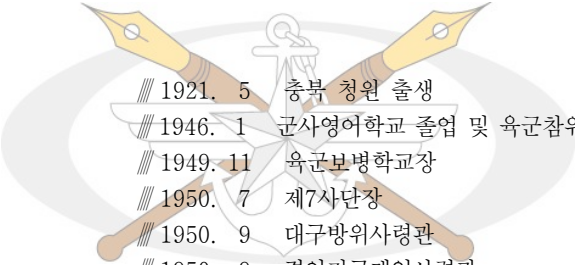
중공군 개입 및 재반격

1950. 11. 25~1951. 7. 9





閔 機 植 육군대장

- 
- /// 1921. 5 충북 청원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11 육군보병학교장
 - /// 1950. 7 제7사단장
 - /// 1950. 9 대구방위사령관
 - /// 1950. 9 경인지구계엄사령관
 - /// 1950. 10 제5사단장
 - /// 1950. 10 육군준장
 - /// 1952. 1 육군대학 부총장
 - /// 1953. 2 제21사단장
 - /// 1953. 5 육군소장
 - /// 1956. 7 육군본부 행정참모부장
 - /// 1960. 9 제2군단장
 - /// 1961. 1 육군중장
 - /// 1962. 5 제1군사령관
 - /// 1963. 6 육군참모총장
 - /// 1965. 3 예편(육군대장)
 - /// 1998. 10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민기식 육군대장은 6·25전쟁 초기 민부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서남부지역 돌파를 저지하고, 제5사단장으로 수도 서울을 재점령하려는 적의 기도를 분쇄하는 등 전선 도처에서 뛰어난 전과를 수립한 공로로 인해 1953년 8월 27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22호)을 수여받은 전쟁영웅이다.

1921년 5월 21일 충청북도 청원군 북면에서 출생한 민기식 육군대장은 1943년 만주의 신경 건국대학을 졸업하고 일제의 학도동원령에 의해 학병으로 징집되어 일본군 소위로 근무하던 중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제대하였다.

조국의 해방을 맞아 귀환한 그는 1945년 9월 김종오와 함께 고향인 청주에서 일본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로 무장한 100여 명의 청년들을 규합하여 무장자위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의 웅지를 펼치기 위해 학병 출신들이 결성한 ‘학병동맹’에 가입하였으나 이 단체가 좌경화되자 최영희 등과 함께 바로 탈퇴하고 국군 창설의 초석이 된 ‘학병단’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가 개교하자 입교하여 다음해 1월 졸업과 동시에 군번 10018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된 그는 A중대장 대리 제7연대 창설임무를 부여받았다. 자신의 고향인 충청북도에서 A중대를 창설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는 합스 소위 및 미군 하사관 2명과 더불어 창설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함으로써 일시 해산했던 무장자위대를 주축으로 우선 가까운 친구 가운데 일본군 경력이 있는 하사관 출신을 불러모아 이들을 기간으로 각 지방에서 모병을 전개, A중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용채(文容彩) 부위(중위)가 총사령부로부터 정식 A중대장으로 발령을 받고 현지에 부임함으로써 지휘권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었으나, 문 부위가 민기식 참위의 헌신적인 중대창설 노력을 살리기 위해 양보하고 다른 보직을 맡음으로써 해결되었다. 고군분투하며 A중대를 창설한 그는 1947년 1월 15일 마침내 연대편성을 완료하고 초대 연대장에 취임하였으며, 동년 5월 21일에는 후임 이병주(李丙冑) 소령에게 연대장직을 인계하고 총사령부로 진출하였다. 1949년 8월 1일에는 육군대령으로 진급한 뒤 육군보병학교 부교장으로 보임되었고, 3개월 후에는 교장으로 임명되어 육군참모학교에 교육과전 중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 가평·춘천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민기식 대령은 전쟁발발 직후인 7월 7일 의정부지구전투와 한강·시흥지구방어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해편된 제7사단장에 보임되어 전주에서 학도병 500명을 보충받고 제3연대와 제9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을 재편하였다. 7월 14일 재편된 제7사단을 민부대로 개칭하여 용안·전주·임실·남원·운봉·함양 등지로 철수하면서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 우회진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의 낙동강 서남부의 방어태세 구축에 크게 공헌하였다.

8월 15일 민기식 대령은 부대를 이끌고 포항지구전투에 참가, 터널고지에서 북한군 제5사단의 진출을 저지한 후 작전지역을 제3사단 23연대에 인계하고, 낙동강 북부의 의흥지구로 이동하여 방어전을 전개한 후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8월 29일 대구의 제11사단장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전시특명검열부 보좌관, 대구방위사령관 등에 보임되었으며, 아군의 반격이 진행되던 9월 26일에는 경인지구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적의 남침으로 민심이 동요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국면을 진정시키고 국민의 안녕과 치안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10월 8일 제5사단장에 전보되고, 사단장 부임 10여일 만에 육군준장으로 진급한 그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제3군단에 배속된 사단을 지휘하여 포항·지리산·김천·영주 등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고, 11월 22일 육본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서울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북진을 거듭하던 아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수작전을 개시할 무렵 사단은 가평, 청평, 춘천지구 경비임무를 부여받고 적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에 밀려 퇴로를 차단당한 지방공비와 북한군 패잔병은 산악지대로 잠복하였고, 이들 부대의 대병력은 철원, 연천, 화천, 양구 일대에 집결하여 제2군단을 편성하였다. 급편된 제2군단은 중공군의 남진에 맞춰 국군 제2사단 저지선을 돌파하고 수도 서울을 재점령하기 위해 청평까지 침입하였다.

제5사단은 사단장 민기식 준장의 지휘하에 서울 북방 40리까지 침입한 적에게 반격을 감행하였다.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하여 일대 반격을 개시한 사단은 11월 24일 사단지휘소를 청평으로 이동하였으며, 28일에 제27연대와 제36연대가 가평 부근에 침입한 적 게릴라 부대를 격퇴하고 치안을 유지하였다. 또한 12월 2일 제27연대와 제31연대는 사단장의 용감한 진두지휘와 탁월한 전투지휘로 적의 강력한 화력을 격파하고 춘천을 탈환하였으며, 계속 38선까지 적을 추격·격퇴하여 수도 서울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1951년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려 춘천-홍천-원주로 철수, 1월 3일 미 제10군단으로 배속 변경된 제5사단은 충주-영주로 철수하여 2주에 걸쳐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영주-횡성으로 이동, 전선에 복귀하였다. 2월 5일부터 실시된 ‘라운드업’ 작전의 우일선 사단으로 홍천을 공격하였으나 중공군의 2월 공세에 밀려 횡성 우측방 포동리에서 새말-주천으로 철수하였다.

제5사단은 단양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3월 6일 안흥-태기산의 아이다호선까지 진격하고 4월 5일 소양강을 도하하여 인제를 경유 원통리에 이르는 캔사스선에 다다랐다. 그러나 4월 22일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로 인해 원통리에서 아야리로 철수하였다. 5월로 접어들어 소양강 남안 음양리-어론리선으로 진격한 사단은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로 인해 어론리에서 풍암리선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이어 풍암리에서 원통리로 재진출하여 미 제2사단 작전지역을 인수한 후 원통리-서화리 진격작전을 전개하였다.

7월 19일 작전지역을 제8사단에 인계하고 군단예비가 되어 현리로 이동한 제5사단은 8월부터 피의 능선에서 혈전을 전개하였다. 8월 18일부터 개시된 983고지(일명 피의 능선)전투에서 제5사단은 북한군 제2군단 27사단과 983고지, 773고지, 940고지 점령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적 제27사단은 수백 개의 엄체호와 유개교통호를 구축하며 난공불락의 요새라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8월 18일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6시 30분 제36연대 3대대가 938고지를, 제2대대가 940고지 및 773고지를 공격하였다. 적진에 가까이 접근하자 지뢰지대와 엄체호로부터의 사격으로 인해 아군의 공격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포병의 지원사격으로 적의 경계진지와 지뢰지대를 파괴한 후 적진에 접근하였으나 후사면의 적으로

인해 아군의 공격은 940-773고지 점령으로 선회하였다.

이날 밤 제5중대 특공대는 773고지 후사면으로 접근하여 수류탄을 투척하며 돌격전을 감행, 20일 02시에 773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어 21일 저녁 제2대대장은 5개 중대를 3개 방향으로 투입하여 940고지를 공격하였으며, 20시경 고지를 확보하였다. 제3대대 11중대는 21일 밤 940고지 쪽으로 우회 기동하여 은밀히 983고지 후사면으로 접근한 후 치열한 전투끝에 다음날 11시 30분 마침내 983고지를 점령하였다.

피의 능선전투를 마친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제8사단으로부터 원대복귀한 제27연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가철봉전투를 전개하고 작전지역을 제3사단에 인계한 다음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제5사단이 양양으로 이동하여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던 11월 17일 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육군본부로 진출명령을 받아 육군대학 부총장과 교무부장직을 겸임하였다. 그후 1953년 1월에 제63연대와 제65연대, 제66연대를 기간으로 강원 양양에 제2교육여단이 창설되자 제2교육여단장으로 부임하였으며, 2월 9일 제2교육여단이 제21사단으로 승격됨으로써 초대 사단장에 취임하였다. 5월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그는 동부전선 제11사단의 건봉산지구 방어임무를 인수하여 수행하던 중 휴전을 맞게 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 후 제21사단장 겸 제1군단장 대리로 발령을 받은 민기식 장군은 1954년 6월 5일에 미 참모학교 파견을 위해 육군본부로 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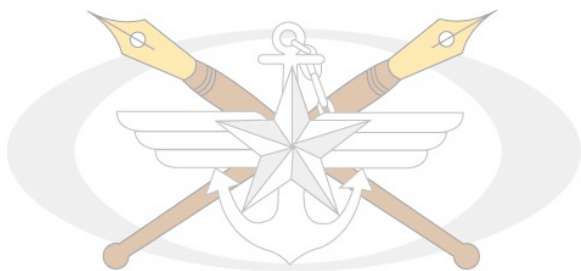
되었다. 교육을 마치고 원대복귀한 뒤에는 육본 작전교육국장에 이어 연합참모본부 제1부장, 육본 행정참모부장을 두루 경험하였다. 1957년 8월 제3군관구사령관과 제2군관구사령관, 제1군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1960년 9월 제2군단장에 부임하였다. 1962년 5월 7일 제1군사령관에 전보된 그는 다음해 6월 육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에 임명되어 1965년 3월 31일까지 재임하고 육군대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단결·화합·융화를 강조하여 부대운영을 안정되게 이끌었던 민기식 육군대장은 1998년 10월 11일 78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현재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4에 안장되어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든 일을 확신에 의해 처리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민기식 대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그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참위로 임관되어 제7연대 창설에 임하고 있을 때, 문용채 부위가 A중대장으로 부임하자 “나의 고향에 와서 연대의 창설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해왔습니다. 우선 A중대의 창설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중대장을 양보해 주시면 그 후에는 대대장으로 받들겠습니다”고 호소할 정도로 자신에 찬 인물이었다.

또한 주한 미 군사고문단 참모장 짐 하우스만의 회고록에 의하면, 민기식 부대장은 “미군 고문관이 한국인을 아프리카인만도 못하게 취급한다”는 불평과 함께 미군 고문관을 구타하였다. 조사 결과, 고문관의 잘못이 인정되어 고문관은 전출되고 민 장군은 현직을 유지하였다. 어찌되었든 구타를 가장 수치스런 일로 생각했던 미군으로서는 흔치 않은 조치였지만, 민 장군의 군인정신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기식 대장은 전장에서는 술선수범의 지휘철학으로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상에서는 자신에 찬 행동으로 부하들을 안심시키는 명 지휘관이었다.





權 東 贊 육군준장



- /// 1919. 2 강원 철원 출생
- /// 1946. 12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3 제11연대 2대대장
- /// 1950. 3 제11연대 부연대장
- /// 1950. 8 제11연대장
- /// 1950. 11 제2사단 32연대장
- /// 1951. 1 전사
- /// 1951. 1 육군준장(추서)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가평지구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의 공격에 대항하다 중과 부적으로 부득이 자결을 택한 권동찬 장군은 1952년 6월 16일 태극 무공훈장(훈기번호 제55호)을 수여받았다. 그 공적서에 의하면 권동찬 장군은 “1950년 11월 13일 제32연대 초대 연대장으로 보임되자

수도방어의 임무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공산군을 탐색 격멸하기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1951년 1월 1일 미명에 중장비를 갖춘 적의 대병력을 무수히 사살하였음에도 우군의 지원이 불가능하자 적의 2중 3중의 포위망에서 최후를 각오하고 마지막 장탄의 일발로 장렬한 자결을 수행하여 호국의 신이 되었다”라고 임전무퇴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빈곤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 보다 4~5년 늦게 정식 교육을 받게 된 장군은 11살이 되서야 비로소 철원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919년 2월 15일 강원도 철원의 동송에서 출생한 그는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돌보고 밤에는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였다.

1934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철원공립보통학교 고등과에 입학하여 1936년 3월에 졸업하고 경성지구법원 철원지청에 취직하였다. 이는 성적이 우수하고 의지가 투철한 점을 인정한 담임선생님이 특별 추천한 결과였으며, 1937년 12월에는 경성지구법원 검사국고장으로 영전하였다.

1940년 7월에는 일본군에 입대하여 3년여에 걸친 군생활을 마치고 철원세무소에 취직되었다. 이후 징용과 공출 등 일본의 압정으로 만주로 건너간 권 장군은 만주국립청년특별연성소에 들어가 구대장에 취임,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다.

조국이 해방되자 고향인 철원으로 돌아온 그는 동네 청년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밤에는 문맹퇴치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중 북한의 공산화에 염증을 느끼고 서울로 월남하여 1946년 2월 20일 국방경비대 제7연대에 입대하였으며, 동년 9월 23일 태능

의 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로 입교하여 12월 14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어 10180의 군번을 부여받았다.

1947년 1월 제5연대에 배속되어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대대부관으로 근무한 후 1950년 3월 육군소령으로 제11연대 부연대장에 임명되었으며, 5월에 중령으로 진급한 그는 한 달만에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 가평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적의 강력한 공세로 낙동강교두보까지 후퇴한 그는 1950년 8월 3일의 낙동강 해평지구방어작전에서 성공적으로 방어선을 사수하고, 이어서 대구 전방의 다부동전투에 투입되어 대구합락을 기도하는 적의 의지를 좌절시켰다. 또한 1950년 8월 29일 탱크를 앞세운 2개 연대의 적군이 포 지원하에 신녕지구 팔공산 북방으로부터 침투를 시작하자 처절한 백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격퇴하기도 하였다. 반격에 나선 제11연대는 10월 18일 평양공략전에 나섰으며, 북진을 계속하여 운산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적을 추격하였다.

1950년 11월 7일 제2사단 32연대장에 임명된 권동찬 중령은 신편 연대의 교육훈련을 실시함과 아울러 공산군 패잔병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제3군단사령부가 12월 13일을 전후하여 양평에 도착하자 작전을 일단 종결하고 군단장 이형근 소장의 명령에 의거 가평 북쪽에 배치되어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당시 군단의 부대 배치는 제2사단을 명지산 북쪽의 고지군에, 제5사단을 화천-춘천 도로변의 지촌리 일대에, 제8사단을 화천저수지

남쪽의 내평리 일대에, 제3사단을 인제 남쪽 소양강변의 청구리 일대에 배치하고 있었다.

12월 31일 자정이 지나면서 제2사단과 제5사단은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사단의 좌전방 만세교리 동쪽에 배치되었던 제17연대와 우전방 화악산 일대에 배치되었던 권동찬 중령의 제32연대는 가평 북방 38B 방어진지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막대한 병력과 중화기로 무장한 중공군의 정면공격을 받고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주저항선이 돌파되어 철수를 개시하던 중 좌우인접 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한 적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어 부득이 분산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단장은 즉시 예비인 제31연대를 가평 북쪽의 목동리로 진출 중인 적을 차단하도록 투입하였으나 이후 연대와 사단은 물론 사단과 군단간에도 지휘통신이 마비되어 상황파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전투과정에서 제32연대장은 가평군 북면 도대리의 한 민가에 설치된 제3대대 CP에서 진두지휘하였다. 그러던 중 적군에게 포위되어 통신망이 단절되고 실탄과 보급품의 부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연대장은 퇴로를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고 총검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달려드는 적을 무찌르고 퇴로를 뚫어야만 한다”고 부대원을 독려한 후 1951년 1월 1일 철수로 개척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병력을 무사히 철수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정작 자신은 적의 포위망을 벗어나는데 실패하자 옥쇄를 각오하고 적과 대항하였다. 중과부적으로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권동찬 중령은 ‘적에게 치욕적인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자신의 권총을 머리로 가져가 방아쇠를 당겼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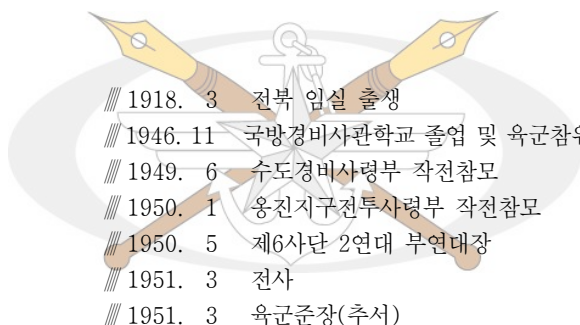
제32연대는 이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무사히 철수한 장병들에 의해 연대장 권동찬 중령의 자결 사실이 사단에 보고되었다. 연대장의 시신은 다른 연대원들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 제3대대 11중대장 조해구 소위가 연대장의 시신임을 확인하고 북면 도대리 구장에게 은밀히 연락하여 중공군의 눈을 피해 다른 시신과 별도로 매장하였다.

그러나 1951년 1월 1일 제2사단이 청평-가평지구의 방어선으로부터 철수한 이래 권동찬 중령에 대한 구구한 억측과 근거없는 풍문이 전파됨에 따라 제2사단 감찰관은 권동찬 중령의 전사사건 진상구명을 위해 1952년 4월 17일 전사현장인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1951년 1월 중공군의 침입 당시 그 지역에 잔류해 있던 부락민들의 진술과 유골의 두개골에 총탄으로 인한 파열 흔적 등으로 권 중령의 시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인은 책임에 살고 책임에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부하에게도 시키지 않았으며, 자신의 보급품도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등 사병제일주의로 부대를 운영하였던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국군장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킨 진정한 군인이자 살신보국(殺身報國)의 귀감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영웅적 행위를 기리기 위해 1952년 6월 16일 권동찬 중령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는 한편 육군준장으로 추서하였다. 장군의 유해는 1961년 3월 1일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5에 안장되었다.



朴 魯 珪 육군준장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1951년 3월 3일 후방에서 준동하는 북한군 제10사단 소속의 패잔병을 포착·섬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일월산전투에 참전한 제2사단 31연대장 박노규 대령은 3개 대대의 소수 병력을 인솔하고 560고지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맹렬한 측면공격을 가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도주하는 적을 추격, 치열한 섬멸전을 전개한 끝에 적을 완전 궤멸시킴으로써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적의 총탄에 피격되어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1918년 3월 14일 전북 임실군 둔남면에서 출생한 박노규 준장은 편부 슬하에서 소학교를 겨우 마칠 정도로 극빈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과묵한 성격에 인내심이 강했던 그는 결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학생이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22세가 되던 해 일제의 지원병제도에 의해 일군에 입대하여 태평양전쟁에 참여한 후, 일본의 패망으로 고국에 돌아온 그는 국군에 자원할 것을 결심하였다.

1946년 11월 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육군 참위(소위)로 임관되어 10216의 군번을 부여받았다. 당시 재임하고 있던 재정관보다는 일선 지휘관으로 활동하기를 원했던 박노규 대위는 제4연대 작전주임장교로 취임한 뒤 곧이어 발생한 여·순 10·19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개 연대 병력을 이끌고 현지에 참전하였다.

순천을 탈환하고 여수로 진격, 목표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당해 1개월간 병원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 교무처장을 거쳐 1949년 6월 수도경비사령부 작전참모로 전보된 박노규 소령은 1950년 1월 웅진전투사령부 작전참모로 옮겨 6·25전쟁을 앞두고 불법 도발을 강행했던 북한군과 수 회에 걸쳐 전투를 전개하였다.

그 중 하나인 은파산전투를 마치고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 입교하여 현대전술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5월 1일 육군중령으로 진급하였고, 아울러 홍천에 주둔하고 있던 제2연대 부연대장에 보직되어 6·25전쟁에 나서게 되었다.

□ 일월산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박노규 중령은 1950년 7월 14일 문경지구전투에서 이화령을 방어하고 있던 제3대대가 돌파위기에 처하자 연대장 함병선 대령의 명에 의해 역습을 결행, 적을 격퇴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수훈을 세웠다.

당시 음성과 충주지구에서 적의 남침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던 제6사단은 문경지구로 철수하여 이화령 일대에서 북한군 제1사단의 침공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화령은 중부전선을 방어하는 천연적인 요새를 형성하고 있으며,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소백산맥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제6사단이 문경방어에 임한 지 이틀째인 1950년 7월 14일 북한군 제1사단은 주공 방향을 사단의 좌일선인 제2연대 정면에 두고 기동이 양호한 3번 도로를 따라 이화령을 일격에 돌파하려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04시 30분경 적은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각종 포병의 지원하에 짙은 안개를 틈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로 돌격을 감행하여 백병전이 벌어졌으며, 좌일선의 제3대대는 20여분간의 격돌 끝에 일부 병력이 분산되어 혼선을 빚고 있었다.

이 무렵 연대장은 이화령관측소에서 전방을 관측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진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제2대대와 제3대대는 통신마저 두절되어 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3시간이 경과된 08시경 안개가 걷히면서 북쪽 능선을 관측하자 진지를 사수할 것으로 믿었던 제2대대와 제3대대 병력이 이화령 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이화령 동쪽 능선을 사수하고 있던 제1대대장 박노규 중령에게 633고지를 탈환하라는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대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제2중대와 제3중대가 3번 도로의 동쪽 능선을 따라 돌진하면서 적을 역습하기 시작하자 후퇴하던 인접대대 병사들도 역습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제2대대는 633고지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퇴각하는 적에 대한 차단진지가 되어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제1대대의 역습 대열에 가세하는 양상으로 변모, 12시 40분경에는 연풍까지 탈환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적 사살 800여 명, 포로 7명, 장갑차 3대, 트럭 10대, 75밀리 유탄포 3문, 각종 소총 13정을 노획하는 대 전과를 올렸다.

그 후 박노규 대령은 제2사단 31연대장으로서 경북 일월산 일대의 공비특별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1951년 2월 국군 제2사단은 육본 작전명령 제23호에 의거 풍기에서 의성으로 이동하여 육본 직할 부대로써 후방에서 공비소탕전을 전개하던 2개 독립경비대대, 1개 국민방위군 연대, 2개 태백산전투경비대대를 통합지휘하였다. 당시 경상북도의 산악지대에는 북진중인 아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제10사단이 재산(在山) 공비와 합세하여 후방 치안을 교란하는 동시에 군의 주 보급로를 차단하고자 완강히 시도하였으며, 그 병력은 5,000여 명에 달하였다.

1951년 2월 28일 청송 방면의 북한군 제10사단이 북상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제2사단장 함병선 준장은 이들을 원거리에서 포위 격멸하기로 결심하고 예상 통로인 일월산 부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다. 명령에 의거 병참선을 경계하던 제31연대는 일월산 남서쪽의 장갈령을 차단하여 3월 1일 새벽에 북상중인 적 1,500여 명을 기

습공격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 무렵 제17연대와 제32연대도 보현산 일대에서 일월산 남쪽으로 이동하여 일월산 일대에 3중으로 차단선을 설치하자 적 제10사단은 800명과 400명으로 2개조를 편성하여 차단선 돌파를 시도하였다. 이에 사단은 5일부터 전 병력을 투입하여 5일에 걸쳐 일월산-통고산으로 적을 추격하였다.

이 작전에서 제2사단은 적 사살 469여 명, 포로 40여 명과 293점의 장비를 노획하는 대 전과를 거두었으나, 일월산소탕작전에서 제31연대를 지휘하던 연대장 박노규 대령이 제3대대장 이오열(李奧烈) 중령과 함께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1951년 3월 3일 연대를 지휘하던 박노규 대령은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일월산 일대에서 아군 보급로 확보에 주력하던 중 적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아군 진지를 돌파하려 하자 한 손에 권총을 빼어들고 진두지휘를 실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러나 박노규 대령이 적진으로 돌진하는 순간 적의 흉탄이 그의 복부를 관통한 데 이어 3발의 흉탄이 손과 복부에 명중함으로써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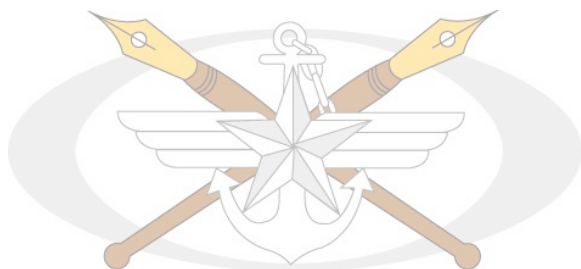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남아로서의 진정한 용기와 상관으로서의 숭고한 부하에 및 인간애를 동시에 지녔던 장군은 이화령전투에서 전사한 김용하(金鎔河) 대위의 시신을 손수 등에 업고 싸우고, 또 후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룡산전투에서는 사살한 적군의 시체 1,000여 구를 모두 묻

어주는 인간애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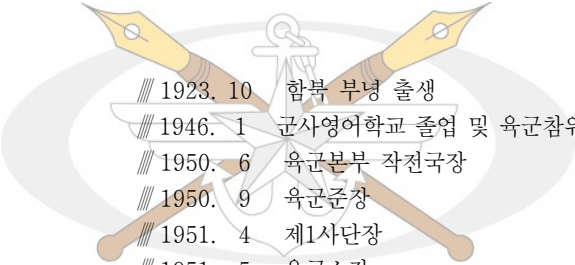
조림산전투에서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될 때에는 “부상을 당해 더 싸우지 못해 조국에 미안하다. 그러나 곧 완쾌되어 전선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책임감이 투철한 지휘관이었다.

정부는 박노규 대령의 살신보국과 임전무퇴의 정신을 귀감으로 삼고자 1951년 4월 27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2호)을 수여하였고, 동시에 육군준장으로 추서하였다. 현재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47에 안장되어 있다.





姜 文 奉 육군중장

- 
- /// 1923. 10 함북 부녕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50. 6 육군본부 작전국장
 - /// 1950. 9 육군준장
 - /// 1951. 4 제1사단장
 - /// 1951. 5 육군소장
 - /// 1952. 7 제1군단 부군단장
 - /// 1952. 8 제2군단 부군단장
 - /// 1952. 11 제2사단장
 - /// 1953. 5 제3군단장
 - /// 1953. 10 육군중장
 - /// 1954. 10 제2군사령관
 - /// 1957. 4 전역
 - /// 1988. 2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한국의 지장(智將)’이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명장으로 신석제지구전투를 비롯한 저격능선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빼어난 전공을 거두어 1954년 5월 1일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64호)을 비롯한 두 차례의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던 강문봉 육군중장은 1923년 10월 25일 함경북도 부령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이 만주에서 은행장으로 있었을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동 시대의 또래들과는 달리 윤택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만주의 신경제일중학교를 졸업한 뒤 신경군관학교 제5기생으로 입교, 일본 육사 제59기로 편입하여 졸업한 그는 일제의 패망시까지 만주군 소위로 복무하였다.

해방을 맞아 귀국한 그는 광복군 출신의 오광선(吳光鮮)이 광복군 국내지대장으로 임명되어 동대문 밖에 광복군 국내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독립지사를 비롯한 건실한 청년들을 모집, 시내 각 중요 처소에 대한 경비에 임하자 “광복군을 모체로 국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제2중대장으로 참여하였다.

1946년 1월 15일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참위(소위, 군번 10017)로 임관된 그는 제1연대 A중대 소대장으로 전보되어 연대창설에 참여하였고, 3개 중대의 대대편성이 완료된 후에는 백인엽 참위(소위)에 이어 대대부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1949년 3월 1일 대령으로 진급될 때까지 총사령부와 육군참모학교 등에서 근무하고, 전쟁발발 보름전인 1950년 6월 10일 육군본부 작전국장에 임명되어 6·25전쟁을 맞게 된 강문봉 대령은 전쟁 초기 정일권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전국(戰局)을 수습하는데 주력하였다.

□ 신백제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1951년 4월 6일 육본 작전국장 강문봉 준장은 백선엽 준장의 후임으로 제1사단장에 부임하였다. 부임 직후인 4월 22일 9개군 예하 25만 병력이 동원된 중공군의 제5차 공세(제1차 춘계공세)가 중서부 전선을 목표로 개시되었다. 중부전선을 유린한 중공군은 4월 24일 제63군 예하 3개 사단을 주공으로 하여 임진강을 건너 제1사단을 공격하였다. 서울의 동측방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서울을 다시 함락하려는 의도로서 서울은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신임 강문봉 준장의 제1사단은 용감히 맞서 싸웠다. 제1사단은 수색-백제선까지 밀리기도 하였으나 6일간의 사투 끝에 중공군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중공군 개입 이래 5차의 대공세에서 중공군을 저지한 첫 국군 사단이 되었다.

사단장 강문봉 준장은 특유의 예지와 능숙한 전략적 착안으로 적이 대규모의 공세를 취할 경우 가장 먼저 침공해 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제1사단의 지역임을 예측하였다. 그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데는 사단 정면의 지형이 하천은 남북으로 흐르고 작전도로 역시 남북으로 통하고 있으며, 적의 근거지인 38선 이북은 개활지가 없어 중첩된 산맥이 이남의 아군진지까지 연하여 적으로부터 감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1사단의 전 지역은 수도 서울과 최단 거리에 위치한 것도 주요 요인이었다.

사단장은 즉시 주 저항선 일대의 진지를 강화하거나 위치를 변동시켜 적의 대대적인 공격시 사단의 전투태세 완비에 시간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진지 배치와 수색·정찰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서울 방어의 최후선인 링컨선에 예비진지를 구축 강화하였다.

당시의 적정은 20,000명 미만으로 추산되는 북한군 제1군단이 개성 일대로부터 예성강 이서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중공군 제19병단 3개 군의 주력은 시변리-금천 일대로부터 고랑포를 비롯한 임진강 북안으로 남하하여 고랑포-문산-서울 또는 동두천-의정부-서울선으로 공격할 계획하에 준비중에 있었다.

적은 서울과 최단거리인 미 제1군단 정면에 주공을 지향하여 지역적인 각개격파에 성공, 일거에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전략적인 승

공적조사서(전투.군무)

조직	제3군단	계급	소령	성명	강문봉	소속	제1군단
부속	제3사단	연월	10.17	장소	서울	작성	제1군단
조사 목적	전투.군무						
조사 방법	정면						
조사 대상	북한군 제1군단						
조사 결과	적의 주공은 서울을 지향하고, 제1군단 정면에 주공을 지향하여 지역적인 각개격파에 성공, 일거에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전략적인 승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조사자	강문봉 소령						
조사장	제3군단장						
조사일	10.17						
조사장소	서울						
조사대상	북한군 제1군단						
조사결과	적의 주공은 서울을 지향하고, 제1군단 정면에 주공을 지향하여 지역적인 각개격파에 성공, 일거에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전략적인 승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조사자	강문봉 소령						
조사장	제3군단장						
조사일	10.17						
조사장소	서울						
조사대상	북한군 제1군단						
조사결과	적의 주공은 서울을 지향하고, 제1군단 정면에 주공을 지향하여 지역적인 각개격파에 성공, 일거에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전략적인 승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제3군단장 강문봉 소장의 태극무공훈장 공적조사서
(원본소장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리를 도모하기 위해 새벽에 제1차 춘계공세를 취해왔다. 즉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로 뻗어 있는 도로망을 봉쇄하고 기동력 발휘 및 보급운용을 동결시킨다는 것이었다.

적은 최초 미 제25사단, 제24사단 및 한국군 제1군단, 제3군단 정면에 전향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중공군 제39군은 주력을 산악지대이며 아군의 기동력 및 화력운용상 약점인 한국군 제6사단 정면에 공세를 취해왔다. 4월 22일 22시 30분경 사단 우측의 미 제3사단 정면에 출현한 병력 미상의 적이 임진강을 도하함에 따라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었고, 4월 23일 03시경에는 두지리의 도하지점에서 침투한 병력 미상의 적이 제12연대 3대대 정면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단 정면의 전투는 점차 치열해졌다.

이 지역이 적의 의도대로 돌파될 경우 적은 전면에 걸친 강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전략적 승리를 거둬 다시 남한에 대한 점령을 시도하게 될 것이며, 또한 국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6·25전쟁에 있어 유엔군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게 될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한 사단장은 4월 23일 03시경부터 07시까지 임진강 전면에 걸쳐 남하 침공하는 적을 예하부대로 하여금 강력한 진지전 또는 유격전으로 적극 저지토록 하는 동시에 예하 각 부대에 다음과 같은 특별지시를 하달하였다.

1. 거점 방어를 할 것
2. 감시의 눈을 전방 멀리 둘 것
3. 중대장 중심의 거점을 만들고 분산을 엄금할 것
4. 포병사격을 적절히 운용할 것
5. 사격목표는 도로교차점 및 적의 예상 도로에 둘 것

한편 사단장 자신은 최일선의 연대지휘소에 나가 각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하여 야포 및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침공하는 적을 각 처에서 유격·섬멸하고 현 위치를 결사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때 미 제3사단 정면을 돌파한 1개 연대 규모의 적은 아군의 전투지경선을 타고 중심 깊숙이 침투하여 4월 25일 12시경 무곡리에서 미 3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던 영국군 포병 42명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보고를 접한 사단장은 제12연대 1대대로 하여금 적의 강력한 압력을 물리치고 이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적의 주력은 임진강을 완전히 도하하여 능숙한 야간전투와 인해포위전술로서 사단 전면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한편 우측 미 제3사단의 철수에 뒤이은 적이 사단의 우측면을 중심 깊숙이 침투하여 전세는 점점 불리해져 갔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적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 아래 각 대로 하여금 전면의 적에 대한 섬멸전을 감행하는 한편 적을 서서히 유도하면서 부대를 철수하였다.

4월 27일 11시를 기해 제11연대를 수색 화전리선에, 제12연대를 진관내리-신둔리 일대에, 제15연대를 화전리-동산리 일대에, 제17포병대대 및 미 제99야포대대, 제176야포대대, 제999야포대대, 제933야포대대, 제73전차대대, 제10고사포대대를 홍제동-수색간에 이르는 선 일대에 각각 이미 구축된 진지를 이용하여 배치한 사단장은 수색 전면의 화전리로부터 삼송리에 연하는 개활지로 적을 유도하여 보·포병의 협동작전으로 섬멸한다는 계획하에 각 전투부대에 언제라도 공격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대의 수색대를 전초 전방 깊숙이 침투시켜 남하하는 적에게 강력한 반격전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가하였다.

한편 서울을 목전에 둔 적은 4월 29일 03시를 기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해 왔다. 작전계획에 의거 개활지로 유도하여 보·포병의 밀

접한 협동아래 공격을 가하자, 적은 발악적으로 후속부대를 계속 투입하였다. 4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행해진 맹공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은 이 지역에서 춘계공세의 계획이 완전 실패했음을 깨닫고 소수의 병력으로 아군의 복상을 저지하면서 주력부대는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추격전을 실시하여 연일 대대 혹은 연대 병력의 적을 포착·섬멸하던 중 북한군 제1군단이 잔여 병력을 일산에서, 중공군 제19병단이 잔여 병력을 신백제에 집결 재편하여 제2차 춘계공세를 가해왔다. 일산지구의 적을 제11연대로, 신백제지구의 적을 제12연대로 하여금 공격하자 신백제지구에서 패주하던 적 제19병단 주력은 양지재를 경유하여 동산리를 향해 도주하였다. 곧이어 예비대인 김동빈 대령의 제15연대를 차량을 이용하여 동거리에 급거 우회시켜 적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양지재 부근에 도달한 적 주력을 완전 포위함으로써 적의 제2차 춘계공세를 분쇄하였다.

아울러 사단장은 패주하는 적을 임진강 북안까지 추격·소탕하도록 지시하여 적의 춘계공세를 수포화시키고 서울 방어와 캔사스 라인의 재확보에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1사단은 적 1만 5천여명 사살, 생포 250여 명, 각종 포 94문 노획 등의 대전과를 거두었다.

사단장 강문봉 준장은 부임 즉시 사단 작전지역의 지형정찰과 적정파악을 통해 적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진지구축 및 보수, 적정수색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전투시에는 연대지휘소에 나가 작전을 진두지휘함으로써 전 장병의 승전의지를 앙양시키는 등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격퇴한 후 7월에 강문봉 소장은 미 육군 지휘참모학교에 파견되어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여 제1군단

과 제2군단에서 각각 부군단장으로 복무하였고, 1952년 11월 1일 정일권 중장의 후임으로 제2사단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제2사단은 군단에서 전개하고 있는 ‘쇼다운(Show Down)작전’의 일환으로 저격능선에 대한 공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결국 6주간의 공방전 끝에 주봉인 A고지와 돌바위능선을 확보한 다음 사창리로 이동하여 미 제9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12월 1일부터 3주간의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마친 제2사단은 철원지구로 이동하여 미 제3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한 후 다음해 2월까지 전초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사단장 강문봉 소장은 1953년 5월 1일부로 재창설된 제3군단장에 임명되어 휴전에 임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을 맞은 장군은 10월에 육군중장으로 진급한 후 계속하여 제3군단장으로 재임하다 다음해 8월 제2군사령부 창설위원단장으로 임명되어 군사령부 창설에 주력하고 10월 31일 제2군사령관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재임 중 1956년에 발생한 ‘김창룡 저격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다가 4·19혁명 이후 석방되었다. 이후 1975년 ‘정일권 대통령 추대 혐의’로 체포되어 지병인 폐암을 얻은 그는 1981년 미국으로 건너가 월터리드 육군병원 등 유명한 암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1988년 타계하였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한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보기 드문 지장으로 지혜가 넘치고 인간미가 풍성한 삶의 소유자

였지만 정치권에 가까이하면서 실패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강문봉 장군에 대해 많은 선후배 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특히 강 장군의 사건과 많은 연관이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이 사람이 참모총장이 돼야 하는데……”라고 아쉬워하며, “강 장군은 위대한 군인이며 한국의 육군참모총장이 되어야 할 인물이야”라고 누누이 말하곤 하였다.

그는 군내에서 명석하고 강직해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으며, 매사가 맵고 확실하였다. 또한 끊임없는 독서로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태릉의 군사영어학교 시절부터 통역을 전담할 정도로 어학 실력도 수준급인 학자풍의 지휘관이었다.





金 點 坤 육군소장

- 
- /// 1923. 4 서울 출생
 - /// 1946. 6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50. 9 제1사단 12연대장
 - /// 1952. 10 육군준장
 - /// 1952. 10 제9사단장
 - /// 1953. 6 제6사단장
 - /// 1954. 6 제1군사령부 참모장
 - /// 1955. 1 육군소장
 - /// 1956. 3 육군보병학교장
 - /// 1957. 7 육군본부 정보국장
 - /// 1961. 9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
 - /// 1961. 10 국방부 차관보
 - /// 1962. 3 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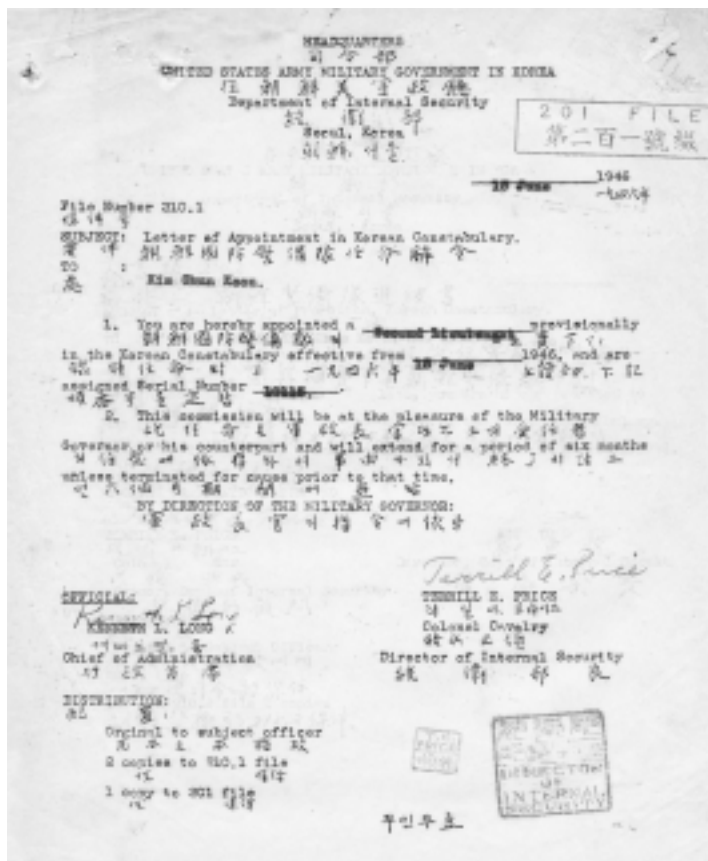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김점곤 육군소장은 제1사단 12연대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치열한 접전을 거듭하며 난공불락을 호언하던 적도 평양을 함락시키고 운산·영변지구 전투를 성공리에 수행하였으며, 특히 1951년 4월의 임진지구전투에서는 개성-문산 축선으로 침습해 온 중공군 제19병단의 대병력을 맞아 파평산에서 최대의 혈전을 펼친 끝에 격퇴함과 동시에 포위망에 쌓인 연합군을 구출하고 적의 춘계공세를 완전 좌절시킨 전공으로 1953년 8월 27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20호)을 수여받았다.

1923년 4월 15일 서울에서 출생한 ‘학자 같은 군인이자 군인 같은 학자’인 김점곤 장군은 중동중학을 졸업하고 국방경비사관학교 1기생으로 군에 입문하여 1946년 6월 15일 10115의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었다. 동시에 현재의 국방부장관이라 할 수 있는 통위부장 군사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어 통위부 내 각 부서에서 많은 건문을 넓혔다.

그후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위관생활을 마치고 육군소령으로 진급했던 1948년은 해방정국의 혼란이 전국적으로 소용돌이친 시기였다. 정부는 남로당 게릴라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서 10월에는 군 반란사건인 여·순 10·19사건마저 발생하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그는 통위부장 보좌관직을 포기하고 진압작전에 자원하여 백선엽 장군 등 육본 정보담당관들이 작전지휘를 맡고 있던 진압사령부에 합류하였다.

진압작전이 마무리된 후 1949년 제5여단으로 배속되어 예하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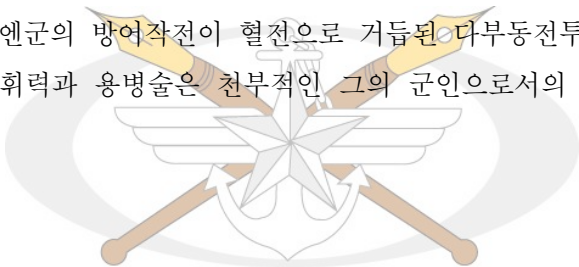
프라이스 통위부장이 서명한 김점곤 참위(소위)의 1946년 6월 15일부 조선국방경
비대 임명발령문서(원본소장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 재직 중 육군중령으로 진급한 그는 1950년 2월 제5여단을 모체로 하여 승격된 제5사단 교육대대장으로 3개월 동안 장병교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6·25전쟁의 발발을 한 달여 앞둔 1950년 5월 15일 개성 이서 지역 방위에 중점을 둔 제1사단 12연대의 부연대장에 임명된 그는

개전 하루만인 6월 26일 지휘부가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던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개성·문산지구전투에서 밀려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던 제1사단 12연대에 다시 배속되어 부연대장을 거쳐 연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며 1951년 12월 백 야전전투 사령부 참모장으로 발령될 때까지 제1사단의 핵심요원으로 전쟁에 임하였다.

개전 초기부터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는 문산전투를 시작으로 청주, 음성, 무극리, 화령장, 영강전투 등 축차적인 방어작전을 무리없이 지휘한 후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부동전투에 임하였다. 최후 보루로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작전이 혈전으로 거듭된 다부동전투에서 그가 보여준 지휘력과 용병술은 천부적인 그의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 임진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개성 이서 지역의 38도선 방어를 담당하던 제1사단 12연대의 부연대장으로 임명된 그는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차 1개 연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1사단과 제6사단에 맞서 28일까지 4일간 개성·문산·파평산·봉일천 일대에서 방어전을 전개하고 한강을 도하하여 시흥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김점곤 제12연대 부연대장은 적 제15사단의 남진을 저지·지연시킨 음성지구전투와 독립 제17연대와 함께 적 제15사단을 기습, 이들의 남진을 저지시킨 화령장전투에 참여하였다. 또한 그는

국군과 유엔군이 지연전을 전개하며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할 무렵 제6사단과 함께 전개한 영강전투에 참전, 북한군 제2군단의 침공을 저지하였다.

낙동강방어선으로 후퇴한 제1사단은 대구 북방의 왜관과 다부동 일대에서 제105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2군단의 8월 공세를 겪게 되었다.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계속된 다부동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파리를 지키기 위해 연합군이 펼쳤던 ‘베르덴전투’에 비유될 만큼 치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투였다. 그가 지휘하는 제12연대는 특공대를 편성하여 적 전차 4대를 파괴하는 등 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낙동강선 상에서의 방어전을 완료하고 9월 25일부터 반격으로 이전한 제1사단은 보은-청주-안성을 거쳐 고랑포로 진격하였으며, 10월 11일 마침내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탈환작전에 돌입하였다. 이때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수도인 평양을 탈환하고 입성하는데 어느 부대가 선두에 나설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전차를 비롯한 우수한 전투장비를 운용하던 미 제1기병사단은 자신들의 선봉 입성을 자신했다. 조국수호 의지가 강렬했던 제1사단 12연대는 완강히 저항하는 적의 공격을 제압하고 평양에 일착으로 입성, 국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고양하였다.

평양탈환에 나선 사단 주공인 제12연대장 김점곤 대령은 패주하는 적에게 반격의 여유를 주지 않고 추격을 거듭하여 10월 18일 대동리를 점령하였다. 대동리로부터 패주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던 연대는 대동리 북쪽 1km 지점에서 1개 연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적은 상원강 대안에 직사포 16문과 각종 곡사포를 배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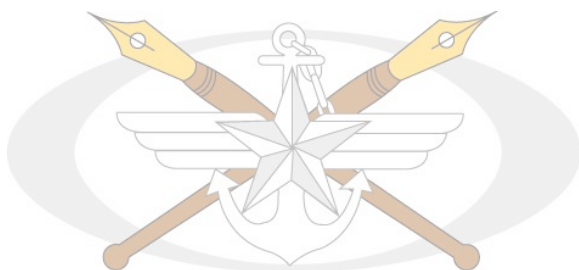
고 선두 전차에 집중포격을 가해왔으며, 접근로에 매설된 지뢰와 상원강의 천연적인 장애물로 인해 연대는 진격이 둔화되었다.

10월 19일 제12연대장은 사단 공격제대로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여명을 기해 기계화부대를 선두로 적 진지에 돌격을 감행하여 목표를 점령한 후 동평양 인근의 오류리에서 2개 대대 규모의 적의 저항을 보전협동으로 물리쳤다. 북한군의 3차 방어선을 돌파한 제12연대는 동평양까지 순조로운 진격을 계속, 11시에 동평양의 선교리에 진출함으로써 제일 먼저 평양에 입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평양에 입성한 제12연대는 재정비할 여유도 없이 북진을 계속하던 중, 10월 25일 청천강변에서 적 제1사단의 잔여부대 병력 2개 연대와 강계로부터 남하한 8로군 제71단 약 8,000명으로부터 반격을 받았다. 예기치 않은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세의 불리함을 판단한 연대장 김점곤 대령은 주도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사단 공격제대로서 수차에 걸친 맹공격을 감행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11월 4일 05시 10일간의 악전고투 끝에 적을 연파하고 청천강을 도하한 제12연대는 안주를 거쳐 진격을 계속하여 태천에 도달하였으나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평양-사리원을 거쳐 38도선 이남까지 후퇴하였다.

이후 제12연대장 김점곤 대령은 제1사단의 우익연대장으로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부 임진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 적의 제2차 춘계공세를 무력화(無力化)시킨 이 전투에서 그가 발휘한 탁월한 부대지휘력과 임기응변의 기지 및 전략은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이 안개를 이용하여 침공해 온 적의 대병력을 포착·섬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척에 있는 수도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1951년 4월 임진지구 전투상황



제12연대는 제1사단의 우익연대로서 좌익의 제15연대와 함께 마지리로부터 오금리 일대에 이르는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임진강 주변에 포진하였다. 이 지역에 포진한 이래로 연대장은 연대 및 대대 수색대로 하여금 임진강을 도하시켜 적의 기도를 판단하는데 온갖 심혈을 경주하였다. 또한 일부 병력으로는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적 진지를 교란하고 포로를 획득하였으며 진출로상의 장애물을 제거시키는 한편 연대 주저항선 전반에 일찌기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진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약 24개 사단을 서부전선에 배치하고 호시탐탐 남침을 기도하던 적은 그중 시변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던 제19병단 이하의 정예부대인 제3야전군을 선두로 하여 5월 1일의 메이데이 행사를 수도 서울에서 거행한다는 구호 아래 22일 23시를 기해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적의 일부 병력은 제12연대 우익의 인접부대인 미 제3사단이 철수함에 따라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제1연대를 우회 침공하는 한편 적 유격대는 제12연대와 제15연대 사이로 제12연대 주력의 양 측방은 물론 지휘소까지 위협을 가해왔다.

제12연대장은 대규모의 적을 포착·섬멸할 것을 결의하고, 대부대의 전면적인 공세를 횡선배치로 방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멸을 자초한다는 신념아래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 부대를 집결, 거점방어와 일부 병력으로 양동작전을 감행하여 적의 측방을 강타하는 치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496고지에 침공한 적을 제1대대로 그리고 300고지에 침공한 적을 제3대대로 하여금 공격토록 하여 섬멸시킨 후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점령한 496고지와 300고지에 부대를 집결시켜 거점방어로 원형진지를 확보케 한 후 두절된 보급난을 극복하였다.

이처럼 제12연대장은 연 3일간 항공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시종일관 진두지휘를 통해 OP까지 침투해 온 적의 대병력을 섬멸하였으며, 인접부대인 미 제3사단 전차중대와 보전협동으로 적에 이중 포위된 영국군 42명을 구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제1사단은 임진지구전투에서 8,000여명의 적을 사살하고 42명을 생포하는 대전과를 거두어 적의 제2차 춘계공세를 무력화시키고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2년 10월 육군준장으로 진급한 김점곤 장군은 제9사단장이 되었고, 이어 육군본부 인사국장을 거쳐 제6사단장으로 봉직하던 중 휴전을 맞게 되었다. 이후 제1군사령부 참모장과 보병학교장, 헌병사령관과 연참본부장을 경험한 장군은 육군본부 인사관리제도 연구위원장으로 법규를 제정하고 인사법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1961년 10월 국방부 차관보로 발탁되어 군 전반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후 1962년 3월 육군소장으로 16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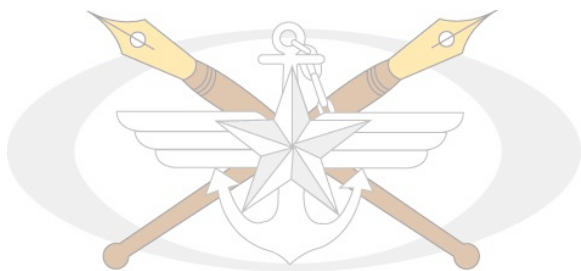
그러나 김점곤 장군은 군 이외의 또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전역 후 강단에 선 최초의 군 출신 교수로서 정치·외교 분야의 학문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장군 출신의 교수로서 명성을 높인 장군은 군에 몸담았던 시절이나 학문에 투신했던 시절이나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또한 남에게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여러 사람과 공존해 사는 법도를 지켰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순리대로의 생활을 중요시 하였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념과 의지는 “마음속으로 경문을 읽으며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살다보면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글귀를 천하게 만들게 된다. 진정한 교육은 뒷사람이 술선했어 보이는 것이다”라는 그의 주장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전투수행 및 지휘능력 측면에서도 김 장군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일례로, 병력의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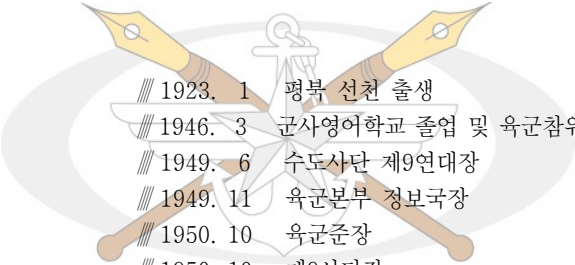
부동전투의 불리한 당시 상황에서 김 장군은 병력의 대거 투입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선에 갇 투입된 신병들의 전투투입에 신중하였다. 소정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신병들을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병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철두철미하고 사려 깊은 지휘판단으로 그는 1953년 8월 27일 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이라는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를 부여받았으며, 아직도 우리 곁에 6·25전쟁의 영웅으로 함께 하고 있다.





張 都 暎 육군중장

- 
- /// 1923. 1 평북 선천 출생
 - /// 1946. 3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6 수도사단 제9연대장
 - /// 1949. 11 육군본부 정보국장
 - /// 1950. 10 육군준장
 - /// 1950. 10 제9사단장
 - /// 1950. 10 제6사단장
 - /// 1952. 1 육군 제1훈련소장
 - /// 1952. 7 육군소장
 - /// 1953. 6 제8사단장
 - /// 1954. 2 제2군단장
 - /// 1954. 10 육군중장
 - /// 1957. 7 육군참모차장
 - /// 1959. 2 제2군사령관
 - /// 1961. 2 육군참모총장
 - /// 1961. 5 계엄사령관, 국가재건최고회의장, 내각수반
 - /// 1961. 8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장도영 육군중장은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가 전개되던 1951년 5월 당시 보병 제6사단장으로 양평 북방의 용문산에서 중공군 제63군 예하 3개 사단의 대대적인 공격을 전면방어태세로 지탱하면서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고 주저항선을 기만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적 사살 17,177명과 포로 2,183명, 각종 포 19문 등 대대적인 전과를 거둬들여 1954년 7월 6일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90호)을 수여받았다.

1923년 1월 23일 평안북도 선천(宣川)에서 출생한 장군은 신의주 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동양대학에 재학 중 반도학생들에 대한 징집령으로 일본군에 입대, 장교의 신분으로 일본의 패망을 맞게 되었다. 고향인 선천으로 돌아와 모교인 신의주동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배 양성에 주력하던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월남을 결행, 서울로 내려왔다.

서울로 내려 온 장군은 당시 미 군정청 군사고문으로 있던 이웅준으로부터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라는 권고를 받고 1946년 2월에 입교하였다. 약 1개월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3월 23일 국방경비대 육군참위(소위, 군번 10080)로 임관되어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 1중대 소대장에 보직되었고, 그해 가을에는 이리의 제3연대 2중대장으로 진급한 후 신설된 제3대대장에 임명되어 대대창설에 참여하였다.

1947년 9월 태능의 국방경비사관학교로 전보되어 제5기생 생도대 중대장이 되었으며, 다음해 7월에는 부산의 제5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1948년 10월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1개 대대를 여수항

에 상륙시켜 반란군 진압에 참여하고, 후에는 경남지구공비토벌사령관으로 작전에 임하였다. 또한 그는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제9연대장에 임명되었으며, 얼마 후 연대본부가 의정부로 이동함에 따라 포천 북방의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 용문산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1949년 가을, 장도영 대령은 육군본부 내부의 방첩업무와 북한에 관한 첩보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의 암호작전명령을 해독하는 등 참모로서의 직책에 충실하였다.

국군 및 유엔군의 반격으로 서울이 수복됨에 따라 수도 서울을 방위할 새로운 사단의 창설이 요구되었고, 육군본부는 환도 후 육군 준장으로 진급한 정보국장 장도영 장군을 신편된 제9사단장에 임명하고 예하부대 편성임무를 부여하였다. 창설 직후 제9사단은 적 패잔부대들에 의해 대전이 위협을 받게 되어 대전지역 방위를 위해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1950년 10월 29일 장군은 중공군과 조우하여 고전중에 있는 제6사단장 김종오 장군을 대신하여 사단을 지휘하게 되었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차질없이 방어와 철수를 계속하였다. 12월 14일 제6사단은 군단작전명령에 의거 전국의 38선상에 방어배치를 완료함으로써 중공군의 공세로 인해 단행된 개천에서 38선까지의 철수작전을 일단 종료하였다.

연천으로부터 동두천-의정부-서울의 공격 요로를 방어하는 임무

를 담당하게 된 제6사단은 12월 31일 주공을 동두천-의정부 축선으로 지향한 중공군 제38군 예하 3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사단장의 진두지휘와 전 장병의 결사분전으로 진지를 고수하며 총 화력을 집중, 적의 파상공격을 격퇴하고 38선 넘어 전곡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중공군과의 최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제6사단은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받음은 물론 중공군과의 전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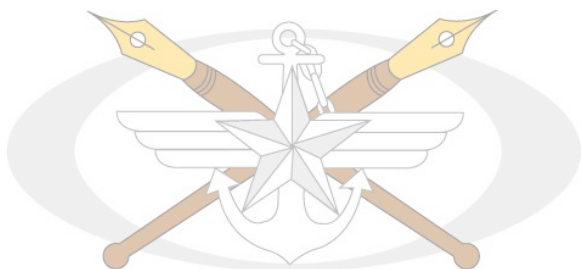
이후 1951년 3월 13일 군단작명에 의해 용문산을 공격하여 북한 강-홍천강선까지 진출한 제6사단은 이어서 가평과 춘천을 잇는 지대를 공격하여 38선까지 진출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부여받았다. 3월 22일 사단은 공격을 재개하여 사단 정면의 중공군 제42군 예하 2개 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캔사스선까지 진격, 가평-춘천지구공격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한편 38선 방어에 실패한 중공군은 대부대를 전선에 투입하여 춘계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제6사단은 화천-김화선으로 진출하라는 공격명령을 군단으로부터 하달받고 4월 21일 사창리를 일차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다음날 중간목표를 향해 공격을 재개한 사단은 야간에 적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방어진지를 이탈하여 전진중에 적의 공격을 받은 사단은 사창리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적은 일선부대와 교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대를 투입하여 사단을 우회 포위하고 후방 요지를 점거함에 따라 제6사단은 중공군 4개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가평 북방까지 철수하여 방어선을 확보한 사단은 25일 아침에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5월 공세를 통해 중동부전선을 돌파한 중공군은 제63군 예하의

제187, 제188, 제189 3개 사단을 앞세워 북한강과 홍천강의 합류점을 방어하고 있던 제6사단을 공격해왔다. 공세의 징후를 포착한 제6사단은 현 방어선을 청평강 이남과 용문산 일대로 이동하여 공세를 시도하는 적을 격멸하고, 아울러 사창리전투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로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용문산지구 전투상황



사단은 제2연대를 홍천강 남쪽에 추진 배치하고 주저항선인 용문산 서쪽에 제19연대, 동쪽에 제7연대를 배치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제2연대는 신임 연대장의 부임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준비에 임했다. 제2대대는 북한강을 감제할 수 있는 좌전방 울업산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고, 우전방 제1대대는 홍천강 감제가 용이한 미사리 부근의 559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예비인 제3대대는 울업산 후방 353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토록 하였다.

17일 연대정찰대는 적의 예상 도하지점을 탐색 중 이미 도강한 중대 규모의 적과 교전을 전개하여 격퇴하고 복귀하였다. 18일 야간에 적은 좌전방 울업산에 대대 규모로, 우전방 장락산맥에 연대 규모 이상을 투입하여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사단 및 군단의 5개 포병대대의 조명 및 화력지원을 받아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일부 탄막지대가 돌파됨에 따라 백병전을 전개하여 자정 무렵에 격퇴하였다. 제2연대가 완강하게 저항하며 진지를 고수하자 적은 이곳을 주저항선으로 오판하고 19일 새벽 제187사단과 제188사단의 주력을 투입하여 돌파를 기도하였다. 08시경 홍천강변 559고지의 제1대대는 연대규모 병력으로 포위 공격해 온 적에 맞서 3시간 동안 혈전을 전개한 후 포위망을 탈출하여 연대지휘소가 설치된 나산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중공군 제63군의 예비인 제189사단의 집중공격을 받은 좌전방 울업산의 제2대대는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인해 19시에 427고지로 철수, 연대의 방어 정면은 353고지-나산을 연결하는 사단장 강조선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제2연대도 나산 부근에 전초진지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이틀간의 격전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식량과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적이 20시에 총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제1대대는 나산에서, 제3대대는 353고지에서, 제2대대는 427고지에서 전면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접근해 오는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제2연대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방어진지 일부가 돌파되고 통신이 두절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날 밤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문산-포천-춘천을 연하는 토폐카선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사단장은 주저항선을 방어중인 제7연대와 제19연대로 20일 05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강 남안에서 제2연대를 포위하고 있던 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단의 기습을 받고 퇴로 차단을 우려하여 강 북안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아군은 제2연대와 연결한 후 적의 추격에 나섰다.

중부전선의 요충인 용문산 탈취를 위해 3개 사단이 5일 동안 공세를 펼친 중공군은 제6사단 전 장병의 용전분투와 항공 및 포병화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북으로 철수하였으며, 제6사단은 사창리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전략적으로 중부전선에 형성될 수 있었던 적의 돌파를 저지함으로써 전선의 절단을 막아 수도권에 미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 이 전투에서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적의 상습 공격전법의 약점을 역이용하는 사주방어진법을 창안·활용함으로써 대규모의 적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다. 이 전법은 적의 야간인해·과상공격과 우회공격에 대비하여 공병으로 증강된 대대 단위의 완전 사주방어로서 요지를 점거하여 전초선이 아닌 전초구(前哨區)를 형성하고, 적의 야간공격을 각 요지에서 저지하고 낮에는 포화의 집중사격 지원아래 대대별로 국부적인 반격을 가해 전초구를 장시간 지탱, 적으로 하여금 아축의 주저항선으로 오

인케 하여 적의 예비대가 투입되면 사단 주력의 일제반격으로 전구에서 적을 포착·섬멸하는 작전이었다.

이후 사단은 패주하는 적에게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 5월 24일 공격을 재개, 제7연대와 제2연대는 각각 청평강과 홍천강을 도하하여 가평으로 진격하였다. 또한 예비대로 가평에 집결한 제19연대를 우측 산악지대로 우회시켜 적 후방에서 퇴로를 차단하는 협공작전을 펼치도록 하여 도망중인 적을 완전섬멸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은 청평강-홍천강선에서부터 38선까지 공격하는 전투에서 적 추정사살 2만 명, 포로 3,200명과 막대한 장비 및 전리품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용문산전투에 이어 백암산전투를 수행한 장군은 제주신병훈련소장으로 전보되어 열악한 훈련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1952년 8월에는 미 육군참모학교에 파견되어 10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휴전을 한달 앞둔 시점에 금성남방 백암산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제8사단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총공세를 실시하던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휴전을 맞았다.



1997년 6월 23일에 준공된 용문산전투 가평지구 전적비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 이후 1954년 2월 제2군단장으로 전보되어 중서부전선의 5개 사단을 지휘한 그는 육군중장으로 진급하였으며, 1955년 5월 육군본부로 돌아와 기획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 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후 제2군사령관에 임명되어 후방방위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1961년 2월 17일 마침내 육군의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5·16 군사정변’은 장군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계엄사령관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내각 수반을 역임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1961년 8월 22일 정든 군을 떠나게 되었다. 육군중장으로 예편한 장군은 6·25전쟁 당시 지휘관으로서 지도력과 전승에 대한 공로로 은성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한 각종 무공훈장 6회와 미국 등 우방국의 훈장 등 수많은 훈·포장을 수여받은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간 장도영 장군은 1969년 미시간(Michigan)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웨스턴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학문적 업적을 달성하였으며, 현재는 동 대학의 정치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韓 信 육군대장

- /// 1922. 12 함남 영흥 출생
- /// 1946. 12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50. 8 수도사단 제1연대장
- /// 1952. 8 제5사단 참모장
- /// 1953. 5 제5사단 부사단장
- /// 1953. 12 육군준장
- /// 1956. 7 수도사단장
- /// 1959. 12 육군소장
- /// 1960. 2 제2훈련소장
- /// 1961. 5 군사혁명위원, 최고회의 최고위원, 내무부장관
- /// 1963. 7 감사원장
- /// 1964. 8 제6군단장
- /// 1966. 1 육군중장
- /// 1968. 2 육군참모차장
- /// 1968. 8 제2군사령관
- /// 1969. 5 제1군사령관
- /// 1970. 8 육군대장
- /// 1972. 6 합동참모본부 의장
- /// 1975. 3 전역
- /// 1996. 5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강직한 성품의 용장(勇將)으로 널리 알려진 한신 육군대장은 수도 사단 제1연대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중 안강·기계전투에서 낙동강 전선의 돌파를 기도하는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후 반격전이 개시되자 성진·북청·길주·어랑천·청진 등지의 탈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흥남철수작전에서는 뛰어난 지휘·통솔력으로 병력과 장비의 손실없이 질서정연하게 철수작전을 전개하는 역량을 발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요지인 대관령전투에서는 1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과 처절한 사투를 벌여 격퇴함으로써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 공세 이전으로 가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전공으로 장군은 1953년 8월 27일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24호)을 수여받았다.

1922년 12월 27일 함경남도 영흥에서 출생하여 함흥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주오(中央)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장군은 해방과 함께 조국이 분단되는 현실을 체험하고 공산정권을 피해 함흥에서 서울로 월남하였다. 1946년 9월에는 현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교하여 80여일 간의 교육을 받고 12월 14일 군번 10183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었다.

임관과 동시에 춘천의 제8연대에 배치되어 소대장과 중대장 등 초급장교 생활을 경험한 후 군기사령부 행정관을 거쳐 1948년 11월에 제18연대 작전주임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제18연대는 제5연대와 제6연대 일부 병력을 기간으로 11월 20일 포항에서 창설되었으며, 군사영어학교 출신인 최석 중령이 초대 연대장으로 있었다. 연대장

대리로 제18연대를 지휘하고 있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의정부전투와 한강방어선 전투에 참가하였다.

□ 대관령방어전투와 작전 활동

국군의 철수작전이 전개되던 1950년 7월 5일 수도경비사령부가 수도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도사단 제18연대로 예속이 변경된 그는 8월 9일 수도사단 제1연대장에 임명되어 안강·기계전투, 38선 북진작전, 대관령방어전투 등 수많은 격전지를 누비며 명 지휘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낙동강 최후방어선의 요충지였던 안강·기계지구에서는 철수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대장이 독자적으로 철수지점을 선택한 뒤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며 북한군 제12사단의 공세를 저지함으로써 적의 작전계획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국군의 방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획득하게 하여 국군의 방어선 유지와 차후 반격작전 여건 조성에 수훈을 세웠다.

8월 공방전시 안강-기계지구전투에서 수도사단 제1연대는 안강 북쪽의 145, 277, 295고지를 연한 선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중 9월 2일 북한군의 야간침투를 저지하고, 방어 정면으로 접근하는 적을 진전에서 격퇴하면서 다음날 밤까지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북한군 제12사단 예하 증강된 1개 연대는 제1연대의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동쪽의 제8연대 3대대 방어진지를

돌파한 후 자명동으로 진출하였으며, 이미 안강이 적에게 피탈된 상황에서 제1연대는 퇴로가 차단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제1연대장 한신 중령은 9월 4일 호명동 남쪽 2km 지점인 모서동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연대를 모서동이 아닌 호명동으로 철수시켰다.

호명동은 그 북쪽에 낙산(138고지)이 있었는데, 낙산은 주변 일대의 개활지를 감제할 수 있고 형산강이 이 고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감돌며 흐르고 있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적의 도하 예상지점, 낙산교, 포항-경주에 이르는 7번 도로를 제압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신 중령은 연대가 이 점을 포기하고 모서동으로 철수하게 된다면 경주에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스스로 개방해 주는 격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적진 가운데 고립되는 한이 있더라도 호명동, 낙산에서 전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을 격퇴하기로 결심, 예하 지휘관 및 참모에게 연대장의 의도를 설명하고 진지편성에 돌입하여 9월 4일 밤에 완료하였다.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22시경 제1연대는 형산강변에서 도하를 시도하는 북한군 1개 대대를 격퇴하는 한편 낙산 동쪽 3.5km 지점의 부조나루터에서 형산강을 건너 방어진지 우측방으로 우회 공격하는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적을 진전 50~60m까지 유인하여 격퇴하였다.

이 전투로 북한군 제12사단의 작전은 전반적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국군 제1군단과 수도사단은 무릉산-곤제봉-형산강을 연하는 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연과 개연성이 많은 전장에서 지휘관 한 사람의 명석한 판

단과 결심 그리고 이의 시행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예가 되었다.

한편 이 전투를 전환점으로 반격에 나서 38도선을 돌파하고 1950년 10월 10일 원산을 탈환한 수도사단은 북진을 거듭하였다. 제1연대는 연포비행장을 기습작전으로 점령한데 이어 동양 최대의 중공업지대인 홍남을 탈환하고 함흥 좌측으로 부대를 추진시켜 우측 제18연대의 진공을 엄호하면서 함흥에 입성하였다.

제1연대는 북으로 강행군을 감행하며 계속 진격해 나가 북청과 길주를 탈환하고 어랑천 남안에 도달하여 전차 및 기타 중화기로 대규모적인 저항을 감행하는 북한군 제41사단, 제42사단 및 제507여단과 조우하였다. 제1연대 특공대와 기갑연대가 합세했음에도 4배나 되는 적과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이 때 한신 연대장은 과감히 선두에 나서 전차를 파괴하고 백병전을 지휘하는 등 생사를 초월한 실전 통솔을 통해 어랑천을 탈환하였다. 나진을 점령한 후 11월 21일 13시에 주을에서 청진 공격명령이 사단작명 112호로 하달되자, 청진은 과감하고 신속한 한신 대령의 작전에 의해 25일 16시에 완전 탈환되었다.

그러나 연전연승 속에 북진을 계속하던 제1연대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부득이 철수를 단행, 195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철수작전에 돌입하였다. 청진 이북 각처로 배치된 부대들을 집결시켜 장도의 철수를 시작한 한신 대령은 부대를 먼저 철수시키고 자신은 최후까지 진지에 남아 낙오자 등을 수집하는 등 주도면밀한 철수작전을 지휘하였다. 마침내 홍남에 도착한 제1연대는 국군으로는 유일하게 교두보작전에 참가, 연대장의 지휘아래 전 장병은 철수부대의 엄호임무를 침착하게 수행하였으며, 연대의 모든 장비를 하나의 상

실없이 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중공군의 춘계공세가 한창이던 1951년 5월 20일 수도사단 제1연대는 사단작명 제134호에 의해 좌측방의 제3사단 정면을 돌파, 전선을 압박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대관령에 집결하여 반격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전황은 네차레의 공격에 실패한 적이 대병력을 집중하여 일거에 38선을 돌파, 남한 일대를 석권할 기도로 전선의 취약지역인 중동부 산악지대를 돌파해 왔다. 대관령은 중동부로 통하는 유일한 교통로로 이것이 차단될 경우 동해안의 강릉은 순식간에 적 수중에 들어가 중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전략적인 요



지일 뿐 아니라 정예를 자랑하는 중공군 제12군, 북한군 제2군 및 제5군의 혼합 대부대에 의해 전선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다.

제1연대는 군단의 명에 의거 강릉에서 급거 이동하여 2개 대대를 대관령 전사면과 서남쪽에 각각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제20연대와 협동작전을 위해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와 제3대대는 1951년 5월 22일 21시에 각각 계획된 진지에 부대를 배치하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약 30분 후 수 미상의 중공군 선봉부대가 침투해 와 이를 격퇴하였으나, 새로이 침공한 1개 연대 규모와 또다시 혈전을 벌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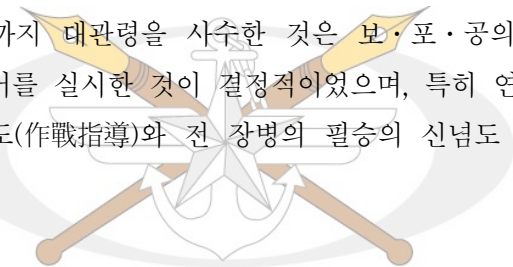
적은 1개 대대 규모로 제3대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다. 전황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지원화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적의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을 아군의 진전 가까이 유인한 다음 보·포 협동으로 일거에 격퇴하기로 결심하였다. 시간이 경과하자 적은 연대장의 판단대로 1개 연대 규모로 급증되어 제1연대의 양 대대 진전까지 육박하였다. 연대는 기선제압사격을 일제히 집중, 적의 선봉을 격퇴했으나 뒤따르던 적이 인해전술로서 공격을 가해옴에 따라 피아간 처절한 혈투가 전개되었다. 무려 3시간 여에 걸쳐 전 장병은 혼연일체로 사투를 벌여 적을 격퇴하였다.

전투가 끝난 후 제1연대가 전력을 재정비하고 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을 때, 적은 새로이 증원된 2개 대대 규모와 합류하여 정면 돌파 대신 배후공격을 기도해왔다. 12시경 적이 아군의 진전 지근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적진 돌파와 함께 수류탄 투척 및 자동화기와 박격포를 집중,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일몰과 함께 진지를 강화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던 22시경 적은 또 다시 야음을 틈타 제3대대 9중대 정면을 2개 대대 규모로 양익포위

를 시도하며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3대대는 미리 준비한 화망과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나 적의 계속적인 쇄도로 피아간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약 2시간의 혈투로 적은 격퇴되었으나 또다시 증원된 적은 삼면에서 포위망을 압축하고 공격을 재개하여 제3대대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상황을 인식한 연대장은 각종 화력으로 적을 집중 강타하고 제1대대로 하여금 적의 배후를 기습하자 적의 선봉은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용기를 얻은 제1대대 및 제3대대 장병은 불같은 투혼으로 육박전을 전개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처럼 제1연대가 이틀에 걸쳐 중공군 대병력을 맞아 혈전을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대관령을 사수한 것은 보·포·공의 입체적인 작전과 결전방어를 실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특히 연대장 한신 대령의 작전지도(作戰指導)와 전 장병의 필승의 신념도 승리에 한 몫을 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 제5사단 부사단장이었던 한신 준장은 1956년 7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수도사단의 사단장으로 영전·부임하였다. 이후 1959년 12월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그는 육군본부 감찰관과 제2훈련소장을 지내고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최고회의의 내무장관에 임명되었다.

1963년 5월 1일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한신 소장은 감사원장과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내고 제6군단장으로 있던

1966년 1월 육군중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전교사령관에 취임하였다. 그 후 1968년 2월 육군참모차장과 제1군 및 제2군사령관을 역임하는 동안 육군대장의 자리에 오른 한신 장군은 1972년 6월 합동참모회의 의장에 발탁되어 약 2년간을 봉직하고 1975년 3월 1일 육군대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예편 후 국영기업의 최고경영자로 국가에 마지막 충성을 다한 장군은 1996년 5월 6일 향년 74세를 일기로 타계,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3-10에 안장되었다.

군내의 주요직책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재우는’ 사병복지의 구현과 이를 통한 교육훈련 제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군의 기강확립과 강군육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합참의장 재직 시절에는 국군 현대화계획을 입안하여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는 큰 업적을 남겼다.

오늘 죽어도 책임을 다하는 1일1생을 좌우명으로 국가와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신 대장은 군의 전투준비, 군기확립, 정군(整軍) 정책, 청렴·결백성의 대명사로 지칭되었으며, 군 내외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강직한 군인이었다.



崔 錫 육군중장

- 
- /// 1917. 10 함남 북창 출생
 - /// 1946. 3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50. 10 제3군단 참모장
 - /// 1950. 10 제1훈련소장 및 육군준장
 - /// 1950. 11 제3사단장
 - /// 1951. 4 제9사단장
 - /// 1953. 5 육군보병학교장
 - /// 1953. 5 육군소장
 - /// 1953. 6 교환귀환자인수본부장
 - /// 1953. 9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
 - /// 1955. 6 제21사단장
 - /// 1956. 7 제3군관구사령관
 - /// 1959. 8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
 - /// 1960. 4 제1군단장
 - /// 1960. 7 제3군단장
 - /// 1961. 1 육군중장
 - /// 1961. 8 예편
 - /// 1982. 7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9사단장 최석 육군준장은 1950년 8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여 군사교육 훈련에 불철주야 매진하였으며, 또한 총반격전의 일익을 담당, 승승장구의 기세로 북한 전역을 석권하여 적을 섬멸하였다. 특히 1951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김화지구의 보개산 및 고대산을 공격 점령하고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는 무훈을 수립함으로써 1954년 7월 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92호)을 수여받았다.

1917년 10월 5일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한 장군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 재학 중 일본군에 징집되어 육군소위로 복무하고 일본의 패망에 따른 ‘무기귀향’ 명령을 받고 제대하였다. 조국의 해방을 맞아 귀국한 뒤 국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병 출신들인 결성한 ‘조선학병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이 친공 좌파 경향으로 운영되자 이에 회의를 느껴 최영희, 김종갑 등과 함께 조직에서 탈퇴하여 학병동맹에 대항하는 ‘학병단’에 가입하였다.

미 군정청이 1945년 국방경비대의 창설 일환으로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하고 모집을 시작하자 동료 학병단원들과 이에 응모하여 합격하였다. 1946년 3월 23일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군번 10075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된 그는 제18연대로 전출되기 전까지 하급 지휘관으로 각 연대창설 과정에 참여하였다.

임관 직후 춘천 출신의 김병휘(金炳徽), 장호진과 함께 4월 1일 창설을 선언한 A중대로 발령을 받아 부임한 최석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모병에도 참여하였다. 당시 제8연대 A중대는 군사영어

학교를 졸업한 김종갑 참위(소위)가 중대장으로 임명을 받고 미군 중대장 제임스 하우스맨(James W. Hausman) 대위와 소위 1명, 김형일, 황현친 참위(소위)와 함께 3월초 춘천에 부임, 군사경력자들을 모병하여 편성된 중대였다.

그 후 1948년 11월 20일 육군중령으로 진급되어 제18연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그는 경북 포항에서 제5연대와 제6연대에서 차출된 장병 37명을 기간으로 조천비행장에서 제18연대를 창설하였다. 제3여단에 예속된 제18연대는 12월 10일 주둔지인 조천비행장에서 대구에 있는 전 제6연대 병사로 이동하는 한편 제6연대 2대대를 편입하였다.

다음해 1월 대구에서 충남 온양의 전 제13연대 병사로 이동하여 제3여단 예속에서 제2여단으로 편입된 제18연대는 6월 6일 연대장 최석 중령을 비롯한 979명이 웅진지역전투에 참전하였고, 7월 1일 연대의 잔여병력이 온양에서 웅진으로 이동하여 제2여단에 합류함과 동시에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되었다. 1949년 7월 15일부로 육군 대령으로 진급한 최석 대령은 연대지휘권을 김종갑 대령에게 인계하고 육군보병학교장으로 취임하여 복무하던 중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 고대산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개전 직후인 1950년 8월 7일 제1훈련소장으로 보직된 그는 반격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10월 24일 제3군단 참모장에 임명되고, 11월 8일에는 육군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제1훈련소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이어 11월 12일 이종찬 준장의 후임으로 제3사단장에 부임한 그는 11월 17일부터 길주-합수를 거쳐 해산진까지 진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 1일 합수-청진을 거쳐 홍남으로의 철수작전에 돌입하여 12월 16일에 완료하였다.

해상철수작전을 통해 부산과 구룡포에 상륙한 제3사단은 12월 15일 “제3사단은 원주로 진출한 다음 인제지구의 38도선상에 배치하여 남진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라”는 제2군단 작명에 의거 홍천에 집결, 북한군 제2군단 예하 병력과 전투를 전개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철수명령에 의거 소백산맥 부근까지 철수한 제3사단은 1951년 1월 14일부터 6일 동안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분기점인 남대리까지 침투한 북한군 제2군단 주력부대를 섬멸하기 위해 전투를 전개하였다. 일명 ‘남대리부근전투’로 알려진 이 전투에서 적 제9사단과 제31사단은 최석 준장의 제3사단에 의해 섬멸되었고, 일부 병력만 평창-원주선으로 도주하였다.

중공군의 2월 공세가 한창 전개되던 2월 제3사단장 최석 준장은 강림-안흥-봉화산진격전을 전개하는 등 적의 공세를 격퇴한 직후 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51년 4월 27일 제9사단장에 보임된 그는 전선에 복귀하자마자 현리지구철수작전에 참여하였으나 후방의 단일 보급로가 차단되고 정면으로부터의 적의 강공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채 하진부리로 철수하였다.

부대정비를 끝낸 제9사단은 중서부 전선으로 이동하여 6월 5일부터 11일까지 미 제1군단장의 지휘하에 철원을 목표로 하는 보개산 및 고대산지구전투에 참가하였다. 제9사단이 공격할 가치항(713고지)-지장봉-고대산 일대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중공군 제65군 예

하 제165사단이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후방의 주저항선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획득할 목적으로 축차진지를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기도하였다.

사단장 최석 준장은 1개 연대로 향로봉을 점령한 후 2개 연대로 병진공격하여 철원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제28연대는 6월 5일 한탄천변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가치항-향로봉선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1개 대대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향로봉으로 진출함으로써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사단장은 6월 6일 좌전방에 제30연대를 투입하여 2개 연대 병진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과 제한된 기동공간, 지장봉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적으로 인해 공격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고전하게 된 우전방의 제28연대는 6월 7일 지장봉을 정면과 양측방으로 포위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다음날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을 격퇴한 사단은 고대산을 쉽게 점령할 것으로 낙관하였으나, 새벽에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제28연대가 점령중인 지장봉을 기습공격함으로써 격전을 전개하였다.

6월 9일 지장봉 북쪽의 402고지와 638고지 일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공격한 사단은 공격개시 이후 최대의 결전을 펼쳤다. 좌전방 제30연대는 수류탄과 총검으로 근접전투를 펼쳐 철원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대광리 북쪽의 천광곡을 점령하였으나, 우전방 제28연대는 우인점 미 제3사단 7연대의 진출이 지연되어 측방 노출이 우려되자 일시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 때 사단의 우인점에서 병진공격한 미 제3사단 7연대는 11일에

야 제28연대와 연결되었으며, 병진공격을 계속한 제28연대는 경미한 적의 저항을 격퇴하고 최종목표인 고대산을 점령함으로써 와이오밍(Wyoming)선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사단은 천광곡-철원간의 와이오밍선을 점령하고 철원을 남쪽에서 감제할 수 있는 능선상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현리전투의 실패를 만회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었다.

8월 15일 제9사단장에서 물러난 최석 준장은 육군대학에 파견되어 다음해 6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제1훈련소 부소장과 육군보병학교장으로 근무하였다. 휴전협정 체결을 눈앞에 둔 1953년 5월 4일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직후 교환귀환자인수본부장에 발탁된 그는 당시 휴전협상과 관련하여 최대 관심사안이었던 포로교환, 즉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라 불리는 상병포로교환의 국군측 인수단장으로 활동하였다.

휴전회담은 스탈린 사망 이후 큰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김일성과 팽덕희는 1953년 3월 28일 “병들고 부상한 포로들을 우선 교환하자”는 클라크 유엔사령관의 한달 전 제안을 수락하여 4월 20일부터 5월 3일 사이 판문점에서 5,194명의 북한군 포로와 1,300명의 중공군 포로가 북으로 송환되고 471명의 국군 포로와 149명의 유엔군 포로가 남으로 귀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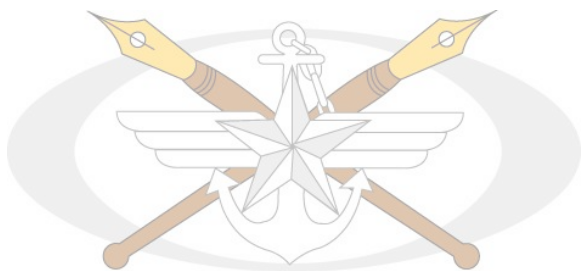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상병포로교환임무를 완수하고 휴전을 맞은 최석 소장은 보병학교장으로 원대복귀한 후 9월에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으로 전보되어 1954년 6월 미 지휘참모학교로 파견될 때까지 재임하였다.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제21사단장으로 복귀한 그는 제3군관구사령관과 제1군 부사령관, 육군본부 관리참모부장,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측 수석대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960년 4월과 7월 제1군단장과 제3군단장에 보임된 그는 다음해 1월 육군중장으로 진급한 후 8월 24일 예비역으로 편입됨으로써 15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였으며, 1982년 7월 29일 65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군내 각 분야의 직책을 두루 역임하면서 군 전반의 질적인 향상

에 주력했던 최석 장군은 6·25전쟁 당시 보여준 뛰어난 작전지휘와 국제적 관심사안이었던 상병포로 교환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능력을 인정받아 1954년 7월 6일 국군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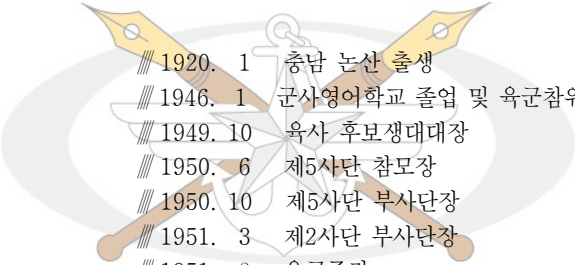
휴전회담과 제한전

1951. 7. 10~1952. 12. 31





朴炳權 육군중장

- 
- /// 1920. 1 충남 논산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10 육사 후보생대대장
 - /// 1950. 6 제5사단 참모장
 - /// 1950. 10 제5사단 부사단장
 - /// 1951. 3 제2사단 부사단장
 - /// 1951. 8 육군준장
 - /// 1951. 8 제9사단장
 - /// 1953. 5 육군소장
 - /// 1953. 6 제5사단장
 - /// 1954. 3 육군사관학교장
 - /// 1955. 8 국방대학 부총장
 - /// 1955. 10 제1관구사령관
 - /// 1958. 8 제6관구사령관
 - /// 1959. 3 교육총본부 제2훈련소장
 - /// 1960. 2 제3군단장
 - /// 1960. 8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 /// 1960. 11 전투병과교육사령관
 - /// 1961. 7 육군중장
 - /// 1961. 7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9사단장 박병권 육군준장은 1951년 1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우수한 통솔력과 탁월한 전투역량을 발휘하여 281고지(화살머리고지)에서 각종 포화의 지원아래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돌입한 중공군 대병력을 격퇴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396고지, 343고지 등에 구축한 견고한 진지를 거점으로 500고지 사수를 획책하는 적을 강타·분쇄하였다. 아울러 적의 강력한 포격으로 통신망이 파괴·두절되어 적정 파악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백병전을 전개하여 395고지와 396고지 등 중요 고지를 축차 점령하였다. 또한 결사대로서 281고지의 확보를 기도하는 적에게 재기불능의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무훈을 수립함으로써 1954년 1월 1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43호)을 수여받았다.

장군은 1920년 1월 8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 연희전문 문과를 졸업하고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일본군 육군소위로 있던 중 조국의 해방을 맞아 귀국하였다. 이후 미 군정하에서 해방된 조국의 창군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왔던 학병 출신들이 결성한 ‘조선학병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좌익 편향적인 단체의 성격을 깨닫고 민기식, 최석 등과 함께 탈퇴, 학병단에 가입하여 학병동맹에 맞서 싸웠다.

그는 1945년 12월 5일 미 군정청이 국방경비대를 창설하기 위해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하자 이에 응시하여 1946년 1월 5일 제1차로 졸업하고 군번 10020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어 부대창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연대 A중대에 이어 제5연대 A중대가 부산시

감천동의 전 일본해군 예과 병사에서 1946년 1월 29일 창설되었다. 박병권 참위는 미군 우드 소령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제5연대 창설의 기초를 다지던 중 이치업 참위가 부임함에 따라 그를 합류시켰다. 창설과정에서 시련이 닥쳐오자 그는 해방 후 사설단체인 ‘경남 국군준비대’의 간부와 진준 경남지부의 군사고문으로 활약한 학병 출신의 오덕준(吳德俊)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 이치업, 오덕준과 함께 본격적인 모병활동을 전개하였다.

A중대의 편성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백선엽 부위가 중대장으로 부임하자 박병권 참위는 중대행정관으로 이치업과 함께 마산·진주 등지에서 B중대의 모병에 나섰다. A중대와 B중대의 편성이 완료된 후 박병권 부위는 9월 10일 송요찬 참위 등 제5연대 대원 123명을 이끌고 제8연대에 편입되어 강릉에서 제8연대 3대대를 편성하였다.

1947년 2월 육군소령으로 진급한 그는 12월 1일 전임 백선엽 연대장에 이어 제3대 연대장으로 다음해 7월 25일 통위부로 진출될 때까지 제5연대를 지휘하였다. 그 후 대령으로 진급하여 6·25전쟁 직전 제5사단 참모장에 임명될 때까지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 281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전쟁이 발발하자 박병권 대령은 제5사단 참모장으로 제1사단과 제7사단을 지원하여 지연전에 참가하였다. 이어 아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을 때 제3군단에 배속된 사단과 함께 포항·지리산·김천·영

주 등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이 다시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한 2월에는 미 제10군단의 ‘라운드 업’작전의 우일선 사단으로 홍천전투에 참전하였다.

1951년 3월 1일 제2사단 부사단장으로 전보된 그는 6월 30일 육군준장으로 진급, 경북 영양의 오미산 일대의 공비소탕작전과 사창리진격전에 참여하였다. 또한 1951년 8월 15일 제9사단장으로 취임해서는 육본직할로 배속이 변경된 사단을 8주간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철원으로 이동시켜 1951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281고지와 395고지에서 전개된 전투를 지휘하였다. 예하의 제29연대는 281고지에서, 제28연대는 395고지에서 공세를 취해 온적을 격퇴하였으며, 이어 사단은 11월 16일부터 2일간 395고지전투를 수행하였다.

10월 5일 미 제1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된 제9사단은 “10월 20일까지 제3사단의 담당정면을 인수하라”는 작전지시에 따라 전선으로 복귀, 제30연대를 우일선, 제29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중강리-유정리-284고지-395고지-281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주저항선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는 반드시 고수해야만 하는 395고지와 281고지가 포함되었다. 우일선인 제30연대의 전투 정면은 3~4km에 달하는 늪지대로서 역곡천의 지류가 여러 갈래로 흐르고 있으며 아군의 감제하에 있어, 두 고지는 사단이 방어선을 지키는 방과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배후의 3번 도로와 43번 도로에 대한 엄호에 필요하며 한눈에 감제되는 철원 일대를 지키는 데 절대적인 고지였다.

11월 3일 23시를 기해 전면 공세능력을 갖춘 중공군 제126사단 예하 제376연대가 218고지에 대해 집중공격을 감행해왔다. 병력수에

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아군은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고지를 적에게 내주었으나, 곧바로 반격을 통해 적을 격퇴하고 281고지를 재탈환함으로써 사단의 보급 및 교통의 중심지인 철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제29연대가 281고지를 탈환하자 사단장 박병권 준장은 적의 재침에 대비해 방어밀도를 증강하기로 하고 연대의 전선을 조정하는 한편 진지를 개수하고 진전에 철조망과 지뢰를 보강하였으며, 전방에 수색거점을 확보하였다.

한편 281고지 탈환에 실패한 중공군 제126사단은 아군 제9사단의 전선정리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395고지를 급습하였다. 적은 공격개시 3시간 전에 395고지 북사면 부근까지 침투하여 매복 대기했다가 공격개시와 동시에 각종 포화의 지원아래 395고지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전법을 사용하였다. 11월 5일 21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중공군 제376연대는 파상적인 공격으로 목표인 395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28연대는 11월 6일 07시를 기해 역습을 감행,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제압하고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사단장 박병권 준장은 대대의 OP가 무너지게 되자 전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깨닫고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그는 우선 병력의 열세로 포위 당하게 된 제1대대 주력의 임의 철수를 명령하는 동시에 이미 저지진지를 점거중인 제28연대 3대대로 하여 즉각 255고지-266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차단진지를 점령하게 하여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적의 침공을 견제 억류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이같이 신속한 조치로 인해 전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역습으로 이전하여 피탈된 고지를 탈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81고지와 395고지에서의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다음해 5월 미 캔사스주 육군지휘참모학교에 파견된 그는 체류하는 동안 육군소장으로 진급하고 1년만에 원대복귀, 제5사단장에 임명되어 일선 지휘관으로 복귀하였다. 휴전협정 체결을 불과 한 달 앞둔 6월 28일 제5사단장에 보임된 그는 압도적인 병력의 우위를 내세워 총공세를 펼치는 적과 백암산전투를 마지막으로 전개하고 휴전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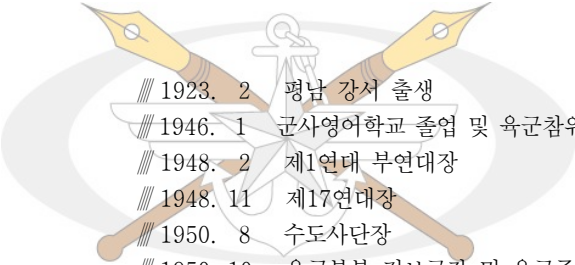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제5사단장으로 중공군의 7월 공세를 저지하고 휴전에 임한 박병권 소장은 1961년 7월 예편할 무렵까지 주로 군 교육분야에 봉직하였다. 1956년 3월 7일 육군사관학교장과 국방대학 부총장으로 연이어 부임하며 전후 국가방위를 책임질 간성을 양성하는데 주력한 그는 제1관구사령관과 제6관구사령관을 거친 다음 또 다시 교육총본부 제2훈련소장에 임명되었다.

장군은 약 1년간의 제3군단장과 육본 인사참모부장직에 보임된 후 군에서의 마지막 직책인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박병권 장군은 1961년 7월 9일 육군중장으로 진급됨과 동시에 예비역에 편입됨으로써 모든 환희와 애환이 서린 군 생활을 마감하였다.



白 仁 燁 육군중장

- 
- /// 1923. 2 평남 강서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8. 2 제1연대 부연대장
 - /// 1948. 11 제17연대장
 - /// 1950. 8 수도사단장
 - /// 1950. 10 육군본부 정보국장 및 육군준장
 - /// 1951. 1 제1훈련소장
 - /// 1952. 1 제6사단장
 - /// 1952. 11 육군소장
 - /// 1954. 6 제9사단장
 - /// 1955. 5 제2훈련소장
 - /// 1955. 9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 및 육군중장
 - /// 1956. 4 제1군단장
 - /// 1956. 9 제6군단장
 - /// 1959. 2 육군본부 관리참모부장
 - /// 1960. 6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6사단장 백인엽 준장은 1950년 9월 22일 아군의 총 반격전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미 제5공군 및 제7사단과 호응하여 한강 북안에서 적을 추차 공격하면서 최선봉으로 수도 서울을 완전 탈환하였으며, 1952년 6월 12일부터 전개된 금성동남지구전투에서는 A고지와 B고지를 생취하는 전과를 수립함으로써 1953년 4월 5일 영예의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00호)을 수여받았다.

1923년 2월 18일 평남 강서군에서 출생한 백인엽 장군은 1943년 3월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경제과를 졸업하고 일군에 징집되어 일본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소위로 복무하던 중 조국광복을 맞아 귀국하였다.

1946년 1월 22일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여 10023의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참위(소위)로 임관, 서울의 태능에 자리잡은 제1연대 A중대 소대장으로 배속되었고 8월에는 광주의 제4연대 D중대장에 임명되었다. 1948년 5월 1일 전북 군산에서 창설되어 10월 1일에 3개 대대로 완편된 제12연대의 부연대장으로 재임하던 백인엽 중령은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2개 대대의 병력을 이끌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순천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11월 4일 연대장 백인기 중령이 산동(山洞)에서 반란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끝에 자결하자 동일부로 연대장 대리로 근무하였으며, 1948년 11월 20일 제7연대 1대대를 기간으로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되어 제7여단에 편입되었던 제17연대의 초대 연대장에 임명되어 6·25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 금성 A, B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 웅진반도에 배치되어 45km에 달하는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던 독립 제17연대는 T-34형 전차 10여대를 선두로 한 북한군 제1사단 14연대와 제3경비여단 등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에 맞서 웅진·강령 일대에서 2일간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독립 제17연대는 194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웅진으로 이동한 2개 대대와 다음해 1월 2일 전북 남원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완료하고 웅진으로 이동해 온 제3대대가 연대와 합류하여 3월 1일부로 해체된 웅진지구전투사령부의 웅진지구 경비임무를 인수한 상태였다.

적의 기습을 받은 제17연대는 초전부터 악전고투하였으나, 개성과 문산지역의 국군부대가 후방으로 철수함에 따라 적중에 고립되었다. 적은 아군에게 재편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여 웅진과 강령을 점령함으로써 작전지역이 양분되었다. 제17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해지자 부대를 인천을 경유하여 수원으로 해상 철수시켰다.

이후 1950년 8월 8일 수도사단장에 임명된 백인엽 대령은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보현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766부대와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으로 구성된 적의 공격을 제8사단과 함께 저지, 적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아울러 영천전투의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보현산전투를 끝내고 제17연대장으로 복귀한 후 10월 24일 육군 준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육본 정보국장 겸 특무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장군은 제6사단장으로 전선에 복귀할 때까지 제2훈련소장과 제주도위수지구사령관을 지냈다. 1952년 1월 10일 장군은 제6사단장으

로 전보되었다. 사단장으로 발령을 받은 시점은 제6사단이 949고지 전투를 끝내고 미 제9군단에서 육본 직할로 배속이 전환되어 작전 지역을 제3사단에 인계하고 12주간의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3월말 교암산-봉화산지역으로 이동하여 미 제40사단과 교대한 제6사단장 백인엽 준장은 A고지와 B고지에서 전초진지쟁탈전에 임하였다. 1952년 6월 12일 제6사단장 백인엽 준장은 04시를 기해 적의 전진거점을 형성한 금성 동남쪽 2.5km에 위치한 A고지와 금성 동남쪽 2km의 B고지를 쟁취하여 적의 계속적인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진 진지선을 확대하여 금성 동남쪽의 무명고지군과 개활지, 고진목리-오리동 일대의 적을 제압하기로 하고 군단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제2연대로 하여금 A고지와 B고지를 제한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의 일부와 제35사단의 일부로서 병력은 대략 6,000명에 이르며, 제32포병사단의 주력과 단대호 미상의 전차 10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주공제대인 제2연대 1대대 2중대는 목표인 A고지와 B고지의 정면으로 은밀하게 진출하였으나, 기습공격을 눈치 챈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A고지를 탈취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B고지를 공격한 특공조가 적의 화력거점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파괴한 후 돌격을 감행하였다. 협공을 받은 적은 제대로 저항할 겨를도 없이 도주하여 09시 05분에 B고지를 완전 탈취하였다.

한편 A고지에 대한 공격제대가 목표를 목전에 두고 진전이 없자 연대장은 공중지원과 TOT 사격을 요청하고 아울러 공격제대의 측방 경계임무부대에서 특공대를 선발하여 우측방을 공격하도록 조치

하였다. 정면과 서측방에서 적을 공격한 중대는 12시 25분 A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연대는 6월 12일에 공격을 감행하여 A고지와 B고지를 생취하고 계속 제3대대를 우일선, 제1대대를 중앙, 제2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주저항선을 확보하는 한편 제7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하여 제9중대 1개 소대의 지원하에 A고지와 B고지의 전초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A고지와 B고지를 피탈당한 적은 금성-고진목리-경파리-오이동 일대는 물론 탄감리-용암리-경파리-금성 정면으로 이르는 도로와 탄감리-오이동-중화평에 이르는 작전도로가 모두 감제하에 놓여지게 되고 금성 동측방으로 펼쳐진 개활지 일대가 완전 제압되기에 이르자 12일 20시 50분부터 역습을 시도하고 13일과 14일에도 계속적으로 침공을 자행하였으나, 제7중대를 비롯한 아군의 근접전으로 격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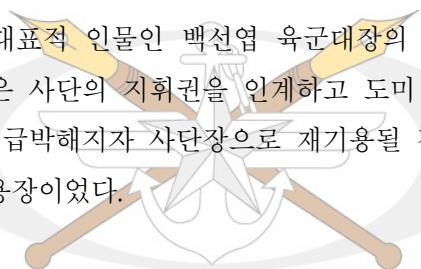
이후 중공군 제31사단 91연대는 6월 18일 19시 30분 제32포병사단 주력의 포병지원과 전차 6대의 직접지원 아래 1개 대대 병력으로 고진목리에서 A고지와 B고지를 목표로 공격하였다. 이때 A고지에는 제1소대와 제11중대의 1개 소대가 전진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포병의 유효적절한 지원과 과감한 근접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사단장 백인엽 준장은 수차에 걸쳐 일진일퇴하는 격전이 거듭되자 직접 최전방까지 나와 진두지휘하면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으며, 적 사상 157명, 포로 8명, 추정사살 139명과 소총 63정, 기관총 2정, 박격포 2문, 수류탄 2,000여 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수립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도미유학 대기 중 제6사단으로 발령을 받았던 백인엽 소장은 휴전이 성립된 직후 도미하여 미 육군지휘참모학교에서 약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귀국, 1954년 6월 제9사단장에 임명되었다. 1년여의 전방 사단장으로서 재임하고 교육총본부 제2훈련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장군은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을 거쳐 1956년 4월 제1군단장에 임명되었다. 이어 제6군단장, 육군본부 관리참모부장을 역임한 후 1960년 6월 24일 육군중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어 군문을 떠나게 되었다.

6·25전쟁의 대표적 인물인 백선엽 육군대장의 실제(實弟)이기도 한 백인엽 장군은 사단의 지휘권을 인계하고 도미 유학을 대기하고 있던 중 전황이 급박해지자 사단장으로 재기용될 정도로 발군의 전투역량을 지닌 용장이었다.





李 龍 文 육군소장

- 
- /// 1916. 1 평남 평양 출생
 - /// 1948. 11 육군사관학교 입교 및 육군소령 임관
 - /// 1948. 11 육군 기갑단장
 - /// 1949. 7 육군본부 정보국장
 - /// 1949. 10 웅진지구전투사령관
 - /// 1949. 10 육군참모학교 부교장
 - /// 1951. 6 육본 작전교육국장
 - /// 1951. 8 육군준장
 - /// 1951. 3 제9사단 부사단장
 - /// 1952. 7 수도사단장
 - /// 1952. 10 남부지구경비사령부 사령관
 - /// 1953. 6 전사
 - /// 1953. 6 육군소장(추서)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금성천 북쪽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확보하고 있던 수도사단은 1952년 7월 20일부터 10월 1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중공군 제12군 예하의 제34사단과 제35사단의 공격을 받아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다섯 차례의 공방전 끝에 진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쌍방은 수 천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전투에서 사단장 이용문 준장은 탁월한 통솔력과 과감한 전투정신을 발휘하여 적을 격퇴하고 피탈되었던 고지를 탈환한 공로가 인정되어 1953년 7월 17일 군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17호)이 장군의 사후(死後)에 추서되었다.

1916년 1월 22일 평양시 대신동에서 출생한 장군은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하고 일본 육사(50기)에 진학하여 기병소위로 임관되었으며, 일본이 패망할 무렵에는 소령으로 남방전선에서 근무하였다.

조국으로 돌아온 뒤 친지들의 권유로 1948년 11월 육사 7기 특임으로 입교하여 12290의 군번을 부여받고 소령에 임관된 그는 한 달 후에는 중령으로 진급하여 초대 기갑단장이 되었다. 1949년 4월 다시 대령으로 진급한 그는 1949년 7월 백선엽 장군에 이어 제2대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49년 10월 장군은 북한군과 국군 사이에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던 웅진지구전투사령관으로 부임하였으나 곧바로 전보되어 비교적 한직이었던 육군참모학교 부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전투와 작전 활동

육군참모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이용문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연락 겸 독전요원으로 서울방어선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6월 28일 밤 제3사단 참모장 김종갑 대령과 함께 성북경찰서에서 약 500명의 장병을 지휘하여 적과 맞서던 중 북한군 전차부대의 공격을 받고 부대는 분산되었다.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는 데 실패한 그는 게릴라전을 전개할 목적으로 일부 부하들을 이끌고 남산으로 들어갔으나, 식량과 장비 등 모든 여건이 적합하지 않자 부하들을 해산하고 시내로 잠입하였다. 적이 점령했던 3개월의 기간을 서울에서 은닉하는 동안 그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후에는 군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제9사단 부사단장으로 발령을 받은 1951년 3월 무렵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제9사단에 연대 단위로 군단 후방지역으로 복상하고 있는 북한군 패잔병의 소탕임무를 하달함으로써 이용문 준장은 이성가 사단장을 보좌하여 송계리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다. 두타산을 경유하여 청옥산 부근으로 적이 이동하자 사단은 제28연대를 송계리에 투입, 제29연대와 함께 적을 공격하여 격퇴하고 잔적을 추격하던 중 임무를 제3군단에 인계하였다.

1951년 4월 25일 제3군단에 배속변경되어 인제, 현리간의 도로를 포함한 한석산 서측지역을 담당하던 제9사단은 5월 7일부터 10일에 걸쳐 매봉산과 한석산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공격으로 인한 현리전투가 시작되었고, 아군은 전투지경선이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문 부사단

장은 “무질서하게 후퇴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제9사단과 제3사단을 통합하여 선두에서 지휘하였다. 또한 그는 이 전투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에 임하였다. 당시 제9사단 30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이근양 중령은 “중공군에 포위되어 사령부와 통신이 두절되자 항상 휴대하고 다니던 야전전화기를 숲 속으로 가져가 찾아낸 전화선에 전화기를 연결, 직접 사령부와 통화를 하였다”고 경험담을 말하였다. 이처럼 이영문 장군의 실전에 기초한 질서 있는 철수지휘는 제9사단이 반격을 가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현리전투에 참여한 뒤 6월에 준장으로 승진하여 육본 작전교육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52년 7월 11일 수도사단장으로 보임된 이영문 장군은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전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방어전에 임하게 되었다.

포로송환 문제로 휴전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적은 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 아군에 대한 강력한 국지공격을 감행해왔다.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 수도사단, 제3사단을 배속받아 1951년 적의 추계공세 때 제한공세작전에서 국군이 확보한 금성-북한강 동안까지의 전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군단의 방어중점은 금성의 통제를 최우선으로 주저항선의 주요 고지군을 확보하여 북한강으로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봉쇄하고 주저항선 전방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 현 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다. 적은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이 국군 제6사단 전방에 그리고 제35사단이 수도사단 전방에, 제68군 제203사단이 국군 제3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치국면 중에 제2군단장 백선엽 중장이 1952년 6월 10일 각 사단에 적정탐지와 적진파괴 및 교란을 목적으로 한 제한목표공

1952년 7월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전투상황



격인 ‘백쇼트 작전’을 지시함으로써 전초진지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이 선제공격에 적의 하계 및 추계공세가 이어짐으로써 1952년 후반에는 군단 전역에서 전초진지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무렵 수도사단은 6월 16일에 있는 군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군단 중앙의 주저항선과 575고지, 지형능선, 수도고지 등을 전초로 운용하면서 좌전방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26연대를 배치하고 예비대로 제1기갑연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사단 정면에는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산악유격전이 능숙한 중공군 제35사단이 572-495-594-747-714-748-472고지선의 동굴화된 진지에 배치되어 피아는 울사리-쌍령동-여호고개-좌수동-북한강을 잇는 횡격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게 되었다. 이 중 적의 일부 전초는 계곡을 넘어 지형능선 하단과 여호고개 남쪽 621고지까지 추진되어 아군의 방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백쇼트 작전’을 하달 받은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7월 8일 적의 두 전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1연대 3대대가 지형능선을, 제26연대 2대대가 621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고지 정상을 장악하였으나 적의 역습으로 물러났고, 지형능선을 향한 제3대대도 능선 하단 3개의 무명고지를 차례로 석권하였으나 적의 집중적인 반격으로 백병전을 펼친 끝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지형능선과 수도고지에 대한 제한공격이 무위로 끝난 후 전선은 8월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1952년 8월 5일 적은 사단 주저항선에 일대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한 후 중대 규모의 병력이 수도고지 북사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제26연대 3대대 11중대가 2차례나 적을 격퇴하였으나 전초소대의 붕괴로 주진지인 663고지로 철수하자 적은 663고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도고지에 대한 쟁탈전이 수 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7월 9일부로 사단장에 부임한 이용문 준장은 제1연대 2대대를 제26연대에 배속시켜 주진지를 강화하였다. 7월과 8월 한 차례의 공방전이 전개된 후 8월 중순에는 다시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9월 6일 적은 맹렬한 공격준비사격을 가한 후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수도고지 좌우 계곡으로부터 공격을 해왔다. 이 고지를 방어중이던 제26연대 2대대 5중대는 병력의 열세로 고지를 내주었고, 연대의 여섯 차례에 걸친 탈환전은 모두 실패하였다. 이에 탈환임무를 부여받은 제1연대는 공군의 근접지원과 군단 포병의 지원하에 목표를 탈환하는데 성공하고 적의 반격을 물리치면서 고지를 사수하였다.

한편 지형능선에서는 기갑연대가 적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9월 6일 적은 기갑연대 제5중대의 지형능선과 제6중대가 배치된 575고지에 1개 중대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능선상의 전초소대는 많은 피해를 입고 능선을 적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후 연대는 탈환을 위해 6차례의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9월 14일 제1연대 2개 중대의 일곱 차례의 역습으로 탈환에 성공한 후 9월 20일까지 진지를 사수하였다.

1952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계속된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전투에서 이용문 준장이 이끄는 수도사단은 2,40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대전과를 획득하며 승리로 이끌어 좌수동 계곡을 감제할 수 있는 관측상의 요충을 확보할 수 있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용문 장군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교훈적인 요소들을 “수도고지의 전훈”이란 제목으로 기



수도고지전투에 투입된 제1연대 2대대 장교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단장 이용문 준장

록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열한 적 포탄에는 중전과 같은 유개호로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다. 보통 1야드 이상 두께의 유개가 요구되며 가급적 동굴식 호가 필요하였다. 둘째, 역습공격시에는 역습부대가 적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돌발적인 적정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치열한 적 포격의 포연과 폭연으로 인하여 소총이 작동되지 않아 사격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포탄 낙하가 상상 외로 치열한 관계로 산병(散兵)의 소총은 파편에 파괴되어 변형되므로 총검은 사전에 착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공방전은 주로 백병전이었으므로 소총의 효력은 전혀 발휘될 수 없었으며 수류탄만이 산병의 유일무이한 무기가 되었다. 공격시에는 15발 이상, 방어시에는 80발 이상 가급적 다수의 수류탄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공격 돈좌시 축차적인 부대 투입을 반복하여 동일한 실패를 거듭하였는데 차

후 이러한 부대운용은 삼갈 것이며, 일거에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과 결심이 요구된다. 여섯째, 주간공격의 실패는 대부분 적의 포화로 공격이 둔화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희생을 많이 내었으며, 숙련된 부대를 제외하고는 돌격 개시 후에 신속히 일거에 적 진지 돌입이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일곱째, 포병의 지원사격 없이 은밀히 실시하는 야간공격은 이번 전투에서 성공하였으며, 특히 미명 공격은 아군에 유리함으로 차후 교육에 참고하도록 한다. 여덟째, 치열한 적탄 낙하시의 부대 재편성에 요구되는 축성자료로는 특히 마대를 각 산병에 10매 이상 지참케 하여 최단시간내에 개인호를 축성함이 희생을 적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아홉째, 부대 배치는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목표를 점령케 하고 주력을 예비대로서 적 포탄 집중지역 외에 유치케 하고 대비한다. 열째, 전투 손실원 중 다수가 보급운반에서 희생되었는데, 차후 이같이 치열한 전투시에는 보급운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수도사단장 이용문 준장은 10월에는 전북 남원에 주둔하고 있는 남부지구경비사령부 제2대 사령관으로 전보되어 지리산 등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나, 이듬해인 1953년 6월 24일 전북 남원 운봉 북방 15km 지점에서 항공작전 지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전사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정부는 1953년 6월 23일 고 이용문 육군준장을 육군소장으로 추서하고, 이어 7월 17일에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국가가 위

기에 봉착하였을 때 전심전력으로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였다. 현재 이 장군의 유해는 수유리 선영에 안장되어 있다.

1952년 5월 부산정치파동 당시 국방장관의 병력차출 지시를 정치적 이유라고 거부하기도 했던 장군은 1952년 7월 11일 수도사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작전교육국장직을 떠나는 이임식에서 “군인은 정치에 개입해선 안된다. 정치에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활달하고 영웅적인 기상과 넓은 포용력을 겸비했던 장군은 정의감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슴 가득 간직한 호남아였다. 가까이서 그를 대했던 유양수 장군은 “파격적이고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러면서 사물을 넓게 보고 먼 데까지 내다 볼 수 있는 특출한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우리 군의 선배로서 오래 살아 계셨다면 그 뒤의 일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군대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이 장군이 살아 계셨다면 하고 아쉬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라고 이 장군을 회고하였으며, 또한 백행걸 장군도 “매사에 적극적이고 낙천적이며, 돈에는 무관심할 만큼 청렴결백하시고,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요”라고 장군의 성품과 면모를 설명하였다.



李 亨 根 육군대장

1920. 2	충남 공주 출생
1946. 1	국방경비대 육군정위(대위) 임관
1946. 5	국방경비사관학교장 겸 군기사령관
1946. 10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겸 군기사령관
1948. 2	통위부 참모총장
1949. 2	육군준장
1949. 2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1949. 6	제8사단장
1950. 6	제2사단장
1950. 10	제3군단장
1951. 4	육군소장
1951. 8	휴전회담 한국대표
1952. 1	제1군단장
1952. 5	육군중장
1954. 2	합동참모회의 의장
1954. 8	육군대장
1956. 6	육군참모총장
1958. 8	예편
2001. 1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이형근 육군대장은 1952년 1월 제1군단장에 부임한 이래 동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동부전선 최북단 돌출고지인 351고지에서 북한군 제1군단 및 제3군단과 치열한 혈전을 전개하면서 우수한 통솔력과 탁월한 군사전략으로 고지를 사수하고 적 사살 445명, 포로 및 투항 5명과 82mm 박격포 2문 등 수많은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수립함으로써 1953년 5월 18일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06호)을 수여받았다.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대한민국 육군 ‘3大將’ 중의 한 축인 이형근 장군은 1920년 2월 충남 공주에서 미국계 상사를 운영하던 개화가정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는 오늘날의 경기고등학교인 경성제일고보에 입교한 후 다시 고향 인근의 청주고보를 거쳐 일본 육사(56기)에 진학하였으며, 일본군 야포병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조국의 광복을 맞게 되었다.

귀국후 고향 인근의 대전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중, 1945년 11월 미 군정 당국으로부터 “한국군의 모체인 조선 국방경비대에 참여하라”는 끈질긴 권유와 이용준 장군의 권고를 받고 국군 최초의 간부 양성기관인 군사영어학교에 입교, 군번 1번의 육군정위(대위)로 임관되었다. 1946년 2월 대전의 제2연대 창설에 전념한 그는 두 달 후 소령으로 진급과 동시에 국방경비사관학교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9월에 다시 제2연대장으로 복귀했으나 채 한 달도 안되어 초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겸 군기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948년 2월 대령으로 진급하여 통위부 초대 참모총장에 오른 그

는 한국군 최초로 미 조지아주의 포토 베닝 미 육군보병학교의 고등군사반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그러던 중 준장으로 진급과 함께 주미 한국대사관 초대 무관에 임명되어 대미 군사원조 획득을 위한 군사외교에 나섰다.

1949년 6월 귀국 후 강릉에서 신설될 예정이었던 제8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사단창설에 주력하였으며, 6·25전쟁 발발을 5일 앞둔 1950년 6월 20일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사단장에 보임되었다.

□ 351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전쟁이 발발하자 이형근 장군은 5연대 제2대대를 이끌고 의정부 전선에 투입되어 서울방어에 임했다. 그러나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이 한강 이남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자 이형근 준장은 새로운 명령에 따라 이천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계속되는 후퇴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군·경 약 3,000명을 혼성연대로 편제한 이형근 장군은 밀려오는 적과 육박전을 전개하여 적 500여 명을 사살하고 17명을 생포하였으며, 2대의 전차를 파괴하는 전과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다른 전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된 이천지구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가 이동해 있던 대전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형근 준장은 미국에서 숙지한 작전요령에 따라 단 한 명의 병력손실도 없이 질서정연한 철수작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전남관구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중앙훈련본부장을 거쳐 1950년 10월 새로 창설된 제3군단의 군단장직을 맡게 된 그는 미 제9군



1950년 6월 28일 오전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북한군 보병 대열

단과 교대하여 후방 보급로 확보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음해 8월에는 한국측 대표로 휴전회담에 참여한 후 1952년 1월 제1군단장에 보직되었다.

제1군단장으로서 그는 지상전선 및 동해안 해안선에 대한 공격과 국군 증강계획에 따른 3개 전투사단 창설에 나섰으며, 특히 수복지구에 대한 군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1952년 7월에는 동부전선 최북단 돌출고지인 351고지에서 북한군 제1군단 및 제3군단과 맞서 싸워 고지를 사수하는 전공을 수립하였다.

제11사단 및 제5사단으로 구성된 국군 제1군단은 전선 최동단의 방어를 위해 남강 남안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북한군 제1군단 47사단 및 제9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군단 우익 554고지부터 감호까지 고성 남쪽을 담당한 제5사단의 정면에는 고성 남쪽의 월비산을 점

령하고 있던 적이 351고지 등 제5사단의 전초와 주저항선을 공격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952년 7월초 군단 예하 제5사단장 장창국 준장은 제36연대를 좌전방, 제35연대를 우전방, 제27연대를 예비대로 재배치하고, 351고지 전초진지 방어를 담당한 제35연대는 주저항선에 제2대대만을 배치하고 전초진지에 제1대대와 제3대대를 배치하여 전초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반면에 북한군은 제9사단 86연대를 국군 제35연대 정면에, 제47사단 2연대를 국군 제36연대 정면에 배치하고 소규모 수색정찰활동과 보급품 수송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었다.

작전지역은 고성까지 북으로 돌출되어 있으나 남강의 방호를 받고 351고지에서 554고지까지 일련의 능선에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아군에게 유리한 지형이었다. 그러나 적은 고성 남쪽에 배수진을 형성하고 월비산을 확보하고 있어 국지적으로 감제·관측의 이점이 있었다. 기상조건은 대체로 청명하였으나 아침에는 짙은 안개로 관측이 불가능하여 기습작전에 유리한 반면, 포병 및 항공지원에는 불리하였다.

북한군 제9사단 86연대는 351고지 공격에 앞서 월비산과 351고지 사이에 있는 무명고지에 수색대와 정찰대를 투입, 매설된 지뢰와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7월 10일 22시 북한군 제86연대의 대규모 공격 준비사격이 개시된 후 대대 규모의 정예부대가 351고지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자 이곳에 배치된 제3대대 9중대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고 말았다.

다음날 사단수색중대와 제27연대 2대대를 제35연대에 배속시킨 사단장은 즉시 1개 대대로 역습을 가하도록 하였다. 주저항선에 투입된 제27연대 2대대가 11일 14시 15분에 동서 양측방을 우회하면

서 능선을 따라 적전(敵前)으로 진출하였으나 적의 측방화력과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으로 실패하였으며, 이어 제3대대의 몇 차례 공격도 좌절되었다.

7월 12일 사단장은 교대된 제27연대로 하여금 351고지를 탈환하도록 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제35연대에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연대는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는 것처럼 양동작전을 편 후 제2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전개하였다. 대대는 제5중대를 동측방에서 돌격하게 하고 제7중대를 서측방으로 투입하여 공격개시선에 진입시키고, 제6중대를 중앙에서 후속하게 하였다.

제5중대는 지형상 특공대를 투입하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동측진지를 완전 점령하고 정상을 향해 돌진하였다. 좌일선의 제7중대도 서측방 능선을 따라 전진, 반대편의 제5중대가 돌격을 감행할 때 동시에 돌격을 개시하여 주봉을 탈환하였다.

이로써 351고지는 만 3일간에 걸쳐 전개된 수 차례의 공방전으로 붉게 물들었으며, 제5사단은 이 전투에서 적 445명을 사살하고 82mm 박격포 2문을 노획하는 등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 전투는 경계의 중요성과 지원화기의 운용에 관한 문제를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적은 351고지를 쟁취할 목적으로 침공 4일전부터 351고지와 무명고지 사이에 매설된 지뢰와 철조망을 제거하였으며, 침공 전날도 정찰대와 공병들이 이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아군은 경계 소홀로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였다.

또한 아군은 목표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화력운용계획이 필요했다. 적보다 우세한 지원화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보병투입으로 불필요한 인력손실을 초래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협정 조인으로 전쟁이 일단 종결되자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합동참모회의 의장에 오른 이형근 장군은 2년 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1958년 8월 16일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이후 필리핀,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특명전권대사로서 외교 사절의 중책을 완수한 장군은 2002년 1월 13일 운명을 달리하였으며, 장군의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11에 안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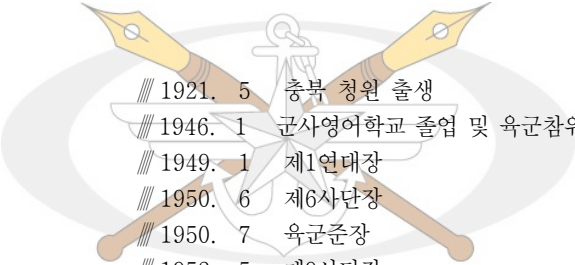
그는 생전에 은성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한 태극무공훈장 2회, 대한민국 일등수교훈장, 미 은성훈장과 최고지휘훈장, 프랑스 최고지휘훈장, 그리스 원정군훈장 등 국내외의 수많은 훈장을 수여받을 정도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군을 사랑했다.

이형근 장군의 그러한 정신은 그가 국군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조선의 마지막 왕인 영친왕의 “한국이 일본에게 합병을 당한 것은 국력, 특히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또한 문존무비(文尊武卑)의 전통사회에서 결과된 유약한 민족성을 개조하는 도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군이 기여할 수 있다는 소명의식에 있었다.

“군인은 절대로 정치와 정치인의 사병(私兵)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국군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토방위에만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참모총장 이임사를 통해 자신의 군인관과 애군심을 나타낸 진정한 군인이자 명장이었다.



金 鍾 五 육군대장

- 
- /// 1921. 5 충북 청원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1 제1연대장
 - /// 1950. 6 제6사단장
 - /// 1950. 7 육군준장
 - /// 1952. 5 제9사단장
 - /// 1952. 9 육군소장
 - /// 1954. 2 제1군단장
 - /// 1954. 10 육군중장
 - /// 1956. 9 제5군단장
 - /// 1960. 10 국방부 연합참모본부 총장
 - /// 1961. 6 육군참모총장
 - /// 1962. 1 육군대장
 - /// 1965. 4 예편
 - /// 1966. 3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김종오 육군소장은 제9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주도면밀한 작전 계획아래 험준한 지형과 불순한 기후 등 제반 악조건을 극복하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경주해 오던 중,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된 백마고지전투에서 적의 강력한 포화를 무릅쓰고 진두지휘하여 중공군 2개 사단을 완전 궤멸시키는 대전과를 수립함으로써 1952년 12월 2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79호)을 수여받았다.

김종오 장군은 1921년 5월 22일 충북 청원에서 출생, 일본 주오(中央)대학에 재학 중 일본군에 징집되어 육군소위로 조국의 해방을 맞았다. 귀국 후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하여 1946년 1월 28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참위(소위, 군번 10031)로 임관, 창군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임관 직후 그는 전북 이리에서 중대장 김백일 부위(중위)를 비롯한 이한림, 정래혁 등과 함께 국군 제3연대 창설에 참여하였다.

1949년 1월 제1연대장 취임 직후인 3월에 대령으로 진급하여 북한군 1개 대대를 유인 섬멸했던 사직리전투의 승전 등 큰 전공을 세우고 6·25전쟁을 불과 며칠 앞둔 1950년 6월 10일 제6사단장에 보직되었다.

□ 백마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제6사단장에 부임한 직후 6·25전쟁이 발발, 춘천에서 인제에 이르는 90km의 넓은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게 된 장군은 지원화기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탁월한 방어작전으로 6월 29일까지 춘천-홍천지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이는 서부전선의 국군 주력부대들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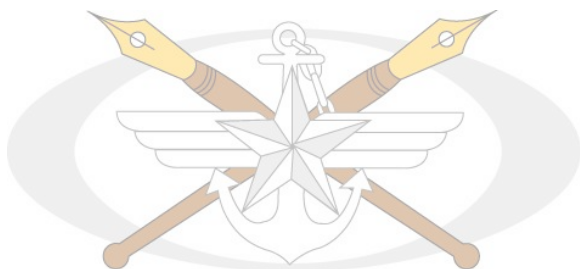
육군본부 명에 의거 춘천에서 철수한 제6사단은 충주, 수안보전투에 이어 1950년 7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음성부근전투에서 북한군 제15사단 48연대를 궤멸시키는 대전과를 거두었으며,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김종오 사단장은 7월 15일 육군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적의 과상공격에 맞서 축차적인 철수를 전개하던 제6사단은 문경, 점촌, 용기동, 군위지구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적을 저지하였고, 낙동강전선에서는 신령 부근을 확보하여 북한군 제8사단을 재기불능 상태가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히고 반격작전에 돌입하였다. 북진작전에 나선 김 장군은 중부전선으로 북상하여 1950년 10월 하순에는 초산과 희천을 점령하는 등 북진 경쟁에서 선두를 달렸으나 불의의 차량사고로 인해 후송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그후 제6사단장으로 많은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김종오 장군은 1952년 5월 30일 제9사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6·25전쟁 사상 가장 치열한 진지전이었던 백마고지전투를 진두지휘하였다. 1952년 10월 철원 북방 395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9사단은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고 12회에 걸친 뺏고 빼앗기는 처절한 사투를 벌여 10월 15일 최종적으로 적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하였다.

1952년 10월 6일 철원 북방의 395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았다. 제9사단은 1년 전인 1951년 10월 17일 철원지역의 주저항선에 투입되어 좌로는 백마고지라 불

1952년 10월 395고지(백마고지) 전투상황



리는 395고지, 우로는 중강리까지 11km의 철원평야를 방어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38군 예하 제114사단 340연대 및 제324연대가, 좌인접 미 제2사단 정면에는 제113사단이 그리고 제112사단이 제38군 예비로서 수정덕산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의 주저항선은 대부분이 철원평야를 가로지르는 개활지였으며 좌단의 395고지 부근만 구릉으로 이어져 있었으나, 효성산(619)을 비롯한 유리한 고지들을 적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아군의 방어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9월 22일 주저항선 방어를 위해 좌전방에 제30연대, 우전방에 제29연대를 배치하고 제28연대를 예비대로 확보하면서 배속받은 제51연대를 대대단위로 운용하였다. 특히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제30연대는 395고지에 제1대대를, 중마산 일대에 제2대대, 역곡천 남안에 예비 제3대대를 배치하였다.

당시 아군은 적이 395고지를 탈취하여 철원평야를 제압하고 차기 대공세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며 철원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중부전선에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10월 3일 귀순한 중공군 군관이 “중공군 제114사단이 10월 4~6일 사이에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자 사단은 395고지 방어를 위해 2개 대대 병력을 증강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10월 6일 아침부터 국군 제9사단 정면에 포격을 집중하던 적은 프랑스대대가 배치된 395고지 서남방 3km 지점의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 데 이어, 19시 15분 국군 제30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395고지의 주봉과 북쪽 능선에 제114사단 예하 제340연대의 1개 대대 병력을 각각 투입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30연대

는 세 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다음날 밤 2개 대대 병력으로 395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중공군은 전초진지를 포위하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국군 제30연대는 부득이 고지 정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나, 2시간 후 제28연대가 역습을 감행하여 고지를 재탈환하였다.

10월 8일 새벽 중공군은 예비대인 제112사단 334연대를 투입하면서 제5차 공세를 가해왔고, 짙은 안개로 포병 및 항공지원을 받지 못한 국군 제28연대 장병들은 08시 10분에 주봉을 피탈당했다. 그러나 사단은 17시에 제28연대 3대대를 투입, 8시간 여의 격전을 거듭한 후 주봉을 재탈환하였다.

9일 밤 자정이 지나자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은 재개되었고, 3시간 여의 파상공격으로 인해 03시경 주봉과 우측 능선이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날이 밝자 사단은 고지 정상에 17,700발의 포탄과 공습을 집중하면서 예비대로 있던 제29연대에게 역습을 지시, 자정 무렵에는 주봉을 점령할 수 있었다.

10일 04시에 재개된 전투는 피아간의 수류탄 투척전과 백병전이였다. 처절한 전투가 지속되면서 국군 제29연대 1대대가 주봉에서 9부 능선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나, 제2대대의 증원으로 역습을 실시하여 06시 30분 정상을 재탈환하였다. 이처럼 10월 11일 밤부터 15일 까지 피아간에 공격과 반격이 지속되었으며, 15일 국군 제28연대가 고지를 탈환하고 제29연대가 395고지 북쪽 낙타능선상의 전초진지를 탈환함으로써 적을 완전 격퇴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9사단은 10월 6일부터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아 연 10여 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고 7회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전개한 끝에 395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

공군 제38군은 1만여 명이 전사 및 부상, 포로가 되었으며 국군 제9사단도 3,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단장은 전투기간 중 적시적절한 예비대의 투입 및 부대 교대 등으로 부대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고,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목표탈취를 위한 투지를 견지하도록 독전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또한 강력한 포병 및 항공력의 최대지원을 이끌어 부대원의 사기를 진작하였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9사단은 철의 삼각지를 지배하기 위한 적의 전략적 기도를 꺾고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철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백마고지지역은 동서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와 서울로 연결되는 기계화부대의 기동로가 이 곳에서 교차되고, 중부전선 일원에 걸친 병력의 이합집산이 용이한 공간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장악은 곧 전술적 우위를 의미하였다.



백마고지(395) 전경

반면에 백마고지를 상실하면 철원평야와 주요 도로인 3번, 463번, 464번 도로 등을 내놓고 4km 후방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으며, 상기의 이점을 모두 적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아군은 측방과의 연결이 어려워 작전에도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백마고지의 확보는 오늘날까지도 철원평야에서 현재의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전선 후방의 철원-김화-화천에 이르는 측방도로를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

1952년 6월부터 모든 전선에서 전개된 고지쟁탈전 양상이 일반적으로 적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어 고지를 상실하면 아군은 이를 탈환하는 형식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아군은 고지를 아예 포기하거나 일부만을 탈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로 이 시기에 중공군이 백마고지를 공격해왔고, 그 규모도 가장 컸다.

적이 노리는 회심의 일전을 국군 제9사단 장병들이 격파함으로써 적은 능력의 한계를 느낀 반면에 아군은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저격능선전투와 같은 선제공격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사실상 이 두 지역의 쟁탈전을 끝으로 전 전선에서 열기가 가라앉게 되었다.

한편 백마고지전투는 병력의 손실로 인한 신병보충과 전투부대의 적절한 교체시기 그리고 보전협동과 항공 및 포격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를 노출한 전투이기도 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군의 간성을 양성하는데 주력하며 육군사관학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전을 맞은 장군은 이후 제1군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1954년 2

월 육군중장이 되었다. 교육총본부 총장, 합참의장, 그리고 참모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김종오 장군은 1962년 1월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65년 4월 군문(軍門)을 나선 1년 후인 1966년 3월 지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장군의 유해는 현재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2-1에 안장되어 있다.

장군의 일생은 6·25전쟁과 군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초기전투 당시 좀더 중요한 지역의 지휘관이었다면 6·25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갖는 6·25전쟁의 영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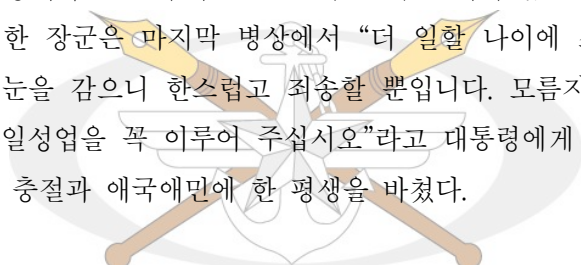
이처럼 불세출의 명장인 김종오 대장의 일생도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군 만을 생각한 고단한 삶이었다. 그의 인생관이나 생활철학, 군 복무신념, 국가관 등은 다음의 일화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학창시절, 결코 유복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던 김종오 장군이 일본 유학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을 공부하여 검사나 판사가 되는데 있었다. 그 동안 무지해서 억울하게 일본인에게 수탈을 당하고 짓밟히는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평생을 받치겠다는 일념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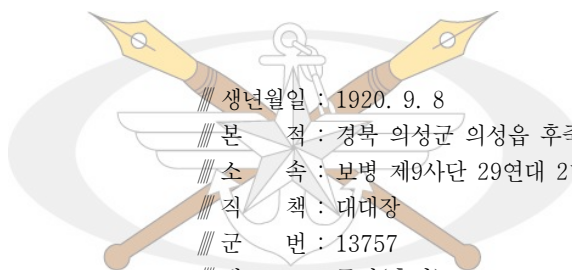
군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자세 또한 군의 귀감이 아닐 수 없었다. 38선 경계임무를 맡은 뒤부터 완벽한 방어배치와 진지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장군의 이러한 용의주도하고 치밀함은 당시 사단장 부관으로서 함께 전쟁터를 누빈 진종채 장군의 회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그분은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다. 무슨 일을 하든 빈틈이 없고 또한 책임감이 강해 모시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고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희비(喜悲)의 내색도 없고 화내는 일도 별로 없었다”고 장군을 회상하였다.

또한 김 장군은 탁월한 전투능력과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자상한 지휘관이었고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는 결코 싸워서 패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지연전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전략,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자질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 제2군단장이었던 김무정의 충주방어선 돌파를 위한 독전 내용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6사단을 박살내어야 한다. 사단 중에 사단은 그것 하나다. 그것만 잡아 족치면 우린 중부 이남을 확 쓸어버릴 수 있다. 밀어 족쳐서 6사단을 격멸하고 사단장을 포로로 잡아 오라”고 독전할 정도였다.

조국의 장래와 통일의 염원을 간직한 채 45세의 젊은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장군은 마지막 병상에서 “더 일할 나이에 조국통일도 못해보고 눈을 감으니 한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모르지기 평생의 소원인 통일성업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충절과 애국애민에 한 평생을 바쳤다.



金 慶 珍 육군중령



/// 생년월일 : 1920. 9. 8
 /// 본 적 :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721번지
 /// 소 속 : 보병 제9사단 29연대 2대대
 /// 직 책 : 대대장
 /// 군 번 : 13757
 /// 계 급 : 중령(추서)
 /// 주요전투 : 백마고지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4. 6. 25)

□ 백마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백마고지는 철원평야의 서북단에 위치한 표고 396m의 독립고지이며, 넓은 평야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감제의 절대적인 이점을 지닌 작전상의 요지였다.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제38군 예하 3개 사단은 10일 동안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고 하루 평균 5만 발에 가까운 포탄이 작렬하는 세계전사에 유례가 없는 고지공방전을 전개하였다.

1952년 10월 11일 국군 제9사단 29연대 2대대장이던 김경진 소령은 사단장으로부터 불과 1시간 전 제1대대가 물러났던 정상확보를 위한 역습명령을 하달받았다. 김 소령은 고지를 확보한 중공군이 진지를 굳히기 전에 역습을 감행하기 위해 제5중대를 주공으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역습 선봉에 선 제5중대가 탄막에 걸려 정상을 100m 앞둔 지점에서 주춤하고 있을 때, 대대장은 중대원을 독려하기 위해 포복으로 전진해 나갔다. 악전고투하는 부하들에게 지휘관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들의 전의를 북돋우려 하였던 것이다.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부하장병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는 부하들이 악전고투하며 쓰러져 가는 것을 대대장이라 해서 뒷전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병들과 더불어’라는 지휘철학으로 생사의 고비를 헤쳐나가고자 했던 김경진 소령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정상을 20여m 앞둔 지점에서 적의 박격포탄에 의해 장렬히 산화하였다. 1954년 6월 25일 정부는 김경진 소령에게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78호)을 수여하였으며, 1983년 5월 11일 그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교묘역 29-3170에 안장되었다.

백마고지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철원 북방의 395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10일간의 혈전을 통해 격퇴한 전투이다.

제9사단은 1951년 10월 17일 철원지역의 주저항선에 투입되어 좌로는 395고지(백마고지), 우로는 중장리까지 11km의 철원평야를 방

어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38군 예하 제114사단 340연대 및 제324연대가, 좌인접 미 제2사단 정면에는 제113사단이, 그리고 제112사단이 제38군 예비로서 수정덕산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의 주저항선은 대부분이 철원평야를 가로지르는 개활지였으며 좌단의 395고지 부근만 구릉으로 이어져 있었으나, 효성산(619)을 비롯한 유리한 고지들을 적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아군의 방어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사단은 9월 22일 주저항선 방어를 위해 좌전방에 제30연대, 우전방에 제29연대를 배치하고 제28연대를 예비대로 확보하면서 배속받은 제51연대를 대대단위로 운용하였다. 특히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제30연대는 395고지에 제1대대를, 중마산 일대에 제2대대, 그리고 역곡천 남안에 예비 제3대대를 배치하였다.

당시 아군은 적이 395고지를 탈취하여 철원평야를 제압하고 차기 대공세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며 철원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중부전선에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10월 3일 귀순한 중공군 군관이 “중공군 제114사단이 10월 4~6일 사이에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자, 사단은 395고지 방어를 위해 2개 대대 병력을 증강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10월 6일 아침부터 국군 제9사단 정면에 포격을 집중하던 적은 프랑스대대가 배치된 395고지 서남방 3km 지점의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 데 이어, 19시 15분 국군 제30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395고지의 주봉과 북쪽 능선에 제114사단 예하 제340연대의 1개 대대 병력을 각각 투입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30연대는 세 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다음날 밤 2개 대대 병력으로 395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중공군은 전초진지를 포위하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국군 제30연대는 부득이 고지 정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나, 2시간 후 제28연대가 역습을 감행 고지를 재탈환하였다.

10월 8일 새벽 중공군은 예비대인 제112사단 334연대를 투입하면서 제5차 공세를 가해왔고, 짙은 안개로 포병 및 항공지원을 받지 못한 국군 제28연대 장병들은 08시 10분에 주봉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단은 17시에 제28연대 3대대를 투입하여 8시간 여의 격전을 거듭한 끝에 주봉을 다시 탈환하였다.

9일 밤 자정이 지나자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은 재개되었고, 3시간 여의 파상공격으로 인해 03시경 주봉과 우측능선이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날이 밝자 사단은 고지 정상에 17,700발의 포탄과 공습을 집중하면서 예비대로 있던 제29연대에게 역습을 지시, 자정 무렵 주봉을 점령하였다.

10일 04시에 재개된 전투는 피아간의 수류탄 투척전과 백병전이였다. 처절한 전투가 지속되면서 국군 제29연대 1대대가 주봉에서 9부 능선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나, 제2대대의 증원으로 역습을 실시 06시 30분 정상을 재탈환하였다. 이처럼 10월 11일 밤부터 15일까지 피아간에 공격과 반격이 지속되었으며, 15일 국군 제28연대가 고지를 탈환하고 제29연대가 395고지 북쪽 낙타능선상의 전초진지를 탈환함으로써 적을 완전 격퇴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9사단은 10월 6일부터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아 연 10여일간 12차례의 고지쟁탈전을 반복하고 7회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벌인 끝에 395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제38군은 1만여 명이 전사 및 부상, 포로가 되었으며 국군 제9

사단도 3,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제9사단은 전투기간 중 적시적절한 예비대의 투입 및 부대교대 등으로 부대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최악의 위기속에서도 목표탈취를 위한 투지를 견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포병 및 항공화력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9사단은 철의 삼각지를 지배하기 위한 적의 전략적 기도를 꺾고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경진 소령은 백마고지를 탈취·확보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1952년 10월 6일 제9사단장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고지의 주인공이 여러 차례 뒤바뀌자 역습을 실시하여 백마고지 정상을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10월 11일 제29연대 2대대장 김경진 소령에게 역습명령을 내렸다. 정상 바로 남쪽 남측면의 낮은 능선에서 역습명령을 받은 대대장 김 소령은 고지 정상을 차지한 중공군이 진지를 보강하기 전에 신속히 역습을 감행하기로 하고 제5중대를 주공으로 하고 제6중대와 제7중대를 조공으로 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역습의 주공인 제5중대는 돌격과 동시에 적의 탄막에 걸려 정상 100m 전방에서 공격이 일시 중단되었다. 정상을 새로 차지한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이 제5중대를 향하여 박격포와 직사화기를 집중하였던 것이다. 대대장 김경진 소령은 제6중대를 제5중대의 좌측으로 진출시키고 대대장 자신도 직접 최전방으로 나아갔다. 제5중대장이 있는 곳까지 포복으로 나아가 중대를 독려하며 지휘관이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자 이에 용기를 얻은 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다.

10시 20분경 정상 20m 전방까지 접근한 김경진 소령이 최후의 돌

격사격을 실시하려는 순간, 적의 박격포탄 두 발이 날아와 근처에서 작렬하였다. 포탄의 작렬과 함께 한 조각의 파편이 대대장을 향해 날아들어 하복부를 강타하였다. 대대장의 하복부는 일순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었고, 한 마디의 말도 남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장렬히 산화하였다.

백마고지의 정상을 눈앞에 두고 발생한 이 폭발로 김 소령뿐 아니라 지휘부 요원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제5중대와 제6중대는 과감히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를 완전히 탈환하였으며, 결국 나흘 뒤에 제9사단은 백마고지전투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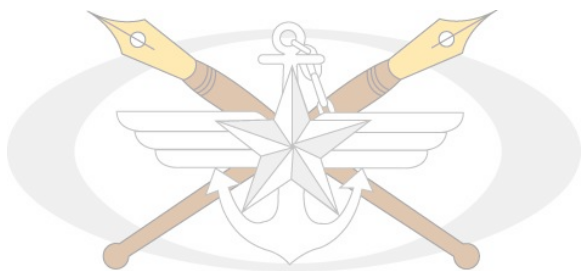
이 전투는 철원평야에서 현재의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전선 후방의 철원-김화-화천에 이르는 측방도로를 장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적이 노리는 회심의 일전을 격파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한 의의를 지닌 전투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20년 9월 8일 경북 의성에서 출생한 김경진 소령은 일본의 八女중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군에 입문하기로 결정한 그는 육사(8기생)에 입교하여 1949년 5월 23일 육군소위로 임관되었다. 이후 제9사단에 소속된 김경진 소령은 1951년 12월 7일 제29연대 2대 대장으로 보임되어 다음해 10월 백마고지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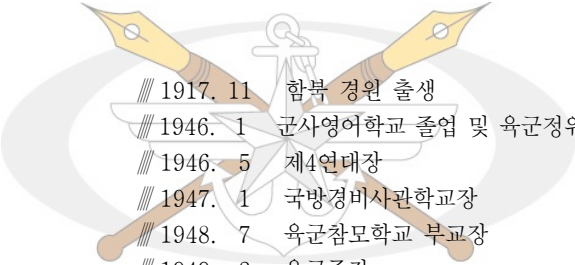
전장에서 대대장 김경진 소령은 언제나 가장 고전하는 중대로 먼저 달려가 부하들을 격려하곤 했는데, 이는 그의 끈끈한 부하애(部

下愛)의 발로였다. 그는 대대 장병들을 지휘통솔의 한 방편이 아닌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으며, 믿음과 사랑으로 돌본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丁 一 權 육군대장

- 
- /// 1917. 11 함북 경원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정위(대위) 임관
 - /// 1946. 5 제4연대장
 - /// 1947. 1 국방경비사관학교장
 - /// 1948. 7 육군참모학교 부교장
 - /// 1949. 2 육군준장
 - /// 1950. 7 3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 /// 1950. 7 육군소장
 - /// 1951. 2 육군중장
 - /// 1952. 7 제2사단장
 - /// 1952. 11 미 제9군단 부군단장
 - /// 1953. 2 제2군단장
 - /// 1954. 2 육군총참모장
 - /// 1954. 2 육군대장
 - /// 1956. 6 연합참모본부 의장
 - /// 1957. 5 예편
 - /// 1994. 1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정일권 육군대장은 6·25전쟁이 발발한 후 다급하고 혼란스런 상황하에서 3군 총사령관과 육군총참모장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육·해·공군 협동작전의 묘를 발휘하였으며, 계엄령의 실시로 후방 치안의 확보와 인적·물적 동원의 원활을 기하여 총반격전이 개시되자 수십만의 북한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또한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김화지구 저격능선에서는 제2사단장으로서 사단 전 장병을 진두지휘하면서 무려 17회의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10,000여 명에 달하는 적을 살상하고 기타 각종 무기 등 방대한 전리품을 노획하였으며, 저격능선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아군의 전면작전을 유리하게 유도하였다. 이러한 전공으로 그는 1953년 4월 4일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02호)을 수여받았다.

정일권 장군은 1917년 11월 21일 함경북도 경원에서 출생하였다. 그곳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로 건너가 중학과정을 마치고 만주 봉천군관학교를 거쳐 일본 육사(55기)를 졸업한 그는 소위로 임관되어 만주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던 중 일본의 패망을 맞게 되었다.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 동북지구의 한교보안대(韓僑保安隊) 편성을 주도하며 교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경 주둔 소련군에 구류되어 시베리아로 연행되어 가던 중 열차 안에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평양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였다.

해방된 조국의 국군창설 대열에 참여하여 1946년 1월 15일 군사영어학교 제1기생으로 졸업함과 동시에 육군정위(대위, 군번 10005)로 임관, 제1연대의 창설 중대장으로 활동하고 같은 해 육군소령으

로 진급하여 제4연대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조선경비대 참모장, 국방경비사관학교 교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과 육군참모학교 부교장을 역임하고 1949년 마침내 33세의 나이에 육군준장으로 진급하였다. 그는 육군본부 참모부장과 참모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여·순 10·19사건의 반란군소탕작전에 참전하였다.

□ 저격능선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특명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군사시설을 시찰하고 귀국하던 도중 6·25전쟁 발발에 관한 급보를 받은 정일권 준장은 귀국 보고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7월 1일부로 3군 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직을 부여받는 한편 육군소장으로 진급하였다. 3군 총사령관으로서 장군은 유엔군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유지하여 전국(戰局)의 열세를 낙동강방어선에서 극복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으로 압록강변까지 선봉부대를 진출시키는 지휘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국이 급변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북한지역으로부터 철수를 단행, 38도선에서 전선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육군중장으로 진급한 1951년에는 중공군의 두 차례에 걸친 춘계공세를 물리치고 전선이 교착되기 시작하던 7월에 미 육군참모대학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다. 미 육군참모대학을 수료하고 귀국한 장군은 제2사단장으로 중동부전선의 요충인 저격능선전투를 직접 지휘, 승리로 이끌었다.



맥아더 원수, 리지웨이 대장과 전선을 시찰하고 있는 제2사단장 정일권 중장

별다른 접전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해오던 중서부전선의 철원-김화 지구에서는 1952년 가을로 접어들며 적이 아군초소에 대대적인 선제공격을 가해옴으로써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이 지역에서 개시된 전투 양상의 특징은 철의 삼각지대에서 유리한 통제권 확보를 위해 철원의 백마고지에서는 적이 그리고 김화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에서는 아군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양상이었다.

김화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2사단은 하감령에서 동북쪽으로 하소리에 이르는 주저항선에서 오성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공군 제15군 45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적 제45사단은 오성산에서 김화로 뻗어 내린 고지상에 전초진지를 설치하였고, 그 중 미 제7사단 및 국군 제2사단의 전초진지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삼각고지(598)와

저격능선(580)의 전초는 아군의 진지를 감제·관측할 뿐만 아니라 김화 방어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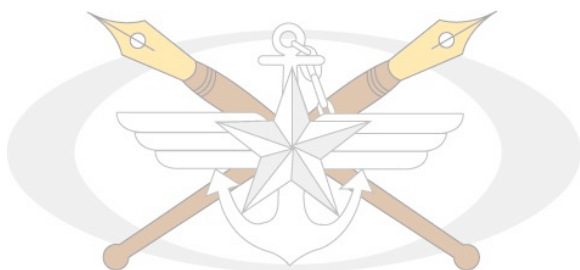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적이 1952년 가을에 아군 전초진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해오자, 미 제8군사령관은 적을 수세로 몰아넣고 아군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하고 중공군 전초 중 삼각고지와 저격능선 2개소의 탈취를 목표로 하는 ‘쇼다운(showdown)작전’의 실시를 미 제7사단과 국군 제2사단에 명령하였다. 이 작전은 군단의 화력과 항공근접지원을 최대로 투입하여 단기에 작전을 종료하는 계획이었다.

1952년 6월 29일부로 김화지역에 진출한 제2사단은 남대천 북방의 능선을 따라 편성한 주저항선에 제32연대, 제31연대, 제17연대를 배치하고 제37연대를 예비로 확보하면서 제32연대를 저격능선 남쪽에 배치하였다. 반면에 적은 중공군 제15군 예하 제44사단 및 제45사단을 저격능선, 그 전방에 제145사단 133연대를 배치하였다.

표고가 580m인 저격능선은 국군 제2사단의 정면에 위치한 약 500m 길이의 능선으로 남쪽 봉우리인 A고지와 북쪽 봉우리인 Y고지, 동으로 뻗은 돌바위능선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1952년 10월 14일 05시를 기해 군단 예하 16개 포병대대 280문의 포가 일제히 공격준비사격을 시작함과 동시에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정일권 중장이 지휘하는 제2사단의 좌익 제32연대의 예비인 제3대대는 제9중대 및 제10중대를 좌우 공격부대로, 제11중대를 예비로 하여 저격능선으로 향했다. 06시경 매봉과 돌바위고지까지 진출한 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에 봉착하였으나 15시 20분 저격능선상의 중심목표인 Y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반격도 예상롭지 않았다. 중공군 제45사단 133연대가

1952년 10월 저격능선 전투상황



야간에 반격을 가해와 치열한 백병전을 치른 끝에 병력의 열세로 철수하게 되었다.

다음날 사단장이 제17연대 2대대에 다시 공격임무를 부여하자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를 탈환한 제17연대 2대대는 적의 역습으로 목표를 또다시 피탈당했다. 10월 16일 사단장은 제17연대 2대대와 제32연대 2대대에게 협조된 공격작전을 전개토록 지시하여 목표를 탈취하고 중공군의 역습까지 물리쳤지만, 3일간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10월 19일 저격능선을 빼앗겼다. 10월 20일 이후에도 같은 양상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제2사단은 적시적절한 부대교대를 통해 저격능선 확보에 안간힘을 썼다.

한편 10월 25일부로 제2사단은 미 제7사단의 삼각고지를 인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의 작전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제2사단은 예비인 제37연대를 주저항선 우측의 외야동에 배치하고 이 지역을 담당하던 제31연대를 삼각고지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제31연대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고지를 상실한 후 이를 탈환하기 위해 수 차례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병력의 손실만 가중되고 저격능선마저 위협받게 되자 11월 5일부로 삼각고지 탈환작전을 중지하였다.

저격능선작전에 주력하게 된 제2사단은 11일 A고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제32연대를 저격능선에 투입하였으나 제1대대가 중공군의 공격에 A고지를 상실하였고 이후 수 차례의 반격도 실패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17연대에 탈환임무를 부여하고 제1대대가 즉시 공격에 나서 2시간에 걸친 과감한 돌격전으로 A고지와 돌바위고지를 탈환하였다.

11월 13일 22시경 중공군이 대규모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한 후 2

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A고지를 공격하자 제17연대 1대대는 1시간 반 동안의 혈전을 전개한 후 분산 철수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제3대대로 반격을 개시하여 A고지를 확보하였으나 돌바위고지를 탈환하는데는 실패하였다. 17일 07시에 제2대대는 포병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개시하여 2시간의 접전 끝에 돌바위고지를 탈환, 제17연대는 저격능선상의 A고지와 돌바위고지를 완전 점령하였다.

11월 25일까지 적의 반격은 계속되었으나 제2사단은 이를 모두 격퇴하고 제9사단에게 방어임무를 인계하였다. 군단의 작전으로 전개된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전투는 각각 1개 대대의 병력만으로 5일 내에 종결할 의도로 전개되었으나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거의 전 병력을 투입, 42일간이나 지속한 전투로 변모하였다. 결국 군단은 중공군 제15군의 강력한 방어외지로 삼각고지의 탈환을 포기한 채 저격능선만을 확보하게 되었다.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저격능선전투의 승리는 유리한 전초진지의 확보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전 전선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휴전회담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전략적 의미가 있었다.

한편 이 전투는 신병 운용상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6주간의 장기전으로 전개된 저격능선전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차적으로 병력이 투입되었으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새로 전입된 신병으로서 전투가 격화되면 고참병에게로 물려들기 일쑤고, 지휘관들도 신병의 얼굴을 익히지 못해 애로가 많았다.

병력운용에 있어 숫자적인 개념만으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예비대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병은 일정기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다음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 전투는 보여주었다.

저격능선전투 이후 미 제9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던 정일권 중장은 1953년 2월 국군 제2군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제2군단장에 발탁된 가장 큰 배경은 중공군의 춘계공세에 이어 휴전을 앞두고 예상되는 최후공세를 분쇄하는데 있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임박하자 적은 전쟁에서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점을 세계에 부각시키기 위해 또한 금성돌출부의 국군을 제거하기 위해 중공군 4개 군 예하의 12개 사단을 동원하여 7월 13일 최후의 공세를 펼쳐왔다.

중공군 6개 사단이 돌출부 양견부를 돌파하여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국군 5개 사단은 적의 포위망 속에 놓일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자 제2군단장 정일권 중장은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돌출부의 기저선인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하여 신방어선을 형성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국군은 중공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신방어선 형성에 실패, 7월 15일 저녁에 제2군단은 진현리-삼현-주파리-수동령-고둔골-고비운리를 잇는 신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신방어선에서 적을 저지한 후 미 제8군사령관은 금성천 확보를 위한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제2군단장은 전방 3개 사단을 반격으로 이전하기로 결심하고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좌전방 제11사단은 진현리 663고지-삼현 602고지선을 점령하고, 중앙의 제8사단은 별우-성동리까지의 금성천을 확보하며, 제5사단은 7·13공세 이전의 북한강 서남지역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7월 19일 제2군단은 반격작전을 실시한 지 3일만에 금성천을 확보하고 반격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7월 20일에 군단예비 제7사단을 투입하여 적의 주접근로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6사단으로 하여 우전방 제5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시켜 군단 우익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금성돌출부작전에서 제2군단은 와이오밍선 전방에서 적의 공세를 저지한 후 반격으로 이전하여 금성천을 확보한 채 휴전을 맞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정일권 장군은 군단급 부대를 동일 작전지역에서 방어·철수·반격 등 일련의 작전 형태를 전환해가며 지휘, 적 15개 사단의 공세를 저지하고 대반격작전을 통해 금성천을 회복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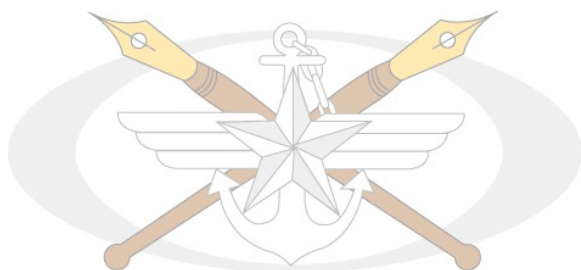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전쟁이 끝난 1954년 2월 육군대장에 오른 그는 제8대 육군참모총장에 보임되어 휴전 후 육군 전력증강의 중책을 담당하고 대미 군사외교에 진력하며, 연합참모본부 의장을 거쳐 1957년 5월 18일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예편 후에도 그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 및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정·관계에서 헌신적으로 국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정일권 장군은 생활방식과 태도 면에서도 많은 후배 장교들의 모범이었다. 언제나 단정한 복장에 의연한 걸음걸이로 후배들로 하여금 가장 본받고 싶은 육군지휘관의 표상이 되었던 장군은 누구든지 항상 미소로 맞으며 한번도 높은 언성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신사였다. 남의 장점은 공개적으로 높이 칭찬하지만 대신에 단점은 덮어주는 아량의 소유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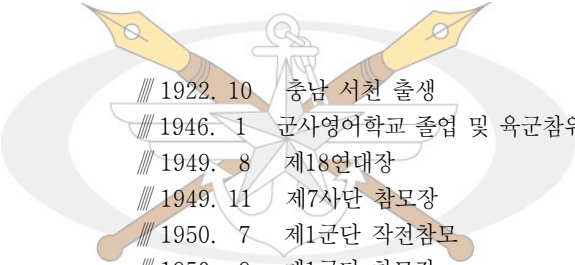
또한 국군 창설 초기 모든 제도와 기본정책을 제정하고 확립하기 위해 미 육군의 인사행정에 관한 서적을 섭렵하여 미 육군의 인사행정원칙과 우리의 현실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합리적인 면

을 보이기도 했던 장군은 1994년 1월 77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였으며, 그의 유해는 현재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3-4에 안장되어 있다.





金 鍾 甲 육군중장

- 
- /// 1922. 10 충남 서천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8 제18연대장
 - /// 1949. 11 제7사단 참모장
 - /// 1950. 7 제1군단 작전참모
 - /// 1950. 9 제1군단 참모장
 - /// 1950. 9 육군준장
 - /// 1950. 12 제9사단장
 - /// 1951. 3 국민방위국장
 - /// 1951. 5 제5군단 부군단장
 - /// 1951. 11 제2훈련소장
 - /// 1952. 8 제5사단장
 - /// 1953. 1 육군소장
 - /// 1955. 7 육군대학 부총장
 - /// 1956. 7 육군중장
 - /// 1956. 7 예편
 - /// 1996. 11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5사단장 김종갑 육군소장은 1952년 8월 1일 사단장으로 취임한 이래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여 오던 중, 1952년 11월 9일 전개된 작전에서 적의 2개 대대 병력을 추격 분쇄하고 351고지탈환작전에서 적을 격퇴시킨 후 고지를 완전 탈환, 전면작전의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1953년 5월 18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07호)을 수여받았다.

1922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서천에서 출생한 그는 연희전문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일본군에 징집되어 포병소위로 근무하던 중 일본의 패망에 따른 ‘무기귀향’ 명령을 받고 조국으로 귀환하였다.

귀국한 이후 학병 출신들이 결성한 ‘학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그는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다음해 1월 28일 졸업, 10030의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참위(소위)에 임관되었다. 임관 직후인 2월 8일 춘천에 있는 제8연대의 A중대장으로 임명됨과 아울러 연대창설의 임무를 부여받고 하우스만 대위와 소위 1명 그리고 김형일(金炯一), 황헌친(黃憲親) 참위(소위)와 함께 3월초 춘천에 부임, 모병을 통해 4월 1일 A중대를 창설하였다. 이후 1946년 12월 7일 원용덕 대령이 제8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부연대장에 오른 김종갑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총사령부에서 근무하였다.

1947년 12월 1일 김종갑 소령은 최남근(崔楠根) 소령의 후임으로 제6연대장에 부임하였다. 그는 제8연대를 창설한 후 총사령부 작전국장과 군기대사령관에 재직 중 연대장으로 진보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하인 김종원(金宗元) 중위와 최홍희(崔泓熙) 소령이 벌인 수도경찰청장 장택상(張澤相)과의 언쟁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통위부

고문 프라이스(Terrill E. Price) 대령이 제6연대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었다.

제6연대장으로 부임한 김종갑 소령은 1948년 6월 15일 제3대대를 편성하여 연대를 완성하였고, 동년 6월 27일 연대 내에 ‘중화기학교’라 지칭되었던 제1훈련학교를 개설하여 훈련소장을 겸직하며 미군이 경비대에 이양한 기관총, 박격포, 2.36인치 로켓포, 중기관총 57mm에 대한 교육을 실시, 연대를 현대화된 부대로 탈바꿈시켰다.

그러나 7월과 8월 제주도진압작전에 참가했던 연대내에서 11월 2일 반란이 발생하자 연대장 김종갑 중령은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 이를 수습하고 1949년 1월 육군사관학교 생도처장으로 전출되었다. 이어 1949년 8월에 보병학교로 전임된 최석 대령의 후임으로 제18연대장에 임명되었으나 불과 3개월 만인 11월에 후임을 임충식 중령에게 인계하고 제7사단 참모장으로 전보되었다.

□ 351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6·25전쟁이 발발하자 김종갑 대령은 제1군단 작전참모와 참모장으로 취임, 군단장 김홍일 소장을 보좌하며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총반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육군준장으로 진급하는 영광을 맞기도 하였다.

1950년 12월 30일 김종갑 준장은 제9사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사단은 10월 25일 서울에서 창설되어 후방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대전-원주-진부로 이동하여 서림리-현리-부평리 간의 38도선을 방어하는 한편 일부 병력으로 설악산-오대산지역에서 북한군

유격대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해가 바뀌자 중공군의 강력한 공세가 시작되었다. 일명 중공군의 ‘신정공세’라 불리는 이 공세로 김종갑 준장은 사단을 이끌고 현리-속사리-춘양으로 철수하였다. 1월 19일 제1군단에서 제3군단으로 예속이 변경되어 춘양-장성-하진부리로 진격을 감행한 제9사단은 2월 12일부터 개시된 중공군의 2월 공세로 하진부리에서 철수하여 정선-창리를 잇는 선에서 방어에 돌입하였으며, 3월 3일 사단장 김종갑 준장은 국민방위국장에 임명되어 제9사단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국민방위국장과 제5군단 부군단장, 제2훈련소장 등 주로 후방근무 직위에 임명되었던 그는 1952년 8월 1일 제5사단장으로 취임, 전선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당시 제5사단은 중동부전선의 작전지역을 제3사단에 인계하고 양양으로 이동하여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동해안 거진으로 진출, 제11사단을 교대하여 제1군단의 우익으로 캣트(cat)선을 방어하던 중 7월 10일부터 351고지에서 북한군 제9사단의 공격을 맞아 치열한 혈전을 전개하였다.

351고지는 김일성이 “금강산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월비산은 확보하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월비산과는 동쪽으로 2km 지점에 있으며, 이 월비산을 거점으로 그를 연하는 동쪽 능선 일대와 월비산 동쪽 2km의 무명고지, 그리고 동북쪽의 148고지-187고지는 351고지에서 감제 당하며 특히 무명고지는 1km의 최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 반면 제5사단의 입장에서는 351고지를 기점으로 동측방과 남쪽을 연하는 주봉에 전진진지를 구축하고 있어 이 고지를 잃게 될 경우 cat선에 직접적인 위협이 미치게 되어 동부전선이 위태롭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고지는 공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까닭에 기필코 고수해야만 하는 요충으로서 휴전 성립시까지 확보와 쟁취를 놓고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1차전을 종료한 장창국 전임 사단장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김종갑 준장은 일부 부대를 해체하여 전력을 정비하였다. 제2차 월비산전투에서 실패한 적은 장기간 전선에 투입되어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공격을 위한 특수편성과 장비까지 갖춘 제9사단 85연대의 증강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11월 9일 351고지를 공격해왔다.

351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27연대 2대대 9중대는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육박한 적과 치열한 혈전을 벌였지만 적의 인해전술에 밀려 철수함으로써 351고지를 적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며, 이어 전개된 역습도 완강한 적의 저지로 실패하였다.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351고지를 탈취한 적은 계속 확보할 목적으로 진지를 보강하고 화력거점까지 보완하였다.

아울러 적은 다음날 01시 30분에 제1대대가 방어중인 345고지와 263고지에도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전황을 예의 주시하던 사단장 김종갑 준장은 제27연대만으로는 현 주저항선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면서 351고지를 탈환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군단장의 결심을 얻어 예비대인 제36연대 병력을 주저항선에 증원하기 위해 사단작명을 하달하였다.

351고지를 점령한 적은 이 무렵 345고지, 195고지, 154고지 등 도처에서 양공을 벌여 역습부대 병력과 지원화력의 분산을 꾀하면서 지휘관의 전황판단을 흐리게 하고 한편으론 351고지에 병력증원과 화력증강을 시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351고지 탈환임무를 맡은 제2대대는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제36연대 2대대에 인계하고 각 중대

를 철수하여 대강리에 집결한 다음 장비를 점검하면서 세부 공격계획을 세웠다.

07시 10분 공격제대인 제6중대와 제7중대는 함포와 지원포격이 351고지 정상을 강타하는 가운데 저항선을 출발하였다. 제7중대는 208고지 쪽에서 연결된 교통호를 따라 적진을 향해 전진하였으나 351고지를 점거한 후 진지보강과 장애물 가설, 화력거점을 완비한 적의 맹렬한 포격에 의해 3부 능선에서 진출이 좌절되었다. 중대는 대대 OP에 지원화력으로 적진을 계속 강타하도록 요청하고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다.

측방에 위치한 적의 기관총진지를 특공조가 제거에 성공하는 순간 중대 주력은 적진으로 돌진하여 육박전을 전개하였으며, 서남쪽에서 제6중대와 수색중대가 돌진하여 협공을 가하자 적은 10시 05분에 A, B 고지쪽으로 후퇴하였다. 이렇게 하여 351고지는 피탈된 지 10시간만에 제7중대와 제6중대, 연대수색중대에 의해 탈환되었다.

이 전투에서 사단장 김종갑 준장은 351고지가 피탈되자 적에게 재편성 및 진지보강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적의 혼란상태를 포착하여 과감히 역습을 단행, 최소의 희생으로 적에게 최대의 타격을 가하며 고지를 탈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51고지전투를 끝내고 1953년 1월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김종갑 제5사단장은 작전지역을 제15사단에 인계한 후 간성으로 이동하여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다시 중부전선의 김화로 이동하여 제3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3년 5월 1일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미 육군지휘참모학교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던 중 6·25전쟁의 휴전협정 조인의 소식을 접한 김장군은 1년 후인 1954년 6월말 귀국과 동시에 제5사단장으로 복귀하였다. 1년여 기간의 사단장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다음해 6월에는 육군대학 부총장에 전보되었으며, 이어서 국방부 관리국장 대리로 재임하던 중 1956년 7월 2일 육군중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예편과 동시에 제7대 국방부차관으로 발탁되어 1957년 8월 7일까지 1년여의 기간동안 국군의 현대화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국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김종갑 장군은 1996년 11월 3일 75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3-57에 안장되었다.

군번 30번으로 임관한 김종갑 장군은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출신으로 당시 임관에 필요한 영어회화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다른 응시자들처럼 일본군 장교복을 입지 않았던 관계로 아고 대령은 그를 장교출신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날 시험에서는 불합격되었다.

다음날 다시 응시한 김종갑 장군은 어제 입었던 학병단복 대신 현 양복을 입고 시험에 응했다. 아고 대령이 “왜 장교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일본에서 귀국할 당시 부산에 도착하면서 버렸다”고 대답하였다. 그때서야 그는 임관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장군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확신에 찬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장에서의 작전지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승리의 밑받침이 되었다.



金 貞 烈 공군중장

-
- A decorative graphic in the background of the list, featuring two crossed pens and a compass rose.
- /// 1917. 9 서울 출생
 - /// 1948. 5 육군소위 임관
 - /// 1949. 1 육군항공사관학교 교장(초대)
 - /// 1949. 10 공군 총참모장(초대)
 - /// 1950. 5 공군준장
 - /// 1950. 10 공군소장
 - /// 1952. 12 재동경 유엔군총사령부 한국군연락장교단장
 - /// 1953. 3 공군중장
 - /// 1954. 5 국방장관 특별보좌관
 - /// 1954. 12 공군 참모총장
 - /// 1957. 7 예편
 - /// 1957. 7 국방부장관
 - /// 1992. 9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김정렬 공군중장은 공군총참모장으로 취임한 이래 공군육성에 전심전력을 경주하여 오던 중, 1950년 6월 25일 이후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신예전투기를 입수하여 비행단장으로 겸임하면서 단시일 내에 유엔공군의 일원으로 협동 또는 단독작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투기에 탑승하여 진두에서 지상군엄호작전을 감행하는 등 작전완수에 기여한 전공으로 1952년 12월 26일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80호)을 수여받았다.

1917년 9월 29일 서울시 종로에서 출생한 김정렬 장군은 1936년 경성공립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의 경성공립중학교는 특출한 실력을 구비하지 아니하고는 입학하기 힘든 최고명문의 중학교였다. 다음해 12월 일본 육군예과사관학교에 입교한 그는 1940년 9월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 전투기과를 졸업하고 육군 항공소위로 임관되었다. 아끼노(明野) 비행학교를 거쳐 남방전선 항공전에 참전한 그는 1946년 5월 항공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사이공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고 일본 구축함 편으로 부산항에 입국하였다.

그는 1948년 4월 1일 공군창설의 주역들인 최용덕, 박범집(朴範集), 장덕창, 이근석, 김영환(金英煥), 이영무(李永茂) 등과 함께 항공부대라는 명칭으로 수색에서 발족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사관후보 1기생으로 5월 14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되었다. 1948년 9월 13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 비행부대 부대장으로 임명된 그는 이틀 후 최초의 편대비행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여·순 10·19사건 진압작전을 위해 출격하였다. 다음해 2월에는 중령으로 육군항공사관학교 초대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제주 4·3사건

과 웅진지구전투에 출격하는 등 많은 전투지원활동에 참여하였다.

□ 지리산공비토벌과 작전 활동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949년 10월 1일 초대 총참모장에 오르며 공군에서 최우선 군번인 50001을 부여받은 장군은 다음해 5월 공군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장군이 참모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L형 및 T-6 건국기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종으로는 남하하는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없었다. 6월 25일 전투기 확보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 대사를 통해 미 극동군사령부에 전투기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다음날 전투기 원조문제를 위해 내한한 미 극동공군사령부 참모가 “한국 조종사 중 훈련없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조종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장군은 “10명 정도”라고 대답함으로써, F-51 전폭기 10대를 지원받게 되었다.

1950년 7월 2일 F-51 전폭기가 도입되자 대한민국 공군은 육군과 합동으로 낙동강방어선의 후방차단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후 7월 26일까지 서울, 문산, 평택, 천안 등 경부선과 영덕, 영주, 신녕 등 경북지구에 출격하여 적 보급품집적소, 진지, 전차, 차량, 건물 등을 폭격하고 적병을 다수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장군은 또한 참모총장으로서 지리산공비토벌작전인 일명 ‘사천기지작전’을 주도하였다. 1951년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의 요청으로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 전폭기들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으로 공중공격임무를 수행하게



육군항공사관학교 간부 및 제1기 사관후보생들

되었다.

1951년 7월말 현재 남한 각지에는 유엔군의 총반격시 패주하여 산악지대로 도주한 9,500여 명의 잔적들이 살인·방화·약탈·납치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후방지역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다.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발악하는 약 4,000명의 공비들은 산청경찰서 관내의 각 지서와 마산, 진주 등지의 공공건물을 습격하였고 사천기지까지 위협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는 빈약한 정보와 무기로 효과적인 토벌작전이 어려움에 처하자 공중공격을 공군에 요청하였다. 이에 제10전투비행전대는 제2정찰비행전대의 T-6기 및 L형 항공기의 적정정찰 및 목표유도하에 F-51전폭기로 공중공격하여 공비 558명 사살, 아지트 192개소 및 건물 39개 동, 포진지 10개소 등을 파괴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장군은 이러한 작전을 주도한 공로로 두 차

례의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충무 및 화랑무공훈장, 6·25종군기장 및 공비토벌기장 등을 수여받았으며, 미 금성 및 은성훈장과 공로훈장 등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이후 공군 기획참모부장과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그는 1954년 12월 제3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하여 공군발전에 헌신한 후 1957년 7월 6일 공군중장으로 군문을 나섰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후에도 국군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장군은 1957년 7월 국방부장관에 발탁되었다. 또한 1963년 공화당이 창당되자 초대 의장에 오르면서 정치에 입문하여 제7대 국회의원, 국정자문위원 그리고 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1987년 7월 제20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어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1988년 2월 퇴임하였다.

1992년 9월 7일 75세를 일기로 타계한 김정렬 장군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공군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었다.

군은 물론이고 행정 및 입법분야의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섰던 김정렬 장군의 성장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역대로 여러 무관을 배출한 그의 가풍을 들 수 있다. 장군의 백부인 김기원(金基元)은 개화파 관료의 아들로 대한제국 정부의 국비를 받고 일본에 유학, 성성학교(成城學校)를 거쳐 일본육사 제15기로 졸업한 후 대한제국의 조선보병대 중좌를 역임하였다. 또한 장군의 부친인

김준원(金俊元)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 도일하여 동경 중앙유년학교 예과 3학년으로 편입되었다가 일본육사 제26기로 입교하여 졸업한 후 조국이 해방되자 군에 입대, 육군준장까지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군창설의 주역인 김영환 공군준장은 장군의 실제(實弟)로서, 장군과 함께 공군의 기초를 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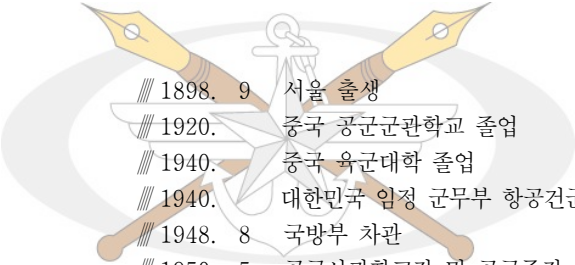
대한민국 공군의 초대 및 제3대 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렬 장군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않아 국가재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공군창설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한 창설요원이며,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일본·중국 등 외국군에서 부대장급으로 활약한 7명의 지도자급 인사 중 한 분이다.

장군은 시대적인 요청으로 보아 공군의 독립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꼈지만 공군창설을 위한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였다.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창설요원들과 함께 국내 유지들의 이해를 돕는 호소방법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사비로 1949년 4월 “항공의 경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내 각 요로에 배부하였다. 이 책의 말미에는 “우리 조국을 제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백의민족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타에 의존하지 말고 타에 이용당하지 말라. 남북통일도 우리의 예지에서 나오는 것이요, 작전계획도 자주적으로 입책(立策)되어야 한다”는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짐작할 수 있는 어귀가 수록되어 있다.

장군을 비롯한 일부 창설 주역이 노력한 결과로 전국에 건국기 헌납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T-6 연습기 10대를 캐나다로부터 도입할 수 있었으며, 1950년 5월 15일 여의도비행장에서는 성대한 건국기 헌납식과 서울 상공에서의 처녀비행이 시작되었다.



崔 用 德 공군중장

- 
- /// 1898. 9 서울 출생
 - /// 1920. 중국 공군군관학교 졸업
 - /// 1940. 중국 육군대학 졸업
 - /// 1940. 대한민국 임정 군무부 항공건군위원회 주임
 - /// 1948. 8 국방부 차관
 - /// 1950. 5 공군사관학교장 및 공군준장
 - /// 1951. 7 공군 작전참모부장
 - /// 1952. 5 공군소장
 - /// 1952. 12 공군 총참모장
 - /// 1953. 1 공군중장
 - /// 1956. 1 예편
 - /// 1969. 8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공군 총참모장 최용덕 공군중장은 1951년 9월이래 공군총참모장, 작전참모부장, 공군사관학교장을 역임하는 기간 중 수많은 정규사관 및 장교후보생 육성을 위시하여 행정 또는 작전 양면에서 면밀한 계획으로서 공군의 기초확립에 심혈을 경주하였다. 1951년 10월 11일을 기해서는 유엔공군의 일익을 분담하고 역사적인 단독작전을 감행하여 적의 중요 건물, 철도, 교량, 보급집결소 폭격 등 총 출격 연회수 4,710회의 기록으로 전후방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위용을 세계에 선양한 공로로 1953년 3월 13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99호)을 수여받았다.

1898년 9월 19일 서울 성북동에서 태어난 최용덕 장군은 일제의 압제를 피해 중국으로 이주하여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가 중국으로 가게 된 동기를 「회상」이라는 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일찍이 강도적인 일제에게 빼앗긴 주권과 강토를 찾으려고 내 나이 십 칠세 때인 1915년에 그들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들어갔으며, 실력으로 싸워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자는 결심으로 군문을 지원하여 육군에 들어갔고, 좀더 힘있고 효과적인 전과를 가져오기 위해 1916년에 다시 공군에 들어갔다. 그 때 나는 뜻한 바가 있었으니 첫째, 우리 나라의 공군 군복을 입고 우리 국기에 경례하자! 둘째, 우리 기술자가 우리의 기재로서 만든 항공기를 날아보자! 셋째,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세계 사람들을 위해 날려보자! 넷째, 온 세계 사람들이 다같이 항공생활을 즐기게 하자!”는 것이었다.

어린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게 된 최용덕 장군은 북경에 소재한 경

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육군군관학교와 공군군관학교를 차례로 졸업하였다. 그는 중국 항공부대에서 비행교관 생활을 하면서 비행기 사고로 3번이나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 이후 다리를 약간씩 절개 되었고 얼굴이나 다리에는 비행기 사고로 인한 상처가 많았다. 그러나 어린시절을 일제의 핍박으로 인해 중국의 낯선 땅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항상 이국만리의 해가 돋는 나라 대한민국을 그리워했다는 장군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에도 가담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조선 각지에서 들불같이 번져가자 중국 군대를 사직한 장군은 봉천, 안동 등지에서 선전문과 무기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만주 안동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던 황옥(黃玉) 선생을 만나 권총과 선전문을 전달하던 도중 중국 관헌에 체포되어 봉천에 있던 헌병사령부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헌병사령관인 진흥(陳興) 장군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석방되어 안동으로 다시 잠입한 그는 영국 상인에게 맡겨두었던 무기와 선전문을 되찾아 국내의 연락책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장군은 임시정부 군무부 항공건설위원회 주임, 광복군 총사령부의 총무처장, 참모처장, 사령관 등을 역임하면서 중국 항일군대와 입체작전을 전개하는 등 조국의 독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자 그 해 11월 미 군정당국은 군정청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 육상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각각 창설하였으나 항공대 창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46년 5월 일본에서 귀국한 김정렬이 미 군정청과 접촉하여 항공부대의 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결정도

없이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는 미 군정당국에 의해 항공사령부 창설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귀국한 최용덕, 김진일 등 해외파 항공인과 국내에 거주하던 항공인들은 뜻을 같이 하여 1946년 7월 ‘항공단체 통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항공사령부의 창설을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였다.

1948년 4월 1일 마침내 미 군정당국은 최용덕, 장덕창 등 7인의 항공계 지도자들에게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미국식 훈련을 이수하라고 통보하였다. 이 때 항공지도자들은 과거 장성급, 영관급의 고급장교이면서도 일반 병들과 같이 이등병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들이 이등병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항공부대 창설이 불가능하다는 예시일 수도 있어 찬반에 대한 이론이 분분하였다.

이 때 최고령자이자 선배인 최용덕 장군은 “우리가 500여 명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미 군정당국의 제의를 수락하여 항공부대가 창설만 된다면 병인들 어찌하고 아닌들 어찌한가! 이순신 장군이 모함에 의해 한낱 무인으로 백의종군한 심경을 십분 이해하여 이등병으로 입교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들을 설득하였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7인의 항공계 지도자들이 육군소위로 임관되자 미 군정당국은 경기도 수색에 있던 육상경비대 내에 항공사령부의 창설을 승인하였고, 초대사령관으로 최용덕 장군을 임명하였다. 공군의 창설과 관련하여, 장군은 국방부차관 시절인 1948년 L-4 연락기가 최초로 서울상공을 시위비행하자 “내가 어려서 남의 나라 군문에서 몽매간에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내 나라의

군복을 입고 내 나라 상관에게 경례하며, 내 나라 부하로부터 경례를 받아 보는 것이고, 내 나라 강토 안에서 태극기를 그린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날았으면 하는 염원이었는데, 오늘 이를 성취하고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 소감을 피력하였다.

□ 근접항공지원과 작전 활동

1950년 5월 공군사관학교장에 보임된 장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6월 25일 오전 여의도기지를 거쳐 학교로 귀대한 최 장군은 학교의 병기가 사관후보생들의 훈련용인 99식 소총 십여정과 권총 3정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기지방어를 위해서는 목총이라도 필요할 것이라며, 부관으로 하여금 왕십리의 목총 제작소에서 150여정을 가져와 본교의 장병 및 사관후보생들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장군은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육군과 함께 김포기지를 경비하는 한편 김포반도에 상륙하는 적을 격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무기는 99식 소총과 목총이 전부로서 탱크를 앞세워 공격해오는 적과 맞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지만 장군은 군인으로서 조국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는 굳은 결의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공군본부와 사관학교가 철수했음을 인식한 그는 대전으로 철수를 단행하였고, 이어서 진해로 이동한 사관학교에 합류하여 생도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배려를 쏟았다. 특히 문장에 조예가 깊었던 장군은 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관학교 교가를 작사하였으며, 군가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군가는 군인의 사기를 왕성케 하고 필승의 신념을 갖게 한다”는 인식하에 공군가, 비행행진곡, 은익의 노래, 공군행진곡 등 여러 편의 군가를 작사하여 군의 사기진작에 힘썼다.

1951년 7월 공군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1952년 12월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장군은 동부전선의 351고지에 대한 근접지원임무를 주도하였다. 351고지는 인근의 월비산과 함께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으로 이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아군은 1952년 7월부터 1953년 7월 18일까지 3,000여 명의 희생을 감수하며 세 차례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한 고지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 조직적인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한 이래로 1953년 3월 26일 국군 제1군단 15사단의 요청에 따라 강릉기지 제10전투비행단의 F-51 전폭기들이 출격하여 351고지 지상군 전투를 지원하여 적 위협을 저지함으로써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은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적인 근접항공지원작전이 되었다.

당시 351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15사단은 적의 수 개월에 걸쳐 계속된 공격을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으나 적이 야간을 이용하여 동굴을 파가며 접근하여 351고지가 적의 수중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릉기지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10전투비행단은 지상에 잘 노출되어 있지 않고 아군과 400야드 거리에 동굴이 있어 오폭 가능성이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F-51 전폭기 4개 편대가 각각 500파운드 폭탄 2발과 50구경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출격하였다.

T-6기의 유도를 받아 순차적으로 공격을 개시한 4개 편대는 적 동굴 2개소와 군용건물 15동, 병커 20개소를 파괴하고, 참호 및 교

통로 100야드를 절단하는 성공적인 전과를 획득하여 전략요충인 351고지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였다. 이 작전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친 제반작전을 공군 참모총장으로 주도한 장군은 태극무공훈장을 위시하여 을지무공훈장과 6·25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등을 수여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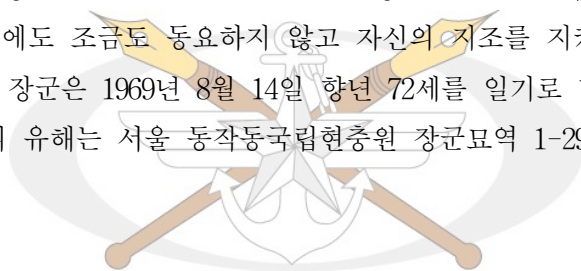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전쟁기간 동안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임한 최용덕 장군은 생도들에게 조국의 영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몸소 앞장서 실천하는 숭선수범으로 생도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다. 직접 공군을 창설하고 공군사관학교장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장군은 전쟁 후에도 각별히 공군을 이끌어 갈 정규 사관생도 양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제도의 정비 등을 통하여 사관학교의 체제를 거의 완성하였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국가관 그리고 부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주어진 직책에 임해왔다. 그는 공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어떤 일이나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공군독립의 권리를 얻은 우리는 공군으로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 의무임을 각오하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이에 바칠 결심으로 꾸준한 걸음을 걸어왔다. 더욱이 지금은 공중을 무대로 하는 항공인의 의무가 점점 가중되어 간다는 것이 누구나 공인하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공군은 군의 힘의 중심이며, 공군의 힘이 바로 항공기인 만큼 우리의 민족과업을 달성하는 첫단계는 바로 항공기의 제작생산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부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지휘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재직기간 중 부하들이 실수를 하고 변명 비슷한 보고를 하면 언제나 “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부하들 스스로 책임을 느끼게 함으로써 행동의 신중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군인으로서 불의와 부정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추상과 같은 지휘관이었으나 가정이 불우한 부하에게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곤 하였다. 참모총장 재직 당시 집이 없었던 장군은 국가에서 특별히 제공해 준 집을 불우한 상황에 처한 독립유공자에게 희사하고 자신은 허름한 방에서 생활하는 진정한 대장부였다.

최용덕 장군은 1956년 1월 1일 공군중장으로 군문을 나섰고, 정치적 변혁기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키신 참 군인이었다. 장군은 1969년 8월 14일 향년 72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29에 안장되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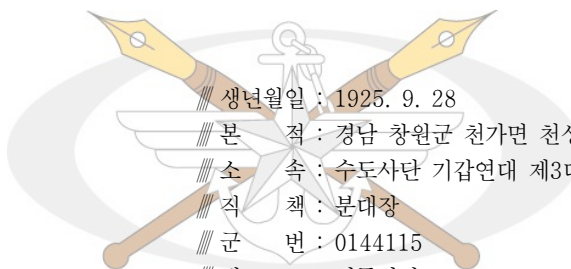
전선의 교착과 고지쟁탈전

1953. 1. 1~1953. 7. 27





白 在 德 육군이등상사



/// 생년월일 : 1925. 9. 28
 /// 본 적 : 경남 창원군 천가면 천성리
 /// 소 속 :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3대대 11중대
 /// 직 책 : 분대장
 /// 군 번 : 0144115
 /// 계 급 : 이등상사
 /// 주요전투 : 금성 셋별고지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4. 6. 25)

□ 금성 셋별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1953년 5월 14일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10중대 3소대 3분대장 백재덕 육군이등상사는 강원도 금성 셋별고지에서 야간 매복작전을 전개하던 중 적 3개 중대의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여기서 적을 꺾지 못하면 중대의 주진지가 위태로워진다. 전 분대원은 나와

같이 이곳에 뼈를 묻자”며 분대원들을 독려하여 3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백병전과 진내사격까지 요청하는 치열한 전투 끝에 진지를 사수함으로써 중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중동부전선의 요충지인 셋별고지를 사수하는데 기여하였다.

9명의 분대원 중 4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하는 치열한 전투속에서 백재덕 이등상사는 혼자 1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투혼을 발휘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 정부는 1954년 6월 25일 1계급 특진과 함께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76호)을 수여하였다.

셋별고지는 현재의 휴전선 너머의 중부전선으로, 금성 서남쪽 약 5.8km에 위치한 직목동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종장 1km 능선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표고 470m의 무명고지이다. 이곳은 주위의 깊은 계곡과 넓은 개활지가 형성되어 적에게 양호한 기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아간 폭격과 포격의 목표가 되어 상호간에 접근이 곤란한 지형이었다.

이 고지에 대한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3대대 11중대는 1953년 5월 14일 밤부터 새벽까지 제10중대 3소대를 배속 받아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5월 17일부로 실시될 사단예비인 제1연대와 주저항선 방어임무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11중대는 1952년 10월 지형능선전투에서 최후발악적으로 감행해 오는 적 2개 대대의 공격을 백병전으로 저지 격퇴시킨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정찰 및 수색활동에 경험이 많은 중대였다.

한편 아군의 방어 정면에는 중공군 제67군 199사단 예하 제596연대의 2개 대대 병력이 투입되어 아군진지에 대해 수시로 수색공격을 감행하면서 아군의 화력과 병력배치상황, 지형정찰, 포로획득을 도모하는 동시에 셋별고지에 대한 점령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들 적

2개 대대도 사상교육이 철저하고 전투능력이 양호한 부대로 알려져 있었다.

5월 14일 01시경 제11중대 정면에 배치되어 있던 적은 공격준비를 위한 약 5,000발의 포탄을 셋별고지 전후 경사면 일대에 퍼부어 아군진지를 순식간에 포진에 휩싸이게 하였다. 동시에 적은 셋별고지를 방어하고 있는 제9중대와 제11중대 전면으로 약 1개 중대, 그리고 전초진지 정면으로 약 3개 중대 병력을 투입하여 공격해왔다. 이에 아군은 공격해오는 적에 대해 60mm 박격포와 4.2인치 박격포로 탄막사격과 집중사격을 가하는 한편 01시 20분에는 105mm 야포를 이용한 집중포격을 실시하였지만 적의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01시 30분 약 3개 중대 병력의 적은 아군의 강력한 집중사격에도 불구하고 인해전술로 공격해왔으며, 제11중대 진지 일대에 파고들어 수류탄을 주고받는 사투를 개시하였다. 아군은 적의 공격을 진전에서 제멸할 각오로 임하였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진지 침입을 허락하고 말았다. 피아간의 처절한 백병전이 전개된 후, 02시 50분 제11중대의 요청에 의해 대대화력 및 VT탄으로 15분간 진내사격을 실시하자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는 즉각적인 반격을 전개하여 패주하는 적의 완전 소탕에 나섰다. 03시 05분경 제11중대 1소대는 CT 737~493을 출발하여 CT 731~497 일대로 기동하였으며, 예비대로 대기하고 있던 제10중대 2소대와 제3소대는 CT 737~488을 출발 CT 734~493 일대를 소탕하고 수색하기 위해 출발하여 04시 25분 수색을 완료함으로써 적이 오랫동안 계획해 왔던 셋별고지의 점령기도를 분쇄하였다. 적의 주력은 큰 타격을 받고 부대 재편성에 들어갔으며,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단지 아군진지의 파괴나 봉괴를 위한 포격만을 계속하였다.

5월 15일 밤 제11중대 3소대 백재덕 이등상사가 지휘하는 3분대는 매복조로 차출되어 중대진지 앞에서 진목동 일대를 살피고 있던 중 적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조명탄을 발사한 결과, 적 3개 중대가 진지를 향해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분대장은 매복진지가 돌파될 경우 중대의 주진지가 위태로울 것으로 판단하고 전 분대원에게 전투에 임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철수를 하지 않고 진지를 사수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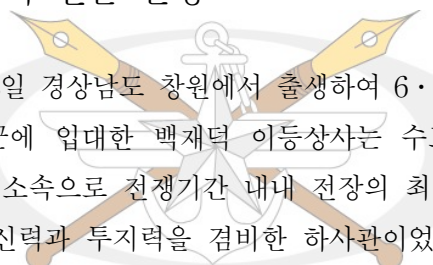
분대장은 능선의 중앙에 위치하고 좌우로 4명씩 분리하여 배치한 후 접근해오는 적을 향해 사격을 집중하자 적은 괴성을 지르며 돌격을 감행해왔다. 분대는 수류탄을 투척하며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인해전술로 접근해오는 적을 완전 섬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적의 제1파 15~16명이 분대의 진지안까지 돌입함으로써 백병전이 전개되었으며, 백재덕 이등상사 이하 모든 분대원은 수적으로 2:1의 열세 속에서도 적을 모조리 격퇴하였다. 약 20분이 경과된 후 적의 제2파가 다시 공세를 취해옴에 따라 피아간에는 수류탄전과 아울러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분대원들은 처절한 사투 끝에 침입한 적을 모두 사살하였으나, 1차 1명에 이어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잠시 후 또 다시 제3파의 공격을 재개한 적 10여 명이 다시 분대진지까지 돌입하자 분대원들은 총검과 맨주먹으로 혈전을 개시하였고, 아울러 중대에서는 진내사격을 실시하여 계속하여 돌진해오는 적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분대원들은 9명 중 4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5명도 부상을 입는 손실이 있었으나, 날이 새고 적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진지를 고수하는 임전무퇴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분대장 백재덕 이등상사는 단신으로 10여 명의 적을 사살, 진지를 고수하고 중대의 위기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수훈을 세웠다. 아울러 셋별고지전투의 승리는 아군이 중부전선에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를 무사히 확보함으로써 전선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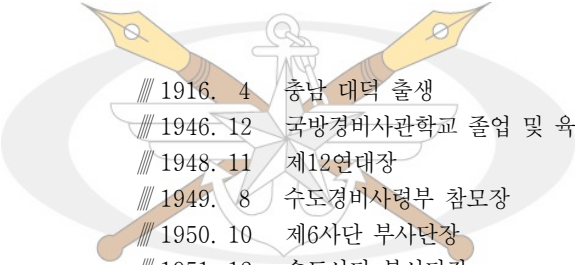
□ 전후 상황과 인물 단평



1925년 9월 28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출생하여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9월에 군에 입대한 백재덕 이등상사는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3대대 11중대 소속으로 전쟁기간 내내 전장의 최일선에서 용맹을 떨친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력을 겸비한 하사관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휴전 이듬해인 1954년 군 생활을 마감하였으며, 1988년 1월 24일 63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宋 錫 夏 육군소장

- 
- /// 1916. 4 충남 대덕 출생
 - /// 1946. 12 국방경비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소위 임관
 - /// 1948. 11 제12연대장
 - /// 1949. 8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
 - /// 1950. 10 제6사단 부사단장
 - /// 1951. 12 수도사단 부사단장
 - /// 1953. 5 육군준장
 - /// 1953. 5 제20사단장
 - /// 1956. 11 제3관구사령관
 - /// 1959. 10 육군소장
 - /// 1961. 7 국방연구원장
 - /// 1963. 2 예편
 - /// 1999. 1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1953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양구지구의 M1고지와 크리스마스고지 일대의 전투에서 중공군을 섬멸, 국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선양한 전공으로 1954년 7월 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60호)을 수여받은 제20사단장 송석하 육군준장은 1916년 4월 6일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에서 출생한 후 만주로 건너가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군 대위로 복무하던 중 조국 광복을 맞았다.

1946년 12월 19일 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졸업하고 군번 10184의 육군소위로 임관된 후 1948년 8월 1일 육군소령으로 특진, 제2연대 부연대장으로 전보되었다. 약 두 달 후 여수에서 제14연대가 주도한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송석하 소령은 1개 대대를 이끌고 진압작전에 참여하여 여수와 순천을 탈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1948년 11월 26일 그는 제12연대장에 보임되었다.

그가 보임된 제12연대는 앞선 5월 1일 군산에 주둔중인 제3연대 2대대를 기간으로 군산에서 창설되어 제2여단에 편입되었고, 초대 연대장에 제3연대 2대대장 백인기 중령이 임명되었으나 반란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자결함으로써 연대장직이 공석인 상태에 있었다.

1949년 6월 20일 기갑연대, 제17연대, 포병대대 및 독립 제1대대를 기간으로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한 수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된 2개월 후 송석하 중령은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 M1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에 이어 1950년 10월 제6사단 부사단장으로 전보된 그는 북진 대열에 합류하여 화천-김화-금성-회양-신고산을 거쳐 원산에 입성한 후 덕원-양덕-성천-순천으로 진격하여 적진에 낙하한 미 제187공수연대와 연결하였다. 이어서 개천-회천-온정-고장-초산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국군 및 유엔군의 최선봉부대로서 10월 26일 한·만 국경선상의 초산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곧이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퇴로가 차단된 사단은 부대가 분산된 채 초산-운산-평양-수안으로 철수하여 동두천 북방에서 38도선 방어에 임하였다.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안성으로 철수했던 사단은 가평 캔사스선까지 진격하여 4월 20일 사창리전투를 전개하고 5월에는 용문산전투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격멸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1951년 12월 수도사단 부사단장으로 부임한 그는 임진강선 방어에 임하여 연천 서북방의 테시·니키·노리·베티고지전초전에 참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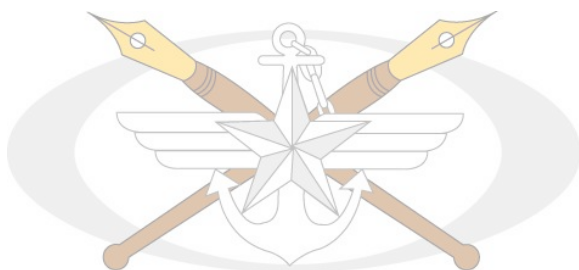
휴전협정의 체결을 두 달 앞둔 1953년 5월 27일 송석하 대령은 육군준장으로 진급된 직후 유흥수 준장의 후임으로 제20사단장에 부임하였다. 제20사단은 제60연대, 제61연대, 제62연대로 구성된 제1교육여단이 2월 9일 해체됨과 동시에 창설된 신편사단으로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휴전을 한달 여 앞둔 6월 10일,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33사단은 송석하 준장이 지휘하는 제20사단이 제7사단으로부터 인수한 938고지와 M1고지에 대해 공격을 가해왔다. 1090고지를 중심으로 한 938

고지와 M1고지는 1951년 아군의 추계공세 당시 점령한 이래 쟁탈전이 계속되어 왔으며, 938고지는 883고지에서 1220고지로, 1090고지는 어은산에서 1220고지-백석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의 요충으로서 전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M1고지는 1090고지의 동측 능선에 딸린 무명고지였다. 938고지가 주저항선에 편성된 것에 반해 1090고지와 M1고지는 1개 중대 규모가 배치된 전초진지였다.

일몰 후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중공군 제33사단은 M1고지를 공격,

1953년 6월의 M1고지 전투상황



제61연대 6중대로부터 고지를 탈취하였다. 이에 제5중대가 다음날 06시를 기해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역습 시기가 너무 늦어 적이 진지를 이미 강화한 후였다. 연대는 12일 03시에 제1대대 2중대와 제3중대로 하여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적의 화력과 수류탄에 많은 희생자만 발생했을 뿐 적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한용택 일병이 수류탄을 집중투척하며 적진을 돌파, 백병전을 벌이자 중대원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목표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적의 역습에 다시 고지를 피탈당하였다.

13일에도 치열한 고지쟁탈전은 계속되었다. 대대장이 직접 역습에 나서는 등 3차례의 공격 끝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01시 적의 파상적인 역습에 다시 고지를 내어주는 등 2~3 차례의 역습과 반격 끝에 결국 고지는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M1고지의 쟁탈전이 반복되고 있던 14일 적은 938고지와 1090고지로 공격을 확대함으로써 전투가 사단 전 정면으로 확대되었다. 사단장 송석하 준장은 예비 제60연대 3대대를 제61연대에 배속하고 사단 수색중대를 제62연대로 배속전환하는 등 전방 연대의 전력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제61연대는 예하 각 대대를 교대하면서 쟁탈전을 반복하였다.

14일 밤 적이 1090고지의 제3중대와 고지 서측의 제2중대를 집중 공격하여 고지를 탈취당했으나, 다음날 역습으로 진지를 회복하였다. 15일 저녁 제3중대는 적과 육박전 및 진내전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1090고지를 내어주고 16일에는 서측의 제1중대 진지까지 피탈되었다.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전개되던 18일 아침 제62연대 3대대는 1090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재공격을 실시, 이날 오후 1090고지를 탈

환한 후 작전지역을 제7사단에 인계하고 방산리로 이동하였다. 제20사단은 7월 4일 미 제45사단에 책임지역을 인계할 때까지 쟁탈전을 반복하였다.

중공군은 6월 공세에서 금성돌출부 우견부인 제5사단을 집중공격하면서 일부 부대가 1090고지-백석산 방향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제20사단 및 제7사단의 저항으로 M1고지만을 점령했을 뿐 전선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M1고지는 전술적으로도 의미가 없었지만, 휴전을 앞두고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존심의 대결장이었다.

이 전투에서 제20사단은 신편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의 전방연대 전력강화 조치와 적절한 부대교체 등으로 적의 공세를 저지해 담담전선의 방어는 물론 금성돌출부 우견부 방어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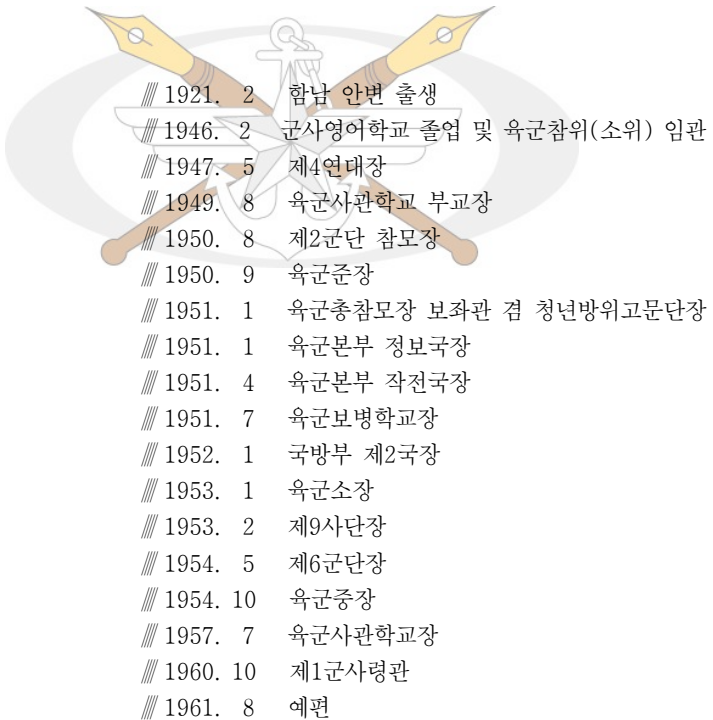
7월 9일부터 양구 북방 미 제40사단의 책임지역인 가칠봉지구를 인수받은 제20사단장은 14일부터 북한군 제15사단의 가칠봉 공격을 격퇴하여 고지를 확보한 후 휴전에 임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 이후 1955년 1월 17일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그는 1956년 11월 제3군관구사령관에 전보되었고, 1961년 7월 국방연구원장으로 군의 마지막 직책을 수행하였다. 1963년 2월 육군소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된 송석하 장군은 1999년 1월 14일 83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장군의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93에 안장되어 있다.



李 翰 林 육군중장

- 
- /// 1921. 2 함남 안변 출생
 - /// 1946. 2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7. 5 제4연대장
 - /// 1949. 8 육군사관학교 부교장
 - /// 1950. 8 제2군단 참모장
 - /// 1950. 9 육군준장
 - /// 1951. 1 육군총참모장 보좌관 겸 청년방위고문단장
 - /// 1951. 1 육군본부 정보국장
 - /// 1951. 4 육군본부 작전국장
 - /// 1951. 7 육군보병학교장
 - /// 1952. 1 국방부 제2국장
 - /// 1953. 1 육군소장
 - /// 1953. 2 제9사단장
 - /// 1954. 5 제6군단장
 - /// 1954. 10 육군중장
 - /// 1957. 7 육군사관학교장
 - /// 1960. 10 제1군사령관
 - /// 1961. 8 예편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휴전을 눈앞에 둔 시점인 1953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9사단장 이한림 육군소장은 오성산 주변의 각 주요 고지에서 중공군 제24군 예하 제70사단, 제72사단, 제74사단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혈전을 전개한 끝에 적 사살 2,092명과 포로 18명의 대전과를 거두고, 적의 진출을 저지하여 주저항선 일대를 완전히 확보하는 전공을 수립함으로써 1953년 10월 27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38호)을 수여 받았다.

1921년 2월 10일 함경남도 남단에 위치한 안변군 석사면에서 출생한 이한림 육군중장은 나폴레옹에 심취해 군인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하기 시작했던 16살에 만주로 건너가 신경군관학교에 입교하였다. 이후 일본 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임관되었고, 해방 당시에는 육군중위로 있었다.

조국의 해방을 맞아 1946년 2월 서울로 돌아온 후 “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루 속히 조국 간성의 중추를 담당해야 한다”는 이응준, 원용덕 등의 권유를 받고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군번 10056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었다. 임관일인 2월 26일은 전라북도 이리에서 제3연대 A중대가 창설된 날이었으며, 그에게는 김백일 부위(중위), 김종오 참위(소위) 등과 함께 제3연대에 배속되어 연대를 창설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정래혁(丁來赫)과 함께 훈련을 담당한 그는 3월에 부위로 진급하여 중대장으로서 인근의 군산에 가서 모병을 하는 등 제3연대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정위(대위)로 진급한 그는 11월에 제6연대 대대부관 겸 작전주임에 보임되었고, 다음해 4월 춘천의 제8연대장으로 부임한 직후 다시

광주의 제4연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1948년 8월 미국 유학 길에 올랐다. 1년여의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9월 귀국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부교장으로 임명된 그는 육사를 정규사관학교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에 의욕적으로 착수하는 등 군 발전계획에 주력하던 중 6·25전쟁을 겪게 되었다.

□ 북진능선전투와 작전 활동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군의 저지선이 와해되고 수도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육군본부의 명에 의거 육사 생도대대 약 600명을 이끌고 의정부전선에 투입되어 적의 남진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강력한 적의 공격에 밀려 많은 사상자를 낸 채 후퇴하였다. 이어 1950년 7월 1일 제2사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축차적인 방어전을 펼치면서 회인 단발령까지 철수하여 그곳에서 적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무렵 육군본부는 제2사단을 해체하여 그 주력으로 대구지구 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사령관에 이한림 대령을 임명하여 대구 지역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육군준장으로 진급하여 하양에 위치한 제2군단 부군단장 겸 참모장으로 취임, 낙동강 교두보 상에서 북한군의 8월 공세를 방어하는데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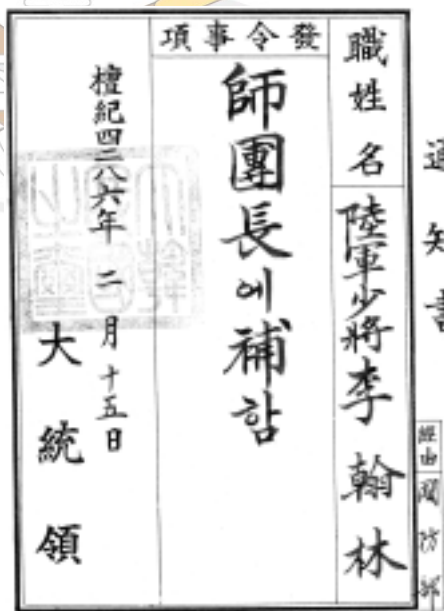
국군 및 유엔군의 총 반격이 개시됨에 따라 제2군단도 도화동-함창-충주 축선을 따라 진격에 임하였고, 10월 3일 서울에 입성해 군단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북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제2군단은 평양에 입성하고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출하였으나 11월 27일 중공군

의 개입으로 군단의 방어선이 무너짐에 따라 군단 병력을 이끌고 철수작전을 전개하였다.

이한림 준장은 1951년 1월 7일 제2군단의 해체로 육군본부 정보국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짧은 기간이나마 작전교육국장을 역임하고 육군보병학교장에 취임하였으며, 여기에서 그는 일선에서의 대량손실로 인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장교교육과 후보생 교육에 정성을 다하였다.

1952년 1월 국방부 정훈국장, 5월 판문점 휴전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로 활동했던 장군은 1953년 2월 15일 김화지구를 방어하고 있던 제9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휴전회담 대표직도 겸임하게 되었다. 당시의 제9사단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참병의 80%를 잃고 신병으로 충원되어 있어 장병들의 심리적인 약세를 만회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단장은 저격능선 상의 B고지에 대한 공격작전을 감행하기로 계획하고 유사지형에서 작전연습까지 실시하였다. 3월 3일 제28연대 2대대는 맹렬한 공격준비사격을 가한 후 연습한 대로 공격을 감행하여 목표고지를 점령하



이승만 대통령이 이한림 소장에게 발송한 제9사단장 발령통지서(원본소장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 계속된 적의 반격을 격퇴하였다.

그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휴전회담이 1953년 4월 6일 공산측의 요구로 재개되고, 스탈린의 사망으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휴전이 성립될 기미가 보이자 적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할 목적으로 중동부전선에 병력을 집결시켜 대규모의 공세를 감행하였다.

적은 6월 10일부터 중동부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했는데, 막대한 양의 포탄을 아군 진지에 퍼부으며 인해전술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적은 김화지구의 중요성과 저격능선, 삼각고지 및 북진능선 등 주요 지점에서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관계로 제9사단을 공격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북진능선은 적의 거점인 오성산에서 700고지와 900고지를 거쳐 뻗어가다 K고지를 매듭짓고 있는데, 동쪽과 서남쪽으로 개활지를 감제하고 있어 피아간에 중요한 지형이었다.

6월 11일 사단장은 제29연대 2대대와 제3대대, 제30연대 3대대를 주저항선에 배치하고 제30연대 관측소에 위치하여 작전지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자정 무렵 중공군 제24군 예하 주공부대는 북진능선으로 공격을 가해왔지만 근접전투를 통한 장병들의 분전으로 이를 격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자 사단장은 지원포격으로 적의 공격 강도를 줄여주는 한편 전장조명으로 아군의 활동을 돕고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백병전이 전개되자 적은 인해전술로 측차투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틀에 걸친 전투로 적을 격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사단장은 포로심문을 통한 첩보를 바탕으로 적의 주공에 대한 역습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단장 이한림 소장은 중공군 제70사단 주력의 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연대 규모의 역습뿐임을 인식하고 제28연대에 04시를 기해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사단내 가용 화력의 최우선권을 역습부대 정면에 부여하였다.

지원포화가 작렬하는 가운데 공격개시선을 출발한 제28연대는 적을 향해 전진을 계속하였고, 날이 밝으면서 더 많은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침내 역습에 성공하여 K고지를 완전 탈환하고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 반면에 중공군 제24군 예하 제70사단은 이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재편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휴전을 목전에 둔 1953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전개된 북진능선방어작전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교훈적인 요소의 복합작용에 의해 가능하였다. 즉 역습부대인 제28연대의 전 장병이 투철한



1953년 6월 북진능선전투 유공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제9사단장 이한림 소장

감투정신을 발휘한 결과였다는 점, 포로심문 내용의 분석을 통해 적정을 파악하여 상황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는 점, 역습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적중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전투에서 사단장 이한림 소장은 최전방까지 출두하여 부하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고취시키는가 하면 적 포탄이 작렬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술선하여 철야로 진두지휘하였으며, 급변하는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지휘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주저항선이 돌파되었을 때, 전혀 동요됨이 없이 예비연대를 민활하게 운용하고 역습부대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아군의 주저항선 일대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K고지를 끝까지 사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제9사단장으로 재임하면서 휴전을 맞은 이한림 장군은 1954년 2월 창설군단인 제6군단장에 보임되어 군단편성에 주력하였고, 1957년 7월에는 육군중장으로 육사교장에 다시 임명되어 3년여의 기간을 육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마침내 이한림 중장은 자신이 희망했던 제1군사령관에 전보됨으로써 야전군 지휘관으로 복귀하였으나, 다음해 '5·16 군사정변'이 발발한 뒤 8월에 정치적인 이유로 정든 군을 떠나게 되었다.

예비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국영기업의 책임자로 활동하는가 하면 외교관으로서 멸사봉공하였으며, 군에 대한 애정 또한 변함이 없었다. 이한림 장군은 군의 발전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한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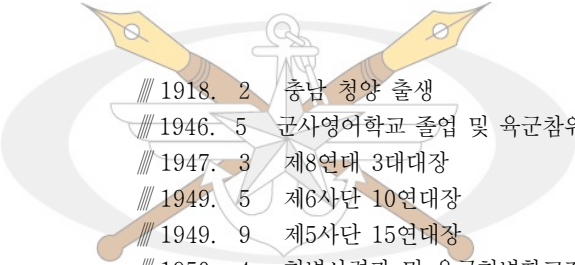
군인이었으며, 언제나 최일선의 전장에 있기를 원했던 명장이었다. 그가 간직했던 국가관이나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은 육사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교육목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는 무릇 훌륭한 장교란 “우수하고 탁월한 군사적 기술과 기능을 구비하고 고매한 품성과 높은 학식을 겸비하여 강렬한 의지력과 강건한 체력을 갖춘 터전 위에 사(私)를 버리고 공의(公義)를 추구하며, 보상을 구하는 노력이 아니라 조국을 향한 충정에 보답됨이 없을지라도 개의치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국에 희생적인 봉사로 자기 직무를 완수하는 인생관이 확립된 장교”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상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닮기를 노력했던 장군이였다.





宋堯讚 육군중장

- 
- /// 1918. 2 충남 청양 출생
 - /// 1946. 5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7. 3 제8연대 3대대장
 - /// 1949. 5 제6사단 10연대장
 - /// 1949. 9 제5사단 15연대장
 - /// 1950. 4 헌병사령관 및 육군헌병학교장
 - /// 1950. 9 수도사단장
 - /// 1950. 10 육군준장
 - /// 1952. 7 육군소장
 - /// 1952. 7 남부지구경비사령관
 - /// 1953. 7 제8사단장
 - /// 1954. 7 제3군단장
 - /// 1954. 9 육군중장
 - /// 1957. 5 제1군사령관
 - /// 1959. 2 육군참모총장
 - /// 1960. 5 예편
 - /// 1961. 6 내각 수반 겸 국방장관
 - /// 1980. 10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8사단장 송요찬 육군소장은 1953년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금성 동남지구전투에서 2개 사단에 달하는 적군을 격파하고 지형능선고지 및 690고지를 탈환·확보하였으며, 국군 제2군단 정면에 대거 재침한 적의 공세를 역습으로 분쇄하여 주저항선을 사수하는 한편 피탈된 중요 고지를 순차적으로 탈환함으로써 전면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로 인해 장군은 1954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89호)을 수여받았다.

1918년 2월 13일 충청남도 청양에서 출생한 그는 일본군에 지원, 조국이 해방될 당시에는 일본군 조장으로 있었다. 해방 이후 정국이 불안하고 사설 군사단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하는데 실망해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그는 미 군정 당국에서 국군을 창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희망인 국군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46년 1월 최경록의 도움으로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1946년 5월 1일 육군참위(소위, 군번 10090)로 임관과 동시에 부산의 제5연대의 소대장으로 발령을 받고 중대장 박병권 참위(소위)와 함께 모병에 전념하였다.

1946년 9월 10일 제5연대의 일부 병력은 제8연대의 확장계획에 따라 강릉으로 이동하여 B중대에 편입되었으며, 다음해 2월 대위로 진급한 그는 대대장 박병권 대위가 타부대로 전출되자 3월 1일부로 제8연대 제3대대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소령으로 진급한 뒤 제1연대를 거쳐 1948년 6월 제11연대 부연대장에 보임되어 제주도에서 소요사태의 진압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제9연대장으로 전보되는 동시에 육군중령으로 진급하였다.

그는 제9연대가 재편성되자 제11연대가 수행하던 제주도평정작전 임무를 인수,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어 사령관인 김상겸 대령이 부임할 때까지 작전을 지휘하였다. 1949년 2월 제9연대는 서울로 이동하여 이준식 대령이 지휘하는 수도여단에 편입되자 송요찬 중령은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유격대의 남파저지를 위해 일선부대 근무를 자원한 끝에 1949년 6월 제6사단 10연대장에 임명되었다.

연대장으로 재직하며 인민유격대의 남침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양양 돌입사건’으로 그는 7월 24일 연대장직에서 해임되었으나, 그에 앞서 육군본부는 그를 육군대령으로 진급시키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해임 이후 9월 28일, 송요찬 대령은 육군보병학교 학생감으로 보직명령을 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제15연대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임하던 1949년 4월 최영희 대령의 후임으로 헌병사령관에 전보되었다.

송요찬 장군은 6·25전쟁 발발 전까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역임하면서 미군들로부터 ‘타이거 宋’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교육훈련의 명수로 이름을 날리는 한편 건군 초기 군내 불순세력의 척결 및 공비토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금성 동남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헌병사령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6·25전쟁이 발발하자 송요찬 대령은 지휘계통이 와해된 병력을 수습하여 재편성에 나섰으나 적의 공세에 밀리자 한강을 건너 육군본부에 합류, 헌병들을 진두지휘하

며 낙오병을 수습하여 시흥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하였다. 이후 육군 본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한 무렵 적이 대구 방면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자 대구는 일시적으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후방지역의 민심안정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점을 인식한 육군본부의 헌병사령관인 송요찬 대령을 8월 10일부로 대구방위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송 대령은 내무부 전국비상경비사령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대구지역의 민심을 진정시켰다.

1950년 9월 1일 송요찬 대령은 간절히 바라던 사단장에 취임하였다. 백인엽 대령의 후임으로 수도사단장에 임명되어 안강·기계 부근에서 전투에 임하고 있던 사단 전방지휘소로 나가 개전 이후 자신의 첫 전투지휘를 하게 되었다. 그는 사단 전방지휘소가 적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강-경주 가도의 서측방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곤제봉을 점령하고 고수함으로써 제1군단이 반격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공격작전의 명수’로 부각되었다. 결국 안강·기계지구에서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세를 격파하여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그는 수도사단장으로 부임한 지 20일만에 육군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이후 수도사단은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반격을 실시하는 한편 육군본부에서 하달된 무제한 공격에 따라 38도선을 향해 진격에 나섰다. 북진작전에 나선 수도사단은 국군의 최선봉으로 38도선을 돌파하였으며, 신고산 일대에서는 전차와 야포 등 1만여 점의 적 장비를 노획하는 개전 이래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원산을 목표로 진출하던 사단 예하 제1연대는 회양을 점령하고 신고산으로 진격하던 중 철령재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격전을 치렀다. 신고산 일대의 적은 아군의 원산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철원 방면에서 후퇴한 북한군 제

12연대와 제15연대 병력이었다. 이들은 제1기갑연대와 합동작전을 펼친 제1연대에 의해 방어선이 무너지자 1개 사단규모의 장비를 유기한 채 도주하였다.

이어 수도사단은 군단 작전명령에 의거 10월 10일 05시 30분을 기해 원산공격을 개시, 약 2만 명의 병력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제압하고 원산에 입성하였다.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의 명령에 따라 진격을 계속한 사단은 덕원-마전리-신암선으로 진격하여 고원에 도달한 후 함흥·홍남탈환작전에 임하였다. 함흥과 홍남을 탈환한 사단은 잔적을 추격하여 길주를 점령하고 11월 22일 경성-나남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국경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송요찬 사단장은 홍남으로 철수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북진 3개월만에 철수를 시작하였다.

12월 18일 목호항에 상륙한 사단은 1951년 1월 27일 강릉을 목표로 탈환작전에 나서 이를 점령하였다. 이후 5월 5일 사단은 적의 주 보급로인 동해안 간성에서 홍천에 이르는 46번 도로를 확보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설악산지구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중공군의 5월 공세에서는 혈전을 거듭하며 대관령을 고수하였다.

그후 동부전선의 924고지와 월비산전투를 승리로 이끈 수도사단은 제8사단과 함께 11월 15일 백야전전투사령부에 편입되어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임하였으며, 다음해 3월 작전임무를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하고 전선으로 복귀하였다.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춘천 북방의 전선으로 이동한 수도사단은 새로 창설된 백선엽 중장의 제2군단에 배속되어 군단방어선의 중앙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6월로 접어들자 군단장은 적정 수집 및 적 진지파괴와 교란을 위해 제한공격을 계획

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송요찬 사단장은 7월 8일 지형능선 동북부의 A, B, C고지에 대한 공격을 각 연대에 하달하였다. 화력지원과 치열한 공반전 끝에 목표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사단은 결국 목표고지를 적에게 내어주고 물러나게 되었다.

1952년 7월 8일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송요찬 장군은 이용문 준장에게 사단지휘권을 넘겨주고 남원에 주둔하고 있는 남부지구경비사령부의 초대사령관으로 전보되어 지리산지구의 공비토벌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10월 8일 수도사단장으로 다시 부임한 그는 전임 사단장 이용문 준장과 함께 지형능선탈환작전에 참여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해가 바뀌고 소련 수상 스탈린의 사망에 따른 공산측의 평화공세로 휴전이 임박하자 적은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최후의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도미 유학을 대기하고 있던 송요찬 소장은 금성 동남지구를 방어하고 있던 제8사단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도사단장 당시 이 지역에서 전투를 지휘했던 경험으로 지역내 지형을 훤히 알고 있던 장군은 임박한 적의 공세에 대비하여 612-690-765고지를 연하는 주저항선 및 예비진지의 축성공사를 실시하였다.

7월 13일 22시를 기해 사단 주저항선 일대에 적의 포화가 집중되고, 1개 사단 규모의 적이 제8사단 정면을 공격해왔다. 사단 예하전 포병대의 포격으로 적은 막대한 병력이 소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6연대와 제10연대 정면을 공격, 23시경에는 일부 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인접 제3사단이 돌파될 경우 사단의 우측방이 일거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송요찬 사단장은 군단장의 승인하에 아이슬랜드선으로 철수를 결정하고 다음날 낮에 이를 완료하였다.

7월 15일 제8사단에는 별우지역을 포함한 금성천 남안에 대한 반격명령이 군단장으로부터 하달되었다. 사단장 송요찬 소장은 제21연대에 19시를 기해 흑운토령과 461고지를 점령하라는 작명을 하달하고 적의 박격포탄이 작렬하는 대대지휘소에 나가 진두에서 작전을 지휘하였다. 흑운토령을 공격중인 제3대대가 중대 규모의 적을 격파하고 8부 능선을 점령하였으며, 461고지를 공격한 제1대대도 목표를 점령하였다. 순조롭게 공격이 진행되자 사단장은 공격을 강화하여 제16연대는 760고지를 그리고 제21연대는 625고지 및 596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다음날 제16연대는 760고지를 공격했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8부 능선에서 일단 공격을 멈추었고, 전날 흑운토령을 공격했던 제3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를 점령하였다. 또한 625고지를 공격한 제2대대도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목표고지를 탈취하였다.

이날 대대적인 반격으로 군단은 금성천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정일권 군단장이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고 금성천을 초월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자 송요찬 사단장은 7월 17일 20시까지 연대별로 부여된 목표를 탈취하도록 명령하였다. 각 연대에 부여된 공격목표는 금성천변 2~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연봉으로서, 제21연대의 목표는 집실리 동쪽에 연립하여 여문리를 감제하는 요부이며, 제10연대의 공격목표는 집실리 서남쪽에서 별우지역을 감싸고 있고, 제16연대의 공격목표인 479고지는 죽동의 제17번 도로를 감제하는 요소였다.

제21연대는 사단의 우일선이 되어 목표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강력한 포화로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등 진출이 어렵게 되자 연대는 근접항공지원을 통해 이를 제압하면서 목표를 탈환하

였다. 마찬가지로 제10연대도 목표 탈취를 위해 혈전을 거듭한 끝에 적을 격파하고 목표를 탈취하였으며, 제16연대 또한 1개 중대규모의 적을 물리치고 목표를 탈취하였다.

각 연대에게 부여된 목표를 달성한 제8사단은 금성천을 초월하여 7월 18일 08시 집실리-죽동선을 확보함으로써, 적이 마지막으로 전개했던 7·13공세를 수포로 만드는 동시에 6·25전쟁의 마지막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휴전선의 확정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하였다.

이 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한 제8사단장 송요찬 소장은 탁월한 작전지휘 능력을 과시하였다. 전투 초기에 사단예비로 두었던 제21연대를 반격의 주력으로 운용함은 물론 반격에 앞서 적의 중심이 신장되고 병력손실이 큰 적의 능력을 판단, 사단의 주력을 일제히 투입함으로써 반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휴전이 성립된 후 미 육군참모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송요찬 소장은 제3군단장에 임명되어 2년여의 기간을 재임하고 육군중장으로 진급하였다. 1957년 1월 제1야전군사령관에 보임된 데 이어 1959년 2월에는 육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에 오르게 되었다. 4·19혁명으로 국가가 혼란할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송요찬 장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신속한 민심파악과 적절한 조치로 난국을 수습한 후 1960년 5월 23일 14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육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내각수반 겸 국방부장관을 지내며 국군발전에 공헌하고 1980년 10월 19일 62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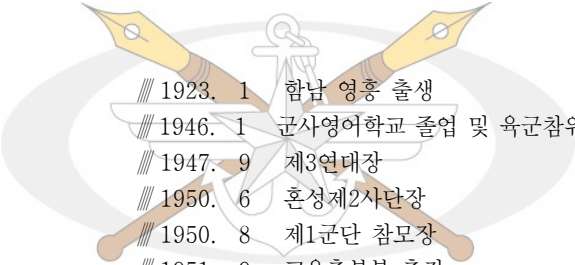
6·25전쟁의 명장으로 낙동강전선으로부터 북진작전까지 16번의 주요전투에 참전하여 빛나는 전공을 세웠던 그는 2회에 걸친 태극무공훈장과 대한민국 최초의 미국 십자훈장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훈·포장을 수여받았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해도 반드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는 지휘방식을 견지했던 송요찬 장군은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군인이 필요로 하는 필승의 신념과 책임감 그리고 인내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지휘관이었다.

제3군단장 시절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던 유재홍 장군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언급했던 대로 송요찬 장군은 목표점령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며, 실패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지휘형태를 소유한 용장이었으며, 사적인 공명을 거부하여 ‘석두(石頭)’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청백한 품성과 강직한 기풍을 소유한 명장이었다.



林 善 河 육군소장

- 
- /// 1923. 1 함남 영흥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7. 9 제3연대장
 - /// 1950. 6 혼성제2사단장
 - /// 1950. 8 제1군단 참모장
 - /// 1951. 9 교육총본부 총장
 - /// 1952. 7 육군보병학교장
 - /// 1952. 10 제3사단장
 - /// 1954. 3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
 - /// 1955. 7 제1관구사령관
 - /// 1955. 10 제6관구사령관
 - /// 1959. 4 전역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3사단장 임선하 육군소장은 휴전을 앞둔 1953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동안 529고지(관망산) 전투에서 전쟁발발 이전 북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화천저수지를 탈환할 목적으로 공격을 감행해 온 중공군 제67군 예하의 3개 사단과 끊임없이 포화를 교환하면서 일곱 차례의 공방전을 전개한 결과 적이 탈취하고자 의도했던 화천저수지를 사수하는 한편 적에게 약 3,000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하는 전과를 수록함으로써 1954년 7월 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91호)을 수여받았다.

1945년 12월 5일 미 군정청이 미군지휘관의 통역관 양성 및 군간 부요원의 확보를 위해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하자 이에 응시한 그는 1946년 1월 15일 제1차로 졸업과 동시에 10019의 군번을 부여받고



서울 서대문 냉천동 31번지 감리교신학교 건물에 개설된 군사영어학교의 전경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었다. 군사영어학교 재학시절 그는 국방사령부 일반명령에 의거 미 군정청 군사국장 챔페니(Arthur S. Champeny) 장군의 보좌관인 챔프톤 대위의 부관으로 발탁되어 군사영어학교 개설에 따른 영어통역관 역할과 모든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가 발탁된 배경에는 능통한 영어실력을 인정한 리스 소령의 추천이 있었다.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된 후에도 군사영어학교에 남아 통역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1947년 9월 국방경비사관학교 교장으로 진출된 김백일 소령에 이어 전북 이리에 주둔하고 있던 제3연대장에 보임되어 미국유학을 떠났던 1948년 7월까지 재임하였다. 미 조지아주 포트베닝 보병학교에 이형근, 민기식 등 5명의 장교들과 함께 파견된 그는 고급지휘반 과정에 편입되어 군사조직, 훈련, 전술 등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여 육군보병학교 부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활동하던 중 6·25전쟁에 임하게 되었다.

□ 529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육군보병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임선하 대령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개된 한강-수원방어전에서 김홍일 장군의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혼성제2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적의 한강도하를 저지하는데 주력하던 중 7월 1일부로 후임 이한림 대령에게 지휘권을 인계하였다. 이후 그는 제3군단 부군단장, 교육총감 대리, 육군보병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고 1952년 10월 백남권 장군에 이어 제3사단장으로 전보되었다.

제3사단장으로 부임한 임선하 장군은 1953년 4월 2일부터 12일까지 689고지전투를 지휘하여 승리를 거두고 휴전을 한달 여 앞둔 6월 25일에는 529고지, 일명 관망산전투를 7월 3일까지 전개하였다.

휴전회담이 성립될 전망이 짙어지자 적은 유리한 지형을 수중에 넣기 위해 1951년이래 최대 규모의 대공세를 취해왔다. 적은 아군이 점령한 38도선 이북의 요충지를 탈환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였는데, 특히 전쟁 이전 북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화천저수지가 제1목표가 되었다. 공산군은 금성돌출부에 대한 공격에 앞서 6월 24일부터 이 지역에 대한 탐색공격과 다른 지역에서 조공 및 양공을 실시하였다. 중공군은 6월 24일과 25일에 돌출부 좌단 제9사단의 김하서북 북진능선과 저격능선에 대한 재공격에 이어 다음날에는 우단 제3사단의 용호동 529고지인 관망산을 공격,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관망산은 북한강 상류에서 갈라져 서남으로 흐르는 금성천과의 분기점에 있는 독립고지로서 적의 주진지인 663고지와 548고지로부터 감제되었으며, 주봉에서 북으로 뻗은 능선은 완만한 반면 전사면은 기암절벽을 이루어 공격에 불리한 지형이었다. 아군으로서는 금성돌출부의 우견부 방어에 긴요한 곳이나 적으로서는 금성천 도하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요지요부였다.

당시 이곳을 방어중인 제3사단의 좌일선 제23연대 2대대는 6월 25일 22시 50분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력한 포격에 이어 중공군 제68군 604연대의 공격을 받았다. 적의 공격축선이 점차 529고지로 지향되자 사단장 임선하 소장은 방어를 하는 것보다 공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격퇴하기로 하고 “제22연대장은 1개 대대를 용호동으로 우회시켜 적의 배후를 강타하고 B고지를 탈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는 적을 정면에서 견제하는 한편 그들의 배후를 찢러 섬멸하려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제23연대 2대대는 적이 사단의 탄막지대를 돌파하여 진전까지 접근하자 육탄전을 전개하고 최후저지사격까지 요청하면서 적을 격퇴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 인해전술에 밀려 6월 26일 04시 20분 고지 남쪽의 8부 능선으로 물러났다. 사단장은 529고지가 피탈되고 제23연대 2대대가 분산 상태에 놓이자 제22연대 2대대를 제23연대에 배속하려던 명령을 변경하여 529고지를 역습하도록 지시하였다. 적의 치열한 포화로 역습이 돈좌되었던 제7중대는 제5중대와 합세하여 06시에 A고지를 탈환하였다.

아울러 529고지 동남쪽으로 진출했던 제6중대는 사단의 전 화력이 529고지로 집중된 틈을 이용하여 돌진을 감행,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끝이은 적 1개 대대 규모의 반격으로 다시 피탈되었다. 한편 용호동으로 우회한 제22연대 3대대도 천신만고 끝에 B고지를 확보하였으나 529고지가 적의 수중에 넘어감으로써 오히려 적중 고립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원래의 공격대기지점으로 철수하였다.

적의 기도를 분쇄하고 529고지의 전술적 가치를 중요시한 군단장 정일권 중장은 고지탈환을 위해 제3사단이 529고지 쟁취에만 전념하도록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 임선하 소장도 제23연대를 주공으로, 제22연대를 조공으로 하여 고지를 쟁취하고 주저항선을 회복하도록 지시하였다. 6월 26일 16시를 기해 공격을 전개한 제23연대 1대대와 제2대대는 A고지를 탈환하고 이어서 주봉을 공격한 끝에 탈환하였으며, 이때 조공인 제22연대 2대대는 529고지 남쪽에서 적을 견제함으로써 제23연대의 공격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01시 적은 9,000발에 달하는 포화를 집중하고

529고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해왔다. 적의 포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제23연대 2대대장은 고지 정상에서 9부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제3사단은 7월 3일 529고지 일원에서 물러날 때까지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교대로 투입하여 모두 일곱 차례나 역습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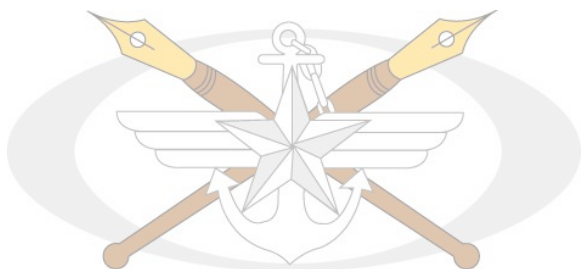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제3사단은 적이 탈취하고자 의도했던 화천저수지를 사수하였고, 중공군 제67군 예하 2개 사단의 40%에 달하는 2,962명의 인명손실을 가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여문리부근전투, 일명 ‘금성천부근전투’에서 중공군 제69군의 공세를 증원부대도 없이 3일간 고군분투하면서 저지하고 약 5,000명에 달하는 적의 병력을 손실시킨 후 휴전에 임하게 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제3사단장으로 휴전에 임하게 된 후 임선하 장군은 1955년 7월 제1관구사령관에 임명되어 활동하다 3개월 후인 1955년 10월에 제6관구사령관을 역임하고 1959년 4월 17일 육군소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임선하 장군은 개전 초기부터 여러 전투에 참여하여 탁월한 전투능력과 지휘력을 발휘함으로써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을지무공훈장 2회, 충무무공훈장 2회, 화랑무공훈장 3회 등 수많은 훈·포장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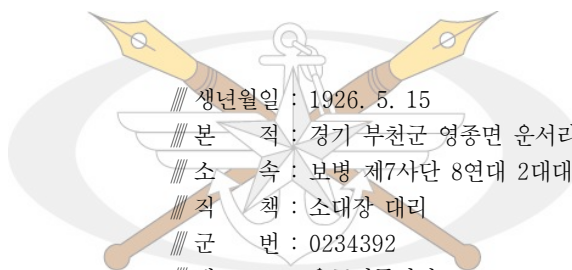
1923년 1월 9일 함경남도 영흥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에서 구미해양법을 전공한 임선하 장군은 영어실력이 매우 탁월해 중앙고보에 재학하던 시절에는 초대 외무장관을 지낸 변영태의 가장 사랑 받는 제자중의 한 사람일 정도였

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챔프톤 대위의 부관을 맡게 되었으며, 미군정청에서 수여한 소위 계급을 달고 군사영어학교의 통역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장군은 국군창설의 초기과정부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산 증인이었다.





崔 得 洙 육군이등상사



// 생년월일 : 1926. 5. 15
 // 본 적 : 경기 부천군 영종면 운서리
 // 소 속 : 보병 제7사단 8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 직 책 : 소대장 대리
 // 군 번 : 0234392
 // 계 급 : 육군이등상사
 // 주요전투 : 양구 비석고지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4. 6. 25)

□ 양구 비석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6·25전쟁의 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던 1953년 6월 하순 제7사단 8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장 대리로서 근무하던 최득수 이등상사는 특공대에 선발되어 938고지(선우고지) 남사면의 적 전진진지인 일명 비석고지에 있는 3중의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진지

를 격파하고 고지정상을 점령함으로써 피탈되었던 선우고지를 재탈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러한 전공으로 최득수 이등상사는 1954년 6월 25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77호)을 수여받았다.

1953년 6월 26일 중공군 제60군 189사단은 1개 연대 병력으로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7사단 8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938고지를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야포와 박격포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하여 압력을 가한 끝에 결국 938고지를 차지하였다. 적은 938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아군 방어진지인 1090고지로부터 1220고지에 이르는 아군 주저항선을 측방으로부터 위협하고 나아가 차기공세의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6월 공세 때인 6월 16일 제7사단이 제20사단으로부터 인수하여 확보해 온 938고지는 이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1220고지에 이르는 발판으로서 사단 좌일선인 제8연대의 방어중심이었다.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유리한 지형으로 관측과 사계가 양호한 938고지 일대는 통선곡(通先谷)과 굴구네울 계곡 같은 증원부대의 집결지였으며, 고지 후방을 연하는 능선 등은 엄폐와 음폐에 대단히 양호한 전략적 요충이었다.

국군 제8연대 2대대는 6월 26일 21시 45분부터 집중포화에 이어 공격해 온 적에게 탄막사격을 가하고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유선통신이 두절되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대대장은 대대지휘소 방향으로 몰려오는 전방 중대 병력에게 현 전선 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대대지휘소에 들이닥친 적과 교전을 하던 대대장이 수류탄에 의해 전사하자 대대는 파상적인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자정 무렵 938고지에서 철수하였다.

제8연대는 다음날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사단은 이 무렵 군단예비로 있다가 복귀한 제3연대를 역습에 참가시켰으나 실패하자 제8연대와 임무를 교대시켜가며 번갈아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938고지를 탈환하기도 하였지만 또다시 적의 집중적인 포격과 파상공격에 고지를 상실하였다. 이렇듯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은 많은 희생자를 불러왔다. 이 공방전에서 아군의 인명손실이 1,300여 명에 달하지 미 제10군단장 화이트 중장은 7월 1일 더 이상의 인명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탈환작전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적은 제5사단이 확보하고 있던 지형을 점령함으로써 제7사단 전면을 완전 감제할 수 있는 지역을 차지한 데 이어, 6월 26일 제7사단 8연대가 확보하고 있던 938고지마저 점령함으로써 한층 사단 전면에 접근하기 용이한 요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1953년 6월 27일 02시 30분 제7사단 8연대는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탈취당한 938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해 제1대대를 투입하여 반격을 감행하였다. 9부 능선까지 진출한 대대는 강력한 화력으로 맞서고 있는 적과 육박전까지 전개하였으나, 적의 증원부대와 좌우 측방에서 맹렬하게 집중하고 있는 적의 화력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05시 30분에 철수하였다. 이에 사단은 예비대인 제3연대를 투입하여 수류탄전을 전개하면서 고지탈환을 시도하였으나 아군의 공격저지를 위해 10,000여 발의 포격을 가하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희생이 늘어가자 부득이 철수를 단행하였다.

6월 30일 02시 사단장이 938고지에 대한 공격명령을 제8연대에 하달하자 제2대대는 특공대를 조직하여 고지를 탈환하기로 결정하고 30명의 대대원을 3개조로 편성하였다. 특공대는 연대가 지금까지

실시한 3회의 역습 때마다 938고지 남서면의 전진진지인 일명 비석 고지에 설치된 적의 자동화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습·파괴하여 역습부대의 기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제1조는 938고지 전방 능선상에 배치되어 있는 3중의 중기와 경기관총진지를 격파하며, 제2조와 제3조는 938고지 좌측방에 위치한 적의 자동화기진지를 파괴하고 고지를 탈환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03시 30분경 특공대 제1조장인 최득수 이등상사는 조원들과 함께 철모 대신 작업모를 쓰고 소총 대신 수류탄 6개씩을 분배하여 아군의 연막탄이 적의 시계를 완전히 차단한 가운데 938고지 능선을 따라 돌진해 나갔다. 이때 적은 다시 포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지만 최 이등상사는 선두에서 대원들을 이끌었다. 쏟아지는 적탄을 헤치며 적의 엄폐호에 돌진한 최 이등상사는 수류탄 한 발을 적의 기관총 안에 집어넣어 파괴한 후, 능선 중간지점에서 불을 뿜어대고 있는 또 다른 기관총진지로 다가가 수류탄을 총 안에 집어넣어 격파하였다.

이렇게 두 개의 기관총을 격파하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대원의 선두에서 고지 정상으로 돌진해 나갔다. 적진 속으로 무사히 돌진한 최 이등상사는 수류탄을 투척하여 적의 기관총진지를 모두 격파하고 정상까지 무사히 진격했음을 3발의 신호탄으로 연대지휘소에 알렸다. 신호탄이 발사되자 대기하고 있던 제9중대와 제10중대가 돌격을 감행하여 04시 30분에 목표를 완전 점령하였다.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했던 30명의 특공대원 중 끝까지 살아남은 대원은 최득수 이등상사를 비롯한 5명뿐이었고 나머지 대원은 모두 전사하였다.



비석고지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생환한 5명의 특공대원(뒷열 중앙이 최득수 이등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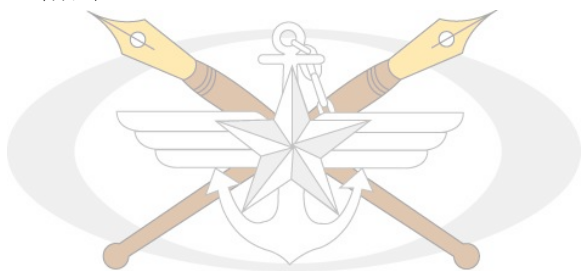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27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군 영종면에서 출생한 최득수 이등상사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어린시절을 보냈다. 해방 이후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여 인천지구 훈련대장과 감찰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및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후 지원병 모집에 자원, 1950년 11월 미군 화물선 3척에 나뉘어 인천항을 떠났다. 며칠간의 항해 후 부산항에 도착하여 다소간의 식량과 모포 2장을 배급받고 구포훈련소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제식훈련과 총기조작법, 사격 등의 훈련을 받았다.

1951년 1월 2일 구포훈련소를 출발하여 대구에 도착한 뒤 다시 군용차량을 이용해 제7사단 집결지인 강원도 간성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된 최득수 이등상사는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전선이 안정된 1955년 4월 8일 육군 이등상사를 마지막으로 전역하였다.

그는 “지휘관의 명령은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 군인이며, 그래야만 기강이 바로 서게 되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지론을 견지했던 엄격하고 용맹스러우며 군인정신이 충만한 군인이었다.





金 雄 洙 육군소장



/// 1923. 4	충남 논산 출생
/// 1946. 5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1946.	국방장관 전속부관
/// 1951. 3	제8사단 부사단장
/// 1952. 6	제2군단 참모장
/// 1952. 7	육군준장
/// 1953. 5	제2사단장
/// 1953. 12	제1군사령부 참모장
/// 1954. 5	육군소장
/// 1960. 10	제6군단장
/// 1961. 11	전역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제2사단장 김웅수 육군준장은 1953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하 장병을 통솔 지휘하여 철의 삼각지 내 백마고지의 치열한 공

방전에서 적을 제압하고, ‘화살머리고지(281고지)전투’라는 미증유의 대혈전에서 과감한 진두지휘로 적의 과상공격을 분쇄하고 주요 전리품을 다수 노획함으로써 전세만회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전공으로 1954년 7월 6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93호)을 수여받았다.

1923년 4월 11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김웅수 육군소장은 1944년 만주의 여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에 소재한 교토 제국대학 법과에 재학하던 중 일본군으로 징집되었으며, 센다이(仙台) 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보병소위로 있던 중 조국의 광복을 맞게 되었다.

조국의 광복과 함께 귀국한 그는 학병 출신들의 결성체인 ‘조선학병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단체의 좌경적인 성향에 반대하여 탈퇴하고 최석, 민기식 등 뜻을 같이하는 일부 학병 출신들과 ‘학병단’을 조직하여 학병동맹에 적극 대항하였다.

그러던 중 군사영어학교가 설립되고 국군 창설에 참여하라는 주변의 권고에 따라 군사영어학교에 입교, 4개월 여의 교육훈련을 마친 뒤 1946년 5월 군번 10100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었다. 임관 후 약 1년 여의 기간동안 통위부 본부사령과 중대장을 마치고 육군 소령으로 진급한 뒤 국방장관 전속부관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육군 중령으로 육사 생도대장을 역임하였으며, 육군대령 시절에는 육군종합학교 학생연대장과 제8사단 부연대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 281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6·25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1952년 6월 제2군단 참모장으

로 임명된 김웅수 대령은 한 달 후 육군준장으로 진급하고, 휴전을 3개월 앞둔 1953년 4월 22일 강문봉 소장의 후임으로 제2사단장에 부임하였다.

부임하고 약 두 달이 경과한 1953년 6월 29일 제2사단은 281고지, 일명 화살머리고지에서 중공군 제23군 예하 제73사단의 공격을 받아 7월 11일까지 두 차례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당시 제2사단은 치열했던 저격능선전투를 끝내고 1952년 12월말에 철원지구로 이동하여 미 제3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한 상태로 1953년 2월말까지 일부 전초공방전만 전개하였다.

제2사단장 김웅수 준장은 제31연대를 중강리-하진명동간의 우일선으로, 제32연대는 백마고지가 포함된 하진명동-281고지간의 좌일선에 각각 전개하는 한편 제17연대는 독서당리 부근에 예비로 배치하여 우인접인 미 제2사단 및 좌인접인 미 제7사단과 전선을 연결한 가운데 10km의 전투 정면을 맡아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아울러 사단장은 진지보강과 교육훈련에 주력, 2월말부터 와이오밍선을 포함한 미주리선상의 진지를 강화하고 소부대훈련과 역습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일선진지를 동굴화하였다.

한편 6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적은 전 전선에서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여 피의 고지와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저격능선 등에 대해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휴전협상이 포로문제가 해결되어 조인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접촉선상의 중요 지역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적은 금성돌출부 양건부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면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지역 역곡천 일원의 전초진지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중공군은 6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국군 제1사단 전초인 250고지

(일명 쿤고지)-199고지(박고지)를, 7월 6일에는 미 제7사단의 234고지(일명 포크참고지)와 국군 제2사단의 281고지(일명 화살머리고지)를 공격하였다.

포크참고지에서 전투가 시작된 7월 6일 역곡천 북방의 화살머리고지에서도 중공군 제23군 예하 제73사단의 공격으로 국군 제2사단과 격전이 전개되었다. 공격을 가해온 중공군 제73사단은 1952년 8월 안동에서 압록강을 건넌 후 원산을 거쳐 다음해 1월 평강 서쪽의 금곡리에 집결하였으며, 그 후 3월에 제69사단과 함께 제38군의 전투지역을 인수하여 일선에 배치된 부대였다.

화살머리고지는 1951년 10월 ‘코맨도 작전(Operation Commando)’시 탈취한 고지로서 백마고지와 함께 역곡천 북안에 위치한 요충이었다. 제2사단은 1952년 12월 29일 철원지역에 투입되어 6개월 동안 이 지역을 방어 중이었으며, 1953년 6월 29일과 30일에 중공군 제73사단이 화살머리고지의 2개 전초진지를 공격해옴으로써 방어전을 벌여 이들을 격퇴한 바 있었다.

이 전투에서 400여 명의 인명손실을 입고 물러간 중공군 제73사단은 7월 6일에 1개 대대 병력으로 전방의 제69사단을 초월하여 재차 281고지를 공격해왔다. 이곳을 방어하고 있던 제32연대 2대대가 설치한 2개의 소초가 피탈되자 야군의 역습이 실시되어 30시간이 넘는 전투 끝에 이 전초를 회복하였다. 7월 8일 야간에 적은 약 6,500발의 야포 및 박격포탄을 퍼부으며 공격을 가하여 재차 혈전이 전개되었다.

제2사단은 1개의 전초를 빼앗기자 전 사단의 가용부대로 역습부대를 교대해가며 공격을 실시해 7월 11일 이 전초를 회복하고 화살머리고지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9일 동안에 걸쳐 전개된 이 전투는

11일을 고비로 교착상태로 접어들었으며, 전선은 다시 전전(戰前)의 접촉선에서 정찰 내지는 위력수색만으로 일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6·25전쟁 전 기간을 통틀어 최후의 일전이자 제2사단의 최후의 승전이었던 이 전투에서 사단장 김웅수 준장은 연속된 공격에도 피탈된 전초를 회복하는데 실패하자 기존의 공격전술을 바꿔 “제31연대는 최소 2개 중대의 신예병력으로 11일 02시부터 공격을 재개하여 대대 주저항선 전방의 2개 전초진지 가운데 우측 진지인 ㉠진지를 탈취하고, 제32연대는 최소 2개 중대의 신예병력으로 11일 01시부터 281고지의 북쪽 1.5km 지점에 위치한 ㉡고지를 선점한 다음 적의 후속수단을 차단하며, 포병단장은 1개 포병대대로서 제31연대의 공격을 직접지원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협소한 기동공간에 축차로 병력을 투입하던 종래의 방식을 지양하고 적의 책원지인 ㉡고지에 대한 차단공격을 배합한 일거공격책을 취한 것이며 또한 적이 자주 사용하는 심야를 택해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휴전후 제2사단은 사단창설 기념식에서 “노도의 혈적”이라는 전투경과보고를 통해 281고지전투의 성공요인을 재평가하였으며, 승전에 따른 대통령부대표창을 수여받았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3년 11월 29일 제2사단장 김웅수 육군준장은 강영훈 소장에게

후임을 인계하고 신편된 제1군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대리로 내정되어 관대리의 미 제10군단 사령부에 창설요원들과 함께 들어가 사령부 창설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후 1954년 5월 육군소장으로 진급하고 육본 관리참모차장을 거쳐 군수국장으로 재임하던 김웅수 육군소장은 육군본부내에 군수참모부가 신설되자 군수참모부장으로 전보되었다. 육본 군수참모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미군측의 권유에 따라 육군본부에 관리과정을 도입하여 군수 계통의 장교는 물론 일반 고급장교에게도 경영관리교육을 실시하여 부대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였으며 군 예산회계제도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60년 1월 군내에 군수기지사령부가 창설되자 김 장군은 박정희 소장을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추천하였다. 그리고 장군도 10월에는 제6군단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에 의해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장군은 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1961년 11월 강제 예편되었다. 자의반 타의반 미국으로 건너간 김웅수 장군은 학문에 정진, 워싱턴 D. C에 소재한 가톨릭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는 등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였다.



崔 昌 彦 육군중장

- /// 1921. 12 함북 경성 출생
- /// 1946. 5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9. 6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
- /// 1949. 8 제2사단 참모장
- /// 1950. 8 제7사단 5연대장
- /// 1950. 9 제2훈련소장
- /// 1951. 7 제6사단 부사단장
- /// 1952. 6 제1훈련소 부소장
- /// 1953. 4 육군준장
- /// 1953. 5 수도사단장
- /// 1955. 1 육군소장
- /// 1956. 7 육군본부 수송감
- /// 1957. 5 제2관구사령관
- /// 1958. 1 국방부 정훈국장 대리
- /// 1960. 7 육군보병학교장
- /// 1961. 5 제3군단장
- /// 1961. 8 육군중장
- /// 1963. 2 국방대학원장
- /// 1966. 2 예편
- /// 1982. 4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수도사단장 최창언 육군준장은 1953년 5월 1일 사단장으로 부임하여 사단의 단결을 앙양하고 전 장병을 솔선하여 진두지휘해 오던 중 7월 13일 중동부전선의 오성산전투에서 부대원의 사기를 격려 고무시키는 한편 적의 배후를 기습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공헌함으로써 1954년 7월 28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83호)을 수여받았다.

1921년 12월 3일 함북 경성 출신으로 1946년 5월 1일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10095의 군번과 함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된 그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제7연대 A중대의 소대장으로 초임 발령되어 연대편성을 완료하는데 주력하였다. 2월 7일 민기식 참위(소위)의 주도하에 창설되었던 제7연대 A중대는 불순분자가 포함되어 연대의 완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경비사관학교 제1기생과 제2기생 출신의 장교를 보충받은 뒤 모병을 실시하여 1947년 1월 연대편성을 완료하였다.

1947년 7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진출된 그는 총사령부로 발령을 받은 이듬해 10월까지 재임하였으며,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와 제17연대 그리고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수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되자 초대 참모장에 임명되었다. 이어 제2사단 참모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 금성 서남지구전투와 작전 활동

1950년 6월 26일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에 편성된 제2사단 5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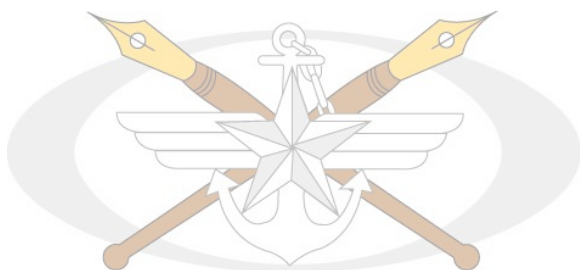
를 박기성 중령에 이어 지휘하게 된 최창언 중령은 창동-미아리지 구전투에 참전, 북한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전차를 앞세운 적의 기세에 밀려 한강 이남으로 후퇴한 그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개된 한강-수원방어전에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혼성제2사단 제5연대장으로 활동하다 부상을 당해 7월 3일부로 후임 박기성 중령에게 연대지휘권을 다시 인계하였다.

이어 제7사단 5연대장으로 부임한 최창언 대령은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개된 보현산부근전투에서 북한군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와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의 아군 방어진지 돌파기도를 22일간이나 억지한 후, 9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영천전투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영천을 탈환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를 발판으로 아군이 총 반격에 나서자 최창언 대령도 제5연대를 이끌고 9월 17일부터 제2훈련소장으로 전보되는 날까지 경주-서울진격전에 임하였다. 9월 30일 제2훈련소장으로 부임하여 1953년 5월 1일 수도사단장으로 전선에 복귀할 때까지 제6사단 부사단장과 제1훈련소 부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수도사단장으로 부임한 최창언 준장은 195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된 금성 서남지구전투, 일명 ‘수도사단의 미주리선 철수작전’을 지휘하였다. 휴전을 앞두고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7월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은 수도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금성돌출부 좌견부를 공격하였다.

수도사단은 하소리(下所里)에서 회고개(灰古介)까지 주저항선에 제26연대와 제1기갑연대 3대대가 배속된 제1연대를 배치하고 제1기갑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반면 중공군 제68군 204사단과 제203

금성 서남지구 전투상황



사단, 제54군 130사단은 7월 13일 21시에 제26연대를 비롯한 사단 전역에 포격을 가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은 우익의 제1연대를 강타하면서 주공을 중치령과 회고개 방향으로 투입하는 한편 중대 및 대대 규모의 부대로 진지를 공격하면서 주력은 거점과 거점간의 공간 장애물지대로 지향하는 전술을 펼쳤다. 23시경 제1연대의 중앙과 좌익 일선 진지가 적에게 점령되었고, 자정이 넘어 회고개의 제2대대도 와해되었다.

한편 제26연대도 우익의 제1대대를 비롯한 3개 대대가 이날 밤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남대천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수도사단은 중공군의 공세 첫날인 13일 자정 무렵 전방대대 진지가 유린되고 다음날 03~04시경 전방대대의 OP가 적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주저항선이 붕괴되었다.

제1연대 진지가 돌파될 무렵 전황보고를 통해 적의 주공이 직목동-이천동-간진현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다고 판단한 사단장 최창언 준장은 제1기갑 연대장에게 역습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천동까지 진출했던 기갑연대는 중공군의 기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겨우 부대를 수습하였다.

사단장은 04시경 통신이 두절된 제1연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예비대를 투입하였다. 예비인 제1대대는 117A 도로를 타고 06시경에 간진현에 도착하여 제1연대의 피습 상황을 파악하고 북정령 북쪽에 부대를 배치하여 철수부대를 엄호하였다.

신촌-간진현선에 제2저지선을 구축하여 적의 돌파를 저지하고 부대를 수습하기 위해 1개 연대의 지원을 군단장에게 요청한 사단장은 지원병력인 미 제15연대가 14일 12~17시에 117번 도로 남쪽 능선에 제2저지선을 형성하자 곧바로 117A 도로 북쪽 능선을 확보하

기 위해 이때까지 수습된 제26연대와 제1연대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능선을 점령하여 새로운 주저항선을 구축하는 한편 미처 철수하지 못한 사단 병력을 구출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이 공격에서 제1연대는 북정령을 점령중인 기갑연대 제1대대로 이른 아침 117A번 도로 북쪽 능선의 우반부를 공격하였고, 제26연대는 야간에 그 좌반부를 공격하였으나 중공군의 반격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시켜 미 제15연대의 투입을 보장하고 철수부대도 일부 구출하였다.

수도사단장은 철수하지 못한 병력을 수습하기 위해 계획된 공격을 12시 30분에 개시하여 15시경 117A번 도로 북쪽 능선을 점령하였으나 중공군의 야간공격으로 점령한 능선을 포기하고 미 제3사단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계속된 이 전투에서 수도사단장 최창언 준장을 비롯한 전 장병은 혼연일체가 되어 미 제9군단의 우익을 방어함은 물론 국군 제2군단의 좌익을 엄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단 예비로 투입되어 적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적 사살 2,027명과 추정살상 6,200명, 포로 10명을 획득하였고 따발총 24정과 체코식 경기 및 SMG 각 2정, 45mm 무반동총 1정, LMG 1정, 소총 1정 등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수립하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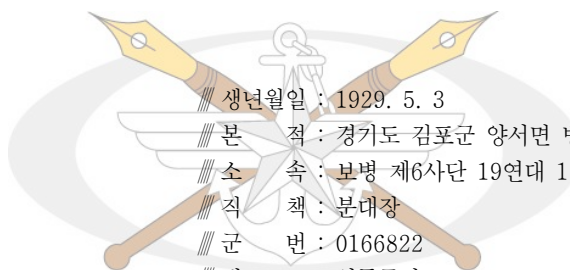
금성 서남지구전투를 마지막으로 휴전에 돌입하게 된 최창언 준장은 수도사단장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육군소장으로 진급하였고,

1956년 7월 24일에는 육군본부로 전속되어 수송감(輸送監)에 보임되었다. 1957년 5월 장군은 제2군관구사령관에 취임하여 관하의 부대에 대한 작전·군수·행정상의 여러 지원업무를 관장하기도 하였다.

그 후 국방부 정훈국장, 육군보병학교장을 역임하고 1961년 5월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직후 제3군단장으로 부임하여 활동하던 중 국방대학원장에 임명되는 한편 육군중장으로 진급하였다. 3년 후인 1966년 2월 12일 육군중장으로 20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최창언 장군은 1988년 4월 4일 68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장군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126에 안장되었다.

장군은 군문에 첫 발을 디딘 1946년부터 국군의 창설과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1950년 6월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했던 시기에는 전장을 누비며 뛰어난 전공을 수립함으로써 적의 침략을 분쇄하는데 주력하였다. 정부는 장군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1954년 7월 28일 군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외에도 을지·충무·화랑 등 각종 무공훈장과 유엔종군기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포장을 수여받았다.

安 樂 奎 육군일등중사



/// 생년월일 : 1929. 5. 3
 /// 본 적 :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방하리
 /// 소 속 : 보병 제6사단 19연대 1대대 2중대
 /// 직 책 : 분대장
 /// 군 번 : 0166822
 /// 계 급 : 일등중사
 /// 주요전투 : 교암산지구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4. 6. 25)

□ 김화 407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안낙규 일등중사는 제6사단 19연대 1대대 2중대의 작전계로 있던 1953년 7월 13일 김화지역의 교암산전투에서 중대가 전멸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자원하여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그는 8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적의 측후방을 기습공격하여 탄약보급차를 폭파시킨 뒤 적

진에 뛰어들어 수류탄을 투척하며 백병전을 전개하는 등 적의 공격 기세를 둔화시켜 중대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무훈을 수립하였으나 불행히도 자신은 적탄에 의해 현장에서 산화함으로써 살신보국의 예가 되었다. 1954년 6월 25일 정부는 안낙규 일등중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군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73호)을 수여하며 전 장병의 귀감으로 삼았다.

6·25전쟁의 종전이 임박해오자 중공군과 북한군은 금성돌출부 탈취를 목표로 한 대규모 공세작전을 계획하고 유사지형에서 예행 연습까지 실시하였다. 금성 남쪽과 교암산·지형능선·612고지를 연하는 금성돌출부 선단지역 중 회고개 동측에서 금성 남쪽을 지나 교암산까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제6사단은 7연대를 회고개-사천리에, 제19연대를 사천리-교암산지역에 배치하고 제2연대를 예비로 선단지역 좌반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7월로 접어들어 점차 적의 새로운 공격 징후가 농후해지면서 교암산 전초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이 빈번해지자 사단은 7월 9일 제2연대 3대대를 예비대로 제19연대에 배속하고 교암산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7월 12일 적의 대공세를 예상한 사단은 예비인 제2연대 전체를 교암산지역에 투입하면서 서측의 17번 도로 축선은 제19연대가, 교암산은 제2연대가 적의 주접근로를 방어하도록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13일 밤 군단예비인 제11사단 9연대를 금성 남쪽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제6사단은 주저항선을 4개 연대로 강화하였으나 사단예비는 갖지 못한 상태였다.

적은 7월 13일 21시 교암산 전초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암산은 제2연대 1대대가 방어를 맡았고, 그 전방 능선에는 제2대대가 3개 중대로 전초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적은 먼저 최전방

에 있는 제7중대에 압력을 가한 다음 21시경 제6중대 분초를 유린하고 1시간 후 2개 대대로 제6중대와 제5중대를 공격하였다. 적의 병력은 4개 대대로 증강되었으며, 곧이어 제6중대에서는 진내전이 전개되었다. 자정 무렵 전초를 우회한 적은 교암산의 주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사단 전초진지를 돌파한 적은 17번 도로를 방어하던 중앙의 제19연대 주저항선을 먼저 돌파하였다. 적 4개 대대는 금성 남동쪽 3km 지역의 제19연대 2개 중대전초를 일출 전에 점령한 후, 그 중 1개 대대를 17번 도로에 배치된 제2대대 측후방으로 침투시켜 전후방에서 전방대대에 협격을 가했다.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적의 인해전술에 밀려 08시 20분에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저지진지를 점령한 예비대대의 엄호하에 철수하여 교암산 서쪽을 방어하던 중 금성천을 건너 노동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사단 좌익의 제9연대는 13일 야간에 하고개 북방 제7연대 좌전방진지를 인수받은 제2대대가 밤새 적의 파상공격을 방어하며 주저항선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수도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침투한 적이 14일 02시 30분부터 하고개 전방 예비진지에 배치된 제3대대에 측방공격을 가해왔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의 측후방 침투가 확대되자 연대장은 월봉리의 제1대대를 하고개-월봉산에 배치하여 서측방 방어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09시 무렵 연대 후방 월봉산에서 적이 출현하고 하고개 일원의 제3대대 지휘소 및 지원시설, 죽대리의 연대지휘소가 적의 기습을 받아 연대는 11시에 철수승인을 받아 좌인접 수도사단과 연계하여 진현리-삼현선에 저지선을 형성하였다.

한편 교암산에 주진지를 편성한 제2연대 1대대도 연대 전초중대가 공격을 받은 직후 그 남쪽에 추진 배치된 제3중대가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자정 무렵부터 고지에 배치된 대대 주력도 전투에 들어가 적의 파상공격에 고전하고 있었다. 대대는 14일 일출 무렵까지 적의 돌격과 아군의 진내사격이 반복되는 진내전을 계속하였으나, 일출 무렵 적의 규모는 10개 대대로 늘어난 반면 아군은 이에 대처할 연대에비나 사단예비도 없었다. 또한 좌측에 인접한 제19연대의 철수로 측방이 노출되어 제3대대도 교암산 서측으로 물러나 그 외곽에 증강 배치되었다.

그러나 적의 집중적이고 파상적인 공격으로 교암산 외곽진지가 차례로 무너지자 08시 20분 제2연대는 교암산을 중심으로 한 전면 방어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우인접 제8사단 지역의 765고지를 점령한 2개 대대 규모의 중공군도 교암산 진지를 공격하였다. 좌인접 제19연대와 우인접 제8사단으로 쇄도하는 대규모의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된 제2연대는 결국 교암산을 포기하고 금성천을 건너 노동리에서 병력을 수습하게 되었다.

쌍방간에 쟁탈전의 초점이 된 교암산은 이 지역의 북쪽 중앙에 높이 솟아 있어 작전지역은 물론 금성 일대의 대부분의 지역을 깊숙이 감제하고 관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다. 특히 교암산을 기점으로 동으로 북한강까지 뻗어있는 횡격실 능선은 금성천을 사이에 두고 10km 남쪽의 백암산을 중심으로 한 횡격실 능선과 쌍벽을 이루며 쌍방의 방어선 형성에 대단히 적합한 지형이었다.

1953년 7월 12일 21시 제6사단 19연대 1대대는 442고지 일대의 전투 정면을 제2연대 3대대에 인계하고 연대 좌일선으로서 제3중대가 가학리 북쪽의 ‘바’고지에 주진지를, 제2중대가 407고지에 전진진

지를 각각 점령하였으며 제1중대는 예비로서 가학리에 위치하였다.

다음날 21시 30분 제19연대 정면에서 적의 집중포격이 시작되자 연대장은 포병의 차단사격과 조명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각 대대에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제7중대를 우일선, 제6중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계암(鷄岩) 일대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제7중대의 1개 소대와 대대수색대로서 394고지에, 제5중대로서 ‘마’고지에 각각 전초진지를 확보하게 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22시 20분에 이르자 포격간에 미리 잠복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적 1개 소대가 제5중대의 동측방을 목표로 급습해왔다. 중대는 60mm 박격포의 조명아래 적의 그림자를 포착하는 즉시 사격을 집중하여 격퇴하였으나 364고지로부터 기관총과 직사포를 퍼부어 진지를 교란하던 1개 중대 규모의 적이 북쪽 능선을 통해 진지 앞으로 쇄도하였다. 제77포병대대가 즉각 오리동(梧里洞) 일대의 적의 화력을 제압하는 한편 VT탄으로 탄막사격을 가하는 가운데 모든 화력으로 최후저지사격을 감행하자 적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364고지로 되돌아갔다.

한편 394고지에 전투전초진지를 확보한 제7중대 3소대와 대대수색대는 22시 30분부터 침공해오기 시작한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포병의 엄호사격하에 근접전을 벌여 일단 격퇴하였으나 계속 증강되는 파상공격으로 진내사격의 보람도 없이 23시 20분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제3중대를 가학리 북쪽의 ‘바’고지에 주진지를, 제2중대를 407고지에 전투전초진지를 각각 점령하게 하였으며 제1중대는 대대예비로서 가학리에 배치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7월 14일 제6사단과 제8사단에 대한 적의 공격이 점차로 가중되자 군단장은 금성천 남안에서 적을 저지한 후 반격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장은 7월 14일 15시 30분을 기해 미주리선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19시 30분까지 주파리(注坡里)로 이동하는 즉시 반격태세를 갖추는 것과 연대계획에 의거 축차적인 철수를 단행하여 노동리(蘆洞里)에서 재편하고 주파리로 이동할 것을 제19연대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단 중앙 일선인 제19연대의 주저항선 일부가 07시 30분에 돌파되자 사단장은 사단예비로 확보한 제3대대를 급진시키는 한편 사단 수색중대로 하여금 교암산 남측을 엄호하면서 도하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19연대 1대대는 적의 포화가 집중하는 가운데 ‘바’고지의 주진지와 407고지의 전투전초진지를 확보하여 결전태세를 갖추었으나, 제5중대와 연계를 유지하고 407고지에 전투전초진지를 확보한 제2중대가 자정 무렵부터 적 2개 대대 규모의 공격을 받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중대 규모의 적 공격을 포병의 화력지원으로 격퇴한 제2중대는 재차 대대 규모의 적이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의 지원아래 공격해오자 결사적인 분전으로 수류탄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중대장은 통신두절과 아군피해가 증가되는 위험한 상황하에서 407고지가 피탈되면 인접중대 및 대대가 전멸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의 후방을 기습, 공격제대를 마비시키기 위한 특공대를 편성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스스로 특공대를 자원한 중대 작전계 안낙규 일등중사는 8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3발의 수류탄을 휴대한 채, 중대 주진지를 출발하여 능선으로 접근해갔다. 피아간의 자동화기와 포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능선의 가장자리에 도착한 특공대는 일단의 적의 무리를 발견하였다. 그들이 적의 최전방 추진보급소의 탄약 운반차량임을 감지한 안 중사와 대원들은 50여m를 질주해 수류탄을 투척, 이를 폭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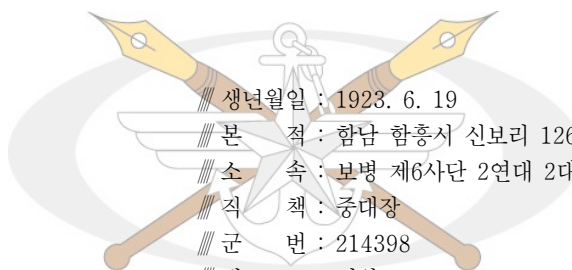
추진보급소를 폭파한 대원들은 적의 공격 축선으로 파고들었다. 암흑 속에서 특공대는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검을 휘두르자 적진은 혼란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계속하여 대원들을 독려하며 백병전을 벌이던 안 중사는 복부와 가슴에 적이 쏜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으며, 그 이후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이처럼 안 중사를 비롯한 특공대의 생명을 초월한 활약과 전 중대원이 전개한 백병전 및 수류탄전으로 적은 물러갔으나, ‘마’고지-407고지 일대의 전투전초진지를 돌파하고 제2대대 정면의 363고지로 침공해 온 적이 주저항선을 확보한 제3중대의 우측방을 공격함으로써 제1중대와 제2중대의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한 연대는 노동리로 철수하여 병력 재편성에 들어갔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29년 5월 3일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에서 출생한 안낙규 일등중사는 자원특공대를 이끌고 적진에 돌입하여 공격축선을 차단, 중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되었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국가를 위하고 생을 마감한 그에게는 1954년 6월 25일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金 敎 洙 육군대위



/// 생년월일 : 1923. 6. 19
 /// 본 적 : 함남 함흥시 신보리 126번지
 /// 소 속 : 보병 제6사단 2연대 2대대 6중대
 /// 직 책 : 중대장
 /// 군 번 : 214398
 /// 계 급 : 대위
 /// 주요전투 : 교암산 ‘가’고지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3. 10. 13)

□ 교암산 ‘가’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휴전을 앞두고 적이 최후로 시도한 이른바 ‘7·13공세’ 당시 국군 제6사단 2연대 2대대 6중대장이었던 김교수 육군대위는 1953년 7월 14일 강원도 김화군 원동면에 위치한 교암산 ‘가’고지 전초진지에서 중공군 제199사단의 주력을 맞아 백병전을 전개하며 진내사격을 유

도, 중대장은 물론 중대원 거의 모두가 전사하고 단지 6명만이 생존한 처절한 방어전투를 감행하여 인접부대의 철수작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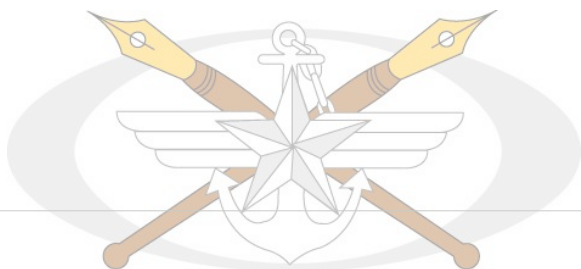
정부는 1953년 10월 13일 이 방어전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김교수 대위에게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32호)을 추서하면서, 그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전 장병의 귀감으로 삼았다.

교암산전투는 중공군이 휴전직전인 1953년 7월에 공세를 취해 금성돌출부를 점령한 중공군 최후공세 당시의 전투이다. 6·25전쟁의 종전이 임박해오자 중공군은 ‘땅도 차지하고 체면도 세우기’ 위하여 금성돌출부 탈취를 목표로 한 대규모 공세작전을 계획하고 유사지형에서 예행연습까지 실시하였다.

금성 남쪽과 교암산·지형능선·612고지를 연하는 금성돌출부 선단지역 중 회고개 동측에서 금성 남쪽을 지나 교암산까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제6사단은 제7연대를 회고개-사천리에, 제19연대를 사천리-교암산지역에 배치하고 제2연대를 예비로 선단지역 좌반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7월로 접어들어 점차 적의 새로운 공격 징후가 농후해지면서 교암산 전초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이 빈번해지자 사단은 7월 9일 제2연대 3대대를 예비대로 제19연대에 배속하고 교암산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7월 12일 적의 대공세를 예상한 사단은 예비인 제2연대 전체를 교암산지역에 투입하면서 서측의 17번 도로 축선은 제19연대가, 교암산은 제2연대가 적의 주접근로를 방어하도록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13일 밤 군단예비인 제11사단 9연대를 금성 남쪽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제6사단은 주저항선을 4개 연대로 강화하였으나 사단예비는 갖지 못한 상태였다.

1953년 7월 교암산 전투상황



7월 13일 21시 적은 교암산 전초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암산은 제2연대 1대대가 방어를 담당하였고, 그 전방 능선에는 제2대대가 3개 중대로 전초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적은 먼저 최전방에 있는 제7중대에 압력을 가한 다음 21시경 제6중대 분초를 유린하고 1시간 후 2개 대대로 제6중대와 제5중대를 공격하였다. 적의 병력은 4개 대대로 증강되었으며 곧이어 제6중대에서는 진내전이 전개되었다. 자정 무렵 전초를 우회한 적은 교암산의 주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6중대는 이날 밤 여섯 차례나 진내사격을 요청하며 적을 격퇴하였지만, 이후 계속된 전투에서 중대장 김교수 대위 이하 전 장교

및 중대원이 거의 전사하고 단 10명만이 14일 아침에 탈출하였다.

1953년 7월 13일 이른 아침 제6중대는 3개의 공격목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장 김교수 대위는 주도면밀한 작전계획에 의거 중대를 진두지휘하면서 공격전을 전개하였다. 02시 55분에 제1목표를 점령한 제6중대는 03시 20분에 제2 목표를, 04시 50분에는 제3 목표를 완전탈환하고 엄중한 경계에 돌입하였다.

20시 45분에 적은 총 6개 중대 병력으로 반격을 가해왔으나, 제6중대는 이를 격퇴하였다. 신속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 중대장은 적의 재공격 저지에 전력을 경주하도록 중대원을 격려하였다. 당시 공격에 있어 기동성을 지니고 있던 적은 수류탄 투척이 가능한 지점까지 접근하여 피아간에 수류탄전이 전개되었으나, 21시 40분경 적은 개전 이래 초유의 대 포격과 더불어 물밀듯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왔다.

끊임없이 쏘아대는 무수한 적의 포탄으로 인해 제6중대의 모든 진지는 완전파괴 되었고 유선통신망마저 두절되었다. 험악한 암석만으로 형성된 극히 불리한 지형조건에 설상가상으로 밤에는 비까지 내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적을 맞은 제6중대는 접전 초기부터 처절한 육박전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수십 배에 달하는 대적의 내습속에서 김 대위는 침착하게 중대의 진두에서 작전지휘에 임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의 포화는 그 강도가 더해갔고 적의 병력도 급속도로 증강되었다. 마침내 1개 연대 규모 이상의 적이 제6중대를 완전포위하게 되자 적의 최후공격이라 판단한 김 대위는 전 포병의 일제사격을 요청하였다. 대대적인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은 화망(火網)을 뚫고 진지를 향해 돌진해왔다. 중대장을 비롯한 중대원은 수

류탄전에 이어 육박전을 감행하였으나, 중앙이 돌파되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김 대위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포병의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중대원에게 동굴로 대피할 것을 명령하였다. 즉각적인 아군 전 포병의 진내사격이 제6중대 진지인 ‘가’고지를 강습하였고, 포격에 의해 유·무선이 두절되었다. 제6중대가 포진한 능선상에서는 피아간의 일대 혼전과 함께 전사상 유례가 드문 대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김 대위는 모든 중대원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한 치도 물러나지 말고 적을 무찌르도록 격려하며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몰려오는 적을 향해 몸소 수류탄을 투척하며 총검을 휘두르는 등 오직 진지 사수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적진으로부터 날아든 한 발의 총탄이 김 대위의 복부에 명중됨으로써 그는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중대장의 죽음은 모든 중대원의 적개심을 극도로 자극, 좌우에 위치한 인접부대가 이미 적에게 돌파 당한 위기 속에서도 7~8시간 동안 고군분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고군분투하던 중대원들도 06시 50분 적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대부분이 전사하고, 단지 6명만이 생존하였다.

이처럼 김 대위는 작전계획에 의거 침착하고 대담한 진두지휘로써 파상적인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중대의 진지를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김 대위를 비롯한 모든 중대원의 분전은 좌우 인접부대가 돌파당한 위기속에서도 7~8시간 동안 교암산을 고수함으로써 각 연대 및 사단 등 아군의 안전한 철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교암산은 제6사단이 1951년 여름 용문산전투 이후 그 여세를 몰아 점령한 후 여기에서 동서로 연하는 주저항선을 편성, 1953년 휴전 무렵까지 확보하였던 요지이다.

이 고지는 화천-창도리-회양의 중동부전선 간선도로를 화천과 창도리 사이의 방평리에서 가로막고 있는 형세이며, 금성천 유역과 일대의 야산지대를 한 눈으로 감제함으로써 적의 근거지인 창도리로부터 병력과 보급품의 전선 추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금성천 동안의 아군 주저항선에서 가장 표고가 높기 때문에 방어편성상 핵심적인 고지였다. 따라서 이 고지는 적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제압적 존재이자 아군에게는 이 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화천선까지 철수해야만 하는 제2군단 방어선의 최대거점이었다.

1953년 7월 휴전조인을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피아간의 시도가 행해졌고, 교암산전투도 이러한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전투 전초진지인 ‘가’고지전투는 약 3시간 동안에 87,000발의 포격을 받으면서 1개 중대가 1개 연대를 대적하여 8시간이나 진지를 지탱하는 한편 1,200명의 적을 사살하는 대 전과를 거둔 방어전투였다.

지리적인 악조건으로 인해 병력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인접부대의 방어선이 와해된 상황에서도 진지를 사수함으로써 연대 주력과 인접한 지원부대가 성공적으로 철수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 이는 질서정연하게 화천 방향으로 철수한 병력이 전열을 재정비, 재반격을 감행함으로써 실지를 회복하는 계기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전투는 전투전초진지의 운용에 관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다. 금성천의 주류 및 지류로 후방이 차단되어 양호한 예비진지나 보조진지를 보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암산을 제외한 주진지의 지형적 취약성으로 전투전초진지를 강화·고수하면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려는 아군의 작전계획은 타당하였다.

실제로 각 전투전초진지에서는 적의 공격을 저지 또는 타격을 주어 공세지연에 성공하였으며, 특히 제2연대 2대대의 경우는 옥쇄를 각오로 ‘가’고지에서 적 주력의 침공을 저지하여 교암산 방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전개된 이래 제19연대 1대대가 예비를 급진시켜 전투전초진지에서 이탈하는 병력을 수용한 이외에 증원, 교대, 수용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포병지원에만 의존한 채 분전만을 독려하였다. 물론 예비대가 없는 각 연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적의 공세가 전투전초진지에서 저지 격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병력을 철수시켜 손실을 감소하고 주진지의 방어에 주력했어야 한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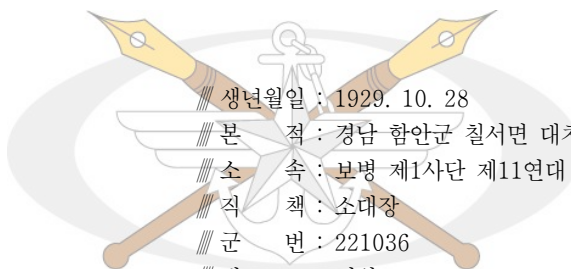
1923년 6월 19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김교수 육군대위는 홍남공과대학 2년을 수료한 후 월남하여 1951년 8월 18일 육군종합학교 제32기로 육군소위에 임관되었으며, 이후 각 지구 전선에 참가한 후 제6사단 2연대 2대대 6중대장으로 교암산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1개 중대의 병력을 이끌고 인해전술로 달려드는 중공군 제199사단 주력 연대의 파상공격을 맞아 일진일퇴의 혈전을 거듭한 김교수 대위에게는 휴전이 체결된 이후 태극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 방위포장이 차례로 수여되었다.

연천 베티고지전투의 영웅



金 萬 述 육군대위



/// 생년월일 : 1929. 10. 28
 /// 본 적 :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25번지
 /// 소 속 : 보병 제1사단 제11연대 2대대 6중대
 /// 직 책 : 소대장
 /// 군 번 : 221036
 /// 계 급 : 대위
 /// 주요전투 : 연천 베티고지전투
 /// 상훈내용 : 금성태극무공훈장(1954. 7. 6)

□ 베티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휴전협정 체결을 목전에 둔 1953년 7월은 전 전선에서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베티(Betty)고지는 제1사단의 전초기지로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1953년 7월 15일 소대원 35명과 함께 베티고지를 지키고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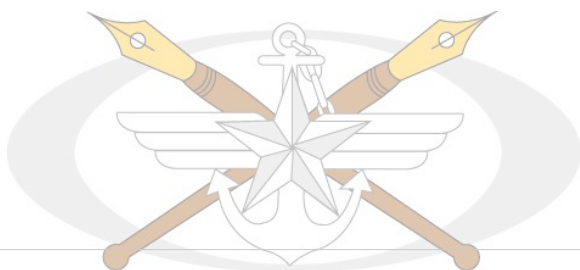
제1사단 11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장 김만술 소위는 야음을 이용하여 인해전술로 공격해오는 중공군 제1군 예하 제1사단 2개 대대 규모의 적을 맞아 5차례의 공방전을 벌이면서 13시간 동안 치열한 혈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포병의 진내사격을 요청하여 적을 제압하는 한편 선두에서 육탄전을 벌여 적 314명을 사살하고 450명을 부상시키는 전공을 거둬들여 미국 십자훈장에 이어 1954년 7월 6일 국군 최고의 영예인 금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88호)을 수여받았다.

중공군은 ‘7·13공세’를 취함과 동시에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 역곡천 일원의 전초진지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해왔다. 당시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을 중앙에 두고 좌측인 고왕산 서측 노리고지에 제11연대, 우측 중사리-어적산리에 제15연대를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제12연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1군 1사단은 7월 13일 임진강 서안 고양대(高陽臺) 부근의 국군 제1사단 11연대 전초진 베티(Betty)고지를 공격하였다. 베티고지는 임진강 지류가 남북으로 흐르는 가운데 아군의 주진지와는 남쪽의 지류를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져 이어진 표고 150~120m의 봉우리 3개로 형성된 고지로서, 보다 큰 규모의 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지형조건은 아니었다. 또한 마량산 일대의 적은 그대로 고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주진지로부터 병력과 보급을 지원해야 하는 아군은 우회 도하를 해야만 하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 고지는 중대 규모로 설정된 전초진지이나 고지를 유지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병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제1사단 11연대 2대대장은 제7중대 1개 소대만을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철수시켰다.

베티(Betty)고지 전투상황



그러나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적의 공격을 받은 제7중대 1소대는 많은 피해를 받아 전력이 반 이하로 감소되어 더 이상 버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6중대 2소대장인 김만술 소위에게 진지교대 명령이 하달되었다. 제2소대는 이미 서봉을 장악한 적과 교전하며 진지를 보수하고 경계를 강화하던 중 야간이 되자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2소대는 유개호에 의지하여 진내사격을 요청해가며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적의 파상적인 공격을 격퇴하고 이 전초를 고수하였다.

특무상사에서 육군소위로 현지임관한 김만술 소위는 7월 15일 12시

30분 제2소대원 34명을 이끌고 베티고지를 향해 적의 포격이 빗발치는 임진강을 단정(短艇)으로 도하하였다. 제1사단 주 전선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베티고지는 적의 제일 공격목표가 되어 있었다.

15시 30분경 베티고지에 도착한 제2소대는 제7중대 1소대와 합류하여 진지를 인수하고 2개 분대를 중앙봉에, 1개 분대를 동봉(東峰)에 배치한 후 진지교대가 완료되었음을 제2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대대장은 “고지 서봉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김 소위에게 하달하였고, 공격명령을 받은 김 소위는 17시 30분 1개 분대를 직접지휘하여 서봉(西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분대는 서봉의 동북쪽 기슭으로 전진하여 저항하는 5명의 적을 사살하고 정상을 향해 올랐다.

19시 30분경 대대 규모로 추정되는 적의 공격을 받은 김만술 소위는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적과 맞서 싸우다가 아군의 지원포격이 개시되자 유개호 속으로 들어갔다. 적은 아군의 지원포격에 사상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통호로 육박하여 유개호 입구의 경계병과 접전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소대장은 유개호 입구로 나가 안에서 집어주는 수류탄을 쉴새없이 투척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렇게 하여 20시경 아군의 포격을 중지시킨 후 진지 일대를 수색한 소대장은 적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고지의 서사면에 운집하고 있음을 알았다. 적의 재공격을 예상한 소대장은 단절된 통신선을 보수하고 진지를 강화하는 등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22시경 중대 규모의 적이 양면으로 협공을 가해오자 소대장은 포격을 요청한 후 호 속으로 들어갔다. 막대한 포화속에서도 일부의 적은 교통호 및 유개호 입구까지 육박하여 수류탄을 투척하였고, 이로 인해 무전기가 파손되어 유·무선이 모두 불통되었다. 이때 반사

적으로 호에서 뛰어나간 김 소위는 적을 육탄으로 공격한 다음 다시 호 속으로 들어와 수류탄을 투척하자 적은 많은 사상자를 유기한 채 퇴각하고 말았다. 소대는 이 전투로 통신망이 불통되어 전반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적시적절한 포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자체 병력으로 진지를 고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소대장은 대대 OP에 무선통신기의 지급과 유선의 복구를 요청하여 16일 04시경 유·무선 통신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7월 16일 04시가 지나면서 적은 다시 중앙봉 서북쪽과 서쪽으로 부터 각각 소대 규모의 병력으로 일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소대는 아군의 지원포격이 집중되자 호 속으로 들어가 수류탄으로 적의 진입을 저지 격퇴하였다. 그러나 05시 30분경 중대 규모의 적은 다시 중앙봉 북사면을 따라 공격을 재개하였다. 김만술 소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병력으로 교통호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며 적을 저지하였는데, 이때 2명의 적이 교통호로 뛰어들자 김 소위는 순간적으로 총검을 이용하여 사살하였다.

수류탄을 계속 투척하는 한편 중과부적으로 전세가 불리함을 판단한 김 소위는 소대원을 유개호 속으로 대피시키고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날이 밝아오자 적은 중앙봉 북쪽 및 동봉 북쪽으로 퇴각하였으나, 퇴각했던 적은 짙은 안개로 5m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불량한 시계를 이용하여 06시 40분에 다시 공격을 가해왔다. 수류탄전에 이어 백병전이 전개되어 피아간에 처절한 사투가 지속되었으나 07시 30분경 안개가 걷히면서 적은 많은 사체를 남긴 채 퇴각하고 말았다. 소대는 곧바로 진지 일대를 수색하여 부상당한 중공군 3명을 포로로 잡고 08시에 제6중대 3소대와 진지를 교대한 후 중대로 복귀하였다.

김만술 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는 베티고지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수 차례의 사투 끝에 격퇴하고 진지를 사수하였지만 소대원 역시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 소대장을 포함한 총 35명의 소대원 중 생존자는 경상자를 포함한 12명에 불과하였다.

베티(Betty)고지는 아군의 서부전선 북단에 위치했던 고지로서 주위에는 임진강이 둘러 흐르고 있는 작전상 요충지였다. 베티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휴전이 성립될 경우, 주저항선에서 남쪽으로 2마일 이상이 비무장지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군은 그 만큼 임진강 남쪽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군사·지리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베티고지는 북쪽에 편입되었지만, 김만술 소위를 비롯한 제2소대원의 사투는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국군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을 보여주는 장거였다.

그러나 이 전투는 동굴작전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 고지뿐만 아니라 당시 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각 고지는 고강도의 동굴을 이용한 동굴작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작전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보·포협동이 유기적이지 못하며 동굴내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단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동굴 자체가 적의 진내전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도 적의 공격에 동굴진지가 쉽게 피탈 당한 원인이 되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베티고지전투의 영웅인 김만술 대위는 1929년 10월 28일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였다. 일본 오사카공업학교를 졸업하고 광복 이후

1947년 6월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부산에 주둔하던 제5연대에 배속되었다. 여·순 10·19사건의 진압작전과 태백산맥 등지에서 준동하던 공비토벌작전에 기관총사수로 참전하는 등 약 6년여의 기간을 하사관으로 복무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평양 탈환작전 등 주요전투에 참전하여 탁월한 지휘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김동빈 사단장의 구두명령에 의해 1953년 7월 15일 육군소위로 현직임관되어 제1사단 11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장으로 부임하였다.

1960년 육군대위로 예편한 그는 1977년 시흥에 상이군경용사촌을 건립하고 대한상이군경회 이사 등으로 활동, 상이군경의 명예회복과 권익증진에 힘써 오다가 1991년 5월 28일 62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崔 榮 喜 육군중장

- 
- /// 1921. 3 서울 출생
 - /// 1946. 1 군사영어학교 졸업 및 육군참위(소위) 임관
 - /// 1947. 4 제6연대 2대대장
 - /// 1950. 4 제5사단 15연대장
 - /// 1950. 7 제1사단 15연대장
 - /// 1950. 10 육군준장
 - /// 1950. 10 제1사단장
 - /// 1950. 12 제8사단장
 - /// 1951. 6 국방장관 보좌관
 - /// 1952. 5 육군소장
 - /// 1952. 6 국방부 제2국장
 - /// 1952. 7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 /// 1953. 6 제15사단장
 - /// 1953. 9 제5군단장
 - /// 1954. 5 육군중장
 - /// 1956. 9 제2군사령관
 - /// 1959. 2 교육총본부 총장
 - /// 1960. 5 육군참모총장
 - /// 1960. 8 연합참모본부 총장
 - /// 1960. 10 예편

1921년 3월 1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동경의 전문(專修)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학병으로 일본군에 징집되어 보병소위로 있던 중 조국의 해방을 맞았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조국의 젊은이들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의 창설이 절대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창군작업에 뛰어들었다. 학병소위의 경력을 갖고 있던 최영희도 동경제대 법대 출신인 왕익권(王益權)이 제국주의 타도, 신조선의 건설, 치안유지의 협력 등을 내세우고 학병 출신들로 결성한 ‘조선학병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왕익권 일파의 선동적이며 노골적인 공산주의적 편향에 회의를 갖게 된 학병 출신 3,000여 명은 학병동맹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 중 일부는 ‘학병단’을 결성하여 학병동맹에 대항하였다. 학병단원 중 최영희를 비롯한 김종갑, 민기식, 강영훈(姜英勳), 이치업(李致業) 등은 열성적으로 좌파와 대립했던 단원들로서 이후 창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6·25전쟁 당시 공산군을 격퇴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미 군정청이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고 통역장교요원을 모집하자 최영희는 학병단원 일부와 함께 입교하여 1946년 2월 21일 졸업과 동시에 군번 10051의 육군참위(소위)로 임관되었다. 제6연대에 배속된 그는 심언봉(沈彦奉), 장도영 등과 함께 B중대와 C중대를 모병하여 대대편성을 완료하는 한편 1947년 4월에는 제6연대 2대대장으로 부임하였다. 다음해 5월 총사령부 인사참모를 거쳐 7월에는 육군대령으로 진급하였으며, 그 직후 육군사관학교 후보생대대장으로 전보되어 헌병사령관 겸 헌병학교장으로 복무하게 된 1949년 11월까지 재임하였다.

6·25전쟁을 두 달 여 앞둔 1950년 4월 18일, 헌병사령관으로 전

보된 송요찬 대령에 이어 제15연대장으로 보임된 최영희 대령은 보병학교 교육과정에 있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전장에 나서게 되었다.

□ 351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개전과 함께 원대인 제15연대로 복귀한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고랑포-청단간의 서부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제1사단에 배속되었다. 육군본부로부터 문산지구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선발대인 최병순 소령의 제3대대를 지휘, 제1사단에 도착한 그는 백선엽 사단장으로부터 금촌 북쪽의 고지군을 점령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격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7일 오전 적의 주력을 맞아 접전을 펼친 끝에 봉일천으로 철수하였다.

후퇴하는 제1사단과 함께 행주나루를 건너 김포반도로 철수한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6월 30일 김포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되어 오류동-소사간의 경인가도 고수와 김포비행장 탈환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적의 공세에 밀려 후퇴하던 중 7월 6일 증평에서 제1사단 13연대에 통합되었다.

화령장 부근에서 지연전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며 문경-낙동강으로 철수한 최영희 대령의 제13연대는 8월 3일부터 다부동전투를 전개하며 낙동강선을 방어하는데 성공하고 9월 25일 반격에 나섰다. 보은-청주-안성을 거쳐 고랑포로 진격한 제1사단은 10월 11일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탈환작전에 돌입하였다. 10월 19일 적도 평양에 입성한 제1사단은 순천-개천을 거쳐 11월 2일 운산으로 북진하였으며,

운산에서 청천강으로 철수한 후 재진격을 실시하였다.

북진중인 10월 10일 육군준장으로 진급한 후 10월 24일부로 제1사단장에 임명되어 철수작전을 지휘하였다. 5일간의 청년방위대 고문단장직을 거친 후 1950년 12월 25일 이성이 준장의 후임으로 제8사단장에 전보된 최영희 준장은 춘천-홍천으로 사단을 철수시켰다. 1951년 1월 20일 미 제10군단으로 배속변경된 제8사단은 충주-함창-제천-횡성으로 이동하여 2월 5일부터 횡성전투를 전개하고, 군단의 라운드업 작전에 좌익사단으로서 홍천으로 진격하던 중 중공군에 포위되어 부대가 분산되었다.

전선을 미 제2사단에 인계하고 주포리로 이동한 사단은 제천을 거쳐 대구로 이동하여 부대 재편에 들어갔다. 4월 중반에 접어들어 금산과 부안 등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펼친 후 제천-홍천-현리-인제-원통리로 이동하면서 원통리 북방 노전평지구의 제5사단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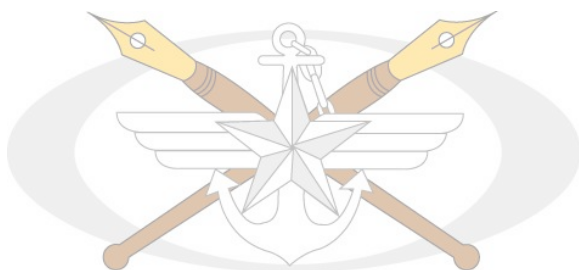
8월 9일 제1차 노전평지구전투를 전개한 제8사단은 노전평-서화리 계곡 우측방의 785고지를 점령하는 개가를 올린 뒤, 18일부터는 제2차 노전평지구전투를 실시하여 사단에 부여된 미 제8군의 작전 목표인 1031고지와 965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어 9월 10일부터 제3차 노전평지구전투를 실시, 서화리 북방의 854고지를 점령한 후 작전지역을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하고 양구로 이동하였다.

백석산지구를 제7사단으로부터 인계받은 사단은 9월 30일 이틀에 걸쳐 백석산전투를 전개하여 이를 점령한 후 10월 6일부터는 크리스마스고지(1090고지)로 진격하였다. 이후 작전지역을 제7사단에 인계한 제8사단은 미 제10군단으로부터 백 야전사령부로 배속이 변경되어 춘천-서울-전주-남원으로 이동하였고, 1952년 1월말부터 호남

지구에서 공비소탕작전에 돌입하였다.

국방장관 보좌관과 국방부 제2국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역임한 후 1952년 8월 16일 미 육군참모학교에 파견되었던 최영희 소장은 다음해 6월 원대복귀한 후 제15사단장에 임명되어 전선으로 되돌아왔다. 당시 제15사단은 동부전선 351고지 및 339고지에서 적 제7군단 예하 제3사단과 제7사단의 공격을 받고 격전을 전개하고

351고지 전투상황



있었다. 6월 2일부터 시작된 이 전투는 6일에 제1차전이, 15일에 제2차전이 종료된 상태였다.

부임이래 사단 전투방어진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단장은 후일의 공방전에 대한 대비로써 사단방어진의 확보와 공병대대는 물론 사단 전 병력을 동원하여 주저항선의 방어진지 구축, 주보급로의 교량 신설 및 보수, 지뢰매설, 철조망 가설 등 적의 신예화력과 기습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관계참모 및 예하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매일 연대 OP는 물론 대대, 중대 OP까지 돌면서 적정을 파악하였으며, 때로는 포단 사격지휘소(FDC)에 지시하여 적진을 파괴·분산시켰다.

한편 휴전협정의 조인시기가 다가오자 적은 병력증강 및 보급강화를 기도하고 전 전선에 걸쳐 진지탈환전을 전개하였다. 사단장 최영희 소장은 적의 기도를 사전에 분쇄할 목적으로 소규모의 수색전과 주저항선 확보·보강에 만전을 기하였다. 1953년 7월 16일 22시 30분을 기해 적은 제3사단 9연대 및 제7사단 53연대를 동원하여 야포 및 박격포의 맹렬한 지원아래 351고지, 339고지, 345고지, 208고지 방면의 진출로로 부분적인 파상 공격전술을 사용하여 아군 제15사단 38연대의 방어진을 공격해왔다.

최영희 사단장은 필승의 신념으로 전 장병에게 결사수호의 엄명을 시달함과 동시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전방의 연대 OP에 출진하여 적정에 따른 주도면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일대 격전을 감행하였다.

계획된 아군의 강력한 화력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적의 포탄은 아군의 통신망을 절단하고 화력대비로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상황을 파악한 사단장은 지원포병대로 하여금 적 화력진을

포격토록 함으로써 적의 화력을 제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통신망의 신속한 연결·보선에 전력을 다하고, 설새없이 관계참모와 숙의하는 한편 탁월한 작전지휘와 강력한 포 지원사격을 가하여 04시에 적을 완전 격퇴시켰다.

결과적으로 두 고지를 적에게 넘겨준 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이 전투는 사단이 창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병들의 전투경험이 일천하고 지형적으로도 불리하며 휴전협정 조인에 따른 작전상의 제약 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단장 이하 전 장병의 혼연일체로 적의 강력한 공격을 저지한 전투였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제15사단장으로 351고지와 339고지전투를 마지막으로 종료한 최영희 소장은 9월 25일 제5군단장에 임명되어 군단 창설과 발전에 전력을 다하던 중 육군중장으로 진급, 1956년 9월 제2군사령관에 보임되었다. 이어 교육총본부 총장을 거쳐 1960년 5월 23일 마침내 육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에 오른 뒤 연합참모본부 총장을 끝으로 1960년 10월 7일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예편 후 장군은 터키주재 대사료 외교관 활동을, 제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는 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을 비롯하여 국회 국방위원장, 외교국방연구소 이사장 등 국방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훗날한 체격에 운동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장군은 휘문중학 재학시절에는 전국 규모의 중학 유도대회와 역도대회에서 1등에 입

상할 정도로 심신이 올바른 침착하고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부하들이 장군에게 신뢰를 보냈던 만큼 부하에 대한 장군의 사랑도 끔찍한 것으로 호평이 나있다. 일례로 신녕전투 당시 적이 화산을 점령하여 제6사단의 보급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제2군단장인 유재홍 장군은 최영희 연대장에게 즉각 공격을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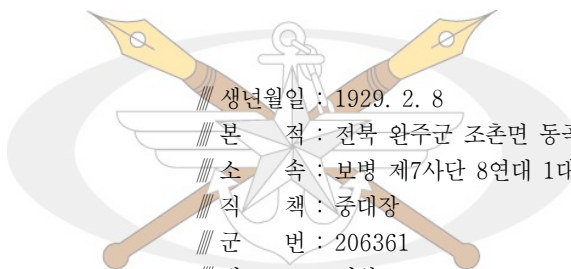
그러자 최영희 연대장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1시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책임은 완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답변하였는데, 실제로 그는 공격 5시간만에 목표를 점령하여 군단장을 놀라게 하였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친 병사들에게 충분한 수면과 식사를 하게 한 후 새벽에 기습을 실시한 것이 주효한 것이었다.

아몬드 장군의 미 제10군단 예하로 있던 제8사단장 최영희 장군은 너무 깊숙이 북진하였다가 중공군의 기습으로 사단병력 전체를 잃어버렸다. 그는 적진의 동정이 불확실하고 예비병력도 이어지지 않아 전진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사단을 방문한 아몬드 군단장의 “내가 있으니 염려말고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단병력 전체를 적진 깊숙이 전진시켰던 것이다. 최영희 사단장은 하우스만에게 헬기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헬기를 타고 부대 상공을 돌면서 종이쪽지에 후퇴로를 적어 돌맹이 달아 던지고 다녀 4천명의 사단병력을 구해낼 수 있었다.

최영희 장군은 상하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하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으며, 그 결과 여러 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전공을 거둘 수 있었다. 1953년 6월 5일 군인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어 장군의 전공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金 漢 俊 육군대위



/// 생년월일 : 1929. 2. 8
 /// 본 적 : 전북 완주군 조촌면 동곡리 587번지
 /// 소 속 : 보병 제7사단 8연대 1대대 1중대
 /// 직 책 : 중대장
 /// 군 번 : 206361
 /// 계 급 : 대위
 /// 주요전투 : 화천북방 425고지전투
 /// 상훈내용 : 태극무공훈장(1953. 10. 13)

□ 화천 425고지전투와 작전 활동

제7사단 8연대 1대대 1중대장 김한준 육군대위는 1953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화천 북방 425고지전투에서 60mm 박격포를 이용해 1개 중대 병력으로 중공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화천 북방의 425고지는 별우지구를 서쪽에서 지켜주는 요부인 동시에 제8연대 주저항선의 주봉인 602고지의 동쪽 능선을 맡고 있는 요새로서 중요한 고지이며, 당시의 전력공급원인 화천댐에 이르는 중요 관문이었다.

1953년 7월 19일 23시 전선의 전력강화를 위한 군단작명 제8호에 의거 제11사단 13연대와 진지교대 임무를 맡고 현 작전지역에 투입된 제7사단 8연대는 중공군 제54군 예하 제135사단의 3개 연대 및 제60군 예하 제180사단 538연대와 대치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차례에 걸친 적의 공격을 박격포격과 임시 특공대의 분전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금성천 북안의 별우지구를 확보하여 아군의 주저항선에 압력을 가하려던 적의 기도를 분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제1대대 1중대장 김한준 대위는 1953년 10월 13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37호)을 수여받았다.

정전협정이 막바지에 달했던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은 5개 군 15개 사단을 국군 제2군단 전면에 투입하여 이른바 7·13 공세를 가해왔다. 이 공세의 목적은 정전이 성립되기 전 군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쟁취하는데 있었으며, 그들의 진출목표는 금성 남쪽의 금성천 부근을 완전히 장악하여 백암산과 적근산을 그들의 수중에 넣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될 경우, 아군은 화천 북쪽의 방어선에서 크게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금성천의 방어선은 작전상 절대적인 최후보루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425고지는 그 중에서도 별우지구를 서쪽에서 지켜주는 요부인 동시에 제8연대 주저항선의 주봉인 602고지의 동쪽 능선을 맡고 있는 요새로서 중요한 고지였다.

1953년 7월 19일 23시 제7사단 8연대는 전선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단의 작전명령 제8호에 의거 제11사단 13연대와 진지교대 임무를 맡고 현 작전지역에 투입되었다. 제13연대 1대대와 진지교대 임무를 맡은 제8연대 1대대는 다음날 04시에 진지를 교대하던 중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이 대대 전면에 출현하여 제1중대 및 제2중대와 교전을 전개하였다. 제8연대 1대대 1중대와 제2중대는 제13연대와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적을 완전격퇴하고 포로 1명을 사로잡았으며, 07시에는 이 지역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22시에 적은 30분 동안 약 8,000여 발의 포사격을 425고지 주진지 일대에 가하였다. 이어서 적 1개 중대 병력이 425고지 북쪽의 좌일선에 출현하여 제1중대와 교전을 전개하는 동시에 2개 중대 병력이 우일선 제2중대의 무명고지 전방에 출현함으로써 제2중대와도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3개 중대의 공격을 받게 된 제1대대는 425고지 전면에 대대의 전 화력을 지향하고 제20포병대대의 즉각적인 차단사격과 미 제176포병대대의 지원사격으로 적의 공세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21일 02시 30분 진지 100야드 전방의 일명 ‘뽕고지’인 돌출고지에 도달한 적이 맹렬한 수류탄전을 전개하며 진지 20~50야드 전방까지 접근함에 따라 제1중대는 과감히 백병전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04시에 적은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제1중대와 제2중대는 즉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06시경에는 적을 완전히 소탕·섬멸하였다.

22일 0시 45분에 증강된 적 1개 중대 병력이 CT 836~423 지점에 출현하여 제2중대와 교전을 하는 한편 같은 시각에 적 약 2개 중대병력이 425고지 서측방과 돌출고지 사이의 와지선에 출현하여 제1중대와 교전이 시작되었다. 대대장은 각 중대장에게 포병화력을

중대 전면에 집중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425고지에 대한 공격에 앞서 돌출고지를 탈취하려는 적의 기도를 파악한 대대장은 돌출고지 전면에 대한 추가적인 화력의 지원과 유사시 돌출고지로부터 병력의 철수와 동시에 일제사격을 가해 줄 것을 제11포병단에 요청하였다.

02시에 적은 아군의 최후저지사격에도 불구하고 돌출고지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이때 제11포병단의 포격이 정상을 향해 육박하고 있는 적에게 집중되자 이미 정상에 근접해 있던 적은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진지내로 난입하였다. 제1중대 2소대는 진지로 침입한 적과 맹렬한 육박전을 전개하였으나 02시 50분 새로 증원된 적 2개 소대로 인해 CT 830~420 지점으로 철수하였다.

철수와 동시에 돌출고지에 대한 포격이 시작되었다. 04시에 적은 1시간 동안 계속된 아군의 맹렬한 포격으로 인해 주저항선 100야드 전방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제1중대 전면에 출현한 적의 일부 병력은 CT 832~421의 협곡지점으로 우회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대장은 60mm 및 81mm 박격포로 집중사격을 가했으나, 적은 계속 병력을 증강하여 04시 50분에는 주저항선에서 피아간의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05시 30분에 적은 패주하기 시작하였고, 제1중대는 이들을 추격하여 06시에 재차 돌출고지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대대장은 예비중대인 제3중대로 하여금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대대 1중대장 김한준 대위는 감투정신을 발휘하여 적을 격멸하였다. 7월 20일 04시, 진지교대 임무를 수행하고 각 중대를 배치하던 제7사단 8연대 1대대는 제1중대 전면에 출현한 1개 대대 병력의 적으로부터 갑자기 일제사격을 받았다. 이어 06시에

는 602고지에 또다시 새로운 적 1개 대대 병력이 증강되어 아 주저항선의 전략적 요지인 425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해왔다. 제1중대가 배치된 425고지의 최하단 일대는 적 포탄의 낙하율이 가장 극심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날씨도 흐리고 밤에는 가는 비도 내려 시계 및 관측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경계방어를 하지 않으면 일사천리로 돌파당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전선교대로 인해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제1중대원은 부대행동에 중압감을 느끼는 등 전투준비가 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불리한 상황하에서도 제1중대장 김한준 대위는 수시로 각 소대를 돌며 대원을 격려하는 한편 솔선해서 적진에 접근하는 등 중대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해 온 적을 치열한 화력전과 수 차례에 걸친 육박전을 감행하여 격퇴시키고 임무교대를 무난히 완료하였다.

1953년 7월 20일 07시 약 8,000발에 달하는 122mm 포의 지원아래 1개 대대 병력의 적이 진지 전방에 출현, 치열한 교전을 전개함으로써 중대는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탄약과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중대장 김한준 대위는 포위망을 뚫고 탄약 등 보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임시특공대를 편성하여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판단하고 중대원 중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자질을 지닌 6~7명을 선발하였다. 각각 5발의 수류탄을 이들에게 나눠주고 가장 취약한 제2소대 진지로 나아가 적의 공격축선을 측방에서 공격토록 함으로써 보급로를 개척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벽에 12명의 포로를 생포하는 전과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아군 진지 50야드 전방까지 접근해 와 피아가 혼합된 육박전이 전개되었으며, 수류탄과 총검으로 일대 백

병전을 2시간에 걸쳐 전개한 끝에 09시경 적을 완전히 소탕하였다.

다음날 0시 45분을 기해 2개 중대 병력의 적이 제1대대 전면을 향해 재차 공격을 가해왔다.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중대가 소수의 인원으로 백병전을 감행하자 425고지 전면의 적진에 아군의 지원포격이 개시되었다. 중대장 김한준 대위는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를 단행하고 적과 30야드까지 접근하여 각 소대장과 같은 위치에서 전진 육박을 강요하였다. 1시간 30분에 걸친 치열한 육박전 후에 제1중대는 적의 기도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한편 분산되어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고 06시에는 돌출고지를 완전히 탈환하였다. 사흘간의 격전을 펼친 결과, 제1대대는 적 470명을 사살하고 21명을 생포하였으며, 60mm 박격포 7문과 체코식 기관총 22정, 3.5인치 로켓포 4문 등의 대 전과를 수립하였다. 이로 인해 제8연대는 전체의 공방이 유리하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제2군단 지역의 방어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제7사단 8연대 1대대 1중대원들의 425고지전투의 승리는 사단의 주보급로를 확보하는 한편 전력공급원인 화천댐 사수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또한 이는 연대 주저항선의 한 축을 방어하고 나아가 별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금성천방어선의 안정적인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김한준 육군대위는 전쟁이 일단락된 1953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고, 1956년 5월 30일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1929년 2월 8일 전북 완주에서 출생한 김한준 대위는 19세가 되던 1947년 4월에 국방경비대에서 모병을 시작하자 이에 지원, 입대하였다. 200명의 입대 동기생 중 일등병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12명에 선발되어 제3연대 3대대 10중대의 중대보급 및 행정담당에 보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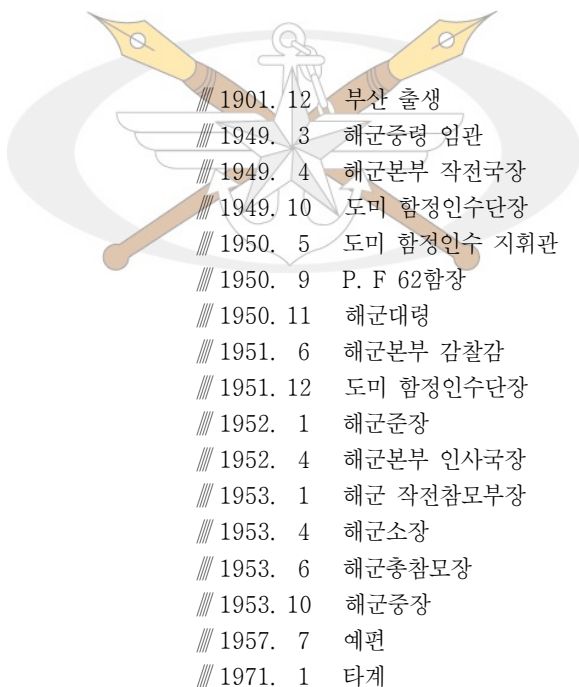
그 후 여·순 10·19사건의 진압작전에 참여하였으며, 6·25전쟁 당시 제7사단 8연대장 김용주 대령의 휘하로 평양입성작전에 참여한 후 압록강을 향해 북진하였다. 부대가 개천의 비호산 지역에 이르러 적과 접전을 벌일 무렵 풍부한 전투경험과 지휘능력을 인정받아 1950년 11월 15일 육군소위로 현지에서 임관되었다.

전쟁의 전기간을 전장에서 보낸 김한준 대위는 “전투는 상하간의 신뢰로 이루어진다. 지휘관은 부하를 믿고 신뢰해야 자신을 사지(死地)로 몰아가는 명령이라해도 부하는 따르게 된다. 또한 지휘관은 전투에 전념하고 집중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희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전투철학을 신조로 삼고 있었다.

그가 소대장 시절부터 상부의 작전명령에는 무조건 복종, 항상 작전수행에 있어 선두로 나서자 일부 소대원들은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김 대위는 “우리 소대가 전투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선발되는 것이다”고 설득하였다. 이처럼 김한준 대위는 상하간의 신뢰를 토대로 부하들을 사랑했고, 전투에 임해서는 물러설 줄 모르는 불굴의 화신이었다.



朴 沃 圭 해군중장



/// 1901. 12	부산 출생
/// 1949. 3	해군중령 임관
/// 1949. 4	해군본부 작전국장
/// 1949. 10	도미 함정인수단장
/// 1950. 5	도미 함정인수 지휘관
/// 1950. 9	P. F 62함장
/// 1950. 11	해군대령
/// 1951. 6	해군본부 감찰감
/// 1951. 12	도미 함정인수단장
/// 1952. 1	해군준장
/// 1952. 4	해군본부 인사국장
/// 1953. 1	해군 작전참모부장
/// 1953. 4	해군소장
/// 1953. 6	해군총참모장
/// 1953. 10	해군중장
/// 1957. 7	예편
/// 1971. 1	타계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해군총참모장 박옥규 해군중장은 1950년 7월 18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해군본부 작전참모, 함정인수단장, 작전참모부장, 총참모장을 역임하면서 해상봉쇄를 위시한 각 도(島)·만(灣) 상륙작전과 군수물자 수송, 적진 포격 등 중대한 군무를 철두철미하게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맹한 전투정신을 발휘함으로써 1954년 4월 15일 은성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58호)이 수여되었다.

1919년 일본 관서대 전문부 예과를 졸업한 장군은 고국으로 돌아와 인천상선학교 석상학과(席上學科)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실습과에서 3년에 걸쳐 선박 및 항해에 관한 실무를 익혔다. 이후 갑종 2등 운전사자격을 취득하고 일본의 고베-가와사키 기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해운인으로의 길에 들어선 그는 조선 우선(郵船)주식회사에서 갑종 일등운전사 면장과 갑종 선장 면장을 취득하고 조선선박운항통제주식회사 부산지점 주재 선박 감독으로 취임하였다.

해방 이후 조선선박운항통제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요청에 의해 사장직을 사임하고 부산항 수선인(水先人)으로 종사하면서 부산하역주식회사 사장을 겸임하였다. 1947년 11월 남조선과도정부 운수부 추천으로 해상운수국 부국장 겸 부산항만청장에 취임하였고, 다음해 12월에는 교통부 부산 조선창장(造船廠長)에 임명되었다.

1949년 3월 1일 해군에 입대하여 80479의 군번을 부여받고 해군 중령으로 임관된 박옥규 제독은 해군본부 작전국장에 보임되어 작전참모로 활동하면서 10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함정을 인수해 오

는 함정인수단장에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5월에 다시 도미 함정인수단의 지휘관으로 선정되었다.

□ 서남해안봉쇄와 작전 활동

6·25전쟁이 발발한 후 9월에 P. F 62함의 함장으로 전보된 박옥규 해군중령은 1951년 3월까지 해역(海域)에서 적의 해상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해상봉쇄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약 3개월간의 고등군사반 교육을 마치고 해군본부 감찰감으로 부임한 그는 연말에 또 다시 도미 함정인수단장으로 임명되어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1952년 1월 해군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이후 1953년 1월 해군 작전참모부장에 임명된 박 제독은 원산 영흥만 일대와 동북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해역에서의 소해작전과 경비작전을 계획추진토록 하는 한편 서해에서는 웅진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작전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연평도 근해에서 PC급 함정이 기함(旗艦) 임무를 띠고 경비항해를 계속 하면서 PCS, YMS, JMS, LSSL급 함정 등을 지휘하여 적의 해안에 대한 포격과 소해, 경비, 수송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PT 편대를 이용한 해안선 기습작전은 함정 전력이 열세인 적의 해상경비를 노출시킨 일전이였다. 또한 휴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분계선 이북의 각 도서주민과 부대 병력에 대한 후방 철수작업도 병행 추진하였다.

이 기간 중에 실시한 주요활동은 1953년 3월 11일에 LSSL 109정, YMS 507정과 503정이 강교동(江橋洞)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화력

거점 2개소와 병사(兵舍) 5동을 격파하였으며, 3월 21일에도 YMS 505정은 서해의 육도대안인 목동(牧洞)의 적진을 포격하였으며, PT 편대는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백령도-순위도간의 해역을 수시로 출몰하여 적의 진지를 분쇄하거나 위협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2년 해군본부 인사국장에 이어 해군 작전참모부장으로 발령된 그는 1953년 해군소장으로 진급하는 한편 6월에는 해군의 수장인 총참모장에 임명되어 1954년 10월말까지 휴전에 따른 전쟁의 마무리와 해군발전에 정열을 쏟았다. 총참모장 재임 중 해군중장으로 진급한 박옥규 제독은 1957년 7월 30일 참모총장직을 마지막으로 10년 가까운 군 생활을 종결하였다.

해상봉쇄를 위시한 상륙작전과 군수물자 수송, 적진 포격 등 한치의 차질없는 전시임무 수행으로 제독은 은성태극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이어 미 동성훈장마저 수여받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그는 1971년 1월 28일 향년 71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현재는 서울 동작동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42에 안장되어 있다.



金 錫 範 해병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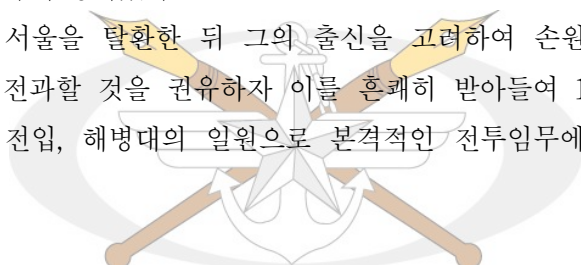
□ 입대 및 건군초기 활동

해병대사령관 김석범 해병소장은 1951년 10월 4일부터 195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적의 공세를 여지없이 분쇄하고 전 전선을

제압함으로써 수도방어의 위기를 해소하는 한편 1953년 7월 연천지구 전투에서 대승리를 획득하고 강제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의 석방임무를 성공리에 완수하는 전공을 수립함으로써 1954년 4월 15일 태극무공훈장(훈기번호 제159호)을 수여받았다.

1914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출생한 김석범 해병중장은 만주 봉천군관학교 제5기로 졸업하여 만주군 장교로 근무하던 중 조국의 광복과 함께 귀국하여 1946년 해군에 입대하였다. 그 해 5월 특임으로 군번 80089의 해군참위(소위)에 임관되었으며, 1949년 2월 1일 해병대 창설임무를 띠고 이임한 신현준 중령의 후임으로 해군 진해통제부 참모장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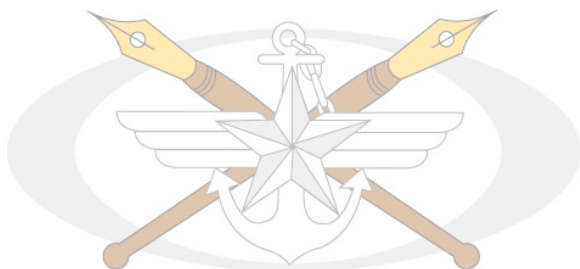
그러나 서울을 탈환한 뒤 그의 출신을 고려하여 손원일 제독이 해병대로 전과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1951년 7월 해병대로 전입, 해병대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전투임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 연천 사천강전투와 작전 활동

해병 제1연대장으로 부임한 김석범 준장은 1952년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서부전선 사천강(泗川江) 부근의 전진진지인 일명 혼비(魂飛)고지에서 전투를 전개하여 임진강선으로 진출하려는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 인해전술과 포격으로 사천강의 교두보적 역할을 하는 전진진지를 점령하여 주저항선을 위협하려던 적의 기도는 해병 제1연대가 36전진진지를 재확보함으로써 끝내 좌절되고 많은 병력의 손실만 입게 되었다.

연천 사천강 전투상황



이 전투의 승리로 임진강 북안에서 개성-서울 1번 국도의 방어요지이자 수도권 방어의 전초인 장단지역을 고수하게 되었고, 임진강 이남으로 진출하려던 적의 기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해병 제1연대는 미 해병 제1사단에 배속되어 월산령전투를 마치고 다음해 3월 수도방어의 새로운 임무를 맡아 서부전선으로 이동

하였다. 국군 제1사단 15연대로부터 임진강 하류에 있는 전초진지를 인수, 미 제8군의 최좌단 부대로서 미 해병 제1사단에 배속되었다.

제1연대는 미 해병 제5연대와 병행하여 서쪽으로는 임진강 하류까지 10km 지역을 방어하였다. 연대장 김석범 준장은 전방지휘소를 파주군 임진면의 벌판말에 두고 2개 대대를 전방에, 1개 대대를 예비로 하여 연대본부와 ‘자유의 다리’ 일대를 정찰하여 측후방을 경계하였다.

반면 사천강을 사이에 두고 해병 제1연대와 대치한 적은 중공군 제65군으로서 천덕산(203)을 경계로 삼아 제194사단(제582연대)을 야군 우전방대대 정면에, 제195사단 584연대를 야군 좌전방대대 정면에 배치하고 제193사단은 개성 서북쪽에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다.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형은 사천강 대안쪽에 있는 비교적 높은 산들이 남북으로 연하여 횡격실을 이루고 있어 사천강 일대의 저지대를 감제하므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반면에 해병 제1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전진진지 일대는 155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고 50m 미만의 구릉과 전담으로 된 개활지이며, 임진강을 배후로 하여 적의 감제하에 있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8월말로 접어들어 임진강의 수위가 낮아져 도섭이 가능해지자 해병 제1연대장 김석범 준장은 주저항선 부대로 하여금 전초진지를 강화시켰다. 9월 6일 18시 중공군 제582연대 2대대의 증강된 1개 중대가 기습적으로 사천강을 도하하여 적진으로부터 1km, 연대 주저항선에서 2.5km 떨어져 있는 제10중대 전초진지를 포위하였다.

도하한 적이 36진지를 포위하자 중대장은 도섭지점에 배치된 잠복정찰조를 철수시켜 사주방어로 진지를 고수하는 한편 연대에 포

병지원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적의 일부가 교통호까지 진입, 피아간에 수류탄 투척에 이어 육박전이 전개되었고, 수적으로 우세한 적이 진지 일각으로 진입하자 중대장은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잠시 후 전초진지상에 VT탄의 탄우가 집중되자 진내를 장악하려던 적은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산개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 지하호 속에 대기하고 있던 해병들이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적은 여러 차례에 걸친 파상공격에도 36진지를 점령하지 못하자 공격목표를 제1소대의 37진지로 수정하였으나, 제1소대는 적이 진전에 나타날 때마다 최후저지사격과 포지원사격으로 적의 집결지와 진입로를 차단하였다. 결국 37고지를 공격하던 적은 그간의 전투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한 관계로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적이 양개 전초진지를 점령하지 못한 채 철수하려하자 연대장 김석범 준장은 36진지와 연결과 포위중에 있는 잔적을 격멸하기 위해 제9중대로 하여금 37고지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는 진지가 실패할 경우 주저항선이 위협을 받아 연대가 임진강까지 철수해야 하고 인접부대 작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제9중대장은 7일 03시 전차 1개 소대의 지원하에 1개 소대를 역습부대로 편성하여 36진지로 투입시켜 잔류부대와 함께 잔적을 소탕하였다.

9월 19일 18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재침한 적은 15시에 36진지 전방에서 소부대를 도하시켜 양동작전을 전개한 후 18시 30분 주저항선 일대에 포격을 가하고 전초진지에 전차 포격을 집중하면서 2개 중대 규모로 파상공격을 전개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미리 계획된 야간기습작전을 중지하고 제9중대와 제10중대에 측후방을 엄호하도록 하고 제11중대에 접근중인 적에게

일제사격을 실시토록 하였다. 19시 30분 적은 증원부대와 합세하여 포격을 틈타 필사적으로 36진지대로 육박, 처참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계속해서 증원된 적은 36진지를 포위하고 수 차례의 파상공격으로 진지를 점령하였다. 결국 36진지에는 VT탄 진내사격이 실시되어 진지를 점령했던 적은 많은 손실을 입고 분산되었으나 병력을 증원하여 진지 일각에 압력을 가하였다. 20일 01시 36진지로 출동한 역습부대는 진지 외곽을 포위한 적과 백병전을 전개하여 격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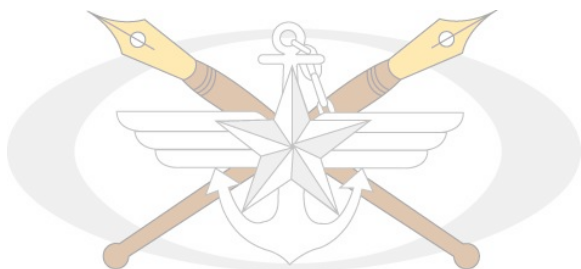
그러나 패퇴했던 적은 부대를 재편하여 36진지를 다시 공격해왔다. 불의의 공격을 받은 역습부대는 8시간 이상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으나 결국 진지를 적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10시 연대장으로부터 진지탈환명령을 받은 제3대대 9중대는 전차 2개 소대의 엄호하에 반격에 나섰다. 중대가 보전협동 돌격을 개시하여 진전까지 진격하는 동안 아군 전폭기는 네이팜탄과 VT탄을 작렬하여 적의 증원부대를 차단하였다.

14시 공격부대는 마침내 36진지를 재탈환함으로써 그 동안 인해 전술과 포격으로 사천강의 전초진지를 점령하여 사단 주저항선을 위협하려던 적의 기도를 끝내 좌절시켰다.

이후 연대는 10월초부터 추계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을 맞아 2차에 걸친 대공세를 물리치면서 전초진지전을 반복하였다. 연대는 진지 일부가 피탈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역습을 전개하여 끝내 진지를 고수하였으며, 그 동안의 전투에서 약 1,55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 전후 활동과 인물 단평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전쟁이 일단 막을 내리자 김석범 장군은 초대사령관 신현준 장군에 이어 해병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57년 9월 4일 해병대사령관직을 김대식 장군에게 인계하고 1960년 6월 현역에서 물러난 김석범 해병중장은 1998년 2월 18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장군의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1-71에 안장되었다.



참고 및 인용문헌

□ 문서자료

- 국방부, 『공적서철, 1952. 10. 13~1952. 12. 19』(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304호)
- 국방부, 『공적서철, 1953. 9. 24~1953. 10. 23』(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308호)
- 국방부, 『훈장관계철, 1953. 6. 5~1953. 7. 17』(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307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무공훈장 수상자 명부』(Ⅰ, Ⅱ)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개인기록철』, 사료번호 430호, 432호, 436호,
448호, 449호, 450호
- 행정자치부, 『태극무공훈장부』(사본)
- 육군본부, 『장교자력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사본, 육군 1~3권)
- 해군본부, 『장교자력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사본, 해군 1~3권)
- 공군본부, 『장교자력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사본, 공군 1권)
- 육군본부, 『한국전쟁 사료 : 전투상보』 43~63권, 1986~1987

□ 도서자료

- 국방부, 『자유민에게 전해다오』(제1집), 1955
- 국방부, 『호국의 별』 1~8집, 1975~198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9권, 1967~197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198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98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용문산전투』, 198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신녕·영천전투』, 198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전투』, 198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 198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전투』, 198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평양탈환작전』,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198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금성전투』, 198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198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198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양구전투』, 198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198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비산·351고지전투』, 199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199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중, 하), 1995~1997
- 국방군사연구소, 『충주-점촌전투』, 1992
- 국방군사연구소, 『교암산전투』, 1994
- 육군본부, 『창군전사』 병서연구 제11집, 1980
- 육군본부, 『1군사』(제7집), 1962
- 육군본부, 『한국의 전쟁영웅들』,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2

- 육군본부, 『김만술 대위 전공기, 베틀고지 영웅』,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8
- 육군본부, 『태극무공훈장, 이명수 상사 전공기』,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7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작전편), 1954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제2집(행정편), 1958
-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제1집, 1962
- 해병대사령부, 『해병사』(제2집), 1963
- 공군본부, 『공군사』(제1집 증보판), 1991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육군사관학교 50주년사 : 전공(戰功)동문 활동을 중심으로』, 1997
- 전쟁기념사업회, 『현대사 속의 국군, 군의 정통성』, 1990
- 제1군사령부, 『제1군약사』(제2권), 1970
- 제2군사령부, 『2군사』(제2권), 1957
- 제1군단사령부, 『부대사』(제1집), 1981
- 제2군단사령부, 『군단지역전사』, 1972
- 수도기계화보병사단사령부, 『맹호사』, 1980
- 제1사단사령부, 『전진역사』(제1집), 1966
- 제3사단사령부, 『백골사단역사』, 1980
- 제5사단사령부, 『부대역사』, 1969
- 제6사단사령부, 『청성역사』, 1981
- 보병제7사단사령부, 『상승칠성부대사』, 1982
- 제8사단사령부, 『오뚜기역사』, 1980
- 제9사단사령부, 『백마부대사』, 1982
- 제9보병사단사령부, 『백마부대 50년사』, 2000
- 제11사단사령부, 『화랑약사』, 1975

- 제12사단사령부, 『을지역사』, 1980
- 제15사단사령부, 『사단역사』, 1955
- 보병제15사단사령부, 『승리부대사』(IV), 1987
- 제20사단사령부, 『울빼미약사』(제1집), 1974
- 제18보병연대, 『진골백골부대 전사』, 2001
- 곽영달, 『한국전쟁 창공의 영웅들』, 맥문회사, 1994
- 김정렬,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
- 박경석, 『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지구촌, 1999
-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89
- 신현준, 『노해병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89
- 이응준, 『자서전 회고 90년』, 산운기념사업회, 1982
- 이원복, 『타이거장군 송요찬』, 육군교육사령부, 1996
- 이원복, 『호국용사 100선』, 명정출판사, 1976
- 이한림, 『회상록 : 세기의 격랑』, 도서출판 팔복원, 1994
-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993
- 임부택, 『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 유재홍, 『격동의 세월』, 을유문화사, 1994
- 유현중, 『백마고지 : 김종오장군 일대기』, 을지출판공사, 1985
- 장도영, 『회고록 望郷』, 도서출판 숲속의 꿈, 2001
-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고려서적(주), 1996
- 조갑제, 『이용문 장군평전 : 젊은 거인의 초상』, 샘터, 1988
- 짐 하우스만/정일화,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하우스만 증언』,
한국문화원, 1995
- 한 신, 『신님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1994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5

□ 기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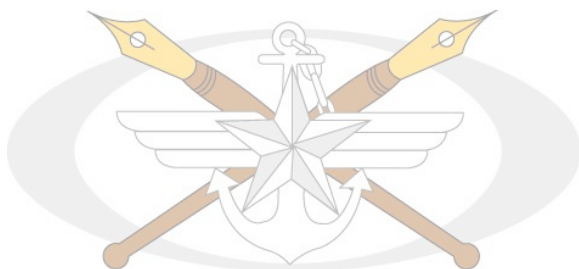
증언, 김한준(2002. 10. 17), 이명수(2002. 11. 6), 최득수(2002. 11. 8)

국방일보, 『잊혀진 전쟁영웅』(2002. 10. 8; 2002. 11. 12; 2002. 12. 24;
2003. 1. 7; 2003. 2. 4; 2003. 2. 18; 2003. 2. 25)

국방일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2002. 10. 19; 2002. 11. 9)

전쟁기념사업회, 전쟁유공추모대상자 공적자료(요약)

전쟁기념사업회, 전쟁유공추모대상자 심의자료(요약)



찾아보기



가치항 282, 283

가칠봉 381

간도한국인특별부대 131

강교동 464

강릉지구전투 32, 163

강문봉 243, 244, 248, 249, 250,
414

강영훈 416, 448

강태무·표무원 월북사건 45

경남 국군준비대 291

경인지구계엄사령관 101, 104

계엄사령관 269, 337, 397

고대산 280, 282, 283, 284

고양대(高陽臺) 440

공군사관학교 366

광복군 45, 100, 101, 105, 214, 243,
362

교암산 432, 433, 434, 436, 438

교암산전투 425, 433, 437, 438

교육총감 97, 98, 105

구포훈련소 410, 411

국민방위국장 350

국민방위군 97, 239

국방경비사관학교 15, 84, 185, 193,
204, 233, 237, 252, 262, 271, 313,
338, 377, 401, 419

국방사령부 45, 362, 401

군기사령부 271

군사영어학교 31, 39, 93, 131, 139,
149, 162, 224, 229, 243, 250, 262,
271, 280, 290, 296, 313, 320, 337,
348, 383, 391, 400, 401, 405, 413,
419, 448

군선강 34, 35, 163

군수기지사령부 417

권동찬 231, 233, 234, 235

근접항공지원 364, 396

금성돌출부 344, 381, 402, 414,

- 420, 426, 433
- 금성천 303, 427, 428, 430, 437, 456
- 기름고개 86, 87
- 기사문리 32
- 김경진 330, 333, 334
- 김교수 432, 433, 434, 435, 438
- 김기원 358
- 김대식 218, 472
- 김동빈 204, 205, 206, 207, 209, 210, 211, 248, 445
- 김만술 440, 441, 442, 443, 444
- 김무정 151, 328
- 김백일 131, 133, 135, 136, 137, 304, 320, 383, 394, 401
- 김병휘 280
- 김석범 466, 467, 469, 470, 472
- 김성삼 67
- 김성은 177, 178, 179, 180, 181, 182, 215, 216
- 김성은부대 178, 179, 180, 181
- 김신 76
- 김영환 355, 359
- 김옥상 198, 202
- 김용배(金龍培) 83, 84, 86, 87, 90, 91
- 김용배(金容培) 162, 163, 164, 165, 166, 167
- 김용식 119, 121, 122, 125, 127, 128, 129
- 김용주 461
- 김용하 96, 240
- 김웅수 412, 413, 414, 416, 417
- 김일성 156, 285, 350
- 김점곤 252, 254, 255, 256, 259
- 김정렬 74, 77, 185, 355, 357, 358, 359, 362
- 김종갑 304, 348, 349, 350, 351, 352, 353, 448
- 김종오 18, 85, 151, 224, 263, 320, 321, 323, 327, 383
- 김종원 348
- 김준원 359
- 김지회 39, 193
- 김창학 69
- 김포지구경비사령부 364
- 김포지구전투사령부 52
- 김한준 455, 456, 458, 459, 460, 461
- 김형일 281, 348
- 김홍일 51, 52, 55, 56, 58, 101, 151, 349, 401

L

남경군관학교 31
 남부지구경비사령부 310, 395
 내무부 전국비상경비사령부 393
 노전평지구전투 450

151

동작동국립현충원 43, 48, 58, 64,
 79, 91, 105, 137, 175, 188, 202,
 235, 241, 278, 327, 330, 346, 353,
 358, 367, 424, 465
 두락산 131, 132

C

다부동 전투 140, 144, 193, 233,
 254, 255, 259, 449
 단천 28
 대관령 35, 36, 137, 275, 276, 277,
 394
 대구방위사령관 226, 393
 대구지구 방위사령부 384
 대대구매관 93
 대전국립현충원 21, 71, 98, 211,
 229, 318, 381, 472
 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 160
 대한청년단 410
 대한해협전투 62, 66, 71
 데이비슨(Davison) 특수임무부대 136
 도솔산지구전투 217
 두락리전투 14, 20, 83, 85, 89, 90,

Q

말고개 16
 모진교 24, 96
 무장자위대 224
 무초 356
 문용채 225, 229
 미 제8군사령관 152, 267, 340, 344
 미국 십자훈장 398, 440
 미아리방어선 46, 52
 미아리전선 45
 민기식 224, 225, 226, 228, 229,
 230, 290, 401, 413, 419, 448
 밀번(Frank W. Milburn) 144, 145

B

박고지 415

- 박기성 420
- 박노규 236, 237, 238, 239, 240, 241
- 박범집 74, 185, 355
- 박병권 290, 291, 293, 294, 391
- 박옥규 463, 464, 465
- 박정희 214, 250, 417
- 반도학생동원령 162
- 방위포장 117, 438
- 백 야전전투사령관 146
- 백남권 401
- 백두산함 66, 67, 68, 69
- 백마고지전투 320, 321, 326, 329, 330, 334
- 백석산 36, 165, 166, 379, 381
- 백선엽 139, 140, 144, 145, 146, 147, 244, 252, 291, 301, 303, 305, 394, 449
- 백인기 296, 377
- 백인엽 243, 296, 297, 298, 299, 301, 393
- 백재덕 371, 372, 374, 375
- 백행걸 311
- 베르텡전투 255
- 베티(Betty)고지 439, 440, 444
- 벳저선 165
- 별우지구 166, 174, 456, 460
- 봉일천 210, 254, 449
- 봉천군관학교 131, 139, 214, 337, 377, 467
- 부산정치파동 311
- 북진능선 386, 402
- 비석고지전투 406
- 비학산전투 118, 122, 124, 128
- 비호산전투 198, 199, 202
- 사직리전투 320
- 사창리전투 20, 21, 265, 378
- 사천강 467, 469, 471
- 사천기지작전 356
- 삼각고지 339, 340, 342, 343, 386
- 351고지 21, 89, 300, 313, 315, 316, 317, 348, 350, 351, 352, 365, 366, 447, 451, 452, 453
- 셋별고지전투 371, 375
- 서남지구전투사령관 166
- 선우고지 406, 407
- 손원일 59, 60, 177, 214, 467
- 송계리전투 304
- 송석하 39, 213, 377, 378, 380, 381
- 송요찬 291, 307, 391, 392, 393,

- 394, 395, 396, 397, 398, 449
- 쇼다운(Show Down)작전 249
- 수도경비사령부 94, 100, 169, 237, 272, 281, 377, 378, 419
- 시흥지구전투사령관 51, 52, 55
- 신경군관학교 243, 383
- 신고산 378, 393
- 신녕지구 155, 233
- 신상철 201
- 신태영 159
- 신현준 213, 215, 216, 218
- 신흥무관학교 31
- 심언봉 448
- 심일 18, 22, 23, 24, 25, 26, 27, 28
- 아고 대령 353
- 아이슬랜드션 395
- 안낙규 425, 426, 430, 431
- M1고지 377, 378, 379, 380, 381
- 여·순 10·19사건 31, 39, 62, 93, 131, 177, 237, 252, 262, 296, 338, 355, 377, 445, 461
- 영천지구전투 163
- 오광선 243
- 오대산 32, 349
- 오덕준 291
- 오성산 339, 383, 386
- 529고지(관망산) 400, 402, 403, 404
- 옥산포 18, 24, 25, 26, 28
- 웅진지구전투사령관 132, 303
- 와이오밍선 280, 284, 345, 414
- 왕익권 448
- 용문산 262, 264, 265, 266, 267
- 우두산 17, 25
- 원산탈환전투 169
- 원용덕 383
- 원창고개 18
- 월비산 315, 316, 350, 365
- 월산령전투 468
- 유동열 45
- 유양수 311
- 유재홍 41, 46, 52, 98, 101, 149, 150, 151, 152, 154, 157, 158, 159, 160, 398, 454
- 유홍수 93, 378
- 육군보병학교 21, 70, 166, 210
- 육군부위 31, 131
- 육군정위 149, 313, 337
- 육군종합학교 58, 413, 438
- 육군중앙훈련본부장 314
- 육군참모학교 98, 159, 162, 225,

- 243, 268, 303, 304, 338, 451
- 육군참위 15, 39, 85, 93, 162, 169,
204, 224, 233, 237, 243, 252, 262,
271, 280, 290, 296, 320, 348, 383,
391, 401, 413, 419, 448
- 육군항공사관학교 355
- 을지무공훈장 366, 404
-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419
- 이관석 31
- 이근석 72, 73, 74, 75, 76, 77, 78,
79, 185, 355
- 이근양 305
- 이명수 107, 109, 110, 111, 112
- 이병주 162, 225
- 이성가 31, 32, 34, 35, 36, 37, 116,
154, 155, 304, 450
- 이승만 대통령 90, 107, 136, 147,
218, 338, 356
- 이영무 355
- 이용문 303, 304, 305, 308, 310,
395
- 이용준 45, 46, 47, 139, 149, 178,
262, 313, 383
- 이종찬 52, 133, 218, 282
- 이준식 100, 101, 102, 104, 105, 392
- 이천지구전투사령관 314
- 이치업 291, 448
- 281고지 413, 414, 415, 416
- 이한림 320, 383, 384, 385, 386,
388, 401
- 이화령 93, 94, 95, 238, 239
- 인천상륙작전 60, 64, 66, 70, 139,
171, 177, 181, 193, 213, 216, 296,
338, 393, 410
- 1090고지 378, 379, 380, 381, 407,
450
- 일월산 97, 239, 240
- 임부택 14, 15, 16, 17, 20, 21, 24,
27, 85, 86, 89, 93
- 임선하 52, 400, 401, 402, 403, 404
- 임원진 32
- 임진지구전투 252, 254, 256, 258
- 임충식 169, 170, 171, 174, 349

전남지구위수사령관 97

전초진지 437, 440, 469, 470, 471

전투병과교육사령부 294

정동진 32

정래혁 320, 383

정일권 337, 338, 340, 344, 345,
396, 403

제766유격부대 32

제주도경비사령부 392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 150

제주지구전투사령부 15

조림산전투 96, 241

조선경비대 74, 185, 338, 355, 363

조선학병동맹 290, 413, 448

조선해안경비대 214

조재미 192, 193, 195, 196, 197

중화기학교 349

지남호(指南號) 68

지리산공비토벌작전 42, 356, 394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357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39, 132, 338

진내사격 372, 373, 374, 428, 429,
432, 434, 436, 440, 470, 471

진동리전투 179, 180

진영륜 31

진종채 327

짐 하우스만 229

ㄷ

참페니(Arthur S. Champeny) 401

창동저지선 38, 41, 46

채병덕 15, 41, 52

챔프톤 401, 405

철의 삼각지대 325, 339

최남근 348

최득수 406, 407, 409, 410, 411

최석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90, 349, 413

최영희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최용남 66, 68, 70, 71

최용덕 355, 361, 363, 366, 367

최창언 419, 420, 422, 423, 424

최흥희 348

춘천·홍천지구전투 15

춘천지구전투 22, 28

충무무공훈장 404, 465

ㄱ

캔사스선 227, 264, 378

코맨도 작전(Operation Commando) 415

퀵고지 415
크리스마스고지 36, 174, 377, 450

포크참고지 415
프라이스(Terrill E. Price) 349
피의 능선 227

E

태극무공훈장 31, 45, 51, 66, 73,
84, 93, 100, 107, 115, 119, 125,
131, 147, 149, 162, 169, 177, 184,
193, 199, 204, 224, 231, 241, 252,
271, 280
태능 232, 262, 296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 31, 150
태천지구전투 205
테일러(Maxwell D. Taylor) 47
토페카선 267
통선곡 407
특공대 406, 408, 409, 425, 430,
431

표

파평산 252, 254
팽덕회(彭德懷) 21, 285
평양탈환작전 145, 158, 193, 195,
204, 255, 445, 449

등

하감령 339
학병단 224, 280, 290, 348, 413,
448
학병동맹 224, 280, 290, 413, 448
한강방어선 19, 23, 52, 55, 56, 77,
84, 151, 321
한강지구방어전투 52
한교보안대 337
한석산 304
한신 271, 273, 274, 277, 278
한용택 380
함병선 93, 94, 95, 96, 97, 98, 238,
239
함준호 38, 39, 41, 42
항공사령부 363
해군병학교 177
해군참위 66, 177, 467
해군통제부 70, 215
해상봉쇄 463, 465
허봉익 114, 116, 117

현리전투 158, 284, 304, 305

형산강 134, 136, 273

혼비(魂飛)고지 467

홍순석 39, 193

홍재근 119, 121, 122, 123, 125,
127, 128

화랑무공훈장 117, 129, 358, 404,
438

화령장 56, 140, 254, 449

화살머리고지 290, 323, 331, 413,
414, 415

화이트 중장 408

화전리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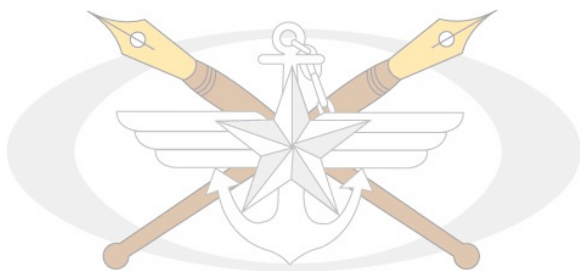
화천저수지 400, 402, 404

황옥 362

황헌친 281, 348

횡성전투 450

홍남철수작전 271



□ 저 자

손 규 석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감 수

김 행 복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양 영 조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남 정 옥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조 성 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 동 찬 (군사편찬연구소 연 구 원)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 전쟁 영웅

인쇄일 : 2003년 5월 2일

발행일 : 2003년 5월 10일

발행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행인 : 河 載 平

인쇄처 : 정문사문화주식회사
